

부산사료총서 30

국 역
朝鮮事務書
조선편사무서
(3)

국 역
김종학
김흥수
감 수
김동철
현명철
해 제
전성현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번역

김종학(서울대학교 교수)

김흥수(홍익대학교 교수)

감수

김동철(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현명철(전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해제

전성현(동아대학교 교수)

국역 조선사무서(3)

발행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051-888-5058)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편집·인쇄 (주)디자인제로(051-804-5888)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76-10
ISBN 979-11-85308-50-0
978-89-964675-0-2 (세트)

원문공개 부산광역시(www.busan.go.kr) >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www.bssisa.com)

표지에 사용된 지도
조선 해도 부산항 일부(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부산사료총서 30

국 역
朝鮮事務書
조선사무서
(3)

국 역
김종학
김흥수

감 수
김동철
현명철

해 제
전성현

· 발간사

부산시는 시사편찬 사업을 통해 부산의 역사 관련 다양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1989년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면서 지금까지, 총 20여 종, 130여 권이 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부산은 구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부산의 역사를 한 권의 책자에 담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리즈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근대 부산 관련 사료를 국역하는 부산사료총서입니다.

부산사료총서는 1963년 제1권 『동래부사례』를 시작으로 관서지와 공문서 등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역을 완료한 것은 『내부일기』, 『다대진공문일록』, 『영남진지』, 『내영정적』, 『내영지』, 『추호유고』, 『왜인구청등록』, 『전객사별등록』, 『통신사등록』 등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조선시대 왜관·통신사 관련 사료를 국역하여 조선시대 대일교섭의 창구 부산의 위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번역할 사료는 『조선사무서』입니다. 『조선사무서』는 개항기 전후 부산의 왜관 관원 등이 작성한 한일 간의 외교 문서를 ‘재부산일본영사관’이 정리한 문서입니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에 의거하여 부산에 일본 총영사관이 설립되자, 조일외교 문헌정리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867년부터 1874년까지 외교 문서를 수집하여 연월별로 정리한 뒤 29권 문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사무서』의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개항 전 부산항에서 이루어진 한일 외교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번역자와 감수자, 그리고 해제 집필자 선생님과 시사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간행으로 근대 개항 이전 부산항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 목 차

▪ 발간사 · 04

▪ 해 제 · 18

제 8 권

메이지^{明治} 4년(1871) 4월부터 5월까지

- 01 4월 2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한 40
- 02 같은 날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나가사키^{長崎}에서 내유^{內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해서 보내온 서한 44
- 03 이즈하라번^{嚴源藩}에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다시 도한^{渡韓}함을 통지하는 글 46
- 04 4월 3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으로부터, 저들이 외무성 관원을 거절하는 뜻의 응접서^{應接書}를 첨부하여 보내온 서신 46
- 05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저 나라에서 우리를 의심하는 정황을 외무경에게 아뢰는 글 52
- 06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미국함선에 구조된 조선인에 관해 외무경에게 아뢰는 글 55
- 07 4월 4일 안도 다로^{安藤太郎} 등이 나가사키^{長崎}에서 선편 때문에 도한^{渡韓}이 지연되었음을 전해온 서한 56
- 08 이즈하라번^{嚴源藩}으로부터, 미국과 한국 간에 사건이 생긴 틈을 이용해서 서한 가운데 저들이 기휘^{忌諱}하는 자구^{字句}를 개찬^{改撰}하여 심교^{尋交}를 도모할 것을 품의^{稟議}하는 글 57

- 09 4월 9일 안도 다로安藤太郎 등으로부터, 나가사키長崎에서 히로시마廣島
어선으로 출범出帆함을 알려온 서한 60
- 10 난바 아사키難波安積의 귀국 건을 평의評議하는 글 63
- 11 이즈하라번嚴源藩으로부터, 예전에 제출한 서한 개찬 건의 재결裁決을
재촉하는 글 63
- 12 4월 〇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히로세 도요키치廣瀬豊吉와 우라
세 사이스케浦瀬最助를 등용할 것을 이즈하라번嚴源藩에 지령한 글을 첨부
해서 보낸 서한 64
- 13 4월 13일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타이슈對州로부터, 요시오카 고키
吉岡弘毅 등에게 보내는 내유서內諭書を 어선[海土舟]으로 초량관草梁館에
송달했음을 알려온 서한 66
- 14 4월 14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66
- 15 4월 19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으로부터, 내유內諭에 따라 조치[調辦]
했지만 훈도訓導가 초량관草梁館에 오지 않은 것과 미국이 청국에 조회
한 일 등을 기록한 별지를 첨부하여 보내온 서한 69
- 첨부 미국이 청국에 조회한 일 등을 기록한 별지를 첨부해서 보내온 서신
훈도에게 미국 함대의 일을 알리기 위해 초량관草梁館에 올 것을 알리는 글
훈도가 병 때문에 초량관草梁館에 오기 어렵다고 답하는 글
훈도가 동래부사의 뜻을 받들어, 외무성 관원을 접대하는 것은 규정 외이므로 행
할 수 없음을 진술하는 글
- 16 외무성에서 품의한 바의 이즈하라번嚴源藩에서 제출한 서한 개찬의 건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지령 75
- 17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미국 함선의 일로 초량관司草梁館司에게 명
하는 글 76
- 18 이즈하라번청嚴源藩廳으로부터. 위와 같음. 76
- 19 4월 27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으로부터, 안도 다로安藤太郎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한국에 도착하여 내유內諭의 의미를 파악했음을 알
려온 서신 77

20	별차別差가 초량관草梁館에 와서 이양선[異船]을 소탕할 것임을 역관[舌官]과 관사館司에게 말한 글【2통】	78
21	미국 함선이 조선에서 남경인南京人을 통해 한 필담	80
22	외무성에서 이즈하라번嚴源藩에 보낸 서면書面의 재결을 변관弁官에게 재촉하는 글	82
23	4월 그믐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사표 수리와 건의를 위해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등의 상경을 바란다는 뜻을 알려온 서한	82
24	미국 함선의 일과 관련하여 별차가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에게 알려준 글	84
25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미국과 한국 관계에 관한 신문지 2통을 첨부하여 한지韓地에 주재한 외무성 관원에게 보고하는 글	85
26	5월 6일 안도 다로安藤太郎 등이 타이슈對州에서 복귀했음을 한국에 있는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고하는 글	93
27	5월 7일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94
28	외무경으로부터, 미국 함선의 일을 이용해서 한층 더 진력할 것을 소 시게마사宗重正에게 명하는 글	97
	첨부 미국 공사가 미국과 한국 관계에 관한 신문지를 첨부하여 외무경에게 올린 글 조선에서 보낸 서한의 번역	
29	조선 포전砲戰의 신보新報	105
30	같은 건. 상하이上海 신문지 발취	107
31	서무과에서 종자從者의 인솔과 관련하여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한	110
32	오사카부大坂府로부터,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낼 유지포油紙包는 오사카부大坂府의 이즈하라번저嚴源藩藩邸에 있는 자들에게 교부했음을 알려온 서한	111

33	5월 9일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등이 나가사키長崎에서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112
	첨부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제출한 미국과 한국 관련 신문	
34	5월 14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탐색서探索書 등을 첨부하여 보내온 서신	122
	첨부 미한전쟁米韓戰爭 탐색서(2통) 미국 함선의 일을 알리자 혼도와 별차가 답한 서한	
35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고바야시 다다시小林匡 등이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가역家役 사표의 재결과 관련하여 아뢰는 글	125
36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가역을 면하여 심교尋交를 도모하는 순서를 아뢰는 글	126
37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11등 출사出仕 배명서拜命書	129
38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11등 출사 사퇴서 및 사퇴 각하서【2통】	130
39	5월 23일 야나기와라柳原 대승이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131
	첨부 흠차대신欽差大臣 청국행淸國行 명단	
40	5월 24일 고바야시 다다시小林匡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내온 서한 ¹⁾	134
41	5월 26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보내온 서신	136
42	외무경이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등의 조선 파견과 관련하여 태정대신太政大臣과 왕복한 글【2통】	138
43	5월 29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140
44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다시 도한渡韓하는 것과 관련해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내릴 지령안指令案을 첨부한 원서願書	142

1) 목록상으로는 (41)과 (42)번 문서 사이에 “외무경이 소 시게마사의 가역 면직을 바란다는 뜻으로 상신한 글”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지만, 본문에는 누락돼 있다.

- 01 본성本省(외무성) 관원의 재한在韓 중 외국행 여비를 정칙定則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품의稟議 146
- 02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다테伊達 대장경 일행이 상하이에 도착했음을 외
무출사外務出仕에게 보고하는 글 147
- 03 6월 4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서 온 서한【2통】 147
- 첨부 다카세 하치로高瀬八郎가 제출한 미한사정米韓事情
스미나가 게조住永啟으로부터. 위와 같음.
같은 건의 신문
다케시마竹島 어업漁事 탐정서探偵書
- 04 출납사出納司로부터 조선행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고와리쇼小割書의 등본
을 제출하라는 뜻으로 보내온 글 155
- 05 6월 18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155
- 06 조선행 여비 지급에 관해 고와리쇼小割書의 등본을 첨부해서 대장성에
보낸 서한 157
- 07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나가사키長崎 도착을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고한 서한 157
- 08 7월 10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158
- 첨부 참의參議 이하 관원의 인사 결과
- 09 같은 날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가 타이슈對州에서 한지韓地에 표류한 우리
인민의 영수領受는 분란을 초래할 것임을 본성本省에 진술하는 글
..... 164
- 10 이즈하라현嚴源縣에 대·소참사大少參事를 선임選任해야 한다는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논의 167
- 11 이즈하라현嚴源縣에 대·소참사大少參事를 선임한 후 조선과 담판해야 한
다는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의견서 169

12	7월 20일 소 시게마사宗重正 및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도쿄 도착과 폐번廢藩의 제도개혁 등을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알리는 왕신往信	170
	첨부 관원 출척黜陟 인명서人名書 변관辨官 및 탄정대彈正臺를 폐지하는 명령서 폐번 칙서	
13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도한渡韓을 진정하는 글	179
14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소 시게마사宗重正를 외무성 대승大丞으로 임 명할 것을 청하는 의론	180
15	외무성 경·보卿輔가 소 시게마사宗重正를 대승으로 임명할 것을 청하는 품의稟議	181
16	소 시게마사宗重正를 도한시키는 원유原由의 개략	182
17	8월 3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185
	첨부 관원 전면轉免 인명서人名書	
18	8월 10일 소 시게마사宗重正 등이 도한하는 명령을 받았음을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알리는 서신	189
19	8월 11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저번에 소 시게마사宗重正가 동래· 부산 양사兩使에게 증정한 글을 훈도가 받았다는 것 등을 진술한 내신 來信	190
20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훈도가 서한을 수취했으니 소 시게마사宗重正 에 앞서 먼저 도한할 것을 청하는 글	191
	첨부 사가라 단조相良丹藏 및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가 훈도의 서한을 수취했다고 후루카 와 겐타古川源太 등에게 알리는 글(2통)	
21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기초起草한, 외무경이 대승에게 주는 위임장 안案	194
22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인의를 구하는 의견서	196
23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인의를 구하는 의견서 조목	199

24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인의를 구하는 의견서 대요	200
25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인의를 구하는 의견서 제7조 부전附箋	205
26	소종 대승 도한 여비 의안議案	206
27	소종 대승 도한 여비 의안議案을 정원正院에 올리는 상신서	209
28	판임관判任官이 조선에 종자從者를 인솔하고 가는 건을 대장성大藏省에 조회하는 글	209
29	대승의 도한 순서 평의	210
30	대승의 도한 순서에 관한 품의안稟議案	212
	첨부 동건同件 하나부사 검인	
31	대승의 도한 순서에 관한 내부 품의안	213
	첨부 동건同件 하나부사 검인	
32	외무경이 조선 예조에 보내는 서한 초안	216
33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가 일본 표민漂民을 조선에서 받아들인 것을 히로 쓰 히로노부廣津弘信에게 알린 내한來翰	217
34	7월 23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내신來信	219
	첨부 한인韓人이 얘기한 탐색서 일본 표민 문정기問情記	
35	8월 29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223
	첨부 전관轉官 지령서 외무성 직무분과職務分課	

- 01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공신公信을 보내는 등의 건을 외무성 출사出使에게 회답하는 글 232
- 02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소宗 대승이 도한渡韓하여 폐번廢藩 및 지사知事에서 면직된 것을 먼저 전파하고 저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의 응답을 품의하는 글을 첨부하여 담당 과에 보낸 서신 232
- 03 소宗 대승이 예조참판 및 동래·부산 양사兩使에게 보내는 서한 안을 첨부하여 정원正院에 상신하는 글 234
- 04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폐번의 제도개혁 등을 알리기 위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한 234
- 05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폐번의 제도개혁 등을 알리기 위해 동래·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서한 236
- 06 소宗 대승이 외무성 관원을 면접할 것을 청하기 위해 동래·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글 237
- 07 동래부사가 외무성 관원을 접하는 것은 규정 밖이라고 거절하는 내한來翰 238
- 08 부산첨사가 외무성 관원을 접하는 것은 규정 밖이라고 거절하는 내한來翰 239
- 09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외무성 관원을 접하는 것은 규정 밖이라고 거절하는 내한來翰 240
- 10 동래부사 내한來翰의 번역 241
- 11 부산첨사 내한來翰의 번역 242
- 12 훈도와 별차 내한來翰의 번역 242
- 13 소宗 대승이 도한 순서를 품의하는 글 243

14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견한사遣韓使에게 명령하는 글 및 일본 외무성 관원을 관접款接하지 않는 것의 의안議案을 첨부하여 결재를 바라는 글	246
	첨부 견한사에게 명령하는 글 조선에서 외무성 관원을 관접하지 않는 것의 의안	
15	조선과 담판하는 순서에 관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의안	251
16	9월 30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내는 서한	253
17	한인과의 담판에 관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의안	256
18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속히 발도發途하여 한지韓地에 갈 것을 청하는 글	257
19	야나기하라柳原 대승 이하가 연서連署하여 조선과 담판하는 순서를 의론하는 글	258
20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일본의 제도 개정을 조선에 알림에 단지 소宗 씨만의 사절로 해서는 정실情實을 관철할 수 없다는 등을 의론하는 글	260
21	와타나베 기요시渡邊清가 외무성 관원으로 이마리현伊万里縣을 겸하게 하여 교제의 일로一路는 외무성에서 관할하고 무역은 모두 이마리현伊万里縣에 맡기자는 건의	262
22	와타나베 기요시渡邊清의 건백은 한국 관련 일이 두 갈래로 나와 불가하다는 취지를 정원正院에 상신하는 글	263
23	조선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소 대승이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여 정원에 상신하는 글	264
	첨부 소宗 대승의 품의	
24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제도개혁을 알리는 수순에 관하여 품의하는 글	266
25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에서 소宗 대승이 제출한 대수사大修使 부사 난바 아사키難波安積의 진퇴 처분 서면을 첨부하여 품의	268
	첨부 소宗 대승의 품의	

- 26** 모리야마 시게루_{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_{廣津弘信}가 요시오카 고키_{吉岡弘毅}의 내신_{來信}을 회람시키는 글 269
- 첨부 10월 13일 요시오카 고키_{吉岡弘毅}로부터 소宗 대승의 제도개혁 통지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내신_{來信}
- 27** 난바 아사카_{難波安積}의 진퇴에 관한 모리야마 시게루_{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_{廣津弘信}의 의안 274
- 28** 난바 아사카_{難波安積} 진퇴에 관한 구달안_{口達案} 275
- 29** 모리야마 시게루_{森山茂} 등이 가이즈 시게타로_{海津茂太郎}가 제출한 조선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회람시키는 글 276
- 첨부 이즈하라_{巖原} 현청_{縣廳}에서 가이즈 시게타로_{海津茂太郎}에게 상경하여 한지_{韓地}의 실황을 소宗 대승에게 면진_{面陳}할 것을 명령하는 글
가이즈 시게타로_{海津茂太郎} 구진서_{口陳書}
한지_{韓地} 탐색서
- 30** 모리야마 시게루_{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_{廣津弘信}가 조선에 제도개혁 통지의 건을 속히 평결할 것을 청하는 글 282
- 31** 정원_{正院}에서 조선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서한 안을 산정_{刪定}함에 따라 신칙_{申飭}하는 글 283
- 32** 동건_{同伴}에 관한 모리야마 시게루_{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_{廣津弘信}의 의견서 284
- 33** 모리야마 시게루_{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_{廣津弘信}가 제도개혁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내유서_{內諭書}를 내릴 것 등을 청하는 의견서 285
- 34** 모리야마 시게루_{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_{廣津弘信}가 제도개혁 통지를 저들이 수용하지 않을 때는 쓰시마_{對州} 사민_{土民}을 거느리고 한지_{韓地}를 퇴거할 것 등을 품의하는 글 286
- 35** 모리야마 시게루_{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_{廣津弘信}가 도한할 기선을 빌릴 것 등을 청하는 글 288

36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제도개혁을 알리는 사신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 외 2명에게 관등을 하사할 것을 청하는 글	289
37	내사內史에서 조선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서한을 재정裁定한 내서來書	290
	첨부 소종 대승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글 소종 대승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글의 한역漢譯 소종 대승이 동래·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글 소종 대승이 동래·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글의 한역漢譯	
38	사가라 단조相良丹藏와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의 외무성 등용 건을 이마리현伊万里縣에 명령할 것을 상신하는 글	294
39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도한渡韓을 청원하는 글	295
40	사관史官에서 조선행 공금 관련 서면을 받았다는 증거서류	296
41	대장성大藏省에 조선행 여비 및 공금 수취 건을 조회하는 글	296
	첨부 모리야마 권대록權大錄 등의 여비 조사서 모리야마 권대록權大錄 등의 월급 조사서 모리야마 권대록權大錄 등의 수당 조사서 공금 조사서	
42	고바야시 다다시小林匡의 도한을 면하는 사령서辭令書	300
43	소종 대승의 도한을 면하는 사령서辭令書	300
44	대·소승大少丞이 사가라相良 외 1명에게 등용 사령서를 첨부하여 신칙하는 글	300
45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이 사가라 외 1명이 문제가 있는 경우 쓰시마[對州]에서 임시로 대신할 사람을 뽑을 것을 품의하는 글	301
46	경·보卿輔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사가라 외 1명이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대신할 사람을 뽑을 것을 명령하는 글	302

- 47 12월 일 한국 문제[韓事]를 결의한 다음 모리야마^{森山}와 히로쓰^{廣津}의 도한을 명할 것이므로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에게 협의할 것을 전하는 서신 302
- 48 경·보^{卿輔}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에게 진퇴 처분에 관해 내유^{內諭}하는 글 303
- 49 경·보^{卿輔}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에게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와 신중하게 참작하여 판단하라고 지령하는 글 ... 304
- 50 나가사키현^{長崎縣}에 모리야마^{森山}·히로쓰^{廣津}의 도한에 따른 편선^{便船} 등을 준비할 것을 의뢰하는 글 304
- 51 이마리현^{伊万里縣}에 모리야마^{森山}·히로쓰^{廣津}의 도한에 따른 편선^{便船} 등을 준비할 것을 의뢰하는 글 305
- 52 모리야마^{森山} 권대록 등 도한 관련 공금을 전용^{轉用}하여 수취하는 의안 議案 305
- 53 소^宗 대승이 초량관^{草梁館}에 근무하는 자에게 유시^{諭示}하는 글 306

■ 찾아보기 • 308

원문

조선사무서(3)

- 조선사무서 제8권 • 4
- 조선사무서 제9권 • 160
- 조선사무서 제10권 • 280

국역조선사무서 III

조선사무서는 1867년 메이지유신 직전·후부터 개항을 앞둔 1874년까지 조선과 관계된 외교 문서를 개항 이후 ‘재부산일본총영사관’이 정리한 문서이다. 시기적으로는 바쿠후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 조선과의 새로운 관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 외교 관계가 진행되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1874년까지이다. 문서의 구성은 조선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초량왜관을 둘러싸고 그때까지 조일 관계의 일본 측 파트너였던 쓰시마, 메이지유신 이후 조일 관계를 직접 전개하고자 한 일본 외무성 및 정부, 그리고 조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조선 측 관료들이 작성하거나 상호 간에 주고받은 외교 문서로 연원별 2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국역조선사무서 I~II의 간략한 내용

국역조선사무서 I 은 1867년부터 1870년 7월까지 조선 관련 외교 문서 1~4권을 묶어 놓았다. 이들 외교 문서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에 의한 왕정복고를 조선에 알리는 과정에 관한 문서, 조선의 서계 접수 거부를 둘러싼 조일 간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그리고 이에 대한 외무성 사절의 파견과 일본 정부의 대응책을 담고 있는 문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구 열강에 의한 동아시아의 개항과 새로

운 외교통상조약 체결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조일 간 외교무역체제를 둘러싸고 ‘구교舊交’와 ‘신교新交’가 부딪히는 경계 시점의 세 가지 흐름이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막말 이후 서구 열강과의 외교통상조약에 따라 조선과의 교제도 대마도를 매개로 한 구교를 혁파하고 외국과의 조약 체결처럼 직접 전개하고자 하는 메이지정부(외무성)의 뚜렷한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의 내부적 요인이기도 한 서구 열강에 의한 개항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고 조선과의 교제 단절 위기를 역으로 기회 삼아 새로운 교제를 앞장서 전개함으로써 일본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쓰시마의 원조 요구 운동이라는 지속적인 흐름도 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일본 측의 흐름 속에서 구교를 토대로 한 주체적 관점에서 쓰시마와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조선의 모습이 서로 얹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역조선사무서 Ⅱ는 조선 관련 외교 문서 5~7권을 묶어 놓았는데, 1870년 8월부터 1871년 3월 신미양요 직전까지 일본 외무성 관원의 조선 파견과 그 와중에 전개된 신미양요 직전 일본의 대응을 보여주는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한 ‘대정봉환大政奉還’과 ‘왕정복고王政復古’에 따라 조선과의 구교를 혁파하고 새로운 조약을 통한 교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외교 관계를 단번에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쓰시마를 통한 구교의 형식을 빌려 신교의 조약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른바, 왕정복고의 서계를 통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일본의 ‘친정親征’을 알리는 서계에 기휘忌諱하는 자구 문제로 그 봉출을 계속해서 미뤘다. 일본 정부는 한시적으로 쓰시마를 통한 교제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서 있을 수 없었다. 외무성을 통해 직접 교섭에 나서기 시작했다. 1870년 초 외무성 관원의 1차 조선 파견을 통해 조선 정부로부터 서계 봉출이 안 되는 원인과 그 입장을 조사한 조선 내담서를 작성했다. 대체적인

내용은 구례의 조선 교제가 대마도의 ‘사교’이기에 폐지하고 정부의 직접 교제와 무역을 위한 약조 체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더불어 외무성 파견 관원은 군대와 함께 황사를 파견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이른바 ‘황사파견론’을 제기했다.

외무성은 일본 정부에 곧바로 황사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 탐색이 필요했다. 외무성 관원의 2차 파견이 뒤이어 진행되었다. 국역조선사무서 Ⅱ는 외무성 관원의 2차 조선 파견과 관련된 외교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2. 국역조선사무서 Ⅲ의 내용

1) 조선사무서 8권과 신미양요

국역조선사무서 Ⅲ은 조선사무서 8~10권을 묶은 것으로, 신미양요와 그 이후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된 외교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선사무서 8권은 1871년 4월부터 5월까지 주로 외무성 등 일본 정부, 초량왜관에 도향한 외무성 파견 관원, 그리고 이즈하라 번 소속 인사들의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조선과의 새로운 교제 사무를 위해 파견된 외무성 관원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서신 가운데는 첨부 문서로 신미양요와 관련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 직전 문서를 모은 조선사무서 7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일본의 조선과 교제, 즉 새로운 근대적 외교 관계新交로의 전환이 서계 문제 때문에 답보 상태에 봉착해 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함대의 조선 출항과 그에 따라 전개된 신미양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미양요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이 미국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종 신문 자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신미양요와 관련해 조선 측 대응은 초량왜관에서 별차를 통해 일부 확인되는 정탐 보고에 그친다. 일본 측이 미국 함대에 일본 측 관료를 파견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정보를 토대로 신미양요를 이해

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편적이지만 조선 측의 주장과 비교하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이들 외교 문서 속에 첨부된 정보 보고를 통해 미국 측 주장을 확인해 보자. 미국은 군함의 조선 파견 전에 미리 중국(청)을 통해 조선에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해달라고 조회했다. 요구는 다음과 같이 이전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난파선’ 및 석탄, 식수 등 부족에 대한 구조, 구호 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상선이 풍랑을 만나서 작년 조선국에 표류하여 정박하게 되었는데, 매우 가혹한 처분을 받아서 곤란했다. 근래는 만국의 항해술이 날마다 번성하니 앞으로 난파선 또는 석탄·식수가 부족해서 기항해야 할 때는, 천지天地 사이에 일기一氣를 공유하는 인류이니 그에 마땅한 무휼撫恤과 애련哀憐을 바탕으로 다뤄주도록 속국屬國인 조선에 유달해주길 바란다.²

하지만 이는 핑계였다. 이미 조선사무서 7권에서 제시된 것처럼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통상 요구를 압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난파선 구호 등은 부수적이었다. 더불어 이를 조선이 거부할 경우 전투도 불사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함대를 특별히 파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이양선의 정박이 단순한 ‘난파’나 원료, 식수의 부족으로 인한 기항이 아니라 통상 요구이며 침략임을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사건을 예로 들어 단호하게 거부했다. 설령, 미국의 요구를 중국(청)이 ‘명한다’ 해도 ‘추한 오랑캐와 화친하는 일은’ 결단코 실행하기 어렵다고 중국 측에 회신했다.

² (15) 4월 19일 요시오카 고키 등으로부터, 내유(內諭)에 따라 조처[調辦]했지만 훈도(訓導)가 초랑관에 오지 않은 것과 미국이 청국에 조회한 일 등을 기록한 별지를 첨부하여 보내온 서한 [첨부 1] 미국이 청국에 조회한 일 등을 기록한 별지를 첨부해서 보내온 서신

몇 해 전 추한 오랑캐[醜夷]가 강화부를 내습來襲하고 왕릉을 파헤쳐 영골靈骨을 탈취한 악행은 신자臣子의 분수로 볼 때 불구대천의 원수이니, 조선의 인민이 존재하는 한 선왕의 고령高靈에 봉답奉答해서 대대로 지키며 반드시 죽는 것이 온 나라의 각오이니, 설령 대국의 명이라고 해도 추한 오랑캐와 화친하는 일은 결단코 행하기 어렵다. 억지로 포만暴慢하게 끌어모은 군함들이 우리에게 향한다면, 미약한 나라지만 국력을 다하여 도도를 보존하고 의義를 지킬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와 함께 죽어서 선왕에게 해명하고자 한다.³

결국, 미국은 조선과의 전쟁을 예견하며 함대를 보냈고, 미국 함대는 수원과 강화도 사이에 정박해 통상 요구를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조선 측 관인이 와서 그 사정을 확인했다.⁴ 미국 함대는 조선 측 관인이 국왕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또는 제독과 면회할 수 없다고 국왕의 대리인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조선과 ‘우호를 통하기 위해서’니 조선 측이 사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결코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우선 강의 수심을 측량하고 그 후 왕성으로 가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 측 관헌이 일단 안심하며 수심 측량은 ‘무방’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른 날 또 다른 조선인 관헌이 와서 제독의 함선을 둘러봤다. 미국 측은 재차 측량과 관련해 물어봤는데, ‘또한 무방하다’고 조선 측 관헌이 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측은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실제 측량을 위해 강화도를 거쳐 올라갔다. 때마침 강화도의 포대와 성안에 화승총을 휴대한 병졸 2,000명 정도가 있었으나 이미 측량은 무방하다고 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올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포성이 울리며 조선 측이 공격해, 미국 측은 대응 포격을 하며 저항했고 곧바로 물러났다. 이 전말은 워싱턴에 보고되었고 미국 함대는 명령을 기다렸다. 미국 측이

³ 앞의 자료

⁴ (25) 나가사키현에서 미국과 한국 관계에 관한 신문지 2통을 첨부하여 한지(韓地)에 주재한 외무성 관원에게 보고하는 글

주장하는 신미양요의 시작은 이와 같았다.⁵

며칠 뒤 조선 측이 식량을 싣고 와서 화친을 맺고자 했으나 미국 측은 거절하고 전투에 임했다. 미국 함대는 본국의 전투 개시 명령에 따라 해군의 포격과 육군의 강화도 진군을 토대로 신미양요를 일으켰다.⁶ 이상이 미국 측이 주장하는 신미양요의 전말이다. 이와 같은 미국 측의 주장이 각종 신문 자료로 조선사무서 9권에 첨부로 제시되고 있었다.

반면, 조선 측 주장은 이와 달랐다. 조선사무서 9권에서 조선 측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래부의 별차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일본 측에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외무성 관원이 탐문한 정보의 일부인데, 미국 측 정보와 비교하면 대단히 소략하다. 하지만 미국 측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용은 일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수원과 강화도 사이에 이양선 5척이 정박했고, 이후 10척이 더해져 총 15척이 정박했다. 이들 중 일부가 보트를 타고 상륙하려고 하자, 활과 총으로 쫓아내 끝내 상륙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그곳에서 모두 물러났다는 정보를 별차가 일본 측에 제공했다.⁷ 그런데 이와 함께 문정의 내용도 제시했다. 문정의 내용이 미국 함대에 승선해 있던 남경인南京人과의 필담이었는데, 미국 측과 사뭇 달랐다.

이에 의하면, 미국 측은 통신 교역과 화친을 희망하며 조선의 대신과 면접해 담판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 측은 대신과의 면담은 극히 어려우나 이 사실은 대신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미국 측은 만약 교역과 화친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질없이 물러갈 수 없다. ‘부득이하면 무기를 준비한다’

⁵ (28) 외무경으로부터, 미국 함선의 일을 이용해서 한층 더 진력할 것을 소 시게마사에게 명하는 글 [첨부1] 미국 공사가 미국과 한국 관계에 관한 신문지를 첨부하여 외무경에게 올린 글

⁶ (29) 조선 포전(砲戰)의 신보(新報); (30) 같은 건. 상하이 신문지 발췌; (33) 5월 9일 히로쓰 히로노부 등이 나가사키에서 요시오카 고키 등에게 보낸 서신 [첨부] 나가사키현에서 제출한 미한(米韓) 관련 신문

⁷ (20) 별차(別差)가 초량관에 와서 이양선[異船]을 소탕할 것임을 역관[舌官]과 관사(館司)에게 말한 글 【2통】

고 했다. 이에 조선 측은 ‘지금 간접^{懇接}하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에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고 ‘이일 저일로 시일을 허비하며 병단^{兵端}을 열려고 하면,’ 겹하여 ‘준비한다’고 강조했다.

이상 별차의 보고를 통해 볼 때, 조선 측은 미국 측 주장과 달리 처음부터 미국과 교섭은 불가능하며 만약 시일을 허비하며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던 것이다.⁸ 그렇기에 미국 측의 주장처럼 측량이 무방하다고 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측량을 위해 강화도로부터 한강을 거슬러 오는 것을 미국 측이 병단을 여는 것으로 여기고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사무서 9권에 제시된 신미양요를 둘러싼 미국의 입장은 특히 조선 측의 입장을 모두 확인해야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일본 측은 미국 측의 정보만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연하게도 조선과 외교 관계가 봉착된 상황을 외무성 파견 관원을 통해 돌파해보고자 하는 일본 외무성의 다음과 같은 명령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귀국과 수백 년의 교제도 있고, 또 풍속과 문자도 같으며 경토^{境土}가 서로 바라보일 정도로 가깝다. 그러므로 이번 정령일신^{政令一新}에 관해선, 더욱 교의^{交誼}를 도탑게 하고 양국이 형제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서로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호^{情好}가 친밀해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조정의 인교^{隣交}의 성의^{誠意}를 귀국에 관철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모쪼록 바다를 건너간 뒤엔 동래·부산 두 사도를 면회해서 인교^{隣交}의 성의^{誠意}를 진술해서 속히 양국의 구호^{舊好}를 잇도록 하라.⁹

⁸ (21) 미국 함선이 조선에서 남경인(南京人)을 통해 한 필담

⁹ (4) 4월 3일 요시오카 고키 등으로부터, 저들이 외무성 관원을 거절하는 뜻의 응접서(應接書)를 첨부하여 보내온 서신

당시 조선 측은 일본 측의 ‘구교’ 형식의 대수사를 통한 왕정복고 통고서계를 기획 문제로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외무성이 직접 교섭에 나서기 전 상황 파악을 위해 관원을 1차 파견했고 다시 2차 파견한 상태였다. 조선과 직접 교섭을 위해 파견되어 초량왜관에 온 외무성 관원은 조선과 교섭을 위해 초량왜관 관사官司 및 일대관一代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산진과 동래부에 통지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예격론例格論을 고수’하며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대체로 300년 동안 교린交隣한 이래로 의리義理가 별과 태양처럼 환하고 성신誠信이 금석金石보다 무거워서, 일동일정一動一靜을 반드시 항규恒規(일정한 규칙)를 준수했으니. 비록 이를 어기고자 해도 어찌 기꺼이 따르겠는가? (중략) 대수사大修使가 서계書契 건으로 4년이 지나도록 아직 복명復命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교섭酬酢한다고 한다. 그 공무의 사체事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실정에 차마 순순히 받지 못하는 사유는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 정의情意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규칙에 없는 담론으로 어찌 공무의 사단을 야기하는 것인가? 이 때문에 개탄하는 바이다.

모든 교린사무를 그쪽 섬嶼[쓰시마]에서 주관하고 왕복한 것도, 본래 귀국 조정이 약조하여 정식正式이 된 일이다. 양국이 이를 준행한 지 이미 300년이나 되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갑자기 규칙에 없는 일로 이처럼 번거롭게 하니 그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 공 등이 성사될 수 없는 공무를, 규칙에서 벗어난 담론을 내세워 오래 요구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성사될 도리가 있겠는가? 참으로 선린호의善隣好誼를 바란다면 오직 구례舊例에 따라 속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옳다. 일 처리가 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¹⁰

¹⁰ (15) 4월 19일 요시오카 고키 등으로부터, 내유(內諭)에 따라 조처[調辦]했지만 훈도(訓導)가 초량관에 오지 않은 것과 미국이 청국에 조회한 일 등을 기록한 별지를 첨부하여 보내온 서한 [첨부4] 훈도가 동래부사의 뜻을 받들어, 외무성 관원을 접대하는 것은 규정 외이므로 행할 수 없음을 진술하는 글

즉, 조선과 직접 교제를 위해 파견된 외무성 관원이 부산진첨사 또는 동래부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달라는 요청에 대해 조선 측은 대수사가 서계 건으로 4년이 지나도록 아직 복명하지 못해 다시 외무성 파견 관원으로 교섭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사무는 일본 측이 약조하여 정식이 되었고, 쓰시마를 통해 300년 동안 진행한 오랜 규칙이니 이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즈음 외무성은 조선 교제 사무에 신미양요를 이용하도록 파견 관원에게 명령했다. 조선과 미국이 교전에 이르면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조선은 사정私情이고 미국은 공의公誼이니, 하나는 원조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하나는 도와야 하는 이치’라며 ‘불시의 대변을 좋은 기회로 바꾸어, 그 사이에 오히려 우리의 교제가 성숙한 시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¹¹ 따라서 외무성 파견 관원은 조선 교제의 봉착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다시 외무성으로부터 오는 미국 함대의 조선 출항과 신미양요에 대한 정보를 이용했다.¹²

이에 따라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은 본국으로부터 온 미국 군함이 조선에 도래한 시말을 서둘러 훈도에게 알리고자 초량왜관에서 대면을 요청했다. 하지만 훈도는 병을 이유로 답서만을 보낸 후 오지 않았다.¹³ 이후 별차가 초량왜관에 오자 미국 함대가 건너오는 시말을 알려주고 전화위복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기’까지 했다.¹⁴ 이에 별차는 앞에서 언급한 이양선의 동정과 함께 이들을 소탕할 것이라고 역관과 관사에게 전했다.¹⁵ 물론,

¹¹ (2) 같은 날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나가사키에서 내유(內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해서 보내온 서한

¹² 이즈하라 번, 즉 쓰시마에도 외무성에서 미국 함선의 일을 이용해 교착 상태의 조선 교제 교섭에 진력할 것을 명령했다((28) 외무경으로부터, 미국 함선의 일을 이용해서 한층 더 진력할 것을 소 시게마사에게 명하는 글). 이에 따라 이즈하라 번청에서 초량왜관 관사에게 이 건의 사유를 훈도와 별차에게 고유하여 동래부에 보고하도록 했다((18) 이즈하라 번청(藩廳)으로부터. 위와 같음).

¹³ (15) 4월 19일 요시오카 고키 등으로부터, 내유(內諭)에 따라 조처[調辦]했지만 훈도(訓導)가 초량관에 오지 않은 것과 미국이 청국에 조화한 일 등을 기록한 별지를 첨부하여 보내온 서한

¹⁴ (19) 4월 27일 요시오카 고키 등으로부터, 안도 다로와 히로쓰 히로노부가 한국에 도착하여 내유(內諭)의 의미를 파악했음을 알린 서신

¹⁵ (20) 별차(別差)가 초량관에 와서 이양선[異船]을 소탕할 것임을 역관[舌官]과 관사(館司)에게 말한 글【2통】;
(24) 미국 함선의 일과 관련하여 별차가 우라세 사이스케에게 알려준 글

별도로 미국 함선의 조선 출항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교린의 후의에서 나온 것’으로 크게 감사하다는 훈도와 별차의 서한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상황으로는 한마디의 약속을 수용할 전망도 없’을 정도로¹⁶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번에 미국이 조선과 병단兵端을 연 것과 관련하여, 우리 황국皇國의 처분을 두고 이곳에서 갖가지 의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무성에서 출사出使한 무리를 차례로 철수시켜서 그 부담을 놓고 재앙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기회를 틈타 이즈하라 지사를 한지韓地에 보내서 간곡히 충고하여 결국 우리 교제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성本省(외무성)에서 별도로 대승大丞이나 권대승權大丞 가운데 인망人望과 재지才智를 겸비한 자를 보내서, 타이슈를 고무하여 기회를 보아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¹⁷

이때 일본 정부에서는 신미양요와 관련해 여러 의논이 비등하고 있었다. 대체적인 방안은 첫째,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을 철수시키는 것. 둘째 이즈하라 지사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 셋째 별도의 외무성 고위 관료를 파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외무성과 일본 정부는 일단 이즈하라 번과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을 계속 활용하는 쪽이었다. 즉, 외무성 관원이 쓰시마의 인망을 얻어서 협심동력으로 기회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은 줄곧 주장한 내용의 결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즉, 조선 교제를 ‘구교’의 형식으로 ‘신교’로 전환하고자 했기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다. 또한 이를 외무성 주관의 파견 관원으로 조선과 교섭하려고 해도 조선은 구교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점이 최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전히 남아 있던 쓰시마의 가역 면직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성공의

¹⁶ (34) 5월 14일 요시오카 고키 등이 탐색서(探索書) 등을 첨부하여 보내온 서신

¹⁷ (27) 5월 7일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가 요시오케 고키 등에게 보낸 서신

전망이 어렵다고 이에 대한 결정을 거듭 요청했다.¹⁸ 그 과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一. 심교尋交를 성숙成熟시킨다는 목적은, 소 씨宗氏 가역家役의 명의名義를 폐지시키고, 외국 교제는 모두 외무성의 관할이라는 것이 일정한 규칙임을 깊이 알고 믿게 하는 데[信知] 달려 있음.
- 一. 가역을 면제한 후, 이즈하라 번사藩士를 통해 이를 한인에게 포고하고, 교제를 외무관원의 관할로 하는 절차, 그리고 번사 중 일부를 외무관원으로 선임해서 저들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방법 등은, 가역 면직의 결정이 난 뒤에 다시 깊이 도모해야 함.
- 一. 이즈하라 번사를 통해 한인의 의심을 설파說破하고 조정의 성의誠意에 승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쓰시마와 한국 간 유사有司(담당 관리)의 사정私情을 절단하는데 있으며, 그 사정私情을 절단하는 것은 제1조에서 아뢴 것처럼 소 씨의 가역을 면제하는 데 달려 있음. 가역을 면제한 뒤에는, 소 씨 세견선歲遣船과 공사무역公私貿易 등을 뒤따라 없애서 한지韓地의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결정해야 하니, 이러한 실정을 자세히 진술하지 않을 수 없음.¹⁹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은 조선과의 직접 교제 교섭을 위해서는 우선 구교의 형식을 가능케 하는 쓰시마의 가역을 폐지하고 이어서 그 가역의 이유인 세견선과 공사무역 등을 뒤따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세견선 및 공사무역에 의한 소득 1만석 남짓의 해당 분량을 번에 하사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쓰시마의 이즈하라 번이 개혁을 토대로 조일무역에 기대지

¹⁸ (4) 4월 3일 요시오가 고키 등으로부터, 저들이 외무성 관원을 거절하는 뜻의 응접서(應接書)를 첨부하여 보내온 서신; (23) 4월 그믐일 요시오가 고키 등이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사표 수리와 건의를 위해 히로쓰 히로노부 등의 상경을 바란다는 뜻을 알려온 서한; (35) 히로쓰 히로노부, 고바야시 다다시(小林匡) 등이 소 시게마사의 가역(家役) 사표의 재결과 관련하여 아뢰는 글

¹⁹ (36) 히로쓰 히로노부가 소 시게마사의 가역을 면하여 심교(尋交)를 도모하는 순서를 아뢰는 글

않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던 점도 고려된 것 같다. 이어서 다시 이즈하라 번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조선에 포고케 하고 조선 교제를 외무관원의 관할로 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이다.

반면 쓰시마의 이즈하라 번은 한편으로 스스로 가역의 면제를 청원했다. 다만 그건 번의 자립 방편이며 현실적인 번의 재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조일 교제의 교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⁰ 그래서 이즈하라 번은 외무성 관원의 조선 파견을 조선 측이 ‘뜻밖의 일’로 경악해하며 간절히 원하는 자구의 성사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중에 또한 직접 담판하게 된다면 대수사론이 재발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²¹ 이는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과 훈도와의 만남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따라서 이즈하라 번은 다음과 같이 조선이 기휘하는 자구의 개찬을 통해 심교를 도모하도록 일본 조정에 지속적으로 품의했다.²²

예전에 대정유신大政維新의 전말을 대수사를 통해 통지했으니 황조의 성의盛意를 한국의 입장에서 받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계書契 상의 한두 자구가 저들이 기휘忌諱하는 바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많은 변론을 소비하며 세월을 천연遷延하여 사절이 복명復命할 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관원이 바다를 건너가 황조의 성의를 진술하여 정호친밀情好親密의 교제에 이르고자 누차 한인의 접대를 상의했지만, 저들은 구전舊典을 고수하여 그 마음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관원이 그 진정眞情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략)

따라서 대수사의 일은, 표면상 소 씨만 파견해야 하는 사리이니, 서계를 개찬改撰

²⁰ 이즈하라 번이 오히려 사무역 폐지가 아니라 확대하고자 초량왜관에 물화상회라는 사무소를 신축했다고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은 보고하고 있다((41) 5월 26일 요시오카 고키 등이 보내온 서신).

²¹ (5)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저 나라에서 우리를 의심하는 정황을 외무경에게 아뢰는 글

²² (10) 난바 아사카(難波安積)의 귀국 건을 평의(評議)하는 글 ; (11) 이즈하라번으로부터, 예전에 제출한 서한 개찬 건의 재결(裁決)을 재촉하는 글 ;

해서 기휘하는 자구를 삭제하고 평온하게 승낙할 수 있는 문체文體로 신정新政 통보의 교섭을 매듭짓는다면 옛 우호를 연면히 잇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양外洋 각국에 대해서도 명의名義가 바르게 되어 앞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강화講和를 다룰 때도 충분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인韓人에게도 대수사 서계의 개찬은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 공무가 순편順便하게 해결될 때 사절의 엄체淹滯와 미국 관계의 염려도 없을 것이니, 그때 이르러 종전의 여러 의혹이 하루아침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로부터 스스로 황조에 의뢰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니, 일거양리一舉兩利의 조처라고 생각합니다.²³

즉, 대수사 서계의 문제는 이즈하라 번의 일이니, 이즈하라 번을 통해 일단 조선 측에서 기휘하는 자구를 개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체로 신정 통보의 교섭을 매듭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상의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의 이즈하라 번 가역 면제의 건과 이즈하라 번의 서계 개찬의 건은 모두 외무성에서 일단 거부되었다.²⁴ 대신 양측이 협심해 조선 교제의 교섭을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점차 외무성도 외무성으로 일원화된 조선 교제 교섭을 추구했다. 결국,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의 청원과 같이 이즈하라 번이 청원한 가역 사퇴의 건이 처리되었고, 번지사가 직접 도한해 양국 교제의 취의를 관철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²⁵ 다음은 그 지령안이다.

²³ (8) 이즈하라번으로부터, 미국과 한국 간에 사건이 생긴 틈을 이용해서 서한 가운데 저들이 기휘(忌諱)하는 자구(字句)를 개찬(改撰)하여 심교(尋交)를 도모할 것을 품의(稟議)하는 글

²⁴ (16) 외무성에서 품의한 바의 이즈하라번에서 제출한 서한 개찬의 건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지령

²⁵ (44) 히로쓰 히로노부가 다시 도한(渡韓)하는 것과 관련해 요시오카 고키 등에게 내릴 지령안(指令案)을 첨부한 원서(願書)

지령안(御書附案)

지난번 조선국 사무 취급을 면제해줄 것을 아뢰는 청원서에 관해 상세히 묘의(廟議)를 다한 결과 타당한 일이므로 그대로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외무성에서 취급할 것이니 그 사이에 지사(知事)는 도한(渡韓)한 후 외무성에서 출장 나간 관원들과 함께 잘 이야기해서 장래 양국 교제의 취의(趣意)를 관철하며, 한인(韓人)에게도 말해서 지금까지 취급해 온 사무를 외무성 관원에게 인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세견선과 그 밖의 잘못된 관례(謬例) 일체를 중단하고, 또한 그 번(藩)에는 생각하지는 조처(措置)도 있을 것임>²⁶

2) 조선사무서 9권과 소 시게마사의 도한 명령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 교제 사무의 일원화를 꾀하는 외무성의 명령이 쓰시마의 이즈하라 번지사 소 시게마사에게 내려져 도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마침 폐번치현의 개혁이 진행되고 관직도 대폭 개혁되었다. 이때 외무경도 교체되고 이즈하라 번지사도 면직되었다.²⁷ 따라서 외무성의 명령인 쓰시마의 이즈하라번 가역의 면제와 이즈하라 번지사의 도한을 통한 조선 교제 사무도 좌초되는 듯했다.

하지만 소 시게마사와 도쿄로 상경 중이던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이 다시 이와쿠라 외무경과 데라시미 외무대보에게 소 시게마사의 도한 의견을 건의해 결국, 소 시게마사는 외무대승으로 임명되고 소 시게마사와 수행 관원이 도한할 수 있게 되었다.²⁸ 마침 외무성 관원이 조선에 파견되어 소 시게마사가 동래, 부산의 양사에게 외무관원 면담을 촉구하는 규정 외의 별한을 가지고 갔다. 그동안 일본 측의

²⁶ (42) 외무경이 히로쓰 히로노부 등의 조선 파견과 관련하여 태정대신(太政大臣)과 왕복한 글【2통】

²⁷ (12) 7월 20일 소 시게마사(宗重正) 및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도쿄 도착과 폐번(廢藩)의 제도개혁 등을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알리는 왕신(往信)

²⁸ (13) 히로쓰 히로노부가 소 시게마사의 도한(渡韓)을 진정하는 글 ; (14) 히로쓰 히로노부가 소 시게마사를 외무성 대승(大丞)으로 임명할 것을 청하는 의문 ; (15) 외무성 경보(卿輔)가 소 시게마사를 대승으로 임명할 것을 청하는 품의(稟議) ; (16) 소 시게마사를 도한시키는 원유(原由)의 개략 ; (18) 8월 10일 소 시게마사 등이 도한하는 명령을 받았음을 요시오카 고키 등에게 알리는 서신

서한을 봉출하지 않던 조선 측이 훈도를 통해 이 별한은 봉출해갔다. 물론 동래 부사, 부산첨사, 그리고 훈도와 별차의 답신서는 모두 외무성 관원을 접하는 것은 규정 밖이라고 거절하는 내용이었다.²⁹ 하지만 그간 초량왜관으로의 출판도 동래, 부산의 양사와 면담도 거절하며 어떠한 서한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강요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 것과는 변화된 모습이었다. 일본 측은 이를 서울에 내밀 히 계문啓聞하여 내밀한 지휘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향후 자연스럽게 관원의 접대를 승낙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여겼다.³⁰ 소 시게마사 등의 도한이 서둘러졌다. 소 외무대승에게 다음과 같은 위임장이 하달되었다.

종전에 조선과의 교제를 네가 가직家職으로 한 것을 면하고, 네가 매년 보낸 배를 폐지하고, 다시 너를 외무대승으로 임명하여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글을 가지고 저 나라에 건너가서 예조참판을 면담하고, 자세히 본방이 일신한 유래를 고지하여 피아 彼我의 인의隣誼가 깊고, 경계가 가까우니 모름지기 구교를 이어 신맹新盟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를 진술해야 한다. 또 지금 해외의 모든 나라는 별처럼 많이 펼쳐져 있고 바둑돌처럼 점점이 흩어져 있으며, 문문을 닦고 무예를 강습하는 것은 실로 옛날과 비교할 수 없다. 진실로 국토·인민을 (지킬) 책임이 있는 자는 심모원려深謀遠慮하지 않을 수 없는 때이라는 것임과 피아 양국은 원래부터 순치脣齒의 관계라서 존망이 서로 상관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국이 동맹하여 더욱 견고한 마음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좋은 계책을 상량商量할 것을 명한다.³¹

²⁹ 조선 측 답신서도 조선사무서 제10권에 들어 있는데, 이는 시간 순에 따른 정리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7) 동래부사가 외무성 관원을 접하는 것은 규정 밖이라고 거절하는 내한(來翰); (8) 부산첨사가 외무성 관원을 접하는 것은 규정 밖이라고 거절하는 내한(來翰); (9)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외무성 관원을 접하는 것은 규정 밖이라고 거절하는 내한(來翰); (10) 동래부사 내한(來翰)의 번역; (11) 부산첨사 내한(來翰)의 번역; (12) 훈도와 별차 내한(來翰)의 번역).

³⁰ (19) 8월 11일 요시오카 고키 등이 저번에 소 시게마사가 동래·부산 양사(兩使)에게 증정한 글을 훈도가 받았다는 것 등을 진술한 내신(來信); (20) 히로쓰 히로노부가, 훈도가 서한을 수취했으니 소 시게마사에 앞서 먼저 도한할 것을 청하는 글

³¹ (21) 히로쓰 히로노부가 기초(起草)한, 외무경이 대승에게 주는 위임장 안(案)

즉, 종전 조선 교제의 가치를 면하고 세견선도 폐지한다. 대신 외무대승으로 임명하니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글을 가지고 도한해 예조참판과 면담하여 양국의 동맹을 돈독히 할 것을 명령했다. 도항의 수순은 다음과 같다.

- 一. 대승大丞에게 위임장委任狀을 줄 것.
 - 一. 대승이 도한하여 예조참판과 면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지연되어 시간을 소비하는 형세라면 동래·부산 양사兩使를 만나 의논할 생각임.
 - 一. 쓰시마[對州]는 순로順路일 경우 그곳에서 날씨를 보고 정하지 않으면 도한할 수 없으므로 나가사키에서 일단 대마도에 도착할 것.
 - 一. 쓰시마에 도착하고 나서 선문사先問使를 보내 대승이 도해하는 전말과 위임장의 대체적인 취지를 간추려 일단 알릴 것.
 - 一. 선문사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기회를 엿보아 대승이 도한할 것.
 - 一. 체한滯韓 관원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에 대승과 동행하라는 문서,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에게 수행하라는 문서를 내리든가, 본성(외무성)에서 2명이 유의할 새로운 명령을 내리든가, 또 2명이 일단 쓰시마까지 철수하도록 해서 대승이 새로운 명령을 전하고, 나아가 대승이 도한할 때 동행시킬 것.
 - 一. 진辰(1868년) 겨울에 파견한 대수사大修使 히구치 데쓰시로樋口鍔四郎는 선문사 파견 전에 철수하도록 명령할 것.
 - 一. 세견선 폐지의 일은 대승이 도한해서 심교尋交를 상량商量하는 중에 그 자세한 사정을 알릴 것. 공무역도 마찬가지임.
 - 一. 종전의 사무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양국이 공평하게 무역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상선이 왕래하는 일의 담판에 진력할 것.³²
- 이에 따라 외무대승 등의 도한 여비, 도한 수행원 규모, 그리고 세견선 및 공무역

³² (29) 대승의 도한 순서 평의

폐지에 따른 종전 부채의 변제 등 각종 경비 문제로부터 외무경 공 인장 건, 일본의 회·기諱忌, 그리고 조선 예조에 보내는 서한 등에 관한 글 등을 준비했다.³³ 조선 예조에 보내는 서한의 내용은 일본 정부가 막부를 폐지하여 봉건을 중지하고 군현을 둔 사실과 폐해를 혁제하고 정권을 복고하여 모든 제도를 유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외국 교제 같은 것도 외무성이 총관한다는 사실을 소 요시아키라를 외무대승으로 특별히 임명해 상세히 알린다는 내용이었다.³⁴

3) 조선사무서 10권과 소 시게마사의 도한 좌절

조선사무서 10권은 1871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전 쓰시마의 이즈하라 번지사 소 시게마사 외무대승이 도한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서신 등 외교 문서들이다. 그런데 이때 구교의 형식이 폐번치현의 개혁과 이즈하라 번지사의 면직, 그리고 외국 사무의 외무성 총관으로 말미암아 혼란 상태에 빠졌다.

(전략) 그 사이에 쓰시마[對州]에서 파견하는 세견선이 종전대로 왕복하고 있으므로, 번·현藩縣의 제도개혁과 소 씨의 지사직 면직 건이 자연스럽게 누설되어, 만일 저들이 제도개혁의 사정을 묻거나 혹은 세견선의 명실名實이 어긋나는 것 등을 비난하는 일이 있어, 재한在韓 현사縣士가 출장한 (외무성) 관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응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품의할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제도개혁 후 벌써 2개월이나 되었으므로 출장 관원은 물론 재관在館 현사부터 통변관通辦官 및 말단 영세민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주지 않으면, 저 나라의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은 때에 우리가 애매·호도糊塗의 응수應酬를 하게 되어 더욱 의단을 굳히게 됩니다. 만일 부적절한 의론이 일어나면 사소한 일로 종전의 성의盛意를 관철하지 못하고, 뒷날의 계획에 지장이 될 수 있어 매우 걱정입니다. 따라서, 지시하시면 곧바로 자세한 사정을 급편急便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³³ (31) 대승의 도한 순서에 관한 내부 품의안 첨부: 동건(同件) 하나부사 검인

³⁴ (32) 외무경이 조선 예조에 보내는 서한 초안

따라서 폐번치현의 제도개혁과 이즈하라 번지사의 면직과 관련된 내용을 곧바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 소 시게마사는 곧바로 예조참판을 비롯해 동래, 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했다.³⁵ 내용은 메이지 유신에 의해 바쿠후를 폐하고 태정관을 두어 병마의 권한과 강역의 정치를 총괄하게 하고 외무성을 분치하여 해외 교제의 일을 관할하게 하며 다시 폐번치현의 제도개혁으로 부현 제도로 돌아와 세습 번주는 모두 면직되어 자신도 쓰시마노카미 및 좌근위소장에서 해임되고 다시 외무대성에 임명되었다고 했다. 이는 곧 조정이 조선과 교제를 오래 맡고 또 조선과 우의가 매우 돈독한 것을 고려해 외무대승에 임명해 다시 양국의 구교를 잇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가신을 통해 보고한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동래, 부산 양사에게는 이에 더해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에게도 명해 양공을 만나 자세한 사정을 알리고 심교하는 성의의 소재를 진술하도록 했으니 관접하여 그 진술하는 바를 받아들일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었다.³⁶

이어서 쓰시마의 소 외무대승과 귀국한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 히로쓰 히로노부가 각각 도한과 관련된 순서와 사항을 품의했다.³⁷ 히로쓰는 소 외무대승이 바로 도한하지 못하는 상황과 또 이즈하라까지 내려가 준비하는 상황조차 어렵다면 자신이 도한해 품의해 둔 사항들을 통지하는 수순에 관한 지시를 받아 출발하고자 했다.³⁸ 외무성에서 논의된 수순은 다음과 같다.

一. 소 씨宗氏는 폐번치현의 일을 알리고 그 교제를 사사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 아울러 자신이 외무 관원이 되었다는 것과 그 취지를 알리는 글을 가지

³⁵ (3) 소 대승이 예조참판 및 동래·부산 양사(兩使)에게 보내는 서한 안을 첨부하여 정원(正院)에 상신하는 글

³⁶ (4) 소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폐번의 제도개혁 등을 알리기 위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한 ; (5) 소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폐번의 제도개혁 등을 알리기 위해 동래·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서한 ; (6) 소 대승이 외무성 관원을 면접할 것을 청하기 위해 동래·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글

³⁷ (13) 소 대승이 도한 순서를 품의하는 글 ; (15) 조선과 담판하는 순서에 관한 히로쓰 히로노부의 의안 ; (17) 한인과 의 담판에 관한 히로쓰 히로노부의 의안 ; (23) 조선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소 대승이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여 정원에 상신하는 글

³⁸ (18) 히로쓰 히로노부가 속히 발도(發途)하여 한지(韓地)에 갈 것을 청하는 글

고 간다. 그것을 구 가신에게 맡기지 않고, 가령家令이 도한하게 해야 한다. 히로쓰廣津는 이 사자와 함께 건너가야 한다.

- 一. 따로 외무경이 예조에 글을 보내 종래의 형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심교尋交의 일을 서술해야 한다. 이 글은 히로쓰가 가지고 가야 한다. 단, 이 글을 보내기에 이르면 전 외무경이 보낸 서한은 폐기해야 한다.
- 一. 전문前文의 제도개혁을 알리는 서한을 수취한 다음 심교의 일을 진술한 문서도 수취할 단계에 이르려면 더욱 진력해야 할 터이므로, 지금부터 그럴 계획으로 조선에 있는 여러 사족들에게 소宗 대승大丞이 특단의 설유說諭를 하여 반드시 담당·진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一. 위의 일을 착수했는데 저들이 과연 의아함을 더하고 만일 예의 철향철시撤響撤市에 이르는 일이 있다면 조선에 있는 사족과 상인 전부를 철수·귀국시킬 것.
- 一. 이미 철수·귀국하게 되면 황국과 조선의 교제는 여기에서 단절될 것이다. 그 시기에 동요가 없도록 조정의 계책을 분명히 하여 움직이지 않으시도록 하기 바람.³⁹

이에 따라 귀국한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 모리야마 시게루와 히로쓰 히로노부는 세 가지 도한 수순으로 정리했다.⁴⁰ 첫째, 소 가문[宗家]에서 제도개혁과 면직 등을 사절로써 조선의 예조에 알리는 서계안. 둘째, 외무대승 관함官銜으로 동래, 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서계안. 셋째 철수와 귀국이라는 ‘결국의 전망’을 운운하는 글을 정서해 조정에 품의했다.⁴¹

³⁹ (19) 야나기와라(柳原) 대승 이하가 연서(連署)하여 조선과 담판하는 순서를 의론하는 글

⁴⁰ (24) 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가 제도개혁을 알리는 수순에 관하여 품의하는 글

⁴¹ (30) 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가 조선에 제도개혁 통지의 건을 속히 평결할 것을 청하는 글 ; (31) 정원(正院)에서 조선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서한 안을 산정(刪定)함에 따라 신칙(申飭)하는 글 ; (32) 동건(同伴)에 관한 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의 의견서 ; (33) 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가 제도개혁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내유서(內諭書)를 내릴 것 등을 청하는 의견서 ; (34) 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가 제도개혁 통지를 저들이 수용하지 않을 때는 쓰시마[對州] 사민(土民)을 거느리고 한지(韓地)를 퇴거할 것 등을 품의하는 글

그리고 도한할 기선을 빌리는 청원을 하는 한편,⁴² 제도개혁을 알리는 사신으로 이즈하라의 옛 현사 세 명에게 관등을 하사하여 외무성 관원으로 등용하도록 했다.⁴³ 한편, 일본 정부는 조선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소 외무대승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글과 동래, 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글을 심의하여 재정했다.⁴⁴ 또한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은 도한을 정부에 청원하는 한편, 제도개혁을 알리는 소 외무대승 사절단의 등용 사령서가 나오고 이들 모두의 도한과 관련된 비용과 편의를 준비했다.⁴⁵ 외무성은 초량왜관에 파견된 외무성 관원에게 이번 도한 사절의 사실을 알려 대비케 하는 한편, 도한 사절에게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과 신중하게 참작하여 판단하라고 지령했다.⁴⁶ 이와 달리, 소 외무대승의 도한 명령은 면제시켰다.⁴⁷ 대신 소 외무대승은 초량왜관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이번 사절의 도한 내용인 제도개혁을 알리는 것과 이에 협력하며 외무성 관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다음과 같이 명령하며 마무리 지었다.

42 (35) 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가 도한할 기선을 빌릴 것 등을 청하는 글

43 (36) 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가 제도개혁을 알리는 사신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 외 2명에게 관등을 하사할 것을 청하는 글 ; (38) 사가라 단조와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의 외무성 등용 건을 이마리현에 명령할 것을 상신하는 글

44 (37) 내사(內史)에서 조선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서한을 재정(裁定)한 내서(來書)

45 (39) 히로쓰 히로노부가 도한(渡韓)을 청원하는 글 ; (40) 사관(史官)에서 조선행 공금 관련 서면을 받았다는 증거 서류 ; (41) 대장성(大藏省)에 조선행 여비 및 공금 수취 건을 조회하는 글 ; (44) 대·소승(大少丞)이 사가라(相良) 외 1명에게 등용 사령서를 첨부하여 신척하는 글 ; (47) 12월 일 한국 문제[韓事]를 결의한 다음 모리야마와 히로쓰의 도한을 명할 것이므로 요시오카 고키에게 협의할 것을 전하는 서신 ; (50) 나가사키현에 모리야마·히로쓰의 도한에 따른 편선(便船) 등을 준비할 것을 의뢰하는 글

46 (48) 경·보가 요시오카 고키에게 진퇴 처분에 관해 내유(內諭)하는 글 ; (49) 경·보가 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에게 요시오카 고키와 신중하게 참작하여 판단하라고 지령하는 글

47 (43) 소 대승의 도한을 면하는 사령서(辭令書)

이번 폐번치현廢藩置縣의 변혁으로 지사知事와 가역家役 모두 면직되었다. 지금부터 한국 교제는 오로지 외무성에서 관장하는 체재體裁와 그 사유를 갖추어 이번에 자가自家의 사절 이름으로 동국同國에 통지하기에 이르렀다. 교제상 자가와 관계된 모든 절목節目은 별지 사본대로 우리가 참작 판단하여 품의하고 승낙을 받은 취지에 기초하여 조치함은 물론이다. (중략) 나의 현직관함으로 작성한 서계를 휴대해서 다시 외무 관원이 바다를 건너가서 동래·부산 양관兩官을 면담하고, 황조皇朝의 위신을 저 나라 정부에 관철하도록 끝까지 분려奮勵한다는 결의決議이다.

따라서 재현在縣·재한在韓 근무자들은 각각 그 취지를 체인하여 대소경중大小輕重과 관계없이 매사(외무) 관원의 처분에 응하여 조정의 뜻을 관철하고 공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협력해야 한다. (중략) (조선과 심교하는) 이 공무에 있어 지금의 조치 외에 별도로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이 이후에 둘 사이의 형세가 어떠한 시기時機가 되더라도 조정이 지휘하시는 한 가지 길에 종사해서, 만약 저들이 확연히 거절의 기미를 드러낼 때 재관在館 근무자들의 진퇴와 거류去留는 모두 관원의 지시에 따르고, 그 시기에 임하여 종전의 옛 정이나 사사로운 마음에서 털끝만큼도 고식적姑息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⁴⁸

결론적으로 보면, 소 외무대승의 도한은 계속 미뤄지다가 도한 명령이 면해지면서 좌절되었다. 대신 귀국해 있던 외무성 파견 관원과 이즈하라 번의 소 시게마사가 함께 인사와 함께 도한해 일단 폐번치현과 번지사 퇴직 등에 따라 구례의 방식으로 교제가 불가능함을 알리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⁴⁸ (53) 소 대승이 초량관(草梁館)에 근무하는 자에게 유시(諭示)하는 글



국역

조선사무서
(3)

제8권

8

『조선사무서』 제8권

메이지明治 4년(1871) 4월부터 5월까지

01 4월 2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한

성상聖上께서 평안하시어 주련駐輦하시니 지극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위各位도 더욱 건강하니 봉직奉職하는 즐거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외무경님을 비롯해 관리 일동도 무사하니, 이는 방념放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지韓地의 상황에 따라 히로쓰 히로노부 님이 얼마 전에 귀조歸朝했지만, 미국 사건으로 인해 급히 다시 건너가시게 되었으니 자세한 것은 그에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별지 하우스ハウス 및 플루크フルーク가 보내온 서면書面, 대소승大少丞이 하우스에게 보낸 회신 등의 사본을 보내드리려고 했지만, 급히 기록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번에 보내드립니다.

- 一. 사이토齋藤 권소록權少錄 료안了庵의 일은, 지난 2월 28일 병사病死했습니다.
- 一. 오사카 조폐료造幣寮¹ 개업합니다. 지난 2월 12일 현지 조사를 위해 우대신右大臣님을 비롯해 외무성에서 외무경 님과 야나기와라柳原 대승大丞이 출장 나가지

¹ 조폐료(造幣寮): 오늘날 대장성 조폐국의 전신으로 1871년 4월 개설되었다. 같은 해 5월, 신화조례(新貨條例)를 제정해서 에도시대의 양(兩)·문(匁)·문(文)을 대신해 엔(円)을 화폐 단위로 채택했다.

고, 미야모토 소록^{少錄}, 쓰치코^{土子} 권소록이 수행했습니다. 3월 초하룻날 귀부^{歸府}했습니다. 각국 공사들도 초대했습니다.

- 一. 대보^{大輔} 님이 지난 7일 갑자기 피를 크게 토하셨습니다. 본래 위독한 증상이므로 모두가 크게 염려했는데, 점점 쾌유하시는 분위기이며 요 2, 3일간은 전보다 운동도 하시고 병중에도 불구하고 수레로 외출하실 정도가 되었으니 염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 一. 지난 8일 청국^{淸國} 통신^{通信}[외교]에 관해 외무경 님, 정사^{正使}, 야나기와라 부사^{副使}가 내의^{內意}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부사^{花房} 권소승, 데^鄭 권정^{權正}, 예가와^{額川} 대우^{大祐}, 사이토 권대록^{權大錄}, 예가와 권대우^{權大祐}, 쓰쿠이^{津久井} 소우^{少祐}, 쓰치코 권소록이 수행하라는 내의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고조네 겐소^{小曾根乾堂}, 미즈가와 신조^{滿川新三} 두 사람이 등외일등출사^{等外一等出仕}로 마찬가지로 수행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이번 달 중순 즈음엔 발선^{發船}할 것입니다. 이제 한창 준비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 一. 타라스^{タラス} 및 링크^{リンク} 암상^{暗傷} 1건. 가고시마번^{鹿児島藩}의 히고 쇼시치^{肥後莊七}라는 자 및 동행한 자 2인을 체포해서 문초했는데, 세 사람 모두 자백했으며 그 죄는 쇼시치로 판결되어 이미 형률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키야도번^{關宿藩}의 1인, 기쓰키번^{杵築藩}의 1인을 체포해서 취조한 결과, 마침내 하수인은 히고 쇼시치와 기쓰키번의 가토 류키치^{加藤龍吉}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달 28일에 교형^{絞刑}에 처했으며, 세키야도 번사^{藩士}는 10년 유배로 각각 처치했습니다.
- 一. 보불전쟁도 이미 끝났습니다. 지난날 프러시아에서 강화조약^{和議條約}을 조인했다는 것을 알려왔으며, 프러시아 왕이 이번에 독일 황제의 지위를 더했음을 선전한 것도 알려왔습니다. 프랑스는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나 국세^{國勢}가 더욱 쇠퇴했다고 합니다.

- 一. 지난 2월 중순경부터 요조^{四條} 육군소장이 규슈 출장을 명받았습니다. 이는 구루메번^{久留米藩}에 부랑자 무리가 잠복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해당 번청^{藩廳}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번지사^{藩知事}는 예전부터 도쿄 단조다이^{彈正臺}에서² 규탄^{糾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규슈의 동정은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一. 지금까지 조선국 어용괘^{御用掛}로 쓰구이^{津久井}, 미야모토^{宮本} 두 사람이 배명^{拜命}하였는데 이번에 청국행 어용^{御用}의 명을 받았으므로, 마스키^{眞鍮}, 요시노리^{義制} 두 사람에게 그 후임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一. 사다 나오히로^{佐田直寛}가 올해 봄부터 병으로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그제 29일부터 출근했습니다.
- 一. 지난달 17일 야마구치^{山口} 중변^{中弁}이 본관^{本官}을 갖고 당분간 외무성에 출사^{出仕}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 一. 지난달 22일, 마루야마^{丸山} 권대승^{權大乘}에게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으므로, 후쿠이번^{福井藩}에 맡길 것^(御預)을³ 명했습니다. 물론 관위^{官位}는 예전과 같습니다. 이 일은 정부에서 무슨 혐의점을 들은 것인지, 아직 그 점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여 모두가 황송해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지난번 이래로 에사시^{江刺} 현지사^{縣知事} 야마다 주로^{山田十郎}, 학교어용괘^{學校御用掛} 야노 시게타로^{矢野茂太郎} 등에게 맡기거나, 또는 귀번^{歸藩}을 명했습니다. 구루메 번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번^藩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지난날 히로쓰 히로노부 님이 귀조^{歸朝}했을 때 대체로 들었습니다. 추후 아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 결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두서^{頭書} : 4 오가와^{小河} 궁내대승^{宮内大丞}, 사카타^{阪田} 신기대사^{神祇大史}는 마루야마와 마찬가지로 맡겼습니다. 이에 아오키 사원조^{靑木寺院助}에서 면직했습니다. 미츠기^{御調}】

² 단조다이(彈正臺): 메이지 초기 감찰, 치안유지 등을 주요 업무로 하던 관청.

³ 오아즈케(御預): 에도시대 체포된 피의자가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정한 숙소나 마을에 맡겨서 감시하던 제도. 500석 이상의 무사는 다이묘에게 맡겼다.

⁴ 두서(頭書): 두주(頭注).

- 一. 같은날 아마구치 소령사^{少令史}, 등외출사 이로카와 구니오^{色川國土} 두 사람은 면직한 후, 도쿄부^{東京府}에 인도했습니다.【단, 정부에서 분부하신 일】
- 一. 지난달 25일, 가와시마^{川島} 소우^{少祐}, 13등 출사 혼다 아키라^{本多阿伎良}, 히로타^{廣田} 권소록 3인을 면직한 후, 시마바라^{島原}번 대참사^{大參事}를 호출하여 인도했습니다.【단, 정부에서 분부하신 일】
- 一. 영국 공사 파크스^{H.S.Parkes}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었으므로, 그제 29일 조정에 참내^{參內}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내년 조약개정 전까지는 다시 내조^{來朝}할 것 같습니다.
- 一. 『요코하마신문^{横濱新聞}』 발취. 지나^{支那}의 적도^{賊徒}가 그 나라 주재 러시아 영사관^{岡士館}에 불을 질렀을 뿐 아니라, 영사^{岡士}가 총상을 입어 구사일생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 一. 조선 지역^{韓地}도 이번에 미국 사건이 더해졌으니, 고심을 짐작할 만합니다. 한층 더 분려^{奮勵}하시길 희망합니다.
- 一. 태정관^{太政官} 일지, 외무성 일지, 해외신문 및 기타 서장^{書狀} 등을 목록과 같이 보내드리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밖에는, 무엇보다 이 계절에 자애^{自愛}하시기만을 바랍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신미(1871년) 4월 2일

외무사생^{外務史生} 오쿠 요시노리^{奥義制}
 문서권대우^{文書權大佑} 곤도 마스키^{近藤真鋤}
 사다 나오히로

외무권소승^{外務權少丞}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님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님

덧붙여 히로쓰 히로노부 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귀조歸朝하셨을 때, 지급至急한 용건이 생겨서 곧바로 출장하시게 되어 천천히 말씀도 나누지 못했으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실로 천리千里의 먼 길에 쉬지도 못하셨으니 반드시 어려우신 일로 생각됩니다.

목록

- 一. 태정관일지【경오년 56호부터 68호까지, 신미년 1호부터 4호까지】 총 13책
- 一. 외무성일지【경오년 3호부터 8호까지, 신미년 1호부터 3호까지】 총 9책
- 一. 해외신문【36호부터 42호까지, 39호 결락】
- 一. 모리야마 시게루 님께 고시바 히로카타小柴弘賢가, 1봉封

02 같은 날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나가사키長崎에서 내유內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해서 보내온 서한

황송하오나 서한으로 아웁니다.

이번 조선 사건과 관련하여 내유서內諭書를 통해 분부하신 대로 담당擔當이 지나쳐 훗날의 어려움을 야기하지 말고, 또 위해危害를 피해 스스로 보호할 것을 누누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삼가 받들었습니다. 저들에게 임기응변이 있지만, 교지에 기초하여 지중근신至重謹慎하여 불시의 대변大變을 좋은 기회로 바꾸어, 그 사이에 오히려 우리의 교제가 성숙한 시기에 이를 수 있도록 시도하겠습니다. 신 등이 미력한 몸으로 이처럼 중대한 임무를 받들었으니, 살아서도 죽어서도 큰 영예로서 감사한 일로 생각합니다.

실로 분수에 넘치도록 진력할 것은 물론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건대 저 나라가 해구海寇를 피하기 위해서라고는 해도, 수백년 동안 이즈하라번嚴原藩(대마도)을 접대한 것이 융숭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완고하여 자초한 일이라고는 하

나, 이즈하라번의 인의隣誼와 교정交情에 있어서 실로 방관할 수 있는 이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번사知藩事 님이 직접 도한渡韓해서 간곡하게 설득한다면, 당장 성숙하는 공효功效는 거두지 못하더라도 인의隣誼가 세워지고, 서양 각국도 황국皇國이 완고한 인민의 곤경을 가엽게 여겨 교정交情을 다하는 신의에 감동할 것으로 생깁니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공사公使와 아시아주를 총괄하는 수사제독水師提督이 나왔으니, 만약 공식적으로 그 중간에 처한다면 대보大輔·소보少補님 중 한 분이 도해渡海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즈하라 지사님의 입장에서는, 설령 사정私情으로 미뤄보더라도 구의舊誼가 심중深重한 사이이니 방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사이 요시오카 권소승을 우두머리로 판임判任 이하 3, 4명이 그 사이의 사무를 맡은 것은, 외람되오나 지나치게 경솔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유서諭書가운데 “조선은 사정私情이고 미국은 공의公誼이니, 하나는 원조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하나는 도와야 하는 이치”라고 하신 교시敎示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실로 공공연히 우의友誼를 나눈 국가이지만, 조선은 비유하자면 완고한 노파와 거만한 아이[頑婆傲兒]가 부형父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私情’으로 볼 때, 부형의 애민哀憫하는 뜻이 더욱 심중深重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밝게 살피시어 미국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한인韓人이 곤경을 모면하게 하시어 장래의 신의信義를 우리에게 구하도록 하는 책략을 더욱 숙의熟議해서 지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객사의 창가가 총망悤忙하여 눈물을 흘리며 관대하게 용납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상.

미(신미, 1871년) 4월 2일 나가사키현長崎縣 여관에서

히로쓰 히로노부

조선사무朝鮮事務 귀중

03 이즈하라번(嚴源藩)에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다시 도한(渡韓)함을 통지하는 글

이즈하라번

외무성

외무성 출사(出仕) 히로쓰 히로노부가 작년부터 공무로 조선국에 파견됐는데, 저 나라의 사건과 관련하여 일단 귀경(歸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서 급히 다시 도한(渡韓)하게 되었으므로 며칠 전 출발했습니다. 이를 통지합니다.

신미(1871년) 4월 3일 통지함.

04 4월 3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으로부터, 저들이 외무성 관원을 거절하는 뜻의 응접서(應接書)를 첨부하여 보내온 서신

외무경과 외무대보 두 공(公)을 비롯해 제현이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힘쓰시니 삼가 경하하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히로쓰 히로노부가 떠난 뒤에 관사(館司)와 일대관(一代官) 및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 등이 점차 훈도(訓導)를 설득한 결과, 완전히 훈도의 사건으로 지난 28일 밤에 소관(小官) 등을 면회하게 되었습니다. 응접의 경과는, 별지와 같이 여전히 예격론(例格論)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그 전부터 사이스케를 통해 저들의 의중을 깊이 탐지했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단서는 여러 가지지만, 그 대지(大旨)는 “외무사원(外務使員)을 응접하고, 계속해서 외무성의 교제를 받아들일 때는 점점 탐욕스런 요구(貪求)를 받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타이슈도 여전히 존치해서 교제가 두 길로 나뉘게 된다면, 본디 빈곤한 나라이므로 도저히 국가 재정(國計)을 지탱할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선례(先例)를 고수해서 타이슈에 의뢰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는 뜻이라고 짐작됩니다.

물론 조정의 선린善隣의 성의誠意를 타일러서 점차 잘못된 관례를 일소하되 공명정대함을 위주로 하려는 의향이시니, 절대 그러한 걱정은 하지 말 것을 우라세 등이 설득했지만, 오직 예격例格에만 구애되어 승복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소관小官 등이 저들을 면회할 때 그 속마음을 관찰하고 숙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견선歲遣船과 같이 저들이 제공하는 것을 받고 그 밖에 저들의 번속藩屬과 같은 잘못된 관례를 전혀 개혁하지 않는다면, 한갓 말로만 성신誠信을 보이고 공명정대를 외치더라도 저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규모가 원대하게 차츰 황화皇化를 삼한三韓에 펼치는 경지에는 이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서한에서 아뢴 이즈하라 가역 면직免職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성공의 전망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히로쓰 히로노부도 서둘러 출경出京해서 건백建白한 것처럼, 가역 면직 등을 각각 실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즈하라 가역 면직을 이룬 다음 지금까지의 사교私交의 누습陋習을 일소하고, 한번 은혜를 베풀고 한번 위엄을 보이는 것을 그 상황에 맞게 변통한다면, 저들은 이미 옛 예격例格을 묵수墨守할 수가 없어서 승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의혹이 많은 국풍國風이니 만에 하나라도 거절할 경우 어떤 처분을 내리실지 미리 계책을 정해두시길 바랍니다. 히로쓰도 이와 관련된 정부의 계책을 아뢰었을 테지만, 또한 근일의 경황을 참고를 위해 이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미(1871년) 4월 3일

모리야마 시게루

요시오카 고키

대소승大少承 귀중

훈도와의 면회는, 우라세 사이스케 등이 여러 가지로 설득한 끝에 이번 3월 28일에 이르러 겨우 입관入館했습니다. 훈도가 홀로 면회했습니다. 응접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동래·부산 두 사또는 구례舊例에 없다는 이유로 승낙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우선 인사를 마치고 이쪽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면회하게 되었으니 지극히 기쁩니다. 따라서 이번에 명을 받들어 사신으로 오게 된 뜻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의 성의誠意를 관철해서 속히 심맹尋盟을 달성하고자 하니 속마음을 조용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귀국의 실정 등도 흥금을 터놓고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훈도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바다를 건너온 뜻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로부터의 규칙도 있어서 오늘까지 뵈지 못해 실경失敬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점들을 자세히 듣고 이해하고자 한다.”

“저희가 이번에 바다를 건너온 주된 의도는, 우리나라가 중고中古 이후로 천하의 병권兵權을 무문武門에 위임하고, 외국교제外國交際도 오직 무문에서 취급해서 귀국과의 교제도 쇼군將軍 도쿠가와德川 씨가 이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근세近世에 형세가 크게 변해서 정묘년丁卯年(1867)부터 조정에서 만기萬機를 재결裁決하시어 서정庶政을 유신維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국과는 여러 해 동안 정성스러운 교제[懇交]를 나눈 사이이므로, 무진년戊辰年(1868)에 조정에서 소 씨宗氏에게 우리나라 대정일신大政一新의 사유를 귀국에 알리고 이웃 나라의 우호를 더욱 도탑게 하도록 주선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에 소 씨가 신속히 대수사大修使를 파견해서 이러한 뜻을 귀국에 통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의情誼가 통하지 않은 지가 3년에 이르러 소 씨가 복명할 수 없게 되자, 우리 외무경이 크게 고심하시어 저희에게 명하시길, ‘우리나라는 귀국과 수백 년의 교제도 있고, 또 풍속과 문자도 같으며 경토境土가 서로 바라보일 정도로 가깝다. 그러므로 이번 정령일신政令

一新에 관해선, 더욱 교의交誼를 도답게 하고 양국이 형제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서로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호情好가 친밀해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조정의 인교隣交의 성의誠意를 귀국에 관철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모쪼록 바다를 건너간 뒤엔 동래·부산 두 사또를 면회해서 인교隣交의 성의誠意를 진술해서 속히 양국의 구호舊好를 잇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부에 따라 바다를 건너왔으니, 이러한 뜻을 깊이 양해하시어 양국을 위해 진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은 도한渡韓한 이래로 관사館司, 일대관一代官 공들로부터 자세히 들었다. 지당한 일이긴 하나, 대체로 양국 간의 사무는 타이슈에서 왕복하는 오랜 규칙이 있다. 그 정해진 약조 외에 새로운 규칙은 참으로 답하기 어렵다. 외무성에서 사원使員이 바다를 건너와 응접하는 일은 정해진 규칙 밖이니, 공무와 관련 해선 모든 일을 타이슈를 통해 말씀하신다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바다를 건너와 응접하는 것이 오랜 규칙이 아니라는 말씀은 대체로 지당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정체政體가 일변해서 외무성을 설치하고 외국사무를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교제하는 나라들에도 모두 외무사원外務使員을 파견해서 사무를 담판합니다. 이미 청국같은 경우도 사원使員이 도해渡海해서 교제가 성숙해졌으니, 이번에 저희가 이곳에 건너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체政體의 변혁을 양해하신다면, 저희에게 응접을 베푸는 것은 타당한 일로 옛 규칙을 갖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에는 본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웃하는 두 나라의 교제가 더욱 기쁨과 우호[歡好]로 돌아가는 것은 본本이며, 나머지 사소한 예격例格은 말末입니다. 이제 만약 우리나라의 정체政體 변혁에 무관하게 말末例를 고수해서 이것도 저것도 거절한다면, 이는 본本을 버리고 말末을 지키는 것으로 교제의 본의本意를 잃는 것이니 이른바 교주교슬膠柱鼓瑟과⁵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숙려하고 몇 번이라도 진력해서, 동래·부산 두 사또와 면회할 수 있게 해

⁵ 거문고의 기둥을 아교로 붙여놓고 거문고를 탄다는 뜻으로, 규칙만 고수하여 융통성이 없음을 비유한다.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국 간 교제는 이미 300년을 반복한 것으로, 더욱 친목하고 우호를 돈독히 하길 바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처럼 면면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도 필경은 양국 간에 정약定約을 맺고, 규칙을 상방이 모두 굳게 준봉遵奉하기 때문일 것이니, 부디 양국 간 오랜 약속대로 공무는 타이슈에서 말씀해줄 것을 오직 양국을 위해 희망한다.”

“이미 무진년(1868)에 타이슈에서 대차사를⁶ 통해 일신을 보지報知했지만, 지금까지 복명하지 못한 것은 필경 절차 위에 절차를 거듭해서 사정事情에 간격이 생겨 의미가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외무경계에서도 깊이 고려해서 저희를 곧바로 부산·동래 두 사또를 면접한 후 간곡히 이야기해서 우리 조정의 성의를 관철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저것 절차만 반복한다면, 자칫 정실情實⁷이 통하기 어려워서 언어의 차이로부터 쓸데없는 분운紛紜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대直對하는 방안을 양국을 위해 편의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무성을 통해 각국과 교제해서 응접하는 것이 규칙이 되었으니 이를 깊이 유념하여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만국의 형세가 일변해서, 각국이 부강富強을 강구하고 원략遠略에 힘쓰고 있어서 견고한 함선과 예리한 무기가 멀다고 도달하지 못하는 변방[隈]⁹이 없으니, 국토를 지키는 자가 하루라도 편안히 앉아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귀국과 우리나라처럼 여러 해 동안 교의交誼가 있고, 또 경토境土가 인접해서 순치상보唇齒相保의 형세에 있는 관계에서 더욱 옛 우호를 돈독히 하여 위급한 때 서로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찰해서, 일의 대소大小와 본말本末을 변별하여 반드시 말례末例에 구애되지 마시고, 차츰 응접하여 옛 교분을 더욱 돈독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당한 말이지만, 나의 직분상 규칙에서 벗어난 일은 어쨌든 답하기 어렵다. 또 귀국의 정체政體 변혁을 이유로 규칙 외의 일들을 말씀하지만, 우리나라도 귀국

⁶ 1868년 12월 19일 왜관에 도착한 대수대차사 히구치데츠시로(樋口鐵四郎) 일행.

과 교제한 뒤로 정체政體의 변혁이 있었다. 예조禮曹에서 취급한 교제사무도 간혹 병조兵曹나 의정부議政府 등으로 이관된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역시 예전에 정한 규칙에 따라 예조의 명목으로 문서를 왕복할 정도로 구약舊約을 굳게 지켰다.”

“교제의 도道는 성신불기誠信不欺를 귀하게 여깁니다. 귀국이 직제를 고쳐 교제 사무를 의정부나 병조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그 실實을 드러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의정부나 병조의 명목으로 통교를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옛 관례를 고집해서 허명虛名으로 응접한다면 성신불기의 뜻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성신불기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외무성으로 교제하는 나라들에 대해 응접하는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실實에 따라 귀국에 대한 응접도 외무성에서 취급하니, 그 사원使員을 응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성신誠信을 교제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국 교제의 근본[源元]은 역시 조정朝廷으로서, 그 권한을 도쿠가와 씨에게 위임하고, 타이슈로 하여금 중간에서 주선하도록 분부한 것이 구례舊例였다. 따라서 외무성이 지금까지의 도쿠가와 씨와 마찬가지로 외교를 총괄하는 국局이라면, 외무성에서 소 씨를 통해 교제에 관한 모든 일을 왕복하도록 하길 바란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소 씨를 통해 대정일신大政一新을 통지했지만, 지금까지 성숙에 이르지 못한 것은 필경 절차만을 반복해서 의미가 관철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번에 도해渡海해서 직접 담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구례舊例를 주장해서 우리나라 정체政體의 변혁에 무관하게 응접을 거절한다면, 매우 형식에 얽매인[拘泥] 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지당하나, 우리나라는 상하가 모두 완고한 풍속이라서 구규舊規에서 벗어나는 일은 내가 주선하기 어렵다. 부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살피주길 바란다. 또한 고론高論을 말씀하신 것은, 관사館司나 대차사 공이 서장書狀으로 다시 말씀 해주신다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차차 교섭할 것이니, 부디 앞에서 말한 사항들을 잘 이해해서 주선했어 주시고, 동래·부산 두 공께도 잘 말씀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사원使員의 면담은 구규舊規에 없기 때문에 동래부사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가 지금 홀로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동래·부산 두 사또께 그 자리에서 승낙받기는 어렵겠지만, 어제부터 관사館司, 일대관一代官 공에게 들은 취지도 마찬가지로이니, 유념하여 두 사또께 말씀드리고 나중에 관사館司 공께도 이것저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여러 해 동안 교제사무를 다루셨으니 우리나라의 정실情實도 반드시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속히 심맹尋盟을 이루도록 진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신이 말씀하신 뜻은 이쪽에서도 유념하여 생각해본 후 차례대로 교섭하겠습니다.”

05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저 나라에서 우리를 의심하는 정황을 외무경에게 아뢰는 글

신미년 4월 4일 아침, 이즈하라번 오시마 도모노조가 외무경님의 저택에 출두하여 내람內覽을 위해 올린 서면의 등본

여러 관원이 도착했을 때, 대수사 진퇴進退의 교섭은 이번 어용御用을 발할 때의 시의時宜에 따라 조치하라는 뜻으로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외국[조선]에서의 회담은, 계속해서 지도에 따라 여러 차례 교섭하는 데 힘을 썼지만, 번번이 구전舊典을 고수해서 같은 문답만 반복할 뿐, 공무가 달성될 목표도 세우지 못했으니 고평苦評이 황송할 뿐입니다. 최근 다시 간평懇評과 상의詳議를 다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지난번부터 저들이 의혹을 품을 만한 사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작년 봄에 독일 선박에 마와타리馬渡와 직담直談하는 자가⁷ 승선해서 부산

포에 들어온 일 때문에 저들이 더욱 깊이 의심을 품고 있으니, 그 관원도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혹을 영원히 해소하는 방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그 방책을 이루지 못하고 자연히 여러 달을 지연했으니, 혹시라도 조정의 위광(威光)에 손상을 끼쳤을까 두려워 오직 노심초사할 뿐입니다.

단, 대수사가 도한(渡韓) 이후 교섭에 관해 여러 달 분규가 생겨서, 마침내 재작년 겨울 한양에서 이를 물리친다는 불응(不應)의 이문(異文)이⁸ 내려왔을 때, 훈도가 대수사 서계 가운데 기휘(忌諱)하는 자구(字句)를 개찬(改撰)할 것을 희망한다는 정화(情話)를⁹ 했습니다. 그때 밖으로 담판의 변론(辨論)을 다 타일렀지만, 부득이 도선주(都船主)가 중도에 귀국해서 도쿄에서 이를 여쭙었으므로, 그 사정에 관해 자연히 외국 감찰을 하리게 되었으니, 바람대로 변통(變通)이 있지 않을까 오로지 소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외무성 관원이] 직접 건너오게 되었으니 뜻밖의 일에 경악했습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자구(字句)의 성사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중에 직접 담판하게 된다면, 혹시 저들이 한두 자구(字句)가 더 확대될 것을 깊이 우려하여, 대수사론(大修使論)이 재발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며 더욱 되풀이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각별하게 관용(寬容)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더라도, 저들에게는 올바른지 않은 곡척(曲尺)이라고 할 만하니, 대수사가 [본국에서] 체재(滞在)하는 것을 저들이 교활한 마음으로 의심스럽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 관원이 품고 계신 주의(主意)와 대수사의 용건이 두 길로 갈라지는 모습이 돼서 외국에서 애매하다고 여긴다면, 여러 가지 공무를 시작하는 데 그 조리가 마멸(磨滅)

⁷ 마와타리하치로(馬渡八郎) 외무소승과 나카노 교타로(中野許太郎)를 말한다. 나카노는 왜관에서 통사(通詞)를 거쳐 町代官, 3代官을 역임한 인물이다. 외무성의 관료 나카노(中野)가 독일함선 헤르타호를 타고 왜관에 도착하여 물의를 빚은 일을 가리킨다.

⁸ 이문(異文): 평소와 형식이나 내용이 다른 문서.

⁹ 정화(情話): 정담(情談).

되는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취去就의 늦고 빠름을 적절히 하지 못한 사자使者가, 황송함을 견디기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목숨을 바치려는 각오이지만, 외국에 대해선 응접도 하지 못하면서 단지 국내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선 미력을 다하더라도 졸렬한 일이 될 뿐입니다. 말하자면, 대수사의 본분에 있어서 주의主意 없이 객지에 머무르는 모습이 된다면, 외국에 대한 기세가 떨어지고, 지금 시기에도 적절치 않은 교섭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에 히로쓰 선생이 이즈하라에 아뢰어, 지사로부터 별한別翰을 전달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상담한 대로 보한報翰을 보낸다면 앞으로 외국이 얼마나 감오感悟할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바라건대 이번에 단서를 열어 관원들이 한길로 교섭하게 하신다면, 자연히 저들이 기획하는 자구字句 문제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외국의 의심을 영원히 해소하는 한 가지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디 [조선은] 선규先規를 고수하는 정태情態이니, 이를 어용御用에 따라 순편順便한 전망을 세울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순서대로 생각한다면, 현재 내외의 답판이, 어리석은 제가 판연判然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밤낮으로 두려운 마음을 견디기 어려워 생각나는 대로 제 소견을 한번 아뢰어 보았습니다. 단, 금일의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간곡히 전달하려는 취지이니, 앞으로 노력하려고 명심한 것은 물론이며, 자기의 퇴념退念을 가질 리는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외부에 대해 모두 불민해서, 최근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묵묵히 있을 수만은 없는 우충愚衷을 모조록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06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미국함선에 구조된 조선인에¹⁰ 관해 외무경에게 아뢰는 글

그제 22일 번저藩邸에 서양인[異人]이 방문했습니다. 헤야츠키部屋附에게¹¹ 들어보니, 조선인을 바다에서 구조했으므로 한어韓語가 통하는 자를 보내줄 것을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무성에서도 호출한 바, 나카노中野를 간자키神崎에서 차출하고, 저도 따라가서 보았습니다. [조선인은] 미국 군함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그 배에 오르라고 야쿠쇼役所에서 분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군함에 올라가 보니, 상당한 소동만 있을 뿐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배 안을 둘러보던 중에 융복戎服을 입고 상투를 튼 자들을 만났습니다. 조선인처럼 보였으므로 나카노에게 부탁해서 응대하게 했는데, 확실히 조선인이었으며 같은 부류[同類] 5명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두 융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월 21일 고기잡이를 하다가 떠내려갔는데, 그믐날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배에 구조되어 의복도 갈아입었다고 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은 부디 빨리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런데 12, 13살쯤 되는 아이가 융복을 입고, 모자도 쓰고, 머리도 단발인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도 조선인이라고 했습니다. 곤궁하여 기아에 시달린 나머지 이 배에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물어보았는데, 서양인을 매우 미워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세히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 1명 중국인[唐人]같은 용모의 사람이 한국어를 잘해서 완전히 조선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결코 말하지 않고, 5명의 표류민도 배에서 인양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로 조선으로 보낼 생각은 못하고, 지도 등을 꺼내 그들의 주소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되었으므로

¹⁰ 대정표민 5명이다. 이들은 영광표민 10명과 함께 6월 5일 왜관에 송환되었다. 그들은 정월 22일 표류하여 상하이로 향하는 영국상선에 구조되어 상하이에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와 3월 25일 나가사키에 인계되어 귀환했다고 진술하였다. (『동래부계록』1871년 6월)

¹¹ 헤야츠키(部屋付): 주군의 침소에서 숙직하면서 경호하는 관리.

로 현청縣廳에 나가서 응접한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그때 관원이 한국에 건너와 있었습니다. 미국 선박에서 표류민을 곧바로 데려가는 것은 어용御用의 답판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므로, 이 항구에서 표류민을 인수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밖에 2명의 조선인도 탐색해달라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무국外務局에도 나카노를 보내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는데, 이 군함은 조선에 가서 통교通交를 요청할 계획임을 외무국에선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조선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병단兵端을 열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허다했으므로 탐문해 보았는데, 그러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표류민 건은 이곳에서 인수할 작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후편後便으로 자세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은 조선과의 통교를 매우 바란다고 합니다. 이상.

07 4월 4일 안도 다로安藤太郎 등이 나가사키長崎에서 선편 때문에 도한渡韓이 지연되었음을 전해온 서한

고베神戸에서 제출한 서면書面과 같이, 지난달 27일 새벽 고베에서 출항하여 28일 저녁 7시 나가사키에 도착했는데, 27일 아침에 5척만 본 항구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29일 이후 본 현청縣廳으로부터 조선으로 가는 화륜선과 관련해 갖가지로 진력했지만, 이야기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일에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서諭書의 등본을 보내고, 이즈하라번에 지령서 등본을 차송해 두고자 했고, 아울러 번저에 이야기해서 줄짜 1인을 밤낮으로 계속해서 파발꾼을 만들어 대소참事大小參事 수신인 【히로노부】문서를 보내두었습니다. 어쨌든 부산은 변방 지역이니, 미국 함선의 소식을 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화륜선이 이 이상 지연된다면 공무가 지체될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즈

하라까지 서양 선박을 빌리기라도 해야 하는지. 또한 현청縣廳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내일 아침 좋은 인편이 있다고 하여 대략 알려드립니다.

미(신미, 1871년) 4월 4일

안도 다로

히로쓰 히로노부

조선사무변리朝鮮事務辦理 귀중

08 이즈하라번嚴源藩으로부터, 미국과 한국 간에 사건이 생긴 틈을 이용해서 서한 가운데
저들이 기회忌諱하는 자구字句를 개찬改撰하여 심교尋交를 도모할 것을 품의稟議하는 글

이번에 미국 사절이 군함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
은 예로부터 구교舊交가 있는 나라이니 인접隣接한 나라의 친근한 정[親情]으로 충고
하라는 말씀을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외람되오나 지당한 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지극히 주제넘기는 하오나, 이 일과 관련해 본 번에서 생각하는 바를 별지를
통해 아뢰오니, 부디 살펴보신 후 무언가 지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월 ○일

이즈하라번

외무성 귀중

조선은 영토를 접하고 오랜 우호가 있는 나라이므로 그 위급함을 차마 방관하
지 못하여 근심을 함께 하는 친정親情으로 충고하게 하시었으니, 저 나라의 입장
에선 이치상 깊이 감대感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인韓人의 완고한 풍습과 종전의
정태情態로 볼 때, 반드시 갖가지 시의를¹² 품어 국가보전의 방책으로 처음부터

황조皇朝(일본)에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장래의 형세는, 한 번 전쟁하는 데 이르러 한국의 힘이 다하고 술책이 궁해서 결국 황조에 대한 의심을 거둬들이고 화친을 맺게 될 것이 자연스러운 형세임은 많은 논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인韓人이 회오悔悟해서 우리에게 의탁하는 날이 늦어진다면 그 화禍가 더욱 깊어질 것이요, 화가 깊어지면 한국에서의 미국의 근거가 더욱 굳건해져서 황조의 불리함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인이 회오하여 우리에게 의탁하는 것의 늦고 빠름은 곧 지금의 대관절大關節로서, 이해利害와 손익이 판가름 나는 바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속히 의탁하도록 하는 것은, 저들이 속히 그 의혹을 풀게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대정유신大政維新의 전말을 대수사를 통해 통지했으니 황조의 성의盛意를 한국의 입장에선 받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계書契 상의 한두 자구가 저들이 기휘忌諱하는 바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많은 변론을 소비하며 세월을 천연遷延하여 사절이 복명復命할 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관원이 바다를 건너가 친히 황조의 성의를 진술하여 정호친밀情好親密의 교제에 이르고자 누차 한인의 면접을 상의했지만, 저들은 구전舊典을 고수하여 그 마음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관원이 그 진정眞情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미국의 일거一擧를 틈타 우리가 친교를 구하는 공무는 잠시 차치하고, 이전부터 미국의 거동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의탁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우리의 본의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표면상 한국을 대할 때는 미국 사절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관련한 충고도 한번 전하는 것으로 족하니, 우리가 친교를 구하는 것 말고 관원이 한지韓地에 체류하며 해야 할 일도 없고, 대수사 같은 경우는 더욱 엄체淹滯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진퇴에 관해 여러 차례 공평公評을 청했지만, 조의朝議가 어째서인지 지휘를 내지 않고, 오늘까지 관원과 대수사가 모두 헛되이 한지

¹² 원문은 '정의(情疑)'로 되어 있으나 '시의(猜疑)'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 체류하며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독일 선박이 부산포에 정박한 전례도 있으니, 과연 미국과 통모通謀하여 그 동정動靜을 염탐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거듭하여 모처럼 충고하라고 하신 뜻을 이를 방법을 세우지 못한다면, 장래의 공업功業에 과연 그 해害가 얼마나 클지 고심됩니다.

따라서 대수사의 일은, 표면상 소 씨만 파견해야 하는 사리이니, 서계를 개찬改撰해서 기휘하는 자구를 삭제하고 평온하게 승낙할 수 있는 문체文體로 신정新政 통보의 교섭을 매듭짓는다면 옛 우호를 연면히 잇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양外洋 각국에 대해서도 명의名義가 바르게 되어 앞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강화講和를 다룰 때도 충분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인韓人에게도 대수사 서계의 개찬은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 공무가 순편順便하게 해결될 때 사절의 엄체淹滯와 미국 관계의 염려도 없을 것이니, 그때 이르러 종전의 여러 의혹이 하루아침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로부터 스스로 황조에 의뢰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니, 일거양리一舉兩利의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년이 지나 오늘날에 이르러 서계를 개찬하는 것은 황조가 체면을 잃는 것과 같다는 등의 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상 소 씨의 사절이며, 한국 간원懇願의 정실情實을 이번에 황조에서 양찰諒察하시는 것입니다. 자구의 지엽적인 말론末論으로 인해 완전히 통신通信의 근본을 해치는 것은 조정의 본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 씨에게 내린 엄령嚴令의 취지에 따라 시의에 맞게 응접을 받고, 다년간 공무가 지체된 것은 양국의 정실情實이 관철되지 못한 탓으로 돌리되 그 책임을 특히 타이슈에 맡긴다면, 이 일거로 인해 조금도 국가의 체통國體를 손상치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의 사실을 부디 받아 들여주시고, 속히 무언가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라옵니다. 이상.

**09 4월 9일 안도 다로安藤太郎 등으로부터, 나가사키長崎에서 히로시마廣島 어선으로 출범
出帆함을 알려온 서한**

계속해서 서한으로 아뢰 바와 같이, 지난달 28일 밤 나가사키현에 상륙하고, 다음날 현청縣廳에 출두해서 승선乘船의 주선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여러 번의 선박들이 모이지도 않고, 겨우 2척만 항구에 머물고 있었으나 수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2, 3일 안에 도슈土州의 오리사선オリサ船이 도착한다고 했으므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달 2일 밤에 항구에 도착했으므로 여러 가지로 담판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굳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히고번肥後藩 덴샤마루天赦丸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미야가와宮川 지사의¹³ 옛 번이니 강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크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일에 이르러 현청에서 출두할 것을 알려왔습니다. 즉각 히로노부가 현청에 가니, 지참사知參事와 덴샤마루 선장을 호출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대략 현청에서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장의 말이, ‘이 배는 대단히 작은 배다. 가와조키川蒸氣¹⁴ 중에서도 작은 것으로, 실제로는 히고까지 내해內海 운송에 쓰고 있다. 큰 파도를 만나면 대단히 곤란하다. 설령 순풍이 부는 계절이라도 날씨가 매우 좋은 날이 아니면 출범하기 어렵다. 며칠이나 걸릴지도 기약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3,000금을 용선 대금[雇入代]으로 신청했는데, 지참사의 간담懇談에 따라 2,300냥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나가사키현에서 출범하여 여러 항구에 머무를 때, 그 정도의 풍파에 출범의 명령을 내리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국 선박이 이미 지난달 27일 아침에 나가사키현에서 출항하여 이미 때를 놓쳐서 한시라도 서둘러야 했으므로 마음속으로 매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순풍이 불더라도 조금 풍량이 일면 출범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화선和船보다도 늦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용선 대금도 참으로 부적절했습니다. 아무튼 증기선 문제

¹³ 미야가와 후사유키(宮川房之): 1871년 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나가사키현지사를 역임.

¹⁴ 하천을 운행하는 흘수가 낮은 증기선.

는 안도 다로가 상세히 아는 일이므로, 이러한 형편에서는 사건으로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답변을 해야 했지만, 어리석은 저의 생각으로는 매우 좋은 이야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해 두었습니다. 다로와도 상의했는데, 그도 같은 생각으로서 대금이 매우 부적절하며 게다가 아주 좋은 날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성가신 일이라고 했으므로, 우선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현청에 알렸습니다.

또 이국선異國船을 용선하고 수부水夫 등은 황국인皇國人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즈하라번까지 이국선으로 간 후 그곳에서 화선和船으로 갈아타든지 간에 어쨌든 이선異船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심했지만, 이는 도저히 풍파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선和船을 알아볼 것을 이즈하라번저에 명령했는데, 이 또한 때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찍이 야나기와라 경계 내의內意를 여쭙 것처럼, 가라쓰唐津까지 육로로 간 후, 그곳에서 작은 배로 건너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고さきぶれ¹⁵를 신청한 후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히로시마선廣嶋船이라는 어선[獵船]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소 이즈하라에서 나가사키현에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운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통항하는 것으로, 마침 1척이 7일 오후에 가라쓰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즉시 말해보니, 어제오늘 이틀 사이에 화물을 내린다고 했으므로, 오늘 저녁에 탑승하여 내일 새벽에 출항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현청에도 전달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편선便船에 늦게 탑승한 뒤로 점점 지체하게 되었으므로 몹시 황송하여 밤낮으로 고심했지만, 어쨌든 오는 선박이 없었습니다. 현청에 대해서도 크게 진력했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모조록 양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난 3일 오후 이즈하라번저의 줄썰 1인과 히로쓰가 육로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비선飛船으로 건너가 명하신 유서諭書 등본과 이즈하라번에

¹⁵ 원문의 사키부레(先触)는 관리나 귀인 등이 여행할 때, 각 역참(驛站)에 미리 필요한 인마(人馬)를 준비케 한 명령서를 뜻한다.

내리신 지령서 등본 등을 발송해 두었으니, 지금은 어선[海士船]으로 한국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출항해서 최대한 서둘러 이즈하라번에 도착한 후 다시 자세한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이를 납득하시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위에 아뢰어 주시길 바랍니다.

미(신미, 1871년) 4월 9일

안도 다로

히로쓰 히로노부

조선사무변리 귀중

객사의 창이 어지러운 가운데 큰 난필亂筆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추신追啓.

- 一. 며칠 전부터 제출한 서장書狀의 취지를 평의評議하신 후 가부를 교시해주시길 바랍니다.
- 一. 요시오카를 비롯한 일당日當과 수당금手當金 등은 또한 지난번에 건의한 것처럼 부디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생은 왕복한 잡비가 의외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저것 포함하여 3월부터 6개월의 급여도 함께 보내주시도록 회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 一. 이즈하라번 도간전都幹傳 및 간전관幹傳官 2명의 출사出仕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 드린 것처럼, 부디 평의評議하시고 속히 회답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 一. 이번 달 2일에 작성된 성장省狀은 그에게 현청縣廳으로부터 전달받아 배현拜見했습니다.

이상.

히로노부

10 난바 아사카難波安積의 귀국 건을 평의評議하는 글

난바 아사카가 사다 나오히로의 저택에 찾아가 조선의 국가정세를 간담懇談한 것에 관해, 일단 이를 가키토리書取로 제출하도록 말씀하셨는 바, 번의 명의로 별지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 논의는 원래 정대한 설說이 아니니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난바가 히로쓰와 같은 배로 상경했다가, 히로쓰는 다시 방향을 돌려 출장을 나갔는데, 난바 1인은 진퇴에 명의名義가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서면으로라도 명을 받고자 탄원하는 것으로 지당한 일이니, 제출하는 서면에 덧붙여 별지를 다음과 같이 보냅니다.

난바 아사카

예전에 가키토리로 제출한 조건은, 여러 사람의 평의를 마친 뒤에 하달할 것이니 해당 가키토리는 보류해 둔다.

신미(1871년) 4월 12일

외무성

11 이즈하라번嚴源藩으로부터, 예전에 제출한 서한 개찬 건의 재결裁決을 재촉하는 글

조선국의 현재 체세體勢에 관한 견해를 예전에 가키토리書取로 아뢰었습니다. 그 조건들에 관해 중의衆議를 다한 후 지시를 내리겠다는 뜻으로 지난 12일 난바 아사카에게 내리신 분부를 삼가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수사 진퇴의 방법에 관해선 예전에 아뢴 일도 있습니다. 저 나라의 용건과 관련하여 체류한지 이미 3, 4년이 되었으니 더 이상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더욱 저 나라의 의심을 더하여 대체大體의 공무에 미치는 해는 물론이며, 무엇보다 조정의 위엄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다시 아뢰는 것이니, 외람되오나 예전에 올린 가키토리의 등본을 첨서添書로 변환

弃官에게도 진달進達해 두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충분히 상의하여 급히 무언가 분부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신미(1871년) 4월

이즈하라번

외무성 귀중

12 4월 ○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히로세 도요키치廣瀬豊吉와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를 등용할 것을 이즈하라번嚴源藩에 지령한 글을 첨부해서 보낸 서한

외무성 출사

히로세 도요키치

우라세 사이스케

이번에 본성本省(외무성) 출사 명령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요시오카 고키, 모리 야마 시게루, 히로쓰 히로노부의 지휘에 따라 공무에 관해 면려勉勵하여 근무할 것.

신미(1871년) 4월

외무성

【두서頭書 : 이는 후에 쓸모없게 되었음. 히로노부】

이즈하라번

14등 관록官祿 하사下賜

히로세 도요키치

15등 관록 하사

우라세 사이스케

위 2명은 이번에 본성本省 출사를 명받았으니, 이에 따라 별지의 사령使令을 전달進達할 것임. 배명拜命한 후 진퇴 등은 모두 세 사람의 지휘를 받들라는 뜻으로 지면을 통해 지시가 있었으므로 이를 전달함.

신미(1871년) 4월 외무대승外務大丞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히로쓰 히로노부 님

또한 요시오카 고키 님께 말씀드립니다. 히로쓰 히로노부의 일과 관련하여, 다시 11등 관록 하사의 사령辭令을 발송했으니 그에게 하달하십시오. 또 3명 모두 배명拜命한 당일로 관록이 하사되므로, 배명 사실을 아뢰십시오. 월月, 일日을 인편으로 알려주길 바랍니다.

또한 위의 2명에게 본성本省 출사의 배명拜命과 관련해서, 도쿄 이즈하라번저에 별지와 같이 하달해 두었습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그쪽 번의 명에 따라 조선국 부산에 출장나가 있는 히로세 도요키치에게 본성本省 출사出仕의 명이 내리고, 14등 관록이 하사되었음. 우라세 사이스케도 위와 같으며, 15등 관록이 하사되었음. 여러 사항과 공무에 관해선 본성本省에서 출사出使한 요시오카 고키, 모리야마 시게루, 히로쓰 히로노부의 지휘를 받도록 지시가 내려오니, 이를 명심하도록 통보함.

신미(1871년) 4월 외무성
이즈하라번

13 4월 13일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타이슈**對州**로부터,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등에게 보내는 내유서**內諭書**를 어선**〔海士船〕**으로 초량관**草梁館**에 송달했음을 알려온 서한**

저희는 지난 10일에 나가사키현에서 출항해서 포구마다 조선漕船을 빌렸으며, 같은 날 밤 면고포面高浦에서 폭우를 만나 정박했음. 11일 10시에 강한 비로 인해 조선漕船을 끌고서 7리 정도를 지나 구스도마리楠泊り라고 하는 곳에서 조선漕船을 떠나 돛을 올림. 같은 날 밤, 히라도平戸 오시마大島에 도착함. 12일 새벽, 오시마를 출발해서 곧장 돛을 올림. 2시경 이즈하라변까지 5, 6리 쯤 되는 곳에서 갑자기 뇌우雷雨를 만났지만 무사함. 4시를 지나 이즈하라변에 들어가서 상륙함. 곧장 번사들을 만나고, 곧장 지사 공을 알현함. 각각 수당手當을 주심. 내일 14일 새벽에 이 항구에서 출항하기로 결정함. 또한 2일 나가사키현에서 파견한 번줄藩卒 파발꾼은 지난 10일에 번에 도착함. 11일 어선〔海士船〕으로 도착했다고 하므로, 어제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서諭書의 등본을 전달했을 것으로 짐작됨. 이 번으로선, 미국 함대의 실정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채, 누군가가 한국에 도착한 후 부랴부랴 탐지한 상황을 서둘러 보고했음. 또한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로부터 엿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 답서를 오직 기다리고 계시므로 모쪼록 부탁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4월 13일 저녁

히로쓰 히로노부

조선사무변리 귀중

14 4월 14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등에게 보낸 서신**

성상聖上께서 더욱 평안하시니, 지극히 기쁜 일로 생각됩니다. 여러 공께서도 더욱더 청장淸壯하시니 봉직의 기쁨이 여기에 있을 줄 압니다. 본성本省(외무성)은

경卿을 비롯해 속사屬司들이 모두 무양하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히로쓰 히로노부 님이 고베와 나가사키 두 곳에서 보내신 서간은 모두 받아보았으며, 전해주신 내용도 잘 알았습니다. 나가사키 쪽의 선편先便에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이미 조선에 도착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표류한 한인韓人 5명을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방략方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一. 미국 군함 5척이 3월 28일 나가사키 쪽에서 출범했다는 소식은 그 나라 공사에게서도 들었습니다. 이후 한인의 동정動靜이 어떨지 상상想像을 금할 수 없습니다.
- 一. 우리나라의 형세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지만, 지난번 서한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도하都下(도쿄)는 여전히 경계[警嚴] 중이며, 관원 일부를 여러 번에 아즈케預け¹⁶ 보냈습니다. 아직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그밖에는 우선 여러 구니國와 평온한 모습입니다. 또한 마루야마 권대승이 오늘 14일에 면직처분을 받은 사건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一. 외무성의 미즈노水野 소승은 지난 11일에 출두명령御用召에 따라 예복을 착용하고 참조參朝하였는데, 본관本官을 면직했습니다.
- 一. 작년부터 미토번水戸藩에 의뢰한, 예수교도의 영시迎視를 위해 이번에 구스모토 권대승, 나카노 권대승 두 사람이 출장을 명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토加藤 권소록, 니시무라西村 사생史生 두 사람에게 수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미야모토 소승이 하코다테箱館 쪽에 공무로 지난 13일 이곳에서 출발했습니다.
- 一. 지나행支那行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5월 초로 정해질 것입니다. 지난도 작년 텐진天津 폭동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이는 완전히 원주민土民의 소행이 아니라 정부도 관계되어 있음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프랑스로

¹⁶ 에도시대 형벌 중 하나로서, 죄인을 맡겨서 일정기간 근신시키는 것. 무가(武家) 시대에 죄인을 영주·절·친척 집 등에 맡겨서 감독하게 한 일.

부터 다시 문죄問罪의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도 프러시아와 화평和平한 후, 국내에 민란[一揆]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지금 한창 어지럽다고 합니다.

- 一. 그쪽에 출장 나간 이즈하라번사 2명이 외무성 출사의 명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그 번에도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즈하라번에서 이번에 제출한 건언建言의 등본은, 실행하긴 어렵지만 이해하시도록 보내드려서 일람一覽하셨습니다.
- 一. 히로쓰 히로노부 님이 고베에서 보내신 서장書狀 가운데 각자의 관록官祿에 관해선 관례대로 대장성에 교섭했으며, 별지와 같이 서무庶務에서 회신했습니다. 물론 히로쓰 히로노부님의 관록 6개월분은 보내드려야 하지만, 아무튼 대장성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다음 인편으로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신.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국가를 위해 오직 자애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신미(1871년) 4월 14일

외무사생 오쿠 요시노리
문서관대우 곤도 마스크
사다 나오히로

외무권소승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히로쓰 히로노부 님

요시오카 고키 님 외 2명에게
히로쓰 히로노부 님께
히로쓰 준조廣津俊藏 님께

야나기와라 대승으로부터 1봉封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로부터 1봉
나가카와 도슈長川東洲로부터 1봉

안도 다로님께

택장宅狀 1봉

히로쓰 히로노부님께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으로부터 1봉

【단, 나가사키에서 보냈으므로 반각(反却)함】

요시오카 고키님께

오쿠 요시노리로부터 1봉

모리야마 시게루님께

오타케 민부소록民部少錄으로부터 1봉

이상과 같이 보내드리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록官祿에 관해선, 본문에 말씀드렸는데 비각선飛脚船으로는 미덥지 못하므로 타이슈 번에 부탁해서 그 번이 대신 6개월분을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번에서 인편이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를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15 4월 19일 요시오카 고키岡弘毅 등으로부터, 내유內諭에 따라 조처[調辦]했지만 훈도訓導가 초량관草梁館에 오지 않은 것과 미국이 청국에 조회한 일 등을 기록한 별지를 첨부하여 보내온 서한

외무경과 외무 대보·소보 공을 비롯해 제언諸彦이 더욱 면려하고 정진하시니 봉직奉職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요崎陽¹⁷에 있는 히로쓰 히로노부가 이번 달 2일자로 서장書狀을 보내 미국 군함이 도래渡來한 시말을 알려왔습니다.

외무경 공의 유달서諭達書 등본을 배견拜見하고 지시하신 내용을 일일이 이해했

¹⁷ 기요(崎陽): 나가사키(長崎)의 별칭.

습니다. 미국 함대가 도래한 시말을, 훈도에게 우선 별지와 같이 통고했습니다. 그가 왜관에 들어온 후 정성껏 설유說諭해서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병을 이유로 답서만을 보낸 후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단, 답서 가운데 ‘의아스럽다[可訝]’라거나 병을 핑계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의 교활한 술책임은 이를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또한 우라세 사이스케 등이 외국의 상황을 탐색하였는데, 별책別冊과 같이 청국에서도 조선에 유달識達했지만, 결단코 거절할 작정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라·경상의 2개 도道의 공미貢米를 적치積置해서 올려보냈습니다. 이는 이번의 준비를 위한 것으로, 그대로 각 도道에 비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교전의 각오를 했으며, 오직 방어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이므로 미국이 답판한다고 한들 쉽게 승낙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전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변동에 따라 더욱 내유內諭의 뜻을 새겨서 임기응변의 조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안도 다로, 히로쓰 히로노부가 도한渡韓한 후 신중히 조정의 계책을 배승拜承하며,¹⁸ 또한 일동숙의熟議해서 그 조치를 그르쳐 후환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더욱 진력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변事變이 발생하는 대로 즉시 보고하겠지만, 우선 이상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신미(1871년) 4월 19일

모리야마 시게루

요시오카 고키

대·소승 귀중

또한 조선의 정상情狀은 더욱 열심히 탐색의 수단을 대하겠지만, 미국인의 조치 및 그 밖의 세세한 사정에 관해선 오히려 본국에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일이라도 남김없이 신속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¹⁸ 배승(拜承):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

一. 지난 서한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7일 밤 혼도와 면회한 끝에 마침내 어제 18일에 별지와 같이 답서를 보내왔습니다. 모두가 숙의熟議하며 저들의 실정을 탐지했는데, 오늘날의 상황으로는 100번을 왕복하더라도 도저히 숙성熟成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히로쓰 히로노부가 상경上京했을 때 의견서[見込書]를 올린 것처럼, 신중히 참작하시어 속히 무언가 방침을 세울 수 있도록 진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1 미국이 청국에 조회한 일 등을 기록한 별지를 첨부해서 보내온 서신

미국이 베이징北京에 제기한 시말을 조선에 통지한 밀담의 가키토리書取

최근 베이징 정부에 미국이 제기한 바는. “우리나라의 상선이 풍랑을 만나서 작년 조선국에 표류하여 정박하게 되었는데, 매우 가혹한 처분을 받아서 곤란했다. 근래는 만국의 항해술이 날마다 번성하니 앞으로 난파선 또는 연료·식수가 부족해서 기항해야 할 때는, 천지天地 사이에 일기一氣를 공유하는 인류이니 그에 마땅한 무휼撫恤과 애련哀憐을 바탕으로 다뤄주도록 속국屬國인 조선에 유달해주길 바란다.”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깊이 숙고해서 답서를 줄 것을 요청했는데, 지난 3월 2일에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관리들은 본디 고위급 대신들이며, 유명한 현사賢士들이 모여서 조정의 의론을 도출했다. ‘몇 해 전 추한 오랑개[醜兇]가 강화부를 내습來襲하고 왕릉을 파헤쳐 영골靈骨을 탈취한 악행은 신자臣子의 분수로 볼 때 불구 대천의 원수다. 조선의 인민이 존재하는 한 선왕의 고령高靈에 봉답奉答해서 대대로 지키며 반드시 죽는 것이 온 나라의 각오이니, 설령 대국의 명이라고 해도 추한 오랑개와 화친하는 일은 결단코 행하기 어렵다. 억지로 포만暴慢하게 끌어모은 군함

들이 우리에게 향한다면, 미약한 나라지만 국력을 다하여 도道を 보존하고 義를 지킬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와 함께 죽어서 선왕에게 해명하고자 한다.’라는 논의였다. 대원군이 이 의론에 감격해서 단연코 분명한 답서를 작성했다. 그 후 명시적으로 거둬진 분부는 없었지만, 베이징의 요로要路에서는 조선의 대신들에게 별도의 서한을 보내서 ‘확고한 뜻이 참으로 훌륭하다. 과연 문명文明의 나라라고 조정에서도 찬미했다. 중국의 400여 주州도 처음부터 이러한 결심이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형세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스러워했다. 미국에는 베이징에서 조선에 유달諭達은 보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우리 군함 12척을 인솔해서 직접 들어가 담판할 것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습격해 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를 명심하라.’라고 최근 베이징에서 서한이 왔다. 원래 양이攘夷의 국론國論으로 확고하게 일치된 이상, 이제 와서 놀랄 일은 없다. 또한 그 준비 방법에 관해선 한양에서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첨부2 훈도에게 미국 함대의 일을 알리기 위해 초량관草梁館에 올 것을 알리는 글

훈도 영감令監께 (上)

첫 더위가 바야흐로 심해지는데 기거起居가 한결같이 평안하신지 알고자 합니다. 저는 근근이 예전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니 일신의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사館司의 말씀에 ‘이번에 선박을 통해 서한이 전달됐는데, 미국 함선이 이미 귀국을 향해 출범했다는 말이 있었다. 귀국을 위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 사연을 자세히 대면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 속히 왜관에 오시도록 기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내려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잠시 아뢰니다.

신미(1871년) 4월 15일

간전관

첨부3 훈도가 병 때문에 초량관草梁館에 오기 어렵다고 답하는 글

간전관 公公께 구상口上

방금 보내주신 서찰을 받고,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데 公公의 안부가 계속해서 평안하신 듯하여 기쁨과 위안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부터 체설滯泄¹⁹로 몹시 앓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보내주신 뜻을 잘 알았습니다. 미국 일은 듣고 크게 의아하셔서 이처럼 우려하여 기별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병상病牀이 말씀드린 것과 같아서 아직 내려갈 수가 없으니, 조금 차도가 있길 기다렸다가 왜관에 가겠습니다. 이를 서량恕諒해 주시고, 관사館司 공께도 말씀 해주길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신미(1871년) 4월 15일

훈도

첨부4 훈도가 동래부사의 뜻을 받들어, 외무성 관원을 접대하는 것은 규정 외이므로 행할 수 없음을 진술하는 글

이제 초여름에 公公의 안부가 계속해서 평안하시다니 구구한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저는 최근 체설滯泄로 앓고 있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예전에 관수官守가 대청大廳에서 말씀하신 공무 건은, 과연 대차사大差使·관수·일대관 세 분이 공간公幹하신 이유를 두 사또께 틈을 타서 자세히 아뢰었는데, “이 같은 일반적인 말[一般之言]을 누누이 번설煩說하는 것은 훈도의 도리로 볼 때 부당하고, 나도 문답할 수

¹⁹ 체설(滯泄): 체해서 생기는 설사.

없다. 반드시 훈도의 말로 답송^{답송}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록해서 보내드리니 부디 깊이 양찰하길 바랍니다.

신미(1871년) 4월 15일

훈도

대체로 300년 동안 교린^{交隣}한 이래로 의리^{義理}가 별과 태양처럼 환하고 성신^{誠信}이 금석^{金石}보다 무거워서, 일동일정^{一動一靜}을 반드시 항규^{恒規}(일정한 규칙)를 준수했으니. 비록 이를 어기고자 해도 어찌 기꺼이 따르겠는가? 그러므로 일이 항규에 관계되면 설명할 필요도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설령 천만 마디 말을 하더라도 한갓 무익할 뿐인 것이다.

귀국이 사례^{事例}를 상세히 알고, 또한 교린등록^{交隣謄錄}이 있으니,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단지 약속을 준수할 뿐이다. 어찌 법식을 어긴 일이 있었겠는가? 대수사가 서계^{書契} 건으로 4년이 지나도록 아직 복명^{復命}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교섭^[酬酌]한다고 한다. 그 공무의 사체^{事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실정에 차마 순순히 받지 못하는 사유는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 정의^{情意}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규칙에 없는 담론으로 어찌 공무의 사단을 야기하는 것인가? 이 때문에 개탄하는 바이다.

모든 교린사무를 그쪽 섬^{貴嶼}[쓰시마]에서 주관하고 왕복한 것도, 본래 귀국 조정이 약조하여 정식^{定式}이 된 일이다. 양국이 이를 준행한 지 이미 300년이나 되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갑자기 규칙에 없는 일로 이처럼 번거롭게 하니 그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 공 등이 성사될 수 없는 공무를, 규칙에서 벗어난 담론을 내세워 오래 요구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성사될 도리가 있겠는가? 참으로 선린호의^{善隣好誼}를 바란다면 오직 구례^{舊例}에 따라 속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옳다. 일 처리가 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또 저에게 말씀하더라도 불긴不緊한 것은, 조정의 처분이 허락하질 않으니 사또께서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거늘, 하물며 제가 어찌 감히 독자적으로 의논하겠는가? 다시는 이처럼 번거롭게 왕복하지 말라. 왜관에서 깊이 헤아려 재처裁處하고, 바라건대 인의隣誼를 돈독히 하고 오직 약조를 준수해서 300년 화호和好의 오랜 우의를 해치지 않아 천만년 태평한 반석의 장책長策(원대한 계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 진술한 사연은 바로 두 사또가 답교答敎하신 의향입니다. 이를 서량恕諒하시길 바랍니다. 갖추지 못하고 보냅니다.

16 외무성에서 품의한 바의 이즈하라번嚴源藩에서 제출한 서한 개찬의 건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지령

지난날 이즈하라번 난바 아사카가 당성當省(외무성)에 출두한 후, 별지와 같이 아뢰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그 번에서 제출한 가키토리書取에 관해 급히 분부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지附紙의 취의서趣意書を 첨부합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신미(1871년) 4월 19일
변관 귀중

외무성

츠케후다 안御付札案²⁰

²⁰ 츠케후다(付札): 명령, 의견, 답변 등을 적어서 본 문서에 부친 쪽지.

서계 상의 자구를 이제 와서 고치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도 관계되므로 분부하
시기 어려움. 또한 외무성에서 요시오카 고키 등에게 명해 두었으니 모든 일을 그
들과 상의할 것.

17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미국 함선의 일로 초량관사草梁館司에게 명하는 글

이번에 서신으로 미국 함선이 그 나라에서 조선을 향해 출범했음을 전해 들었
습니다. 그 자세한 연유는 상세하지 않지만, 풍문으로는 몇 해 전 그 나라 선박이
조선 연해에서 파손되었을 때 승선한 인원들이 조선에서 매우 가혹한 취급을 받
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선박이 조난될 경우 마땅한 보호를 받고자 담판하기
위해 건너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교섭[應接]의 득실은 조선의 이해利害에 관계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알아두도록 신속히 고지告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의誠意
를 다합니다.

신미(1871년) 4월 15일

이는 당일로 관사館司에게 전달함.

18 이즈하라번청嚴源藩廳으로부터. 위와 같음.

그 나라[조선]가 예전에 미국 상선을 상해傷害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대를
움직여서 이 일을 분명하게 다스리려는 것이니, 장차 조선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
입니다. 그 조짐이 이와 같으므로 조정에선 그 실재를 자세히 조사한 후, 인의隣誼
를 나누는 사이에 안위安危와 관계된 일이라 깊이 근심하시어 외무성 관원을 파견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본주本州(쓰시마)에 대해 교호交好의 두터움이 비단 금석이 비길 정도가 아니니, 어찌 소홀히 들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사세事勢를 통찰하고 장래를 숙려해서 전화위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 관한 사유를 훈도와 별차에게 고유告諭하니, 속히 동래부로 달려가 보고하십시오.

신미(1871년) 4월 ○일

정소政所

이상과 같이 관사館司에게 효유曉諭함.

19 4월 27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으로부터, 안도 다로安藤太郎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한국에 도착하여 내유內諭의 의미를 파악했음을 알려온 서신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즈음 경·보 공을 비롯해 여러분이 더욱 여정勵精하시니 봉직奉職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17일자 서한으로 미국 군함 건에 관한 조선국 여론의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그 후 더욱 미국 함대의 도래渡來에 관해 별지의 신문을 얻었으므로 보내드립니다. 아무튼 나라의 실정實情을 비밀로 하는 풍속인 데다가, 이곳 초량관은 변방의 가장자리에 있으므로 한양 쪽의 사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즈하라번 사람에게 갖가지로 손을 쓰게 해서 내탐內探했지만, 겨우 별지의 단서를 얻은 정도이니 모쪼록 추찰推察하시길 바랍니다.

이곳 변방은 완전히 무사하며 한인韓人들도 평상시에 다름없이 거동에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로써 생각해보면, 아직 교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쇄양鎖攘(쇄국)의 의론이 이미 별지와 같이 한번 정해져서 과격하게 거절할 것이니, 반드시 교전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중간에서 억지로 간섭해서 저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의猜疑를 키워 더욱 용도用途에 차이[杆格]를²¹ 생기게 할 것입니다. 훈도는 이번에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제 별차가 입관入館했으므로 미국 함대가 건너오는 시말을 알려주고 전화위복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히로쓰 히로노부와 안도 다로는 지난 10일 나가사키에서 출항한 후 23일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여 각각 명령하신 취지를 배승拜承했습니다.²² 또한 앞으로 미·한米韓의 거동에 따라 임기응변의 조치를 할 것이니 깊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이상과 같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례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신미(1871년) 4월 27일

히로쓰 히로노부

모리야마 시게루

요시오카 고키

대·소승 귀중

20 별차別差가 초량관草梁館에 와서 이양선[異船]을 소탕할 것임을 역관[舌官]과 관사館司에게 말한 글【2통】

4월 20일 별차를 사택私宅에서 접견한 것과 관련하여, 이양선[異船]의 동정動靜 및 미국 사건에 관해 베이징과의 사이에 통고와 응답 등이 없었는지 탐문하자, 그가 극히 은밀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一. 이번 4월 2일 경기도 수원水原과 강화도 사이의 앞바다에 이양선 5척이 들어와 정박하였고, 5일 3척, 7일 7척 등 총 15척이 이곳으로 들어와 정박했다. 그리고 보트[端船]로 상륙하려고 했으나, 활과 총으로 쫓아내어 끝내 상륙하지 못하고 모두 돌아갔다. 다음날 8일에 그곳에서 물러갔다고 한다. 그 후 별진別津에 잠시

²¹ 한격(拏格): 의견차로 인해 서로 받아들이지 않음.

²² 배승(拜承): 공손하게 받거나 들음.

배를 정박하자, 차비관差備官[관직명]이 즉시 8일에 한양에서 출발하여 조금 전에 도착해서 이상의 사실을 알았다. 나머지는 아직 상세하지 않다. 어떤 나라의 선박인지도 판별되지 않았다.

- 一. 예전 동래부사 강씨姜氏가 당관當官(현직) 병조판서로서 동지사 정사로 베이징에 가서 3월에 귀조歸朝했을 때, 베이징에서 “미국이 의뢰한 것은, 조선과 서로 신의를 나누고[通信] 또 표류 등의 사건이 생겼을 때는 연료와 식수를 제공해주길 바라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절했다고 한다.
- 一. 작년 외국인[異人]이 파해친 강화江華 덕산德山의 능陵은 바로 현재 군왕의 조부 祖父의 것이다.

대략 이상과 같습니다.

4월 21일

우라세 사이스케

4월 25일 별차가 관사택館司宅에서

별차의 구두 진술[口上]

한양에서 보낸 이번 달 14일자 서한[音信]을 입수했는데, 수원의 이양선은 결국 물러갔다고 함. 11일 남양南陽에 5척이 들어와 정박했는데, 이 또한 활과 총으로 막아서 상륙하지 못하고, 14일 물러갔다고 함. 단, 이는 수원에 나타난 배가 아니며 다른 배였다고 함.

4월 21일

21 미국 함선이 조선에서 남경인南京人을 통해 한 필담

이번 달 11일 미국 군함 5척이 경기도 강화·수원[江水]에 정박해서 문정問情을 하였는데, 남경인南京人이 답승하고 있었으므로 필담을 하였음.

미국인 : 근래 귀국의 섬과 바다에 끊임없이 선박이 통항하는 때로서 풍파의 환난을 면할 수 없이니, 실로 항해하는 데 큰 근심이다. 게다가 연료와 식수가 간혹 떨어져서, 예전에 귀국 경내에 들어와 간곡히 부탁했지만, 굳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치 원수처럼 대했으니 대단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지금의 형세는 사해四海가 같은 한 몸으로서, 각국이 통신교역通信交易함은 가장 중요한 선물[賜]이니, 앞으로 화친을 맺기를 희망하는 취지다. 따라서 조선의 귀대신貴大臣과 면접을 해서 담판할 것이다. 지금까지 점차 입항하는 일이 있었지만, 끝내 문정問情을 받지 못해 정情誼가 통창通暢하지 못했는데,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번에 이처럼 대화를 시작한 것은 피차의 다행으로서, 선박에 있는 모두가 기쁨의 기색을 드러냈다.

조선인 : 귀대신의 면담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직책이 없지만, 평소 눈에 익지 않은 선박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관람을 위해 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간곡한 정[懇情]의 전모는 물러가서 대신께 말씀드리겠다. 만약 희망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멀리서 왔으니 바람이 혹시 이뤄지지 않아서 부질없이 물러갈 것인가?

미국인[亞人] : 멀리서 와서 간절히 요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 때문이 아니다. 항해의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다. 만약 바람이 이뤄지지 않아서 부질없이 물러가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부득이하면 무기를 준비한다.

조선인 : 과연 제기하신 사안은 대단히 쉽지 않다. 지금 접대하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면담 문제로 인해 시일을 허비하여 병단

을 열게 된다면, 이미 전부터 준비가 돼 있으니 이제 다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한 후 헤어졌다고 함.

一. 그 후 5척 가운데 2척은 당천湯川 주변까지 진입했다. 그러자 육지에선 화살과 대포를 발사하며 방어하고, 군함도 발포했다. 미국인은 5명을 죽이고, 조선인 가운데 좌우 산속에서 척후斥候하던 자 2명이 미국인에게 포박되어 선박으로 끌려가 참살斬殺당했다고 함.

문정問情하러 가신 배에는 병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함. 승선 인원은 48명이라고 들었음. 이 승선 인원엔 관해선 동래부에서도 의심스럽게 생각했다고 함. 이상 1건은 한양에서 본부本府(동래부)에 특별히 통지했다고 들었음.

앞에서 말한 응접을 진행하던 중, 미국인이 “이 함선에는 신자형제臣子兄弟의 나라인 일본인과 지나인支那人, 그리고 조선 사람까지 탑승하고 있으므로 함부로 발포해선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조선인은 “적賊과 일을 공모하면 같은 적이니 그 죄를 면할 수 없다. 결코 피차의 구별은 있을 수 없다. 탑승한 조선인은 2명으로 서양 옷을 입었으니 완전히 서양인이다. 몇 해 전 표류했을 때 미국인에게 구조돼서 그 나라에서 오래 애민哀憐과 보호를 받아 열복悅服했다. 이제 조선에 돌아오더라도 부모 자식이나 형제, 친척이 없으니 의지할 데가 없고, 곤장 엄형嚴刑에 처해질 뿐이다.”라고 하면서 귀국시킬 생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함.

왕성王城 근해近海에 쳐들어가려는 양상과 쌍방이 결전할 형세가 분명히 드러남. 따라서 요로要路에서는 극비리에 천도遷都하려는 논의 등도 있다고 함.

문정問情과 탐색을 위해, 첫 단락에서 함선을 관람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군함에 오른 자는 지금 별차 경오景五의²³ 근친이라고 함.

22 외무성에서 이즈하라번(嚴源藩)에 보낸 서면(書面)의 재결을 변관(弁官)에게 재촉하는 글

변관 귀중

외무성

이즈하라번에서 제출한 가키토리(書取)와 관련해서, 당성(當省)(외무성)의 의견을 덧 붙인 서찰 안을 첨부하여 이번 달 19일에 아뢰었는데, 그 번에서 여러 차례 재촉 하고 있으므로 속히 분부를 내려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신미(1871년) 4월 29일

23 4월 그믐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사표 수리와 건의를 위해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등의 상경을 바란다는 뜻을 알려온 서한

이번 달 23일 안도 다로와 히로쓰 히로노부가 한국에 도착해서, 미국 함대의 출발과 관련한 본성(本省)(외무성)의 배려, 외무경 님의 내유(內諭)의 취지를 자세히 들 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의 탐색은 백방으로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사정을 은닉하는 토인(土人)(조선인)이니 어쨌든 분명히 단정하기 어려우나, 저들의 말을 대조해보면 미국 함대가 입항했을 때 깊이 문정(問情)하지 않고 화살과 대포를 발사해서 거절하고 물리친 것은 실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차츰 화전(和戰) 등에 손을 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개립(介立)해서 끝내 목적을 달성하라는 내유(內諭)도 있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볼 때 더욱 저들의 시의(猜疑)를 키워서, 저들이 우리 에게 의뢰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 한갓 수수방관하면서 미국 함대 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無策)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작년 겨울

²³ 별차 현경오(玄景五)를 말한다.

이래의 절차대로 백번 신유申諭를 하더라도 승낙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모두의 고평苦評이, 더욱 신중히 현지의 정황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묘의廟議를 여쭙고, 거듭 히로쓰 히로노부 및 고바야시 다다시를 급히 상경시켜야 한다는 것이므로 다시 이를 아뢰니다.

이즈하라번에서 제출한 사표의 수리와 관련하여, 어쨌든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음을 저들에게 관철할 수 없습니다. 이 상주가 도착하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은혜를 베풀고 한번 위엄을 보임으로써[一恩一威] 끝내 우리의 목표를 이루도록 힘써주시되, 부디 현지의 상황을 깊이 참작하신 후 영명한 결단을 내리시도록 진력해주실 것을 앞드려 바라옵니다. 또한 자세한 사정은 히로쓰가 진술할 것이니 부디 청납聽納해 주십시오. 물론 오늘이라도 미국 함대가 돌아갈 경우에는, 내유內諭에 따라 임기臨機의 조치를 할 것이니 이 점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一. 안도 다로는 이곳에 체재하더라도 오늘의 형세로는 반드시 쓸모가 없습니다. 또 그의 의견도 있어서 귀조歸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안도 및 히로쓰 등에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중요한 안건만 아뢴 것입니다. 이상.

신미(1871년) 4월 그믐일

모리야마 시게루

요시오카 고키

외무대·소승 귀중

지사의 사표가 수리된 후, 외무성과 통교通交하라는 뜻을 소 씨를 통해 전달하는 건.

- 一. 이를 전달한 후 간곡히 설유說諭하면 타결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인韓人이 완고하여 거절할 경우 취해야 할 조처에 관해 사전에 정론定論을 마련하시길 바람.
- 一. 지사를 도해渡海시킬 것.
- 一. 사표가 수리된 후 세전선歲遣船 등을 폐지할 것.

초하初夏²⁴ 그믐일

24 미국 함선의 일과 관련하여 별차가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에게 알려진 글

금일 밤 별차를 만나 나눈 밀담의 등본

이번 달 14일 부평富平의 항구에 미국 군함 5척이 들어와 정박했으므로 문정問情하였는데, 이것저것 이야기한 끝에 무역[通貨]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면 병기兵器를 쓸 것이라고 했다. 대답하기에 적절치 않았으므로, “병단兵端을 연다면 이는 차치且置하고…”라고 단언했다. 그런데 차츰 보트端船로 상륙하려는 것을 총포로 방어하던 중에 뜻밖에도 2명이 총에 맞아서 즉사했다. 저들 또한 대포로 응사했는데, 옥선玉先(미상)을 피해 다행히 아직 죽은 자는 없다고 한다.

배의 길이는 70히로²⁵, 폭은 50히로 남짓이라고 한다. 서양인異人이 정박한

²⁴ 초하(初憂): 음력 4월.

²⁵ 히로(尋): 전근대 일본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 대략 두 팔을 편 정도의 폭을 말한다. 1872년 태정관 포고로 6척(약 1.818m)로 통일됐다.

부평의 강으로부터 경성까지 70리 남짓이고, 천변川邊부터는 5리 남짓의 곳이라고 들었다.

4월 그믐일

우라세 사이스케

25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미국과 한국 관계에 관한 신문지 2통을 첨부하여 한지韓地에 주재한 외무성 관원에게 보고하는 글

별지의 신문지 번역문 2통은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오나, 만약을 위해 살펴보시도록 보내드립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신미(1871년) 5월 4일

나가사키현

한국출장 외무성 귀중

출장지에서 보내온 중요한 서한의 발췌 번역

(1) 조선에서, 1871년 6월 3일【신미년 4월 16일】

一. 치푸芝罘로 향하던 팔로스Palos 호는 비각飛脚으로서 상하이에 파견했다고 들었으며, 물길에 익숙한 선장 보스웰ホスウエル, J.B.Boswell 씨가 이 배에 탑승해서 금일 밤 당항當港을 출발한다. 이 사람은 식료품을 적재하기 위해 운송선을 빌리고, 또 8인치 대포를 주문하려고 상하이로 간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갖가지 풍문이 떠도는 것 같으니, 귀하가 방념放念하시도록 실제 이야기를 정서해서 배계拜啓한다.

우리는 【5월 16일】 나가사키 항에서 출발해서 3, 4일 전에 이곳 해안에 도착했다. 섬들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헤매다가 금일까지 특이사항 없이 시일을 허비했다. 그런데 측량사중(測量社中)은,²⁶ 3일 동안 배를 멀리 계박(繫泊)해 두었는데, 그때 조선인 2, 3명을 만났다. 이들은 모두 예전에 귀하가 어느 나라에서 도래했는지, 몸시 장건(壯健)하고 진중(珍重)하여 한만하지 않은 서한 1봉을 우리에게 보낸 자들이다.

一. 이번 월요일에 제3등 및 제5등의 조선인 여러 명이 본선(本船)에 왔다. 이들은 제독 admiral 또는 공사(minister)를 면알(面謁)할 정도의 고위직은 아니었다. 따라서 로우 F.F.Low 공사 부속 역관 등이 접대했는데, “강 내부로 측량사중(測量社中)을 보낸 뜻과 의향에 관해, 우리가 입선(入船)한 것을 결코 꽤넘치 말라. 물론 그쪽에서 먼저 습격해 오지 않는다면, 굳이 이쪽에서 공격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먼저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통고하자 조선인들은 [습격할] 의도가 없음을 묻더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라고 답하고는 물러갔다.

一. 모노카시(Monocacy) 호와 팔로스(Palos) 호는 작은 증기선(河蒸氣)²⁷ 4척을 거느렸다. 단, 【2척은 콜로라도(Colorado) 호에서, 다른 2척은 알래스카(Alaska) 호 및 베니치아(Benicia) 호에서 나왔다.²⁸】 측량을 위해 칸호(칸호【강화해협(サリ-川) 입구의 섬】)를 향해 출발했다. 조선인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군비(軍備)를 갖추었다. 또 지난번 우리 배에 온 자들은 이 배가 그 장소에 도착했음을 알고 우리에게 갑옷을 입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곧바로 10시에 이르러 멀리 성 아래 해변에서 많은 포성(砲聲)이 들렸다. 이에 작은 증기선에서 12파운드 곡사포(ホウイッル, howitzer)를, 그리고 모노카시호에서도 9인치 탄환을 발사했다. 그때 우리는 크게 놀라 염려하며 함선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략 5시경에 함선들이 돌아와 전쟁의 양상을 말해주

²⁶ 일본어로 사츠후(社中)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동료 또는 조직.

²⁷ 원문의 가와쇼키(河蒸氣)는 하천을 운행하며 화물과 선객을 나르는 작은 증기선.

²⁸ 원문은 각각 코루모라토(コルモラト), 아라스카(アラスカ), 치시아(チシア)로 적혀 있다.

었다. 그에 따르면, 팔로스호의 2명이 적으로부터 부상을 입었고, 모노카시호의 1명이 본선本船에 있다가 상처를 입었다. 또 ‘칸포カンボ’라는 강은 ‘갈 지之’자로 굽어서 급류가 심하다. 이 때문에 그 강물이 선박의 갑판을 넘어 밀려들어서 곤란했다. 이에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큰 다행이었다. 적은 강의 양측으로 약 150야드 정도 징갈ジンガル, gingal포 및 고풍古風の 18파운드 포와 그 밖의 무기를 거치하고, 아울러 그곳에서 발포했다고 한다.

또 급사給仕들의 말에 따르면, 함선들이 뱃머리를 나란히 하고 있을 때, 적들이 맹렬하게 발포하기 시작하여 탄환이 마치 비처럼 쏟아졌다. 이에 우리 쪽도 발포했지만, 결코 상륙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적들은 자기의 성채로 물러가 양쪽에서 공격했다. 우리 함선들도 앞으로 나아가 발포했다. 퇴범退帆할 때도 끊임없이 탄환을 발사했다고 한다.

이후로는 이미 저들도 방법이 없었으니, 반드시 사망자가 많았을 것이다. 또 오늘 아침에 육수陸手로부터²⁹ 통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우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 오늘도 석탄 및 식량을 적재한 운송선이 상하이로부터 도착하자, 갑자기 진격하라는 명이 내려다. 그러므로 모노카시호, 팔로스호, 용선한 운송선, 작은 증기선 및 그 함선들에 부속된 보트가 모두 출발할 것이다. 또 상륙할 병대兵隊는 약 800명으로, 그 병대를 호위하기 위해 모노카시호, 팔로스호 및 작은 증기선에서 발포할 것으로 짐작된다.

一. 알래스카호에 소속된 수부水夫 1명은 어제 관례대로 장례를 치렀다. 공사가 조치하셨다.

一. 우리는 변두리의 물치도Isle Boisée에 상륙하여 번병番兵(파수병)【이 번병은 그전에 산 정상에 있었음】 50명을 얻었다. 또 타인의 상륙을 막기 위해 12파운드의 곡사포howitzル,

²⁹ 육수(陸手): 미상이다.

howitzer를 준비할 것이다. 알래스카호에 부속된 작은 증기선 1척을 얻었다.

- 一. 우리는 산기슭에 묘소를 만들어, 그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고 장미꽃을 심어 두었다.

6월 12일【신미년(1871) 4월 25일】상하이에서 출판된 신문에서 발췌한 조선 정벌 기사

- 一. 나는 상사商事로 인해 상하이에 있는 증기우선사蒸氣郵船社의 증기선 만추 Manchou호의 선객이 되었다. 치푸芝罘【지명】로부터 도착한 선장 J.B.보스웰ゼービボスウェル, J. B. Boswell【인명】과 면회를 하고, 전쟁 이야기를 여러 사람을 위해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선장 「보스웰ボスウェル」은 사렘마스サレムマス【지명】출생으로 이번 에 제독 로저스³⁰ John Rodgers【인명】 휘하 미국 아시아함대亞細亞海出張合衆國ノ船隊에 소속된 사람이다. 또 지나해支那海의 항행에 익숙한 사람이니, 조선국에서 미국인의 무역 손익損益과 관계된 사항도 터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一. 선장 보스웰은 이번 달 4일【신미년 4월 17일】아침 물치도Isle Boisé【지명】에 정박한 함대를 떠나 5일 저녁 치푸【지명】에 도착했다. 미국 증기선 팔로스호가 그곳의 등명대燈明臺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제독의 서한을 지나국支那國에 전달하는 일을 상하이로 향하는 상하이증기우선사上海蒸氣郵船社의 만추호 선장 스틸スティール에게 명했다. 선장 보스웰, 콜로라도함의 간조카타勘定方³¹ 모세르モルセル씨가 탑승하고, 이번 달 8일【신미년 4월 21일】상하이에 입항한 후 곧바로 증기우선사蒸氣郵船社의 밀레트ミルツト, Millet호의 용선傭船 및 함대에 석탄과 그 밖의 식량, 연료 등을 운송하는 일 등을 마무리했다.
- 一. 치푸【지명】로부터 물치도Isle Boisé【지명】까지의 거리는 증기선으로 사흘 바닷길이다. 2, 3일 내에 밀레트호가 물치도【지명】를 향해 상하이에서 출항할 것이다.

³⁰ 원문은 ロッジルス로 되어 있다.

³¹ 간조카타(勘定方): 에도막부 시대, 다이묘의 관청에서 재무관계를 맡아보던 관리. 회계 담당관.

- 一. 선장 보스웰이 설명한 조선국 백성과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다음에 기재한다. 이번 달 1일【신미년 4월 14일】 정오 미국 증기선 알래스카호의 선장 블레이크Homer C. Blake가 지휘를 맡고, 측량을 맡은 200명이 물치도에서 출발했다. 준비는 아래와 같다.
- 一. 총인원 170명은 선장 맥크리Edward P. McCrea가³² 탑승한 모노카시호로 출발했다.
- 一. 동 同 50인

이는 지휘관 록웰Charles H. Rockwell이 탑승한 팔로스 함으로 출발했다.

- 一. 지휘관 체스터チェストル, C. M. Chester는 알래스카호의 작은 증기선河蒸氣船으로, 마스터 슈뢰더マストスクルートル, Master S. Schroede는 베니치아호의 토후큐시드トフキューシード, 그리고 G. M. 토튼シエムトツトン, G. M. Totten은 콜로라도호의 작은 증기선으로 출발했다. 그 인원은 각각 11인씩 할당되었다.
- 一. 선장 호머 블레이크ホームルジフンキ, HOMER C. BLAKE는 공사 로우ロウ【인명】부속 서기관 코울コウル 씨와 함께 팔로스 함에 승선했다. 요코하마에 재류하는 사진사 히아비아어 씨, R. J. 맥카스린アルアイメカリン, R. J. McCASLIN 씨 및 에드워드 H. 휘스버그エトワルトエツチシユースヒコリー, ED. H. Juisburg 씨도 모노카시호로 동반했다. 팔로스호 회계역 스폴딩スパウルディンク【인명】과 토티【인명】은 선장 보스웰ホスウェル과 한 조가 되었다. 콜로라도 호의 슬라센スロスセン, Slassen 씨는 미드미트, Mead 씨와 한 조가 되었다. 작은 배로 출발한 무리는 요도腰刀, 단통短筒 및 싱크톤シンクトン【인명】제製라이플총 등을 각기 몸에 지녔다. 베니치아호와 작은 증기선의 뱃머리에 준비한 것은 24파운드의 대포였다. 나머지는 12파운드 대포를 설비하고, 각 배에는 탄환 카니스터カニストル丸, Canister와 슈라프넬スカラツフネル丸, Shrapnel을 충분히 준비했다. 그리고 만조 시각에 모두 출발하여 강화カンホア 강[河]으로 향하면서

³² 레밍턴 소총(Remington rifles)으로 추정된다.

수심을 측량했다. 팔로스함과 모노카시함은 편의를 고려하여 뒤에서 따랐다. 강의 폭이 1마일이 되는 곳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방해도 없이 배들이 모두 무양無恙하게 측량했다. 이날은 날씨가 맑았으며, 콜로라도함이 정박한 곳까지 약 10마일의 거리였다. 강에 폭이 좁은 곳까지는 무사히 전진했는데, 그곳에 이르자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 흰옷을 입은 백성國民들이 기장旗章을 휘두르며 강기슭의 조금 높은 데서 나타났다는데, 모두가 군장을 입은 것을 보았다. 접근해서 바라보니, 유럽인들의 의복과는 다른³³ 국풍國風の 흰옷을 입은 백성이 약 2,000명 정도 되었다. 흰색 파자마バジャマス와 족대足袋를 맨살에 묶고, 지나인처럼 짚신을 신었다.

- 一. 강의 양안兩岸에 적석赤石으로 세운 포대 2개소를 발견했는데, 두 곳 모두 9파운드 및 18파운드의 대포를 60여 문 설치했다. 그곳은 강폭이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처럼 수비를 갖춘 것이다. 오른편 기슭에 있는 포대는 완전히 작은 포대 2개였는데, 전쟁 중에 1, 2개 탄환을 발사한 것 외에 포대 내에 백성들이 잡답雜沓하는³⁴ 것을 보지 못했다. 강기슭에 세워진 수면 위 약 100피트에 이르는 포대가 이곳의 제일가는 수비의 장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이 포대로 외국인 등을 두렵게 하여 쫓아내려고 생각했음을 볼 수 있었다. 작은 증기선은 강기슭의 백성들을 주목하지 않고, 편안하게 각기 직분에만 전념했다. 배들이 포대 앞에 이르렀을 때, 베니치아호의 작은 증기선이 그 나데시코撫子(때랭이꽃)의 운동을 랫트렛트【깊이를 측정하는 기구】를 위해 지탱하다가 약 2마일 정도 떠내려갔다.³⁵ 콜コ롤, Cowle 씨가 적정敵情을 숙고했는데, 대포 30여 문을

³³ 원문은 “頃日洋人ノ著セシ上ハ著二等シキ”인데 의미가 분명치 않다. 참고로 이 번역 기사의 원문인 *The New York Times* 1871년 7월 17일자 기사 “THE COREAN AFFAIR”의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다. “A nearer view indicated their numbers to be about 2,000 men, clothed in the costume of the country, which is a white coat, not unlike the present European overcoat; white pajamas, tide at the ankle, with white socks and light Summer shoe such as are worn by the Chinese.”

³⁴ 잡답(雜沓): 사람들이 몰려서 복잡복잡하고 복잡함.

갖춘 외에 징갈(징슈얼)【총이름】1정을 2명이 들었는데 몇 명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인원을 보았다. 이곳은 석벽(石壁)의 바깥쪽에 양측, 그리고 산 쪽에 진열된 기장(旗章)을 나부꼈으며, 군세(軍勢)도 연속되어 군위(軍威)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육지와와의 거리는 약 150야드 정도로, 강이 굽은 곳에 이르렀을 때 포대에서 맹렬하게 발포했으며, 또한 강기슭에 있는 자들도 따라서 발포했다. 이에 따라 작은 증기선은 제1포대에 일동 곧바로 발포했다. 그때 팔로스호, 모노카시호는 8인치 라이플포를 준비하고 시간당 5노트의 항속으로 전진했다. 만약 일이 생기면 진력하라고 선장 블레이크가 미리 휘하의 사관 등에게 명령했는데, 모두 명을 따랐다. 팔로스호의 지휘관 록웰(Charles H. Rockwell)은 그 뱃머리에 설치된 대포로 비술(秘術)을 다해 발포했다. 그때 모노카시호의 선장 맥크리(Edward P. McCrea)는 짧은 거리를 두고 그 함선을 옆으로 돌려 적의 마타(馬打)를 뽑아내려고 했다. 왜냐면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모노카시호가 암초에 걸렸기 때문이다.³⁶ 이 암초는 강이 굽은 곳에 이르러 바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배 밑바닥의 철판이 떨어져 물이 들어왔지만, 선장 맥크리는 환난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배에 머물면서 발포를 중지할 때까지 포격전을 지휘했다.

- 一. 포격전이 벌어질 때 미풍이 불어서 육하(陸河)의 사람들이 포연에 휩싸였다. 나중
에 건물 안에서 탄환이 폭발해서 무너진 벽의 석회와 적사(赤砂) 등이 공중에 흩날렸다. 포격전이 시작될 때부터...³⁷ 백성들이 산길을 통해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³⁵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Benecia launch meanwhile dropped astern, owing to her lead-line fouling her screw, so that when the surveying party came opposite the fort she was nearly two miles off."

³⁶ 마타(馬打)의 의미는 미상이다. 참고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Lieutenant Commodore ROCKWELL, with the Palos, made splendid practice with the bow guns, while Capt. MCCREA, who followed in the Monocacy, gave the enemy a full benefit of his broadside battery at close quarters, so close that the vessel grazed some hidden rocks which formed a reef above the bend of the river."

³⁷ 원문에 "十三ニユートニシテ"라는 구절이 있는데 의미가 분명치 않다. 이 구절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t intervals, however, there was noticed red sand, with mortar from the walls, flying off in clouds as the shells burst in the works; and in ten minute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firing the Coreans were driven back, helter-skelter, over the hills."

- 一. “너희에게 발포하기 전에는 이쪽에서 전투를 개시하지 말라. 만약 한번 전투를 시작하면 이쪽에서 휴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측량조 일동에게 발선發船하기 전에 제독 로저스의 명령을 전했다.
- 一. 선장 블레이크가 적이 도망하는 것을 숙지한 후, 대포선大砲船과 하증기선河蒸氣船 등이 강을 우회하여 나아갔다. 포격전이 벌어지는 장소로부터 조금 더 나아가 닻을 내리라는 명령이 선장 블레이크로부터 전해졌을 뿐, 상륙은 명령하지 않았다고 지휘관들에게 알렸다. 불행한 것은, 알래스카함의 하증기선河蒸氣船 내에서 벌어진 일뿐이었다. 수부水夫 1명이 대포로 가려고 할 때 옆에서 발사된 적의 탄환을 머리와 어깨 부위[頭肩]에 맞았다. 또 다른 1명은 발사된 대포의 반동 때문에 손가락 2개를 잃었다.³⁸
- 一. 접전할 때 백성들에게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은 기이한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포대가 높고 대포의 수도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포선大砲船과 소선小船에 다소 탄환이 쏟아졌지만, 간신히 피해서 다행하게도 1척도 손상되지 않았다. 작은 증기선이 곳岬을 우회하자마자 베네치아호에 부속된 작은 증기선에 발포하기 위해 백성들이 포대로 돌아갔다. 선장 슈뢰더스クルトル, Schroeder는 백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진을 강행했다. 자기들 편에 연속해서 포대에서 발포하자마자, 하류河流를 타고 맹렬하게 응사했다. 강물이 격류를 따라 뱃머리에 쏟아졌다. 선대船隊로 복귀하는 길에 정교하게 발포해서, 1, 2개 탄환이 산을 넘어 포대에까지 도달했다. 이상의 작전을 하고 이날은 모두 철수했다.
- 一. 포대가 쓸모없음을 지켜본 백성들은 작은 증기선이 강가를 돌아가는 것을 보자마자 역시 달아나는 것이 제일이라고 판단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마침내 강 주변의 산속으로 숨었다.
- 一. 측량사測量社의 용무가 끝나자 선박들은 이미 휴전하고 선대船隊로 철수했다.

³⁸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은 자와 곡사포의 반동으로 손가락 2개를 잃은 미군 수병의 이름은 각각 John Somerdyke와 James Cochran이다.

26 5월 6일 안도 다로 安藤太郎 등이 타이슈 對州에서 복귀했음을 한국에 있는 요시오카 고키 吉岡弘毅 등에게 보고하는 글

절하고 아웁니다. 더욱 청영 淸榮하시니 지극히 기쁜 일로 생각됩니다.

작별한 날에는 타다노우미 多太海에 정박하고, 다음날 3일 새벽에 닻을 올려 저녁에 타이슈 예생촌 刈生村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4일에 출항해서 저녁에 소강촌 小綱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5일 히로쓰가 홀로 육로로 떠나 당일 이즈하라에 도착하고, 다로와 다다시 珙, 그 나머지는 다음 날 6일 이즈하라에 배로 도착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곤란한 일이 없었지만, 시종 始終 역풍 때문에 조선 漕船 등의 수단이 의외로 연착되었습니다. 히로노부는 오늘 지사를 뵙고 배알 拜謁한 후, 친히 도한 渡韓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진력 盡力은 당연한 일이지만, 결국 묘의 廟議가 어떻게 될지는 노력에 달려 있으니 거기까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사표를 채택하실지 여부와 관련해선 나중에 따로 경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이후로 쾌청하므로 즉시 히로시마선 廣島船을 용선해서 순풍이 부는 대로 출항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아마도 순풍일 것 같아서 출항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나가사키에 도착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

고바야시 다다시 小林珙

히로쓰 히로노부

안도 다로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27 5월 7일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여러 차례 보내주신 서한의 내용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堅剛)하시니 삼가 축하드립니다.

요전에 은밀히 훈도에게 담판하신 글들을 보내주셔서 배견(拜見)하고 진력하심에 감패(感佩)했습니다. 하관(下官) 등은 공무가 다사해서 자세히 답할 겨를이 없으니, 다음과 같이 요건만 말씀드립니다.

一. 4월 14일 미국이 마침내 조선국과 전단(戰端)을 연 정황의 상세한 내용을 신문지를 통해 통지합니다.

一. 이번엔 미국이 조선과 병단(兵端)을 연 것과 관련하여, 우리 황국(皇國)의 처분을 두고 이곳에서 갖가지 의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무성에서 출사(出使)한 무리를 차례로 철수시켜서 그 부담을 놓고 재앙을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기회를 틈타 이즈하라 지사를 한지(韓地)에 보내서 간곡히 충고하여 결국 우리 교제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성(本省(외무성))에서 별도로 대승이나 권대승 가운데 인망(人望)과 재지(才智)를 겸비한 자를 보내서, 타이슈를 고무하여 기회를 보아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갖가지 설(說)들이 백출하지만 결국 현지의 형세와 저 나라의 인수(引受) 상황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적의(適宜)한 대책(大策)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단, 제 생각으로는 지금 외무성의 출사(出使)를 귀국시키는 것은 오활(迂闊)하고 나약한 논의로서, 믿기에 부족합니다. 또 타이슈번 지사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은, 그 결말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경솔한 일이 되어 다른 외국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외무성 출사(出使), 즉 각하 등이 능히 타이슈번의 인망을 얻어서 저들이 진력하게 하고, 협심동력(協心同力)하여 기회를 틈타 일을 도모해야 할 뿐입니다. 만리(萬里)의

면 파도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백론百論을 하기보다는 각하 등의 현지에서의 계획에 따라 처리함에 맡길 뿐입니다.

一. 타이슈 지사가 가역家役 면직을 청원한 대로 명령을 내릴 것을 지난번에 건언建言했지만, 지금으로선 그 시기가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 히로쓰 씨가 도쿄를 출발할 때 한 말도 있으니, 이제 일단 서한을 기다립니다.

一. 국내 형세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얼마 전부터 불궐不軌(반역)을 꾸민 당黨이 있으며, 관원 중에서도 이에 연루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본성本省(외무성)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필경 조정의 권위가 펼쳐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니, 지금은 차츰 각 번의 병사를 당지當地에 성대하게 해서 총 1만의 수에 도달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조정이 사쓰마번에 의뢰한다는 말은, 2월 중에 이와쿠라岩倉 경이 그곳에 가시어 조칙을 말씀하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오늘날 복고復古의 성적成籍을 거두길 기약하신 것이며, 또한 전망을 물어보신 데 지나지 않습니다. 천하의 대정大政을 사쓰마에 의뢰한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一. 저[下官]와 관련해선, 자세한 것은 본성本省 조선괘朝鮮掛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흠차전권대신欽差全權大臣 다테伊達 대장경大藏卿을 보필해서 조약을 체결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대략 이번 달 17, 8일경에는 요코하마에서 출항할 것입니다. 하나부사의 일은 본성本省의 대·소승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형부중판사刑部中判事 쓰다 마미치津田真道가 본성의 권대승을 겸임해서 동행합니다. 외무경 님은 교대할 사람이 없고, 또 데라지마寺嶋 대보가 얼마 전부터 병 때문에 현재 사표를 제출할 정도여서 출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一. 가라후토樺太(사할린) 경계담판經界談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절은 소에지마副島 참의參議, 수행원은 다나베田辺 소승少丞, 히라이 권정 등으로 생각합니다. 담판의 결론에 관해선 현재 묘의廟議가 진행 중입니다.

- 一. 구스모토^{楠本}와 나카노는 이교도들 맡겨 놓은 번들의 순시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미야모토는 하코다테^{函館}로 떠나고, 미즈노는 면직했습니다.
- 一. 제가 출범^{出帆}한 다음엔 조선 사건과 관련해 전달할 것이 있으면, 하나부사 권소승과 와타나베^{渡辺} 문서권정^{文書權正}에게 이야기하십시오.
- 一. 이즈하라번 난바 아사카가 지난번 이후 갖가지로 아뢰 바에 따르면, 모쪼록 지사가 안심할 정도의 외무성 대승 주변의 인원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요시오카 등은 복귀시키고 조선교제^{朝鮮交際}는 타이슈에게 전적으로 분부해주길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다 나오히로^{佐田直寛}가 그에게서 이 정도로 들었으므로 비밀리에 이를 명심해두길 바랍니다.
- 一. 국내 형세는, 분분한 설들도 있지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건과 같이 불궐^{不軌}을 꾸미는 자가 몇 사람 있는 정도입니다. 특별히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一. 조정에서 현재 번치제도^{藩治制度} 이하를 점차 변경하려는 평의^{評議}가 있습니다.
- 一. 우선 두서없이 서둘러 말씀드립니다. 난필을 판별해서 살펴주시고, 서툰 문장을 양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7일 5시 본성^{本省}에서

외무대승 야나기와라 사키미쓰

요시오카 님

모리야마 님

히로쓰 님 궐하^{机下}

추신. 지난달 니가타^{新潟}에서 외국에서 고용한 교사^{教師}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곤란한 일 중 하나입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28 외무경으로부터, 미국 함선의 일을 이용해서 한층 더 진력할 것을 소 시게마사宗重正에게 명하는 글

성상聖上께서 만강하시니 지극히 기쁩니다. 다음으로 더욱 평안하시니 봉직奉職에 진중珍重하신 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부터 당성當省(외무성) 요시오카 권소승 이하가 한지韓地에 출장 나간 것과 관련하여 적잖이 우려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 나라는 완고한 습속을 아직 고치지 않고 구규舊規를 확고히 지켜서, 여전히 성의聖意를 관철하기 어려우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히로쓰 히로노부가 귀부歸府했을 때 미국 공사로부터 군함이 조선을 향해 출발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히로쓰에게 별지의 내유서內諭書의 취지를 이해시켜서 곧바로 다시 도한渡韓하게 했는데, 최근 미국 공사가 보낸 서면書面과 신문지 초역抄譯의 내용으로는 과연 이미 병단兵端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지韓地의 형세가 어떨지, 그리고 어떤 변천이 있을지 실로 하나의 중대사입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임기臨機의 조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할 것입니다. 귀택御家은 예전부터 저 나라 실정에 익숙하시니, 이러한 때 특별히 마음을 써서 공업功業을 이룰 수 있도록 조가朝家를 위해 한층 더 진력하신다면 괄목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공사의 서한과 신문지 번역문의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미(1871년) 5월 8일

외무경 사와 노부요시澤宣嘉

이즈하라번 지사 소 시게마사 님 귀하

추신. 별지의 내유內諭는 예전에 요시오카 및 다른 사람들에게 사본을 보냈습니다. 물론 요시오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보셨을 줄 알지만, 마침 인편이 있어서 다시 살펴보시도록 보내드리니 모쪼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상聖上께서 평안하시어 주련駐輦하시니 지극히 황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께서도 청복淸福하시니 봉직奉職에 진중珍重하실 줄 압니다. 경·보를 비롯해 모두 무양하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一. 4월 3일자로 보내신 서한은 5월 4일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3월 28일 밤, 혼도가 홀로 대면해서 상의한 대화서對話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장시간의 면의面議에 온 성省의 관리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루함을 주장하니 실로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분려奮勵해서 설득하고 개도하시길 [說導] 바랍니다.

一. 별지의 신문지 사본을 전달하니, 차츰 이해하시는 대로 반환하십시오. 이 사건의 동정動靜이 담판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속담에 이른바, “남의 조그만 잘못도 살살이 찾으려고 하면[吹毛求疵]³⁹ 재앙이 곧바로 이른다.”라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一. 이즈하라번 지사의 가역家役 면직과 관련해서, 오늘날에 이르러선 완급의 시기가 적의適宜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보류한 것이 옳은 듯합니다. 물론 미국의 진퇴에 따라 충분히 중의衆議를 다해 속히 실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一. 히로쓰 히로노부 님으로부터 4월 13일 이즈하라번에 입항하고, 다음 날 14일 출범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一. 옛 시즈오카번静岡藩의 쓰다 중판사가 4월 27일 외무권대승의 겸임을 명받았습니다.

³⁹ 취모구자(吹毛求疵): 『한비자(韓非子)』 「대체편(大體篇)」에 ‘털을 불어 작은 흠터를 찾는다.[吹毛而求小疵]’에서 나온 말로, 남의 약점을 악착같이 찾아내려는 야박하고 가혹한 행동을 뜻한다.

一. 도쿄부 관속⁴⁰ 시오쓰보 야쓰요시^{鹽坪恭良}가 4월 그믐일에 권소록에 임명되었습니다.

一. 시즈오카번의 고스기 우도지^{小杉右藤次}가 5월 3일 소록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밖에 계절에 맞게 순일^{純一}하게 자애^{自愛}하시기만을 바랍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신미(1871년) 5월 8일

외무사생 오쿠 요시노리

문서관대우 곤도 마스키

사다 나오히로

외무권소승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히로쓰 히로노부 님

추신. 고바야시 다다시로부터 택장^{宅狀}이 확실하게 도착했습니다.

一. 야나기와라 대승으로부터 요시오카 님 외 2명에게 1봉

一. 안도 다로 님에게 보내는 서장^{書狀} 1봉

一. 요시오카 님에게 오쿠 요시노리가 1봉

一. 요시오카 님에게 사다 하쿠보가 1봉

이상 서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⁴⁰ 관속(貫屬): 메이지시대 특정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一. 외무경 님을 청국 사절로 파견한다는 내의內意가 있었지만, 평의評議의 결과 중단되고 다테 대장경을 그 대신에 임명하기로 내의內意가 정해졌습니다. 이에 흠차전권대신으로서 조약 체결을 위해 청국에 파견한다는 분부가 내려졌습니다.
- 一. 야나기와라 대승은 정4위에 서임敍任되어 청국 사절로 파견되며, 부흠차전권대신副欽差全權大臣으로 동행합니다. 만약 대신에게 사고가 생기는 경우 전권을 위임받도록 명이 내려졌습니다. 출범出帆은 오는 18일경이 될 것입니다.
- 一. 쓰다 권대승도 동행을 명받았습니다.
- 一. 별지를 일람하시고, 그 뒤의 동정動靜을 파악하면 지급편至急便을 통해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一. 이즈하라번에도 신문지 사본 등을 첨부해서, 여러 사람에게 협력協力和 면려勉勵할 것을 이번에 지시했습니다.
- 一. 별지는 서무과에서 보냈습니다.

편지로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 군함이 조선에 나간 일과 관련하여 입수한 신문을, 약속한 바도 있었으므로 보내드리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인이 우리 군함에 와서 수부首府(서울)에 가는 것과 측량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우리 소선小船을 포격해서 전부 산란散亂했습니다.⁴¹ 우리 쪽에서는 사망자 2명, 부상자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선小船은 본선本船으로 돌아왔으며, 수사제독 로저스John Rodgers는 전신으로 워싱턴에 그 전말을 보고한 후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아마도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신문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6월 20일

C. E. Delong

사와 노부요시 각하

⁴¹ 산란(散亂): 흩어져 어지러움.

첨부1 미국 공사가 미국과 한국 관계에 관한 신문지를 첨부하여 외무경에게 올린 글

조선 관계 신문新聞【1876년42 6월 12일 상하이에서 발행】

지난달 미국 군함 콜로라도【수사제독은 로츠질콘(ロツジルコン)에 탑승함】·모노카시·팔로스 3척이 나가사키를 향해 출범했다. 그곳에서 베니치아·알라스카의 2척과 회합했다. 이상 5척의 배는 5월 16일 출항해서 이틀 항해를 한 후 조선의 남쪽 페리에 아일랜드ファルリール스アイランツ, Ferrierès Islands라고 하는 섬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서쪽으로 선회해서 20일 조선국 내의 제롬 걸프ゼロームゴルフ라고 하는 만灣에 도착했다. 그 후 10일쯤에는 섬들 사이를 측량하고, 프랑스에서 만든 해도海圖에 작약도インボイセートシルシケル, Isle Boissée이라고 한 장소를 정박지로 정하여 함선들이 이곳에 닻을 내렸다.

그런데 곧바로 1척의 배가 육지 쪽에서 저어오더니 점차 콜로라도호의 측면에 접근했다. 이를 보니 3명 정도의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우리 배에서 1등 통역관(譯司) 겸 주장해관九江海關의 감독 드류ドルウ, Edward B. Drew라는 사람이 그 배로 가서 잠시 응접을 했다. 세 사람이 말하길, “우리는 국왕의 명을 받고 귀국 군함이 도래한 이유를 묻기 위해 왔다”라고 했다. 통역관이 “그렇다면 콜로라도호로 와달라. 자세한 것은 그 배에서 말하겠다.”라고 답하자, 3명의 관인官人이 함께 콜로라도호로 왔다. 그들의 말은 공사와 제독에게 통고하는 것이었지만, 모두 관인과 대면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통역관에게 다음의 말을 전하게 했다. “두 분과 면회를 원한다면 국왕의 대리인을 파견해야 한다. 귀하는 국왕의 위임장도 소지하지 않았으니 어떻게든 대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따라서 일단 돌아가서, 이러

42 1871년의 오기로 생각되나, 우선 원문대로 옮겼다.

한 뜻을 귀국 정부에 전해 달라. 또한 이번에 도래渡來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귀국과 우호를 통하기 위해서니 귀국이 먼저 사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해를 가하지 않고 평온하게 돌아갈 것이다. 오직 바라는 바는, 국왕 또는 그 대리인과 회견하여 양국 간에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우선 승선한 인원 가운데 몇 명을 파견해서 강의 수심을 측량하고, 그 후 왕성王城에 가고자 한다. 특히 오늘부터 이틀간은 측량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니, 그 사이에 인근 백성들에게 군함이 온 이유를 포고하여 부디 인심을 안정시켜주길 바란다.” 그러자 3명의 관원은 “우선 도래한 이유를 알고 안도했다. 측량 건은 우리 측에선 전혀 지장이 없다. 이 일은 무방하다.”라고 말하고는 모두 물러갔다.

다음날, 즉 5월 31일에 다시 다른 관원들이 제독의 함선에 왔다. 잠시 시간을 허락해서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날 선박에 온 관원은 총 8명으로, 상당한 직급의 사람들로 보였으므로 배 안을 남김없이 둘러보게 했다. 배에서 떠날 때 통역관에게 말하길, “무비武備가 엄중한 것에 깊이 경탄했다. 특히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았으니 크게 경하할 일이다.”라고 했다. 모두 고별하고 돌아갔다.

이들 관원에게도 측량에 관해서 물었는데 또한 무방하다고 했으므로, 이제는 안심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음 날부터 측량에 착수하기로 하고, 모두 그 준비를 했다. 다음날 6월 1일 새벽부터 증기기관이 장착된 작은 배 4척을 내려서 12파운드의 대포 1문씩 설치했다. 그리고 함장 블레이크를 선두로 총 150명이 이 4척의 작은 배에 타고 육지 쪽으로 향했다. 이보다 조금 뒤쳐져서 모노카시·팔로스 2척의 군함이 출발했다. 이는 4척의 작은 배를 호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독은 선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측량할 곳은 프랑스 해도海圖에 프리우프데셀 프리울데셀이라고 한 강부터 시작한다. 최선을 다해 정밀하게 측량하되, 가능한 한 무사히 귀환하라. 만일 저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오직 방어만 하고 굳이 적에게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라. 또 적들이 만약 수비를 포기하고 퇴각하더라도 이를 추격해서 상륙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라

고 명령했다.

이리하여 4척의 작은 배가 본선本船을 떠나 4마일 정도 가자 하구 근처에 섬 하나가 있었다. 이 섬에는 포대臺場가 설치돼 있었다. 이곳을 통과해서 다시 3마일쯤 상류로 들어가자, 다시 1개의 포대가 있었다. 이 2개의 포대는 모두 돌로 쌓은 것으로, 1866년 프랑스와 전쟁한 후 만든 것으로 보였다. 그로부터 다시 2마일쯤 가자 해도에 ‘험한 곳難所’이라고 표기된 장소가 있었다. 여기에도 포대가 있었는데, 대포가 4, 50문 정도 설치돼 있었다. 이 포대 위쪽에 언덕[丘山]이 하나 있었다. 그 정상은 평탄한데 지름이 40척⁴³ 정도 되었고, 주위에는 6척에서 8척의 홍벽이 세워져 있었다. 중앙에 ‘원수元帥’ 두 글자를 염발染拔⁴³한 큰 황색 깃발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화승총을 휴대한 병졸 2,000명 정도가 신중하게 웅거하고 있었다. 이처럼 허장성세를 부린 것은 전적으로 무위武威를 과시해서 이쪽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빨리 물러가게 하려는 계책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 우리 배에 온 관원들이 측량은 무방하다고 했으니, 무슨 일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점차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강물이 굽이치는 곳까지 갔는데, 이곳에도 포대 1개가 있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고 있을 때, 한 발의 포성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결국 “적에게 우리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다. 주의하라!”라고 하자마자, 이 포성을 들음과 동시에 ‘원수元帥’의 아영牙營을 시작으로 나머지 포대들에서도 우리 작은 배를 향해 아무 말도 없이 대포를 마구 쏘아댔다. 좌우에서 탄환이 빗발치듯 쏟아져 얼굴을 들 수도 없었다. 이래서는 한 사람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1명만 작은 부상을 입었으니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알래스카호의 함장인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몇 년 전 남북전쟁에서 여러 차례 고전苦戰을 경험했는데, 이처럼 맹렬한 포격을 당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때 4척의 작은 배 가운데 1척은 4마일 정도 하류 쪽으로 후퇴했다. 나머지 3척

⁴³ 염발(染拔): 미상이다. 발염은 무늬 없이 염색(染色)한 천에, 물감 빼는 약제(藥劑)를 섞은 풀로 무늬를 찍어 그 무늬 부분(部分)의 빛깔만 빼내 무늬를 만들어 내는 일을 뜻한다.

의 배는 각각 그 뱃머리가 (해류로 인해) 억지로 포대 쪽으로 돌려져서 파열탄(破裂彈)을 발사했다. 잠시 후 팔로스·모노카시 두 함선도 8인치의 파열탄을 발사해서 포대의 흉벽(胸壁) 몇 곳을 파괴했다. 약 15분 후, 적들의 포성이 그쳤다. 포연이 걷히자 적들은 방전(防戰)이 여의치 않아 모두 포대를 버리고 수풀 사이로 달아난 것으로 보였다. 이제 포대 위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원수’의 깃발만이 공허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수풀 사이로 파열탄을 조금 발사했는데, 모두 표적에 맞은 것으로 보였다. 적들은 이곳에서도 달아나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모노카시호는 물가의 장소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였다. 엄청나게 물이 들어와서 일찍 정박처로 복귀했다. 또 강 하류에 남아 있던 작은 배 1척은 그 장소에서 곧장 정박처로 복귀하려고 생각했다가, 적의 포화에 개의치 않고 급히 상류 쪽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다른 3척의 작은 배와 회합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적도 흩어졌으므로, 정박처로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3시 50분경에 원래의 해로(海路)로 돌아왔다. 어떤 포대에서도 1명의 적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무난히 정박처로 귀환했다. 사건의 경위를 공사와 제독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고하자, 제독은 특별히 병사들의 행동과 그 공훈을 칭찬했다.

그 후 병사 800명과 대포 8문을 내일의 전투를 위해 준비하라는 군령을 내렸는데, 본국에 조회하여 그 지시를 기다리기로 하고 이 일은 보류했다. 이와 관련하여, 워싱턴으로 보내는 서장(書狀)을 팔로스 함에 의탁하고 곧장 지나로 출항할 것을 명했다. 또한 복귀하는 선편(船便)에 석탄과 그 밖의 군수품을 적재해 오기로 했다.

이상 서장(書狀)의 대략은 전신으로도 워싱턴에 알렸으니, 대통령의 답서는 며칠 내로 올 것으로 생각한다.

첨부2 조선에서 보낸 서한의 번역

조선에서 보낸 서간을 아래 기재한다.

1868년에 귀국 사람 「페비거フェビゲル, J.C.Febiger」라는 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단 온 뜻을 알리고 물러갔다. 그런데 귀하는 어째서 이러한 전례를 따르지 않는 것인가? 이보다 앞서, 1865년【원문】에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인민이 우리나라에 건너왔다. 당시의 시말始末은 반드시 귀하도 들었을 것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인민은 자국의 교화教化를 누리고 덕택德澤을 입은 것이 이제 4,000년이어서 천하에 오직 우리나라가 있음을 알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일찍이 다른 나라를 번거롭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도리어 우리나라를 번거롭게 하니, 이는 무슨 도리인가? 우리나라는 극동에 위치하고 귀국은 극서極西에 위치한다. 귀하가 수천 리의 바다를 건너왔으니, 무슨 의도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아마도 몇 년 전 파손된 선박의 일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선박에 탑승한 자들은 해적이 되어 사람을 살상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처벌한 것뿐이다. 귀하는 우리의 토지를 얻고자 하는가? 불가능하다. 귀하는 우리나라와 교분을 맺고자 하는가? 이 또한 불가능하다.

29 조선 포전砲戰의 신보新報

안개가 짙어서 앞길을 볼 수가 없었으므로, 미국 일진一陣의 해군이 조선 근처에 진항進航할 수가 없어서 황국皇國 4월 6일까지 해양에서 표류했다. 그 후 작은 화륜선 4척 및 팔로스【선명(船名)】도합 5척을 보내 근해近海를 측량하게 했는데, 몇 년 전 프랑스 함대가 항해할 때 소문이 퍼진 「이레보노시イレボノシ」가 가장 정박하기에 유리함을 알고 11일에 그곳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한양【主府】에서 저 나라 관원 3명을 군함에 보냈다. 당시 담판 중에 상류로 전진하여 측량할 것을 통고한

후 생각건대 해군이 항행하는 주된 뜻은 간후(懇厚)한 것임을 알렸으니, 이를 백성에게 널리 알릴 것으로 판단했다. 마침내 말미를 둔 후, 14일 정오에 팔로스·모노카시 2척 및 작은 증기선 4척이 닻을 올리고 상류로 전진하면서 측량했다. 좌우에 보이는 포대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2시에 이르러 굵은 물길이 나타났다. 양측 강안(江岸)에 마주하는 높은 언덕이 있었는데, 모두 포대가 늘어서 있었다. 강의 흐름이 급해서 항행할 수가 없게 되자, 마력(馬力)을 증가시켜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 포대를 바라보니, 병졸이 가득하여 2천여 명이나 되었고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인심이 동요하는 기색이 있었다. 그때 4척의 작은 화륜선이 큰 포대 바로 앞에 접근했다고 생각할 즈음, 언덕 위의 포대에서 대포 2문을 발사했다. 그러자 갑자기 사방의 포대에서 대략 70여 문을 동시에 발사했다. 그 포성이 천둥소리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그중에 큰 것은 20파운드의 장포(長砲)였다. 이어서 작은 화륜선에도 작은 탄환을 비처럼 퍼부었으므로 각 선박에 동시에 대응 포격할 것을 명했다. 조금 지났을 때, 강물의 급류가 점점 뱃머리를 포대 쪽으로 향하게 했으므로 연발(連發)하는 데 장애가 없어졌다. 각 방면의 포대를 일시에 격파하고, 또한 옆으로 다가온 큰 함선에서도 대포를 발사하자 그 포대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자는 깃발을 잡고, 또 어떤 자는 검을 들고서 어지러이 흩어졌다. 또 배 위에는 8발의 포탄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 연발의 맹렬함은 고금(古今)에 드문 것이었다. 애석한 것은 오직 70문의 각 포 가운데 1, 2개만 발포해서 오래 방전(防戰)하지 못한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고풍(古風)의 대포, 구염(舊染)의⁴⁴ 인물들이 살상을 초래하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 군함의 큰 다행이니, 실로 간담을 서늘케 했다고 할 만했다.

모노카시(선명(船名))는 선대(船隊)에 포격으로 손상을 입고 다른 배들과 함께 귀환했다. 그것이 왕복하는 사이 보이는 포대들은 모두 탄환 수십 발을 얻어서, 포격전을 하는 사이에 적진에서 연발한 수가 약 250발에서 300발에 이르렀다. 모든

⁴⁴ 구염(舊染): 오래 전부터 물든 좋지 않은 풍속.

배의 피해를 헤아려보니, 부상자는 겨우 2명, 사망자는 없었다. 미국 군함의 발포는 약 150발이었다. 수사제독水師提督은 선중船中에 피해가 없음을 축하하고, 며칠 내로 다시 전쟁할 것을 기약했다. 본디 조선은 쇄국鎖國을 주창해서 지금의 풍속이 마치 4,000년 전을 보는 것과 같다. 지금 서양이 전쟁에 숙달된 것을 보았으니, 바라건대 스스로 4,000년 뒤쳐졌음을 깨달아 완돈頑鈍한 눈을 열어 각국과 화친을 맺기를 희망한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 번역문은 매우 난잡하게 기록된 것이나, 지금 입수해서 즉시 번역한 것입니다. 매우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초고草稿 그대로 보내드리니, 모쪼록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30 같은 건. 상하이上海 신문지 발췌

상하이 서간書簡 신문지 발췌【1871년 6월 28일】

조선으로부터 도착한 「밀레트ミレット, Millet」선에서 입수한 신문으로, 이번에 조선국에서 맹렬한 전투가 발발하여 그 포대를 함락하고 적병을 다수 살상했다. 미국인은 사관士官 1명, 병졸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1871년 6월 12일 「작약도ボイゼイ」항에서>

이번에 강화도에서 조선인과 전투할 때 우리 병사들이 용맹함을 보여서 대총독의 감열感悅이 이만저만하지 않았다. 아시아 수군의 병사를 비롯하여 수부水夫와 총수銃手에 이르기까지 이를 알릴 것을 기꺼이 희망한다.

이번 달 1일 「모노카시」【선명(船名)】, 「팔로스」【이와같은】가 다른 4척의 화륜선과 함께 측량하러 나갔을 때, 강가 포대에서 갑자기 총격을 가했다. 하지만 우리 병사들은

이 폭발暴發의 때를 당해서도 신속하고 맹용猛勇한 형세를 떨쳤다. 그러자 적병이 대포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달아나 숨었다.

一. 한인韓人의 정부에서 지난날 폭발暴發의 죄를 사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달 10일 우리 군대가 정토征討를 시작했다. 「콜로라도」【선명(船名)】, 「알래스카」【이와 같음】, 「베니치아」【이와 같음】 등 3척이 육병陸兵을 실었다. 그리고 다른 「모노카시」, 「팔로스」의 두 포정砲艇은 대장 L.A.김벌리Kimberly가 통솔하고, 대총독 및 커맨더 commander H.C.블레이크Blake가 그 총군總軍을 관할하며 문죄를 위해 출발했다.

이번 달 10, 11일 이틀간의 전쟁에서 적들의 포대 5좌座를 탈취했다. 또 하류의 험지險地를 차지하고 필사적으로 방어하던 적들의 보루[塙]를 함락했다. 이것으로 11일의 전투는 종결됐다.

이상 포대의 안팎에서 사망한 적병은 243명이고, 빼앗은 깃발은 3개였다. 그 포대가 견고했던 것은 무엇보다 지형의 험난함과 급류 때문이었지만, 또 수백 개의 무기로 그 축조築造를 방어한 데 있었다.

이 전투에 참전한 우리의 용감한 병사들은 항해의 위험을 무릅썼으며, 무수한 대군을 맞이하여 진창을 밟고 험애險隘를 넘고 급류를 건너 마침내 적의 보루를 습격해서 함락했다. 그 훈공勳功은 실로 찬미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대총독은 모든 군대에 그 상[感狀]을⁴⁵ 정표旌表하여⁴⁶ 스스로 이처럼 용감한 병사들을 지휘한 것에 영예로운 기색을 보였다. 또 충분한 훈련 방법으로 아시아주 수군에게 용기를 심어준 것에 대해 기쁘다는 뜻을 여러 함선의 지휘관들에게 알렸다.

대총독이 우리 군대의 훈공勳功이 기쁘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대 용사 일부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버리고 사망한 것은 몹시 애통스럽다. 이러한 순국 병사

⁴⁵ 간조(感狀): 무장이 전공(戰功)을 세운 자에게 주는 상장.

⁴⁶ 정표(旌表): 선행을 칭송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

를 위해 길이 후대에 그 영예로운 이름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 순국 용사 가운데 중위Lieutenant【관명(官名)】W.맥키⁴⁷ 씨는 그 병사들을 독려해서 적의 보루에 앞장서서 오르다가 마침내 중상을 입고 그 안에서 사망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자이니, 다시 영예롭게 기록해서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용기는 장래 복무하는 병사들이 추모해야 하리라.

아시아수군대亞細亞水軍隊 대총독大總督

「존 로저스」

18일 「밀레트」선船이 「작약도イレボイゼ」에 입항했다.

「모노카시」선【선장 「맥크리」 탑승】, 「팔로스」선【중위 「록웰」⁴⁸】, 나머지 4척의 화선火船이 24일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1시 반을 지나 제1포대에 도착했다.

이곳에 수채守艦의⁴⁹ 육병陸兵 680명, 해병海兵 110명, 그 장수는 ‘카피탄甲比丹’⁵⁰ 「L.A.김벌리」【인명】, 「중령Lieutenant Commander」【관명】「카세이カセイ, Silas Casey」【인명】가 보병대를 지휘하고, 「중령」【관명】「카셀カステル, Cassel」【인명】이 포대砲隊 7좌座를 지휘하고, 「중령」「울울」【인명】은 발대용拔隊龍의⁵¹ 부대장이 되었다. 그리고 「중령」「비츠킹ビツキング」【인명】은 화륜선을 지휘했다.

이 전장은 6월 1일에 습격을 당한 지역의 근처였다. 「팔로스」선에서 유감스럽게 여긴 것은, 보루를 공격할 때 「모노카시」선과 똑같이 훈공勳功을 세우지 못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팔로스」선이 암초에 걸려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운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7 정확한 이름은 Hugh W. Mckee이다.

48 정확한 이름은 Charles H. Rockwell이다.

49 ‘보루를 수비하는’의 뜻이지만, 문맥상 강화도의 보루를 공격하는 미군을 가리킨다.

50 카피탄(甲比丹): 에도시대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 말로, 배의 선장, 즉 captain을 뜻한다.

51 발대용(拔隊龍): 미상이다.

「중위」「맥키」【인명】는 「중위」「프리스」【인명】, ‘카피탄’ 「틸튼チルトン」【인명】과 함께 있었는데, 보루 안에서 전사했다. 해병의 「세스 알렌セジアント, Seth Allen」1명은⁵² 보루의 제1곽第一郭에서 사망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명성이 높은 사진사 「해리스 비어드ゲリスバト」씨는 「밀레트」선으로 현지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 사람에게서 이상의 사건을 들었다.

「비어드」씨는 예전에 영국군과 함께 「크리미아」【지명】에 있었는데, 이번 한미양군의 전쟁은 실로 비할 데 없이 맹렬했다고 하였다.

조선인은 기한까지 분쇄했지만, 고집스럽게 보국가報國歌를 부르면서 보루와 도랑砦溝 위를 순행巡行했다.

「제네라사스모세나라스モ」의 깃발을⁵³ 빼앗았다. 한병韓兵 6천 명이 미국군과 대적했다. 미국군 가운데 1천 명은 보루에 주둔하고 있다고 한다.

31 서무과에서 종자從者の 인솔과 관련하여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한

이번에 미국에 공무로 파견되는 야나기야 요시유키柳谷謙之의 여비旅費 수취受取 방법과 관련하여 대장성에 고지했는데, 그 회신에 별지 등본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종자從者를 거느리는 방법이 바뀐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대장성에 교섭서【掛合書】를 보내 올해 5월 중에 이미 지시를 청했습니다. 그때 지시가 있었어야 하지만 전혀 없었고, 4개월이 지나서야 야나기야 요시유키의 여비에 관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고호御報에⁵⁴ ‘이상과 같이 규칙이 바뀌었음을 알려주셨으니, 변무사弁務使 및 기타 해외에 출장 나간 자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늦어져선 안 될 것임

⁵² 「셀지안트(セジアント)」는 미상이다. 신미양요 당시 미군 사망자는 맥키 중위 외에 세스 앨런(Seth Allen) 일병과 토머스 머피(Thomas Murphy) 일병이 있었다.

⁵³ 장군을 뜻하는 ‘수(帥)’자기를 뜻한다.

⁵⁴ 고호(御報): 신분이 높은 사람이 보낸 문서에 대한 회신.

니다.’라고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시를 청한 문서의 등본을 속히 돌려주길 바란다고 신청했는데,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종자從者에 관한 규칙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상과 같이 대장성에서 알려왔으니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알려드립니다. 이후 선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미(1871년) 5월 8일

외무성 서무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히로쓰 히로노부 님

고바야시 다다스 님

32 오사카부大坂府로부터,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낼 유지포油紙包는 오사카부大坂府의 이즈하라번저嚴源藩邸에 있는 자들에게 교부했음을 알려온 서한

귀 省의 관원 요시오카 외무권소승 및 기타 조선 부산 출장지에 보낼 유지포油紙包 3개와 서한[御狀] 등을 보내주신 서면書面의 취지에 따라 이곳의 이즈하라번저의 관리[詰ノモリ]를 호출해서 전달했습니다. 별지의 영수증[請取書]을 첨부하여 이를 보고합니다.

신미(1871년) 5월 8일

오사카부

외무성 귀중

추신. 가능한 한 조속히 해달라고 회답을 주셨으나, 예상보다 지연되어 다시 문의하시게 하였으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覺

- 一. 유지포 공용물품[御用物] 3개
- 一. 종이로 싼 봉장[紙包御封狀] 1통

조선국 부산 대일본관大日本館의

요시오카 외무권소승님께

모리야마 시게루 님께

히로쓰 히로노부 님께

도쿄 외무성으로부터

이상의 서장書狀과 공용물품[御用物] 등을 전달할 것을 지령서[御達]를 통해 분부
하셨으므로 물품을 전달했으며, 분명히 수령하였음을 아뢰입니다. 이상.

이즈하라번

미(신미, 1871년) 4월 24일

요시다 세고吉田誠吾 ⑨

오사카부 고야쿠쇼

33 5월 9일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등이 나가사키長崎에서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
에게 보낸 서신

이즈하라에 무사히 도착했음은 지난 6일자 서장書狀을 통해 아뢴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6일 밤 갑자기 바람 상태가 양호해져서, 그날 밤 3시경 히로시마선廣嶋船에 올라 곧장 닻을 올렸습니다. 이튿날인 7일 아침 6시경 잇슈壱州를⁵⁵ 넘어 오무라령大村嶺 우시가쿠비午ヶ首 주변에서 바람이 바뀌고 또 파도도 잔잔해졌으므로 잠시 닻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행하여 다음 날 8일 저녁 나가사키에 지연遲延 없이 안착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장마梅雨철에 쉽게 순풍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만, 예상외로 일찍 도착해서 모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청縣廳에 가서 대참사를 면회하고 미국과 한국[米韓]에 관한 신문을 구했는데, 별지와 같이 나가사키현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이외엔 신문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어떻게든 큰 전쟁을 한다는 각오인 것처럼 보이며, 육군은 모두 병기 등을 차례대로 받은 모양입니다. 또 러시아·영국 등의 군함도 차례로 참관하러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밖에는 별반 달라진 일은 없는 듯합니다.

외무경 공의 청국행淸國行과 관련해선 아직 선박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시라도 빨리 상경하도록 오는 12일 코스타리카 선船이 출항하는 날에 승선할 예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한米藩도⁵⁶ 차례대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미 미즈노 대참사도 사면을 받아 수도國元에서 유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시조 님께서 나가사키에 머무르시면서 이즈하라번 지사와 대참사를 호출하여 탄핵 중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밖에 국내의 형세가 변한 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히로노부 등이 답송한 히로시마선이 귀범歸帆했으므로, 우선 안착安着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못다 한 말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⁵⁵ 잇슈(壱州): 이키노쿠니(壱岐國)의 별칭. 이키는 현재 나가사키현 이키섬을 가리킨다. 본문의 사건은 메이지 정부 전복 음모가 발각되어 1871년 3월 순찰사(巡察使) 시조다가우타(四條隆詞)가 정부군을 이끌고 구루메번으로 진입하여 대참사 水野正名, 권대참사 小川真文 등을 체포한 이른바 구루메번난사건(久留米藩難事件)을 말한다.

⁵⁶ 베이한(米藩): 오늘날 후쿠오카현 서남부에 위치한 구루메번(久留米藩)을 가리킨다.

신미(1871년) 5월 9일

고바야시 다다시

안도 다로

히로쓰 히로노부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또한 별지는, 나가사키현에서 보낸 신문을 이즈하라번청에서 제출했으므로 개봉開封했습니다.

첨부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제출한 미국과 한국 관련 신문

상하이 신문의 발췌 번역문 1통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어제저녁 미국 우편선 코스타리카호로 지나국으로 향하는 사절의 별지別紙의 인원들이 이곳 현縣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그 우편선 편으로 상하이에 건너갈 예정이라고 하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신미(1871년) 5월 23일

나가사키현

외무출사 귀중

미병조선공략기략美兵朝鮮攻略記略

조선의 항구인 「작약도ボイシー」는 이제 미국 군함의 정박처가 되었다. 그 항구에서 출발한 「밀레트」선船은 오늘 아침 이곳에 도착했다. 그 서신에 이르길, “전에

강을 측량할 때 갑자기 공격을 받았는데 이후 수사제독의 조치를 알려주겠다.”라고 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4월 14일의 공격으로부터 2, 3일 지나 조선국에서 소·양·달걀·채소 등을 작은 배 1척에 싣고 와서 말하길, “귀국은 본디 만리나 되는 파도로 떨어져 있다. 공 등은 이제 멀리 여기까지 왔으니, 생각건대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를 보내니, 부디 받아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수사제독이 말하길, “우리가 항해해서 여기까지 온 주된 뜻은 전적으로 화친간후和親懇厚를 맺기 위해서다. 그 시비를 묻지 않고, 함부로 우리를 기습공격[暗擊]했다. 우리가 이 난폭한 행위를 한 무리를 응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를 받을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고, 끝내 이를 물리쳤다. 그 후 4월 24일 아침 10시, 병사 680명을 보트[端舩]에 태워서, 모노카시와 팔로스 2척으로 이끌면서 전진했다.

一. 카레코カレコ에 조선의 한 섬에 있는 포대의 동남쪽에 설치된 포대 아래에 이르러 제10번대第十番隊가 옆쪽으로 접근했다. 그때 갑자기 그 포대에서 발포했다. 따라서 미국 함선에서도 그에 대응해서 연속 발사했다. 그런데 저들은 수비를 하지 못했으므로, 그 틈을 타서 보트를 강가로 접근시킨 후, 상륙해서 계속 전진했다. 그때 가지고 간 물품은 식량 2일분과 탄환 1백발씩 나누어 주었고, 점점 앞으로 진군했다. 해군 병사는 야전포 7문을 끌고, 그것에 뒤이어 대형 함선 2척 및 작은 화륜선 4척이 강 상류로 전진하면서 육군의 공격을 도왔다. 육지로 행군한 병사들은 캡틴 켈튼 씨의 인솔하에 경사가 있는 제방堤을 올랐는데, 토사가 무너져내려 무릎을 덮을 정도여서 실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해안이 낮아서 여기저기 수문水門이 있었고, 흙은 마치 늪처럼 깊었으니 실로 방어의 요처要處였다. 애석한 것은 바위에 있는 제방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밖에 울타리 안에는 촌락과 논밭田畑이 있었다. 우리 병사가 바깥 울타리[外柵] 안으로 진입하자, 적병은 작은 수풀 또는 우거진 채소밭으로 달아나면서 가끔 뒤쪽을 향해 발포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병사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끝내 포대로 들어갔다.

이에 병졸을 정돈한 후, 대포 구멍[火門]에 못질을 하고 포대를 불태웠다. 또 해군 병사들은 그사이 강가에 붙어서 전진했다. 수풀이 우거진 동산에 올라 둘러보자 묘지[墳地]로 보이는 반원형에 흙을 쌓은 것이 있었다. 여기서 조망眺望하니 사방에 산이 있었다. 토지는 완전히 비옥해서 논밭에 푸르게 물이 가득하였으니, 분명히 부국富國의 풍경이었다. 그때 육군과의 거리는 대략 3초町였다.⁵⁷ 이에 근방에 대비가 되어 있는 제2포대를 기습하기로 약속했다. 이 포대는 사각형으로 지어졌는데, 그 한쪽의 길이는 약 30겐間⁵⁸ 정도로 보였다. 그때 전령을 본대本隊로 보내서 “이 앞은 길이 평탄해서 대포를 끌고 올 수 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시각이 이미 늦었으므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군령을 내리지 않고, 모든 병사를 셋으로 나눈 후 그 둘[?]에 야간 경비를 시켰다. 이날 밤엔 특별한 일이 없었다. 다만 이곳에서 약 10초 정도 떨어진 좌측에 동산이 있었는데, 밤중에 그곳에서 소총을 발사했다. 미국 병사들이 2, 3발 응사하자 갑자기 포대가 고요해졌다.

다음날인 25일 미국 병사들이 제2포대를 공격했다. 이 포대는 강가에 붙어있었고, 물에서 이어진 동산이었다. 그 뒤편의 넓은 지역廣地에 이르러 바로 명을 내려 병사들을 나눠 산맥의 기슭을 수비하게 했다. 미국 병사의 3분의 1은 포대의 전면에서 육지 쪽을 향하게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원병援兵으로 정했다. 하지만 공격하는⁵⁹ 병정들에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적병은 모두 달아나버렸다. 또는 함선에서 발포했기 때문인지, 진중陣中이 적막해서 사람이 없었으므로 쉽게 보루로 들어가 포대를 완전히 파괴했다. 배치된 대포 5, 60정挺은 당장鎗張으로⁶⁰ 눈에 익지 않은 주조법鑄造法이었다. 대포 구멍에 못을 박아

57 초(町): 거리의 단위로 약 109m에 해당한다.

58 겐(間): 약 1.818m로 60겐이 1초(町)가 된다.

59 원문의 요세테(寄手)는 공격하는 군대로서, 미군을 가리킨다.

60 당장(鎗張): 미상이다.

강물로 던졌다. 그 후 다시 강굽이에 있는 포대를 습격했으나, 이는 지난 14일 우리 측량선에 발포한 포대였다. 그러므로 이 포대에 주목해서 전진했는데, 사방에 동산이 많아서 병사를 매복시키기에 편했다. 다른 곳은 질척한 논[深田] 또는 늪지대[沼地]와 같았다. 여기서부터 해군 병졸이 앞장서서 마침내 작은 산의 정상에 올라 바라보니, 마주 보이는 산 정상에 적병들이 몰려 있었다. 저들은 미국 병사를 보자 갑자기 구식[古流] 총을⁶¹ 발사했지만, 거리가 아주 가까워서⁶² 탄환이 모두 빗나갔다. 우연히 탄환 1개가 부대 안에 떨어졌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그때 해군 병사들에게 명하여 대포를 운반해 오게 했다. 적군이 저쪽 산 정상에 집합해 있는 것을 보고 2, 3발의 포도탄[葡萄彈]을 발사하자 크게 효과가 있어서 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때 해군 병사들은 좁은 산길을 넘어 곧장 강굽이의 큰 포대로 향했다.

一. 미국 병사들이 상대한 적병[敵兵]은 약 6천 명이었다. 그중 1천 명으로 이 보루를 방어했는데 매우 견고했다. 공격하는 미국 병사들을 향해 방수[防守]하는 자들이 있었으므로, 거의 10초[町] 정도까지 적병에게 접근해서 잠시 휴식하게 한 후, 다시 진격의 명을 내렸다. 병사들을 나눠서 적의 보루 바깥 울타리[外柵]의 석협[石脇]을 은밀히 열진[列進]하게 했다. 오른쪽에 있는 동산은 적진에서 거의 150야드의 거리로서, 그 정상까지 적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올랐다. 그 오른쪽은 적인[敵人]들의 통로였다. 그 근방에 24기[旗]의 복병을 설치하고, 다시 그 오른쪽으로 대대[大隊]를 향하게 해서 마침내 30야드까지 전진시켰다. 그리고 모든 병사가 동시에 나타났으니, 기[旗]는 단지 적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대령[captain]【관명[官名]】켈튼 씨는 겨우 4명만 거느리고 적병[敵兵]에게 향했다. 더욱 접근하는 것에 따라 일시에 마치 비가 쏟아지듯 발포했다. 1분

61 문맥상 대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62 조선군대의 소총의 사거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 그 포성이 그쳤다. 그 사이에 추격하는 동안 다행히 미국 병사는 1명만 전사했다. 또 그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연속 발포를 했지만, 외측 보루에 조금 가까운 산 아래로 접근했으므로 대체로 그 탄환들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쌍방의 발포가 동시에 이뤄져 마치 우레와도 같았다. 미국 군대의 발포가 크게 주효했음은 전투 후 조선 병정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많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연속 포격이 끝나자 조선 병정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一. 미국군의 선봉대가 성채로 더욱 육박하자, 적병은 탄환이 다 떨어졌는지 작은 돌을 끊임없이 던져댔다. 그때 성채에 먼저 돌입한 병사에게 물으니, 「맥키 중위 lieutenant McKee」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적병들에게 가장 앞서서 달려가다가 발포한 탄환에 가슴을 관통당하고 이어서 옆구리를 찔려서 끝내 즉사했다. 틸튼 대령, 브리스프리스, Breese 중위, 마로니マロニー, 맥드틸マクドチル⁶³ 그를 죽이기 위해 해군 병사들을 이끌고 곧장 돌격하였으니, 적병은 달아날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았으며, 적군의 부장[第二等指揮役]은 부상, 장군[第一等ノ軍將]은 전사했다. 성채 안팎에 사망한 적병은 243명이었고, 그 밖에 부상자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었다. 미국군의 전사자는 휴 맥키 외 3명, 부상자는 12명이었다. 부상자는 곧바로 모노카시호로 수송해서 치료를 받게 했다. 또 부상당한 조선인들도 미국 의사에게 맡겨 치료해주었다. 그중 팔에 큰 부상을 입은 자는 이를 절단했다.

一. 미국 병사들은 이날 밤 대오를 나누어 성채 순찰병[邏卒]을 두고, 대포부대는 계속 산 정상에 주둔하며 불의의 공격에 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이 성채의 좌우를 파괴하고 대포에 못을 박았다. 그리고 미국 병사들을 정렬시켜서 소지한

63 '마로니'와 '맥드틸'은 미상이다. 단, 상륙군을 지휘한 김벌리(Kimberly) 중령은 당시 성채를 점령한 자들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Lieutenant Commander Casey, Lieutenants Totten, McIlvaine, Master Brown, Lieutenant Breese, United States Marine Corps, Captain Tilton, United States Marine Corps, and several others, with marines and sailors, filled the citadel and drove the enemy." {"Report of Commander L. A. Kimberly"(Jun. 15. 1871), *Blake Paper*, New York Public Library}

병기를 일제 점검한 후, 군함에 탑승시켰다. 그때 병사들이 발포한 탄환을 계산해보니 1인당 평균 40발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주로 언급된 것은 육군의 공功뿐이었지만, 해군의 활동도 큰 공이 있었다. 그 함선에서 발포한 탄환은 모두 적진에 명중하였고, 짧은 시간 안에 이를 파괴해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그 뒤를 이어서 육군도 크게 공을 세웠다. 팔로스호가 한 차례 모래톱에 좌초되었지만, 모든 해군이 마침내 안전하게 귀환해서 정박했다. 정박처에서 소집을 마친 후 수사제독은 다음 사항을 각 함선에 포고했다.

- 一. 강화도^{カンホー島}에 있는 조선 병정에 대해, 우리 해군 사관을 비롯해 병졸, 수부^{水夫}에 이르기까지 방심하지 않고 용맹한 전공^{戰功}을 드러냈으니 대단히 만족스럽다. 그 개가를 올린 것이 참으로 유쾌하여 건디기 어렵다.
- 一. 이번 달 14일 모노카시호, 팔로스호가 작은 화륜선 4척과 함께 측량을 실시하는데,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육지의 각 포대에서 빗발치듯 연속 발포했다. 이처럼 무도한 포격^{暴撃}을 당했지만, 우리가 대응 발포를 하자 잠시도 방어하지 못하고 흩어져버렸다.
- 一. 조선 정부가 그 무도한 행위의 용서를 청하지 않았으므로, 지난 24일 콜로라도호, 알라스카호, 베니치아, 「코모돌^{コモドル}」 4척은 케무흐루와^{ケムフルワー}의 지휘를 따르고, 모노카시와 팔로스 등 포함 2척은 커맨더^{コマトラル}, Commander 프레츠오^{フレツォ}의 지휘에 따라 적병의 전악^{前惡}과 무도함을 응징하기로 했다.⁶⁴
- 一. 24일과 25일의 전공^{戰功}으로 인해 작은 포대 5개소, 그리고 강급이의 험지에서 적 병사들은 필사적인 방어를 했다. 그러나 큰 포대는 마침내 함락되었으

⁶⁴ 이 대목의 서술은 다소 부정확하다. 강화도에 온 미국 군함은 팔로스, 콜로라도, 알라스카, 모노카시, 베니치아 등 5척이었다. '코모돌(コモドル)'호는 미상이다. 또 광성보 전투 당시 미군의 강습부대는 E.P.McCrea 중령이 지휘하는 모노카시호, C.H.Rockwell 대위가 지휘하는 팔로스호, 그리고 H.F.Picking 소령이 지휘하는 증기기동선(steam-launches) 4척으로 구성됐다. 상륙작전의 총사령관은 H.C.Blake 중령이 맡았으며, 상륙부대의 지휘는 L.A.Kimberly 중령이 맡았다.

며, 전사자 243명을 성채 안팎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군기 50개를 획득했다. 이 포대 앞은 수심이 얕아서 급류가 흘렀으니, 천연의 험지險地 정도가 아니었다. 적병이 방어에 사용한 예리한 각종 병기는 가지런하고 견고했다.

一. 그런데 우리의 용맹한 병사들은 항행의 위험과 늪과 못[沼池], 험한 산의 좁은 길을 뛰어넘고, 분연히 앞뒤를 재지 않고 마침내 포대를 무너뜨리고 군수물자를 빼앗았으니 어찌 참으로 칭송할 일이 아니겠는가?

一. 장수가 된 나는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이 같은 병졸들을 지휘한 것은 충분히 스스로 자랑할만하다. 또 나는 해군 지휘관들이 세운 전공戰功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을 드린다. 특히 부상당한 병사들에 대해선 괴롭고 슬픈 마음을 이루 표현하기 어렵다.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괴로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국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부상을 입은 용사들을 생각하니, 아아! 흐르는 눈물이 그치질 않는다.

이러한 비애 가운데서도 그 영웅적인 병사들의 영예로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이제 펜을 들고 기재하는 것은, 중위 휴 맥키이다.⁶⁵ 가장 선봉에서 진격하다가 성채 한가운데서 전사한 자이다.

이 이름을 잊어선 안 된다. 이 사람의 성품이 용맹했음을 오랫동안 기억하여 앞으로 용사들의 귀감으로 삼아야 하리라.

미국 해군총독

존 로저스ジョン ローゼル

조선 물치도ホイシー【지명】에 정박한 함중국 콜로라도호에서, 1871년 6월 12일.

이는 곧 황국皇國 메이지明治 4년 4월 25일이다.

⁶⁵ 원문은 ‘レフテナント ヒュートツフルウー マケー’로 되어 있다.

一. 그 후 2, 3일 지나 조선 측에서 수사제독에게 서한을 보내왔다. 불경한 말로 크게 비방하는 글이었다. 그러나 제독은 그 서한에 회답하지 않고, 그 후 다시 서신을 보내서 “우리 수중에 있는 포로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었다. 그 답서^{답書}는 “수사제독의 뜻대로 하라.”라는 짧은 글이었다. 그 후 다음 날을 보내고 포로를 모두 석방해주었다. 그리고 다시 2차례 서한을 보냈다. 그런데 지방관은 이를 전달하지도 않고, “그 서신을 전하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정에 통신을 시도해도 쓸데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길,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나라를 방어하라는 칙명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을 따를 뿐이다.”라고 했다. 그때 미국 공사 로우^로가 의론하기를, “원래 우리가 온 취지는 본디 화친간후^{和親懇厚}를 맺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귀 조정을 접견해서 그러한 뜻을 말하려고 했는데 관원이 듣지 않고, 이윽고 불시에 우리 해군을 습격했으니 무도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부득이 간후^{懇厚}의 주의^{主意}를 저버렸으니, 이는 귀국 정부 때문에 생긴 일이며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다.

一. 밀레트호는 미국에 보낼 급신^{急信}을 갖고 상하이에 도착해서 이를 이미 보냈다. 그리고 본국의 우편선이 이곳에 도착한 후, 그 회신을 휴대하고 청국 치푸향으로 복귀하라는 명을 받았다.

一. 수사제독이 워싱턴^{미국}해군국^{海軍局}에 보내는 전신^{電信}은 이미 금일 이곳에서 보냈다.

一. 보인^{ボイン} 섬에서 평의^{評議}한 것은,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 2척을 상하이로 보내서 보수하게 하고, 다른 함선은 치푸에서 수리하면서 미국 정부의 명을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一. 관리 중인 병량^{兵糧} 10만 개는 홍콩^{香港}에서 치푸로 수송하라고 이미 지시했다.

- 一. 조선인이라고 해도, 그 움직임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오직 애석한 것은 병기가 부족했던 것이다. 포로가 된 부장副將이 말하길, “우리는 본디 성채를 수비하는 것이 쉬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귀국 병사들이 매우 적은 수로 이렇게까지 승리를 거둔 것은 몹시 놀라운 일이다.”라고 했다.
- 一. 해군이 조선 근해에 정박하고 있을 때, 주민 9명이 작은 배를 타고 와서 말했다. “저희는 원래 천주교인[耶蘇宗 / 者]입니다. 「밀레트」 호가 상하이까지 간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상하이에 보내주실 것을 허락하시고, 이 작은 배를 불태워주십시오.” 또 말하길, “만약 이 배가 우리 해안에 표착漂着하면 어떤 마을의 것인지 조사한 후 저희 친족까지 사형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수사제독은 이를 받아들여 여기로 보내주었다. 그중 1명은 작년에 이곳에 왔다고 하였다. 또 다른 1명은 어학에 뜻이 있어서 일본어를 읽는다. 또 말하길, “우리나라는 몇 년 전 천주교인 1천 명을 붙잡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위난危難을 면할 방법이 없겠습니까?”라고 간원懇願하는 모습이였다.

황국皇國 5월 13일 신문新聞을 기재함.

34 5월 14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탐색서探索書 등을 첨부하여 보내온 서신

이번 달 5일 히로쓰 히로노부 등이 출항한 뒤로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한두 가지 탐색한 내용이 별록別錄과 같습니다. 외국의 동정動靜을 이것저것 조사했는데, 양국 간 전투는 상당히 격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인韓人의 풍습은, 일찍이 보고드린 것처럼 자수자중自首自重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일은 철저히 숨깁니다. 또 이번과 같은 국난은 조금도 토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정탐해보니, 상하 일반의 곤액困厄이 무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화도 전투 당시 한인 100여 명이 전사한 것은 상당한 패배敗績로 보입니다.

- 一. 게하이(輕輩)들이⁶⁶ 탐색한 결과, 어떤 한인이 말하길 “강화도는 몇 년 전부터 내부의 소요[內擾]로 성루城壘도 파괴되었다. 이번에 양인과 몇 차례 격렬한 전쟁을 한다면, 도저히 방어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우 우려한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탐문하는 자는, 그 말투나 걱정하는 모습이 이미 강화도는 미국인의 소유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증을 얻지 못했습니다.
- 一. 저들의 수도는 해안 부근에 있기 때문에, 험준한 요경要境에 행궁을 짓고 은둔한 채 방어해야 한다는 책론策論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군으로부터 뇌격雷擊을 당하면, 군박窘迫한 나머지 완고한 국론도 마침내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본성本省(외무성)에서는 상세한 사정을 들으셨을 것이니, 부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一. 지난번 외무경께서 내리신 내유內諭를 배승拜承하고, 조속히 관사館司를 통해 미국 함선이 출발했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양역兩譯이 별지의 짧은 서간[短簡]을 제출했을 뿐, 오늘날의 상황으로는 한마디의 약속을 수용할 전망도 없습니다. 따라서 히로쓰 등이 도쿄에 도착한 뒤에 저희 건론建論의 취지를 채택하시어 묘의廟議가 결정된 다음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간절하게 더욱 신의를 드러내고 간독懇篤한 뜻을 보인다면, 마침내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현지 사정을 살피시어 진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一. 탐색서探索書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함선에 승선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풍설風說만 있을 뿐, 진위가 어떠한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신 결과를 속히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최근 정상情狀을 탐문한 것의 대략입니다. 또 국내의 형세가 어떤지 부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갖추지 못하고 올립니다.

⁶⁶ 게하이(輕輩): 신분, 지위가 낮은 사람.

신미(1871년) 5월 14일

모리야마 시게루

요시오카 고키

외무대·소송 귀중

첨부1 미한전쟁米韓戰爭 탐색서(2통)

내부 탐색서[內探索書]

예전에 양주楊州 강어귀의 암초 손돌목ソントモク에 좌초한 이양선[異艚] 2척은 우리 군이 수뢰포水雷砲를 써서 1척은 이미 침몰하고, 다른 1척은 조금 파손된 채 강어귀를 빠져나갔다. 그 뒤를 이어 20척 정도가 강화도에 쳐들어왔다. 과반이 상륙해서 접전에 이르렀는데, 쌍방 모두 사상자가 적지 않았다. 서양인[異人] 몇 명을 잡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았다. 그들은 불리하다고 여기고 모두 함선에 올라탄 후 대포를 연발했다. 우리 군도 육상에서 발포했다. 이양선 1척은 조금 부서지고 사람도 다쳤다. 우리나라의 군사도 100여 명 전사했다.

이상은 4월 26일부로 동래부에 통지된 내용임.

5월 11일

우라세 사이스케

내부 탐색서[內探索書]

이번 달 10일 한양에서 동래부에 보낸 서한 가운데 지난날 강화도 전투 당시 우리 군을 공격하던 자들 가운데 일본인도 숨어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관내館內(왜관)의 동요動搖에 관해 신중히 정탐을 마쳤으며, 또한 일본인에 대해선 한층 더 극진

하게 대접하는 것 같다고 알려왔음.

이와 관련해서 관내에 평소 들어오던 한인【조시(朝市)에 당인(唐人)이라고 부르는 노예의 무리】들은 대체로 황혼이 지나도록 관중館中에서 사역을 받다가 저녁에 물러갔음. 어제 도 일찍부터 눈에 띄었음. 이는 내부 사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함.

5월 14일

스미나가 계조住永啟三

첨부2 미국 함선의 일을 알리자 훈도와 별차가 답한 서한

각覺

一. 이번에 양인洋人의 사기事機를 이처럼 통보해준 것은 교린의 후의厚意에서 나온 것이니 크게 감사한다. 즉시 본부本府(동래부)에 품고稟告에서 조정에 전달할 것이니 굿어 양찰해 주시길 바란다.

신미(1871년) 5월 일

훈도【준경(俊卿)】안安 영지令知 ㉔

별차【경오(景五)】현玄 주부主簿 ㉔

관사館司 존공尊公

35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고바야시 다다시小林匡 등이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가역家役 사표의 재결과 관련하여 아뢰는 글

조선국 심교尋交와 관련하여, 작년 10월부터 저 지역[조선]에 출장 나간 이즈하라번사를 통해 간곡하게 반복하여 우리의 성의誠意를 전했지만 여전히 예격例格을

묵수墨守해서, 출장 나간 관원이 직접 면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즈하라번 지사의 가역家役 사표辭表를 수리해서 양측 간 수백년의 고착固着과 사정私情의 근원을 절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즈하라번사를 관원官員으로 선임하고 소 씨를 통해 그 조리를 간곡히 타이르게 해서, 마침내 외교는 외무성의 관할에 속하는 규칙을 보이십시오. 의단疑團이 해소됨에 그에 따라 그 정화情和를⁶⁷ 도모하시어 차츰 종래의 세견선歲遣船을 폐지하고, 화관和館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백도유신百度維新의 공명정대함을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강명講明하시고, 무역은 민정民情이 화합하는 바에 따라 서로 있고 없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니, 양국의 교제도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공평한 법으로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저들의 태조太祖 이래로 ‘동쪽으로 신의를 잃지 말라東不失信’는 유훈을 지켜서 우리와 절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은 분명한 정실情實이니, 반드시 우리의 간곡한 성의誠意가 관철되어 우리 조정에 구교舊交를 찾으리라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시오카를 위시해서 반드시 아뢰고자 하는 성공의 목표가 대략 이와 같습니다. 또한 하향下向하심에 따라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5월 20일

고바야시 다다시

히로쓰 히로노부

36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가역을 면하여 심교尋交를 도모하는 순서를 아뢰는 글

조선국 심교尋交와 관련해서, 서계書契를 삼가 받들고 작년 겨울 11월에 저 지역

⁶⁷ 정화(情和): 민정(民情)의 화합.

[조선]에 도착했을 때, 이즈하라번 지사님께서도 한국에 주재한 번사들에게 거듭 “출장 나온 관원들과 협력동심(協力同心)하여 황조(皇朝)의 백도유신(百度維新)과 정령(政令)이 한 길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만국의 형세 및 시세의 변혁 등을 알리고 정성껏 우리 성신(誠信)의 소재를 받아들이도록 도모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오직 선례(先例)와 고격(古格)만 주장하였고, 또 훈도라는 자는 작년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뒤로 누차 병이 나서 이제까지 출장 나온 관원들과 공식적으로 접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유심히 쓰시마와 한국 간의 실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사님께서 가역(家役)의 사표를 제출하셨으므로, 요시오카 고키가 처음 건의한 후, 2월 15일 히로노부가 이즈하라로 귀항(歸航)해서 지사님께서 현명한 생각을 하신 이유를 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微臣)가 착목(着目)한 바와 부절(符節)을 합한 듯 일치했으므로, 건의를 올리고 평결(評決)을 청하기 위해 3월 16일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이 저 나라에 군함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해서 안도 다로 일동이 도한(渡韓)의 명을 받아 같은 달 20일 요코하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도착할 때까지 몇 차례 가키토리(書取)를 통해 여러 건을 아뢰었습니다. 4월 23일 한국에 도착한 후 미한(米韓)의 형세를 탐색해서, 우선 부산 근방에서는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없음을 살폈습니다. 또한 2명이 함께 장래의 목표를 상의해서 5월 2일 초량관을 출발하여 같은 달 5일 다시 이즈하라로 귀환했습니다. 이에 지참사(知參事)와 협의해서 결정한 목표를 대략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미(신미, 1871년) 5월 20일

히로쓰 히로노부

- 一. 심교(尋交)를 성숙(成熟)시킨다는 목적은, 소 씨 가역(家役)의 명의(名義)를 폐지시키고 외국교제는 모두 외무성의 관할이라는 것이 일정한 규칙임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데 달려 있음.

一. 가역을 면제한 후, 이즈하라번사를 통해 이를 한인에게 포고하고, 교제를 외무
관원의 관할로 하는 절차 및 번사 중 일부를 외무관원으로 선임해서 저들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방법 등은, 가역 면직의 결정이 난 뒤에 다시 깊이 도모해
야 함.

一. 이즈하라번사를 통해 한인의 의심을 설파說破하고 조정의 성의誠意에 승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쓰시마와 한국 간 유사有司(담당 관리)의 사정私情을 절단하는 데
있으며, 그 사정私情을 절단하는 것은 제1조에서 아뢴 것처럼 소 씨의 가역을
면제하는 데 달려 있음. 가역을 면제한 뒤에는 소 씨 세전선歲遣船과 공사무역
公私貿易 등을 뒤따라 없애서 한지韓地의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결정해야 하니,
이러한 실정을 자세히 진술하지 않을 수 없음.

소 씨가 조정의 명을 받고 일신一新을 통보하는 사절을 파견한 뒤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4년간 쓰시마번에서 백방으로 진력하고 고심한 것은 물론임. 하
지만 400년간 번 재정의 반을 한지韓地의 급여에 기대었고, 막부도 나태하게
이를 수용해서 습성習性이 되었음. 한지韓地의 동래와 부산의 유사有司 간의 교제
에선 무역사절의 접대 등으로 많은 사리私利를 취해왔으니, 이는 마치 예전 나가
사키의 부교奉行, 다이칸代官, 도시요리年寄, 슈쿠로宿老 이하가 청국 상인, 네덜
란드 상인을 접대하던 때와 그 실정이 크게 유사함. 그러므로 그 사정私情은 이제
굳이 미워할 만한 것은 아님.【작년 겨울 이즈하라번의 제도에 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국 무역의 이익[得益]은 충분히 수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고, 설령 지금 한토(韓土)에서 들어오는
이익[入益]을 포기하더라도, 신구(新舊)의 관할과 수납을 쌀과 금으로 해서 번의 회계를 지탱하기에 충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지사의 가록(家錄)은 겨우 500석, 온 번의 사록(士錄)은 상하 차등 없이 14석으
로 충당하는 등, 실로 지사님께서 번정(藩政)에 고심하면서 단연코 외국의 급여에 기대지 않도록 경계하는 마
음을 정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현명한 결단이시니, 감동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예전부터 피폐한 번의 채무가 점차 거듭된 나머지, 개혁의 양법(良法)과 깊은 지해도 갑자기 그 위급함을 구
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리(小吏)와 하민(下民)의 실정에 이르러선, 한 달이나 한 해도 한지(韓地)의
급여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실로 부득이한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결코 미워할
만한 것이 아니니, 참으로 깊이 연민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지韓地의 경우, 내외의 안위安危가 절박한 형세에 이르렀으니, 어떤 이는 천도遷都의 설을 주장하고, 또 어떤 자는 개화開和원문의 논의를 일으키려는 상황임. 따라서 머지않아 개화변혁開和變革을 할 것이므로, 설령 우리가 심맹尋盟 성공의 목표를 위해 이를 폐기하더라도, 종래 한지韓地에서 이즈하라변에 급여給與하던 쌀, 콩 등을 머지않아 폐지할 것은 필연임. 한지韓地에서 급여하는 길이 끊어지면, 반드시 조정의 은혜로운 하사惠賜를 바라지 않을 수 없음. 그렇다면 전후 조만간 반드시 황국 내의 쌀과 금을 하사해서, 황국 내의 인민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이제 조정이 그 기변機變에 앞서, 종래 소 씨의 세전선 및 공사무역이라고 부른 소득, 즉 대략 1만석 남짓의 쌀에 해당하는 분량을 번에 하사한다면 온 번의 사민士民이 대번에 조정의 은혜를 입어 외지의 급여를 바라지 않기로 결심할 것이니, 오직 한 조각 성심誠心으로 조정의 뜻을 관철하는 데 진력할 것임. 이즈하라변 사민私民의 마음을 어루만져 복종시킨 다음에 한국의 의심이 영원히 해소되리라는 것은 다른 논의가 필요치 않음. 훗날 부득이한 때에 처하더라도 민심이 인혜仁惠에 젖은 정도가 과연 어떠하겠는가? 앞서 밝은 지시를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림.

37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11등 출사出仕 배명서拜命書

히로쓰 히로노부

11등 출사에 명함.

메이지 4년 신미(1871) 5월

외무성

38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11등 출사 사퇴서 및 사퇴 각하서 [2통]

저는 작년 5월 22일 10시에 처음 출사의 명을 받은 후, 꼭 1년이 지나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망외望外の 배명拜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된 은혜에 보답할 바를 알지 못하여 감읍感泣할 뿐 황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유심히 생각건대, 작년 겨울 이후 한국에 있는 요시오카 고키, 모리야마 시게루는 황국과 한국 간의 심교尋交와 관련하여 거의 침식寢食을 잊은 채 밤낮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즈하라번 지사님도 번정藩政이 다단多端한 가운데 한인이 아직 조정의 뜻을 받들지 않아 깊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내지內地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근접한 지역으로 이제 미국 군함이 출발해서 도리어 선수를 취했으니, 어찌면 머지않아 강화講和의 공功을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성공의 목표를 결정하시어 저의 용렬함을 버리지 않고 왕복하고 두 차례나 그 의론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노둔하고 미력하여 아직 목표를 위에 아뢰어 본성本省(외무성)의 고평高評과 조정의 결의決議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갓 등급을 뛰어넘는 것은 도저히 참담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의론이 있겠지만, 확고하여 변치 않는 결의가 아뢴 대로 정해져 도한渡韓의 명이 내리기까지 문서書附(사령장)는 보류해주시길 것을 바라옵니다. 이상.

5월 22일

히로쓰 히로노부

외무경 님의 부찰⁶⁸ 사본

제기한 취지는 타당하나, 묘의^{廟議}는 묘의이고, 수고는 수고로서 별개의 것이다.
청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직무와 관련해서 제기한 취지는 타당하나, 분부를 내리긴 어려움.

5월 22일

외무성

39 5월 23일 야나기와라^{柳原} 대승이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여러분께서 더욱 안태^{安泰}하시니 재근^{在勤} 중에 크게 경하할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난 선편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흠차전권대신 다테 경을 보필하라는 명을 받고, 이번 달 17일 도쿄에서 출발해서 18일 미국 우편선에 탑승한 후 모두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19일에 원주양^{遠州洋}을⁶⁹ 건넜습니다. 이날 큰 풍랑을 만나 몹시 기거^{起居}가 곤란했으나 다행히 별일은 없었습니다. 20일 고베항에 도착하고, 그날 밤 출항하여 어제 22일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새벽 출범할 예정입니다. 청국에 도착한 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一. 미국이 재차 한국을 공격했다는 신보^{新報}는 별지로 보내드리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청국 상하이에서 발간된 신문이 도쿄 외무성에 도착한 뒤에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선 이리저리 지연될 것이니, 이번에 제가 나가사키현 권지사^{權知事} 미야가와 씨에게 시담^{示談}해서 그쪽으로 속히 보고하

⁶⁸ 부찰(附札): 지령, 의견, 답변 등을 적어 본문서에 붙인 쪽지.

⁶⁹ 엔슈(遠州)는 시즈오카 현의 서부에 위치한 도토우미(遠江)를 뜻한다.

여 급한 대처를 하시는 데 일조하도록 했습니다.

- 一. 가라후토樺太(사할린) 경계 담판에 전권全權의 명을 받은 참의 소에지마 씨와 수행원 다나베 소승, 우에다上田 권대록, 시바타柴田 사생史生 등이 반드시 이번 21, 22일경에는 군함으로 도쿄를 출발해서, 우선 하코다테에 도착한 후 러시아 정부의 통보를 기다렸다가 포시에트ポシエタ 항으로 가는 것이 쌍방 전권의 회의 순서입니다. 이 담판의 목적은, 현지의 돌발상황[變幻]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은 서로 가운데 반을 나눠서 천연의 지형에 따라 경계를 정한다는 것이 묘략廟略입니다.
- 一. 히로쓰 히로노부, 안도 다로, 고바야시 사생史生 등은 지난 18일 요코하마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야마 님이 저에게 보낸 지표紙表도 접수하였고, 또 이번에 건의하신 것의 대체적인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오후 출항했으니, 히로쓰 씨 이하가 속히 도쿄에 올라가서 말을 듣고 이해하십시오.
- 一. 본성本省(외무성)은 점차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야마구치 중판사中辦事가 소보少輔 자격으로 전근專勤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데라지마 씨는 완전히 쾌유하실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칩거하고 있습니다.
- 一. 내지內地의 여러 번과 현의 소요도 평정됐으므로, 사카이西海와 히가시야마東山 두 길[道]에 진대鎭臺를 설치하고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사카이는 고쿠라小倉를 본관本管으로 하고, 히타日田·하카타博多를 분관分管으로 했습니다. 히가시야마는 이시노마키石巻을 본관으로 하고, 후쿠시마福島·모리오카盛岡를 분관으로 했습니다. 반드시 내정의 변혁도 점차 경장更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一. 청국행관원표淸國行官員表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우선은 객사에서 이처럼 요점만을 적어 보냅니다. 이 계절에 보증하는 데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첨부 **흠차대신**欽差大臣 **청국행**淸國行 명단

흠차전권대신 종2위 행행대장경 후지와라_{藤原} 조신_{朝臣} 무네나리_{宗成}【다테】

" 보익_{輔翼} 정4위 행행외무대승겸문서정_{文書正} 후지와라 조신 사키미쓰_{前光}【야나기와라_{柳原}】

" 참사_{參事} 종5위 수守信부중판사 겸 외무권대승 미나모토_源 조신 마미치_{眞道}【쓰다】

" " 정7위 수守信서권정 정영녕_{鄭永寧}

" 수원_{隨員} 대학중조교_{大學中助教} 미나모토 조신 고레키요_{惟清}【미야시타_{宮下}】

" " 문서대우_{文書大佑} 섭중관_{葉重寬}【에가와_{淸川}】

" " 외무권대록 후지와라 조신 도모카즈_{知一}【사이토_{齋藤}】

" " 문서권대우 섭아문_{葉雅文}【에가와】

" " 문서소우 후지와라 조신 엔_遠【쓰구이】

" " 외무권소록 후지와라 조신 호켄_{豐憲}【쓰치코_{土子}】

" " 대장성 외 1등 부속 미치카와 나리타_{成種}

" 고조네 도요아케_{小曾根豐明}

종6위 대학소승_{大學少丞} 하세_{長谷} 조신 히카루야자나_{次長}【조_長】

기타 외무성 등외 4등 부속 3인

종복_{從僕} 12인

총계 상하 28인

청국행

다테 대장경

야나기와라 외무대승

쓰다 외무권대승_{外務權大丞}

초長 대학소승
정鄭 문서권정
미야시타 대학중조교
에가와 문서대우
사이토 외무권대록
에가와 문서권대우
쓰구이 문서소우
쓰치코 외무권소록

대장성 등외^{等外}

미치카와 나리타네
고조네 도요아케

외무성 등외

아사노 덴스케^{淺野傳助}
하야노 히데사부로^{早野秀三郎}
다시로 쓰에고로^{田代末五郎}

외 종복^{從僕} 11인

40 5월 24일 고바야시 다다시^{小林匡}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한

더욱 여정^{勵精}하시니 봉직하시는 데 큰 기쁨이실 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생
들은 지난 18일 아침 요코하마에 입항해서 곧바로 상륙했는데, 뜻밖에 청국으로
가시는 일행이 당일 승선할 예정으로 이세^{伊勢}에 출장 나왔으므로, 야나기와라 공을

비롯해 모두를 만났습니다. 야나기와라 공께는 창졸 중에 한지韓地의 상황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오후에 마차에 올라 5시 도쿄에 도착했으니, 외람되오나 방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19일 본성本省(외무성)에 출사出仕해서 한국의 상황 및 전망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본성本省의 논의가 혹은 철수해야 한다고 하고, 혹은 미국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방관해야 한다고 하고, 혹은 지사가 도한渡韓해야 한다는 등 분분하지만, 모두 이즈하라번의 손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것으로, 소생 등이 진술한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야마구치 공의 경우에는 특히 듣지 않고서 저희의 논의를 대부분 논파하셨지만, 굳이 반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옳다고 할 만한 정론定論은 없습니다만 아시아주의 교제는 각기 제멋대로 맺은 약속으로서 서양과 같은 교제상의 정법定法(정해진 법규)이 없습니다. 쓰시마와 한국 간의 사교私交도 마찬가지로 서양 각국에 대해 굳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즈하라번을 계속해서 놓아두고, 관원은 기회를 봐서 철수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부사, 사다, 와타나베 등이 변함없이 진력하고 있고, 외무경 공과 대보 공은 은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묵묵히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음날 20일에 외무경 공의 저택에 출두해서 반복해서 진술하였는데, 특별히 이론異論도 없이 진술한 내용을 가키토리書取로 제출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다음 날 바로 별지의 가키토리를 올렸는데, 다음 날인 22일에 참조參朝하여 서면을 제출하시고, 또한 간곡하게 연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23일에도 참조參朝하셨는데, 묘당에서도 그다지 이론理論은 없었지만 데라지마 대보에게 상담하자 다시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아직 성사 여부는 도저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진력해서 어리석은 정성을 관철하여 성공에 이르도록 밤낮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히로쓰 씨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밤낮으로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으니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一. 미국 함대의 5월 초하루 전쟁의 자세한 상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별지의 대략적 보도[略報]를 입수했으므로 우선 보내드립니다.
- 一. 가라후토 경계[境界] 건과 관련하여, 소에지마 참의 전권[全權]과 본성[本省]에서 파견하는 다나베 소승, 우에다 권대록, 기타 2, 3명의 수행원이 오늘 출발했습니다.
- 一. 야마구치 중판은 공무로 교토와 오사카에 파견된다는 것을 이제 막 배명[拜命]했습니다.
- 一. 지난 18일에 고베에 대홍수가 났다는 보고가 지금 들어왔으므로, 별지[別紙]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간략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디 묵하 더욱 정양[靜養]하시고 자애[自愛]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신미(1871년) 5월 24일

고바야시 다다시 배拜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41 5월 26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보내온 서신

이번 달 13일자로 제출한 서장書狀은 아직 받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뒤로는 별지의 탐색서[探索書]와 같이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이쪽의 동정[動靜]은 역시 예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형세로 생각하면, 미국인이 이제 한층 약하게 공격해도 방어할 수단을 잃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즈하라면 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묘의[廟議]가 결정된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착수하도록 지휘를 내려주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진력해주시길 바랍니다.

一. 올해 봄부터 이즈하라번의 개혁과 관련하여, 조선 무역 가운데 지금까지 화관
和館에 재류하는 상인들이 제멋대로 한 사교私交는 단연코 금지해서, 모두 변경
의 무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화관에 있는 상인들이 호구지책을 잃어
서 통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사館司 및 그 밖의 자들이 상인들의 무역 폐지
는 불가하다는 뜻을 최근 본번本藩(쓰시마번)에 제출했다고 하니, 어떤 조치를 취해
야겠습니까? 원래 이 상인들의 사무역은 가능한 한 광대하게 하도록 본성本省
(외무성)에서 지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부터 지사가 건백해서 아뢴
글 중에도 있는바, 한때의 이득을 도모해서 이처럼 협소하게 하는 것은 양측
의 정호情好의 친소親疏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아뢴 것처럼 면직을 수리하신 뒤에는 이와 같은 일들은 논하기에도 부족합니
다. 하지만 최근 세간에 새어 나오는 말들을 들었으므로 알려드리기 위해 보고
드리니, 부디 취사取捨하시길 바랍니다.

一. 국내의 동정動靜은 어떻습니까? 지난날 번 사람들의 사신私信에서 알려진 것이
있다고 해서 별지의 발췌문을 보여달라고 하니, 갖가지 평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몹시 황공한 일이니 전말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그 밖에 내외의 동정과 일지日誌, 신문 등을 빠짐없이 보내주시시오.

중요한 용건만 말씀드립니다. 이상.

신미(1871년) 5월 26일

모리야마 시게루

요시오카 고키

외무 대·소승 귀중

본문과 같이 상인들의 사무역 폐지와 관련하여, 관내管內에 물화상회物貨商會라고 하는 사무소[役所] 모양의 가택을 성대하게 신축했습니다. 오늘날 지사의 가역 사퇴 건언建言 및 그와 같은 영구한 책략을 구상하는 것과는 표리表裏가 번복되니, 번의 실정實情을 신중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2 외무경이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등의 조선 파견과 관련하여 태정대신太政大臣과 왕복한 글【2통】⁷⁰

조선국에 출장 나간 관원들이 전망서見込書를 제출하였으므로 데라지마 대보와 숙의熟議하였는데, 현재 미국 사건도 있기 때문에 헛되이 천연遷延하는 것은 가장 불가하니, 무언가 처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침 이 전망서의 내용은 적의適宜한 양책良策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번 이즈하라번에서 청원한 가역家役 사퇴 건을 이제 처리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경우 타이슈에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조선 교통사무朝鮮交通事務를 취급해서 자연히 교정交情도 두터우므로 그 번지사가 직접 도한渡韓해서 사정을 자세히 진술한다면, 구격舊格을 묵수墨守하는 한인의 의구심도 하루아침에 얼음이 녹듯 풀릴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말씀하신 취의趣意도 신속하게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그 번지사를 급히 도쿄에 소환한 후 다음과 같이 지령서御沙汰書를 전할 것입니다. 그 후 말씀하신 취의를 철저히 달성하도록 더욱 정성껏 설유說諭하시길 바랍니다.

지령안御書附案

지난번 조선국 사무 취급을 면제해줄 것을 아뢴 청원서에 관해 상세히 묘의廟議

⁷⁰ 본래는 이 문서가 41번 문서 앞에 수록되어야 하나 우선 원문대로 옮겼다.

를 다한 결과 타당한 일이므로 그대로 처리하셨으며, 앞으로 외무성에서 취급할 것이니 그 사이에 지사는 도한渡韓한 후 외무성에서 출장 나간 관원들과 함께 잘 이야기해서 장래 양국 교제의 취의趣意를 관철하며, 한인韓人에게도 말해서 지금까지 취급해 온 사무를 외무성 관원에게 인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세견선과 그 밖의 잘못된 관례[謬例] 일체를 중단하고, 또한 그 번에는 생각하지는 조처[科]도 있을 것임.>

그 번은 세견선과 공사무역의 이윤을 국제國計(쿠니의 생계수단)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일은 무엇보다 명실名實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그 폐해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단연코 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번에서 이 이윤으로 오래전부터 국제國計를 구성해 왔으므로, 하루 아침이 폐지한다면 갑자기 인민이 기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타이슈에는 상당한 수당手當을 내려주시도록 하려고 생각한다.

신미(1871년) 5월 25일

사와澤 외무경

미국 군함이 철수한 후, 조선에 출장 나간 관원들이 제기한 것도 있으므로, 이즈하라 지사를 호출하여 도한渡韓의 분부를 내리는 절차.

조선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날 전망서見込書を 올린 대로 움직이게 되었으니, 이미 이즈하라번 지사에게 급히 상경하라는 명이 내려움을 어제 배승拜承했습니다. 그 후 생각해보니, 그 지사가 상경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 이번에 귀조歸朝한 히로쓰와 고바야시 등을 헛되이 체류하게 하는 것도 무익한 일로 생각되므로 고바야시는 잔류시키고, 히로쓰는 오는 2일의 선편船便으로 우선 한국에 돌려보내서 요시오카 및 기타 출장 관원들에게도 은밀히 절차를 숙지시

키고, 또 그 편에 이즈하라번에도 들러서 지사를 면회하여 지체 없이 입경하라는 내의內意를 전해둔다면, 장래의 수순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데 지극히 편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은밀히 의향을 여쭙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면, 히로쓰 1명에게 속히 다시 도한渡韓할 것을 말하고자 하니, 부디 평의評議하신 후 하명下命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처럼 서둘러 올립니다.

5월 28일

외무경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님

회신[御返事]

보내주신 글을 배견拜見했습니다. 조선 사건에 관해 말씀하신 취지를 평의評議했습니다. 그 말씀이 타당하므로 고바야시, 히로쓰 두 사람 가운데 형편이 적당한 쪽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서둘러 용건만 회답합니다.

5월 28일

사네토미

외무경 님

43 5월 29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성상聖上께서 만강하시니 황송하오나 지극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청복淸福하심이 복무하는 데 더욱 중한 일로 생각합니다. 본성本省(외무성)의 경·보를 비롯 해 모두가 무사하게 근무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나행은 지난 18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날 폭풍우로 인해 100리 밖까지 떠내려갔다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무사하게 고베에서 출항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효고현兵庫縣으로부터 도착한 문서의 등본을 보내드립니다.

一. 이번에 히로쓰 히로노부 님 등이 귀조歸朝해서 이것저것 실행의 목표에 관해 진력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무경 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하시어 의외로 만사가 잘 풀려서 속히 실행되었으니, 이보다 큰 경사는 없으리라는 데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히로노부 님이 다시 도한渡韓하게 되었으니 자세한 전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선 더욱 분려奮勵하시기를, 오로지 앞으로는 성공을 관철하는 길밖에는 없으니,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또한 고바야시는 당분간 도쿄에 체류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一. 러시아행은 지난 24일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바야시가 며칠 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一. 직무의 진퇴進退는 별지로 보내드립니다.

지난 선편船便으로 히로쓰 히로노부 님이 11등 출사出仕 사령장을 받았는데, 배명拜命하지 못한 사이에 귀조歸朝하게 되었으므로 본성本省에서 만났습니다. 사퇴의사를 가키토리書取를 통해 제출했지만, 본부에 봉명奉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기 바랍니다. 또한 반환한 문서는 파기하십시오.

一. 태정관일지, 본성本省 일지, 해외신문을 별지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밖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차츰 더워지는 계절에 더욱 유념해서 자애自愛하시기만 바랍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신미(1871년) 5월 29일

외무권소록 오쿠 요시노리

문서관대우 곤도 마스키

사다 나오히로

외무권소승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추신. 조선 전쟁의 신문 등본을 보내드립니다.

<목록>

태정관일지 太政官日誌 【신미(辛未) 5호부터 18호까지, 8호 결락】

본성일지 本省日誌 【경오(庚午, 1870) 9호부터 11호까지】

해외신문 【43호부터 46호까지, 이외 39호】

요시오카 고키 님에게 오쿠 요시노리가 보내는 1봉 封 추가

히로쓰가 다시 도한 渡韓 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봉 別封을 보냅니다.

44 히로쓰 히로노부 廣津弘信가 다시 도한 渡韓 하는 것과 관련해 요시오카 고키 吉岡弘毅 등에게 내릴 지령안 指令案을 첨부한 원서 願書

저는 다시 도한 渡韓 하라는 명을 받고 곧장 출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선행은 외무경 전하께 은밀히 아뢴 바와 같이 이즈하라번 지사 님의 상경 上京을 하루라도 서두르라는 조명 朝命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도한 渡韓 한 뒤엔 저 나라에 통고하는 절차 및 조사 등도 시급한 요무 要務입니다. 따라서 현지의 형편에 따라선, 지금 남풍 南風이 부는 때라서 한지 韓地에서 돌아오는 순서가 적은 기후이므로 어선 海土舟에서 차출한 비선 飛船을 보내서 한국에 주재하시는 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별지와 같이 요시오카, 모리야마에게 보내는 지령서 達書를 적었으니, 저에게 건너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신미, 1871년) 5월 29일

히로쓰 히로노부

첨부[下ヶ机]71

청원한 뜻이 타당하므로 승낙하고자 함. ㉠ ㉡

히로쓰 히로노부가 그쪽[조선]에 출장하던 중 아될 것이 있어서 상경했습니다. 이번에 아되는 일을 마쳤으므로, 다시 도한渡韓하라는 명을 받고 오는 6월 2일 요코하마에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즈하라에 도착해서 체류하던 중 그쪽 용건의 형편 및 이즈하라번 지사의 상경에 관해 시기의 흥정 등에 따라 그 번에서 돌아올 수도 있고, 지사의 상경과 장래의 수순手順 등에 관해 그쪽에 건너가게 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즈하라에서 바로 건너오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이러한 내용을 그쪽에 건의하면 신중히 실정을 감고勘考하고 또 수순 등을 명심해서 지휘하시고, 또 그 내용을 자세히 본성本省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 30일

조선사무과朝鮮事務掛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71 사게가미(下ヶ紙)는 관청 등에서 상급자가 의견이나 이유 등을 적어 원문서에 첨부하는 쪽지를 가리킨다.





국역

조선사무서
(3)

제9권

9

『조선사무서』 제9권

메이지明治 4년(1871) 6월부터 8월까지

01 본성本省(외무성) 관원의 재한在韓 중 외국행 여비를 정칙定則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품의稟議

당성當省(외무성) 관원이 작년 경오庚午(1870) 10월에 어용御用으로서 조선국 출장을 명받았습니다. 그때 여비[旅籜料]는 1인당 하루 영永 300문文의 비율로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장지에서 공무에 관해 아될 일이 있어서 도중에 귀경한 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를, 국내와 같은 여비로는 비용을 대기 어려워서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외국 출장 여비를 정칙定則대로 조선에 출장 나간 자들에게도 현지 체재 중에 지급해주시길 희망하니, 이를 속히 대장성에 지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여쭙니다.

신미(1871년) 6월 3일

외무성

변관辨官 귀중

첨부[附ヶ紙]

아뢴 내용은 부득이하다고 들었음. 우선 2,600불을 보냈으니 대장성에서 수취受取할 것. 또한 외국여비는 정칙定則대로 하기 어려우므로 저 지역에서 타당하게 처리하고, 추후 정산精算할 것.

02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다테伊達 대장경 일행이 상하이에 도착했음을 외무출사外務出仕에게 보고하는 글

무더위에도 더욱 장영壯榮하심을 엿드려 경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 24일 대국사大國使(청국 사절) 다테伊達 대장경을 비롯해 모든 일행이 이곳 항구에서 출발해서 26일 상하이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오늘 입항한 미국 우편선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별지의 신문지를 보내왔는데, 여전히 양국의 전쟁 건을 미국 정부에 중재하고 있으므로 지시가 오기 전까지 철수하고 수사제독과 전권공사 모두 지나국 산둥山東 치푸芝罘에 체박滯泊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는 베이징으로 돌아갔으니, 그 나라 영사와 회담한 것에 관해 그 내용을 전달해줄 것을 야나기와라 외무대승이 부탁했습니다. 이에 우선 이를 알려드립니다.

신미(1871년) 6월 4일

나가사키현長崎縣

조선국 외무출사外務出仕 귀중

03 6월 4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서 온 서한^{2통}

4월 14일자 급신急信을 6월 4일에 받았습니다. 본성本省(외무성)의 출척黜陟과 그 밖의 형세 등을 전해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즈하라번의 히로세 도요

키치廣瀬豊吉,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 두 사람에게 보낸 지령서御達書의 취지도 잘 알았으며 각각 하달하겠습니다. 또 관록官祿 건에 관한 부찰附札의 취지는, 히로쓰 히로노부가 재삼 아뢰었으니 각각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의 형세와 기타 탐색서探索書 등은 별록別錄으로 보내드리니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신미(1871년) 6월 4일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조선괘朝鮮掛 귀중

추신. 히로쓰 히로노부에게 보낸 지령서御達書 1봉封, 그에게 사다佐田 씨가 보낸 1봉, 안도 씨에게 보낸 그의택장宅狀 1봉, 히로쓰 씨에게 나가사키의 나가카와 도슈長川東洲가 보낸 1봉을 되돌려 드리니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계副啓¹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29일 훈도訓導가 입관入館했으므로 이즈하라번 지사의 별한別翰을 접수할 방법에 관해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승낙 여부를 어떻게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계書契를 내람內覽한 후 동래·부산 두 사또에게 신중히 알선하겠다.”라고 했으므로, 관례대로 서계 및 봉함封緘을 등서했다고 하니 추후 성공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미국 함대가 입진入津한 이후로 어떤 형세가 되었는지 신문訊問했는데, 근래 보고드린 탐문과 같았으며, 지난달 서양 함선이 모두 퇴각했다고만 답했습니다. 따라서 내유內諭

¹ 부계(副啓): 추신(追伸), 추계(追啓)

의 취지는 숨기고 반복해서 저들이 원하는 바를 정탐했지만, 어쨌든 서양인에 관한 이야기가 되면 갑자기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절대 안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함선 퇴범退帆의 진위는 다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전말을 본성本省(외무성)에선 탐색하셨을 것이니, 부디 하루라도 빠른 선편船便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一. 최근 내장內狀 중에 구루메久留米의 야나가와柳川, 시마바라島原 등과 관련해서, 양경兩京 관원 중 약 700여 명 뜻을 같이하는 당여黨與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어떤 의론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연루자가 생긴 것입니까?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니, 부디 전말을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一. 별지의 탐색서探索書와 같이 세키슈인石州人과² 그 밖의 자들 가운데 다케시마竹島에 출어出漁하기 위해 넘어간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중히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갖추지 못하고 보고드립니다. 이상.

신미(1871년) 6월 4일

요시오카 고키

모리야마 시게루

외무대·소승 귀중

² 세키슈(石州): 산인도(山陰道)에 있었던 이와미노쿠니(石見國)의 별칭.

외설外說의 정탐 기록聞書³

강화도에서 미국인이 적극적으로 화의和義를 담판하고자 한 주의主意. “이번에 입항한 것은 전쟁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귀국 대신과 면담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이다. 비록 그리하나, 사의事意가 통창通暢하지 않아서 쟁투爭鬪의 단서를 열어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의 본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의 법전이 있어서 귀국의 경내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면, 굳이 입항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신에게 일단 면담하기 위해 건너왔다는 취지를 알린다면, 그 뒤에 물러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지에 나온 육군 사령司令이 조정에 이러한 사유를 여쭙기 위해 일단 한양으로 철수했는데, 대원군[大殷君]이 크게 격노하며 “이러한 일을 기꺼이 감수하고 추한 오랑캐[醜夷]의 말을 들어서 어찌 군대를 물리는 이치가 있겠는가? 먼저 나라를 위해 전사한 자들의 충혼忠魂에 대해 무슨 면목이 있는가? 그 죄가 만 번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번만큼은 용서해준다.”라고 하고, 태형 50대씩을 치고 두 번째 출진을 지휘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각오로 나라의 위엄을 더럽히지 말고 방전防戰하라!”라고 하면서 출동의 엄명을 내렸다. 그러므로 모두 눈물을 닦으며 결별하고 출진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상은 5월 17일 탐문서探聞書를 갖고 다카세 하치로가 와서 보여준 것임.

³ 키키가키(聞書)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적은 기록이나 문서를 말한다.

첨부2 스미나가 게조(住永啓三)로부터. 위와 같음.

일찍이 제가 두터운 친분을 맺어둔 외국인(조선인)이 입관(入館)했으므로 간곡하게 정보 수집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지난번 서양인이 습격한 이래로 한양 쪽은 특히 혼란스러웠고, 게다가 강화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물리친 서양인 중에 청국인과 조선인도 상당히 섞여 있었으므로, 위에 있는 관리들이 크게 당혹스러워했다. 대원군(大元君(원문))도 ‘청국인은 물론, 우리나라 인민까지 저들에게 사역되어서는⁴ 도저히 공격해서 물리칠 방법이 막연하다. 게다가 내지에 소요 등이 일어나고 있으니 대단히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했다. 이 때문에 위에 있는 관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철저히 결전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강화(講和)의 전망을 내놓는 등 날마다 조정의 의론과 중평(衆評)이 결정되지 않았다. 더욱 심한 자에 이르러선, 예전 대원군의 폭정에 분노해서 이 기회를 틈타 그를 학살(虐殺)해서 사적인 분노를 씻어야 한다고 하는 등 항설(巷說)이 구구하고 인심이 흉흉했다. 또 강화도는 이미 8, 9월이 서양인에게 할거(割據)된 것으로 짐작된다. 실로 우리나라의 존망과 부침이 이 일거에 달려 있으니 상하가 모두 지극히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깥 용무가 있어서 임소(任所(훈도의 사무실))로 건너갔는데, 한밤중에 이르러 술을 한잔하던 중 소통사(小通事)들에게 한번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강화를 습격한 서양 배들은 지난 16일에 남김없이 물러갔다고 한다. 이미 훈도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훈도의 서면(書面) 등을 제시하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⁴ 원문의 ‘荷擔’은 짐을 등에 짊어진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설을 고찰해보건대, 앞의 탐문 쪽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뒤의 소통사들이 통쾌하게 이야기한 것은 여느 때처럼 약함을 숨기고 강함을 과시하려는 교활한 술책임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검토하신 후 취사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신미(1871년) 5월 25일

스미나가 게조 住永 啟三

이상은 진술한 대로 옮겨적은 것임.

첨부3 같은 건의 신문

신문 新聞

- 一. 서양 선박의 습격과 관련해서, 최초로 질문서[問狀]를 보낸 것은 국왕의 동생이자 대원군[大嚴君]의 자식으로서, 현재 예조참판으로 재직 중인 인물이라고 함. 단, 질문서를 보냈을 때는 관직이 없는 상태였다고 함.
- 一. 전투가 발발했을 때 선봉은 수도 방위를 맡은 무관들로서, 일찍이 포술[砲術]을 연마한 사람들이었음. 기예로 약 300여 명을 선발하고, 대장은 몇 년 전 동래 부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웅이라는 소문이 있었음. 그런데 서양인이 1, 2 차례 발포하자 전군이 모두 궤멸하고, 그 사람도 중상을 입어 겨우 목숨만 부지한 정도였으니, 무관들도 크게 경악한 모습이었음.
- 一. 강화도 전투로 인해 전후 700~8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함.

이상은 여기저기서 정탐한 것 중에서 발췌함.

얼마 전 상경을 위해 출발한 자가 호마산^{ホマアサン}【지명】에서 급제^{及第}에 올라 귀향하던 자를 만나서, 서울의 동정과 오랑캐^{夷人}와의 전투의 최근 상황을 묻자 선달^{先達}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음.

“이번 달 10일 서울을 떠날 즈음엔 몇 척의 이양선이 물러가고, 잔류한 3척은 강화부 앞바다에 계박^{繫泊}하고 있었다. 지금은 휴전 중으로 특별히 이상한 일은 없고, 우선 평온한 모습이다.”

“휴전하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자 “강화도는 지난번 소요가⁵ 발생한 뒤로 인심이 하나로 화합하지 않고 이산^{離散}한 자들이 많아서 거의 무인도와 같다. 그런데 이번에 외적^{外寇}이 쳐들어오자 반 이상이 양이^{洋夷}의 소굴이 되었다. 게다가 지나인^{支那人}, 일본인 및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두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들었다. 본디 오랑캐와의 전투는 결심했지만, 이러한 상태로는 내부^{蕭牆}에서 내용하는 변고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의^{評議}와 함께 강화^{和談}의 설도 일어나서 휴전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상은 5월 25일에 알려준 것임.

첨부4 다케시마^{竹島}⁶ 어업^{漁事} 탐정서^{探偵書}

다케시마에 출어^{出漁}하여 도해^{渡海}한 소식의 탐색

一. 세키슈의 요타시^{用達}⁷ 신분인 야쿠닌^{役人} 2명, 조닌^{町人}⁸ 1명, 나가사키의 조닌 가지

⁵ 1866년의 병인양요를 가리킴.

⁶ 당시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를 가리킨다.

⁷ 요타시(用達): 다이묘의 저택, 야쿠쇼(役所), 회사 등을 출입하면서 상품을 납품하던 사람.

야마치鍛冶屋町の 이시아石屋 아무개, 후나다이쿠마치舟大工町の 야마시로야山城屋 아무개 등 5인이 우두머리라고 함. 이들은 뱃사람 25명을 거느리고 그 섬으로 건너가 전복[鮑]과 오징어[烏賊]를 잡았다고 함. 탑승한 배는 250석 정도이고 총인원은 수부水夫를 포함해 약 50여 명이 승선했으며, 4월 15일 퇴범退帆했다고 함.

우두머리가 지참한 금銀은, 1인당 300금이라고 하였음.

- 一. 도쿄에서 태정관에 신청한 동관면허서同官免許書를⁹ 내려주었다는 것을 은밀히 아뢰었음.

이상.

다케시마에 도해渡海한 여건如件

이와미石見의 요타시 같은 야쿠닌役人 2명, 조닌町人 1명 등 3명이 청원인[願主]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나가사키의 조닌 2인 등 5인이 우두머리라고 아뢰었습니다.

- 一. 뱃사람 25인을 인솔함.
- 一. 전복, 오징어를 잡았다고 함.
- 一. 탑승한 배는 250석.
- 一. 4월 15일 퇴범退帆.
- 一. 총 인원 수부水夫를 포함해서 약 50여 인.
- 一. 동同 우두머리 5인이 소지해서 건너간 금銀은 판매 전 300냥이라고 아뢰었음.

⁸ 조닌(町人): 도쿠가와 시대 도시에 거주한 상인 계급.

⁹ 면교쇼(免許書): 행정기관이 면허의 증거로서 발부하는 문서. 자격증.

- 一. 동^同 도쿄 태정관에 청원하자, 태정관에서 증명서를 내려주었다는 말을 은밀히 아뢰었음.
- 一. 나가사키 2인의 조닌 가지야마치의 이시아 아무개, 후나다이쿠마치의 야마시로야 아무개라고 함.

04 출납사^{出納司}로부터 조선행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고와리쇼^{小割書}의 등본을 제출하라는 뜻으로 보내온 글

이번에 조선 출장을 나간 자들의 여비 문제를 변관^{辨官}에게 문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보내드린 듯합니다. 지난 경오년(1870) 10월 조선행과 관련하여, 금찰^{金札} 3,000냥, 양은^{洋銀} 640볼을 준비금과 여비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다룰 때 고와리쇼^{小割書}를 대조해서 조사한 바를 찾기 어려워 지장이 있습니다. 아마 외무성에 남아 있을 것이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등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견하기 어려워 조사에 지장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속히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6월 7일

출납사^{出納司}

외무성 출납과^{出納掛} 귀중

05 6월 18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성상^{聖上}께서 평안하시니 외람되오나 지극히 기쁜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더욱 건승하시니 복무에 진중하실 줄 압니다. 본성^{本省}(외무성)의 경^卿·보^輔 님을 비롯해서 일동 무사하니 방념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히로쓰 히로노부 님이 다시 도한渡韓하셨으니 이미 도착하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뒤로 전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 一. 이번에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포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국가를 위해保重保重하심이 긴요할 것입니다.
- 一. 독일로 간 혼마本間 소우小佑가 보내온 문서의 등본을 보내드립니다.
- 一. 태정관일지 19호부터 23호. 그밖에 8호 1책. 위와 같음.
- 一. 본성本省일지 경오庚午(1870) 12호부터 14호까지. 위와 같음.
- 一. 해외신문 47호부터 48호까지. 위와 같음.
- 一. 대보께서 매우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는데, 어제 17일부터 출근하셨으니 크게 경하할 일로 생각합니다.

이밖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일거一擧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더운 계절에 오직 자애自愛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신미(1871년) 6월 18일

고바야시 다다시小林匡

오쿠 요시노리奥義制

곤도 마스키近藤眞鋤

사다 나오히로佐田直寛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히로쓰 히로노부 님

추신. 히로노부 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날 먼 길을 여러 차례 왕복하셨으니 번거로움과 노고가 충분히 짐작됩니다. 또 고베 및 나가사키[崎陽]에서 온 서면의 뜻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 一. 지나로 가신 일행은 지난달 26일 상하이에 도착해서 이번 달 2일 텐진天津을 향해 출항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 一. 요시오카 님 외 1인에게 고바야시 다다스로부터 1봉封.
- 一. 요시오카 님께 오쿠 요시노리로부터 1봉.

06 조선행 여비[旅籠代]와 관련해 고와리쇼小割書の 등본을 첨부해서 대장성에 보낸 서한

조선행 여비[旅籠代]와 관련해서, 보류해 둔 준비금[御用金]의 고와리쇼小ワリ書を 제출하라는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이에 별지의 고와리쇼를 제출합니다. 이 여비에 관해서는, 저 지역[조선]에서도 곤궁해서 난처한 분위기이므로 급히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속히 지급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회답합니다.

신미(1871년) 6월 20일

외무성

대장성 귀중

07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나가사키長崎 도착을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고한 서한

늦더위가 심한 이때 두 군君은 더욱 안태安泰하니 봉직에 진중珍重하리라 짐작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난달 28일 이즈하라에서 출항해서 당일 밤 요부코好子에 도착하고, 밤을 새워 조선漕船으로 하마자키濱崎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일 새벽에 구번舊藩에 도착해서 하룻밤 휴식하고, 4일 밤에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6일 승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각선飛脚船이 오늘 아침 입항했

으므로, 출범出帆은 오늘 저녁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은 29일 상륙해서 3일 밤 나가사키에 도착하셨습니다.

- 一. 봉당捧糖 1본本과 서양 장부[帳面] 3책을 보냅니다. 그중 한 책은 매우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예전에 빌린 것이므로 요시오카 군에게 돌려드립니다. 두 책은 모리야마 군의 의뢰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一. 국내 형세는 더욱 이번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쿄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침 눈병이 나서 대필代筆하였으니 용서해주길 바랍니다.

7월 7일

히로쓰 히로노부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08 7월 10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성상聖上께서 평안하시니 전과 같이 외람되오나 지극히 기쁜 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서도 장건壯健하시니 한국 체재 중에 진중珍重하신 줄 압니다. 본성本省(외무성)은 경·보를 비롯해 속사屬司¹⁰ 일동이 무사하니 방념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지韓地의 이후 동정과 타이슈 지사의 상경上京 상황은 어떠합니까? 변함없이 고려苦慮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크게 출척黜陟한¹¹ 결과는 별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¹⁰ 속사(屬司): 소속 관료.

¹¹ 출척(黜陟): 승진과 강등.

- 一. 하와이[布哇] 국왕이 예전에 통상과 국교의 체결[締交]을 원했는데, 이번에 평결[評決]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저 나라는 미국 공사 드롱Charles E. DeLong에게 위임해서 지난 4일에 엔료칸[遠遼館]에서 조약의 조인을 마쳤습니다.
- 一. 안도 다로[安藤太郎]는 문서대우[文書大佑]에 임명되고, 통역 업무를 명받았습니다. 그밖에는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마침 가는 선편[船便]에 이상의 사항만 알려드립니다. 갖추지 못하고 보냅니다. 이상.

미(신미, 1871년) 7월 10일

조선사무과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히로쓰 히로노부 님

추신. 올해는 대단한 무더위입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더욱 유념해서 자애[自愛]하시기만을 오직 바랍니다.

신문잡지[新聞雜誌] 【1호부터 4호까지】

신화조례[新貨條例] 1책

이상 보내드립니다.

- 一. 요시오카 님, 모리야마 님께 사다 하쿠보로부터 1봉.
- 一. 위와 같음. 고바야시 다다시로부터 1봉.
- 一. 모리야마 님께 곤도 마스크, 오쿠 규코[奥九臯]로부터 1봉.

첨부 참의參議 이하 관원의 인사 결과

6월 25일

참의參議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참의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참의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참의 사사키 다카유키佐々木高行

참의 사이토 도시유키齊藤利行

신기대부神祇大副 고노에 다다후사近衛忠房

민부대보民部大輔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병부경兵部卿 다루히토 신노熾仁親王

병부소보兵部少輔 야마가타 아리토모

형부소보刑部少輔 시시도 다마키宍戶璣

궁내경宮內卿 마데노코지 히로후사萬里小路博房

궁내대보宮內大輔 가라스마루 미쓰에烏丸光德

탄정윤彈正尹 구조 미치타카九條道孝

이상 본관本官을 면함.

신기백겸선교장관神祇伯兼宣教長官 나카야마 다다야스中山忠能

신기소부겸선교차관神祇少副兼宣教次官 후쿠바 요시시즈福羽美靜

대장소보겸조폐두大藏少輔兼造幣頭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이상 본관 및 겸관兼官을 면함.

종3위 기도 다카요시

이상 참의에 임명함.

가고시마번鹿兒島藩 대참사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참의에 임명함. 정3위에 서임함.

6월 27일

우대신右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신기백겸선교장관을 겸임함.

종4위 후쿠바 요시시즈

신기소부겸선교차관 임명함.

종3위 오쿠보 도시미치

대장경大藏卿에 임명함.

종4위 오쿠마 시게노부

대장대보大藏大輔에 임명함.

정3위 마데노코지 히로후사

궁내대보宮內大輔에 임명함.

6월 28일

종5위 이노우에 가오루

민부소보民部少輔에 임명함.

6월 27일[원문]

종1위 나카야마 다다야스

곧 노년老年에 노고가 클 것을 생각하시어 본관을 면직하고, 특지特旨를 내려
종신토록 겐마이現米¹² 500석石을 하사함.

위와 같음.

다이조카이大嘗會의¹³ 어용괘御用掛를 명함.

¹² 겐마이(現米): 주군이 가신에게 하사하는 봉록(俸祿)의 쌀.

위와 같음.

자코노마시코麿香間祇¹⁴를 명함.

6월 29일

야마가타 종5위

병부소보兵部少輔에 임명함.

7월 2일

종4위 고토 모토하루後藤元輝

공부대보工部大輔에 임명함.

후쿠오카번福岡藩 지사 구로다 나가토모黒田長知

본관을 면함.

2품 다루히토 신노

후쿠오카번 지사에 임명함.

탄정대충彈正大忠 가와다 가게토모河田景興¹⁵

민부대승民部大丞에 임명함.

민부대승 가와다 가게토모

후쿠오카번 대참사를 겸임함.

¹³ 다이조카이(大嘗會): 다이조사이(大嘗祭). 이는 천황이 즉위한 후 처음 거행하는 니나메사이(新嘗祭)이다. 니나메사 이는 일본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제의(祭儀)로서 그 해의 벼의 수확을 축하하고 이듬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일종의 수확제(收穫祭)이다. 천황은 그 해의 햇곡식을 천신(天神: 하늘의 신)과 지기(地祇: 땅의 신)에게 바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도 직접 그것을 먹는다.

¹⁴ 자코노마시코(麿香間祇): 메이지유신에서 공로를 세운 화족(華族)이나 친임관(親任官)의 관리를 우대하기 위한 명예직.

¹⁵ 원문에는 ‘河田景興’으로 잘못 적혀 있다.

7월 3일

와카마쓰현^{若松縣} 지사 시조 다카토시^{四條隆平}

원^願에 의해 본관을 면함.

7월 4일

오쿠보 대장경

고토 공부대보

오쿠마 대장대보

테라지마 외무대보

후쿠바 신기소부

이노우에 민부소보

야마가타 병보소보

이상은 이번에 제도 조사를 명받았습니다. 이는 매우 급한 일이라서 당분간
전무^{專務}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를 명심하시도록 하달합니다.

변관^{辨官}

오키 종4위

민부대보에 임명함.

요시이^{吉井} 민부대승

궁내대승^{宮內大丞}에 임명함.

7월 9일

종4위 사사키 다카유키

사법대보司法大輔에 임명함.

종5위 시시도 다마키

사법소보에 임명함.

종5위 이타미 시게카타伊丹重玄

종5위 마쓰모토 토루松本暢

사법중판사司法中判事에 임명함.

一. 통상사通商司는 폐지함.

一. 탄정대彈正臺는 폐지함.

09 같은 날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가 타이슈對州에서 한지韓地에 표류한 우리 인민의 영수
領受는 분란을 초래할 것임을 본성本省에 진술하는 글

출항에 임하여 붓을 잡고 전후 사정을 두서없이 말씀드리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적이 성대하시니 크게 경하할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이즈하라에서 히로쓰 씨를 배면拜面하고 정부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여러분께서 진력하신 덕분이니 적지 않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一. 히로쓰 씨는 작별한 후 신속히 도한渡韓할 예정이었으나, 배 안에서의 피로 때문인지 조금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29일 밤 급질急疾이 나서 구토와 설사로 거의 곤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수단을 다해 잠시 멈추었지만, 계속해서 또한 이질로 변했습니다. 약을 조제한 효과도 없이 매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부질없이 이곳에 머무는 것은 본의가 아니며, 또 한지韓地의 일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으므로, 병중이지만 히로시마 배를 빌려서 그제 8일 저녁에 이즈

하락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폭풍우와 거센 파도로 인해 다시 마가리曲라고 하는 해안에 닻을 내렸습니다. 요즈음 태풍도 각별하므로, 충분한 풍세風勢를 계산해서 도한渡韓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후나고시大船越이라는 곳에서 뜻밖에 아오야마青山, 우라세浦瀬 등을 태우고 지난 28일 한국을 떠나 귀국하는 배를 만나서 그 지역의 동정動靜을 물었습니다. 지사知事 공의 별한別翰 건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얼마 전 소생이 한국을 떠난 다음 날부터 일본 표류民[和漂民] 문제로 어지럽게 의론이 일어났음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례前例에 따르면 일본 표류民은 우암포牛巖浦에서 인계받는 절차인데, 이번에는 표류民 호송선이 관館에 왔을 때 예전 전례를 따르지 않고 바로 관소館所에 방치했기 때문입니다.¹⁶ 무슨 뜻인지 토론했는데, “근래 타이슈인이 아닌 일본인들이 함부로 도한渡韓해서 관내館內에 거처하는 것은, 제일절목第一節目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업신여기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동래부사가 의례적인 난폭한 거절을 통해 철향철시撤饗撤市的 모습으로 나와서, 관내館內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도 강하게 변론辯論했습니다. 그런데 훈도는 대체로 굴복하는 듯 보였지만, 동래부사는 어떻게든 수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오카도 큰일을 앞두고 작은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온당하게 조치하라고 관내에 명했다고 합니다. 그 후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우선 표류民을 임소任所로 인도하게 했지만, 아직 시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¹⁶ 1871년 3월 26일 제주도에서 구조된 사쓰마 파선 표민 10명이다. 훈도는 이들을 6월25일 설문내양에 정착하게 하여 식량을 지급하여 수호하였다. 이들은 입송서계를 기다려 9월 7일 도해량미와 의자목을 지급받고 일본으로 귀국한다. 관례대로 우암포에 정착시키게 되면 어채와 수호왜(왜관 금도왜가 파견됨)에 대한 보상, 임시거처마련, 궤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설문내양에 정착시키면 업무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당시 왜관 금도왜의 수가 급격히 줄어서 우암포로 교대로 나갈 금도왜가 없었던 점도 감안한 결정이며 왜관 내에 외무관원이 머무르게 되면서 타주인을 관내에 수용하지 않는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동래부사 정현덕은 훈도의 이와 같은 결정을 칭찬하고 포상을 품의하였다.

이상은 배 안에서 아오야마, 우라세 등이 한 말입니다.

또한 요시오카도 이에 관해 다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즈하라번에서 이 사건을 점차 도쿄에 제기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선 참고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또 올해 봄·여름의 동요(動搖[신미양요])가 있는 뒤로 저 나라에서도 조금 논정(論定)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즈하라 지사가 상경한 후 정부에서 무언가 명령을 내릴 것이니, 묘의(廟議)가 확정된 다음에 신속히 착수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때 저들이 의례적인 교활한 지혜(點智)를 써서 오직 막으려고 해도 확고하게 묘의를 바꾸지 않고 조리를 세운다면, 조만간 성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만에 하나 우리 뜻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잠시 절교하는 모양이 되더라도 태연자약하며 놀라지 않는 묘의(廟議)가 긴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묘의가 결정된다면 저들이 어떤 술책으로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여 결국 저들의 완루(頑陋)를 해소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나, 걸핏하면 묘의가 어지럽게 나온다면 도저히 대업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확고하여 동요하지 않는 묘론(廟論)을 바랄 뿐입니다. 이는 히로쓰 씨와도 상의한 것으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니 부디 진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연하고 당당하게 히로쓰 씨가 다시 건너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병중(病中)에 붓을 잡고 전후 사정을 적어 보내니 판단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경·보를 비롯해 대·소승께는 별도로 배서(拜書)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집성(執聲)해¹⁷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미(1871년) 7월 10일【타이슈 마가리우라(曲浦)에서】 모리야마 시게루

조선과 귀중

¹⁷ 집성(執聲): 미상이다.

추신. 지난달 18일에 발송하신 문서는 지난 4일 받았습니다. 그중 유행병과 관련 해선 신속히 이즈하라번 대참사에게 말해서 엄중하게 방역할 계획입니다. 그 번藩에 정부에서도 지시가 있었으니, 타이슈 북부에선 각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지韓地로부터는 피혁류 일체의 매매를 중단했으며, 포고의 내용을 체인體認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10 이즈하라현嚴源縣에 대·소참사大少參事를 선임選任해야 한다는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논의

이즈하라현에 선임된 대·소참사를 내려보낼 것을 청하는 논의

이즈하라현은 외진 땅, 고립된 섬[僻土孤島]인 데다가 작년 가쓰이勝井, 히라타平田 두 사무라이[士]의 소요 당시 조금 기개가 있는 자들은 참살斬殺되거나 스스로 할복해서 인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¹⁸ 전 지사 님도 그때부터 봉직하시면서 전후 부채가 날마다 증가해서, 백방으로 노심초사하여 미천한 신[微臣]에게 대화하실 때 보익補翼할 사람[士]이 없음을 통렬히 개탄하셨습니다. 특히 이즈하라현은 한 모퉁이 절해絶海에 있으니, 내국 사정도 쉽게 알지 못하여 사졸농상士卒農商이 모두 애매하게 방향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조선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5월의 건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백 년 동안 근거 없는 습기習氣가¹⁹ 있었 습니다. 출장 나간 관원들은 여력이 미치는 한 허기평심虛氣平心을 보였지만, 어쨌든 스스로 의심을 품어서 조정의 뜻을 관철하기가 어려웠으니, 이 또한 옛 지사 님께서 예전부터 탄식해온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소참사부터 대속大屬에 이르기까

¹⁸ 반막부 양이파 무사들을 숙청한 가쓰이 고치로(勝井五八郎)의 이른바 갑자의 난(1864)과 반막부 양이파인 히라타 오에(平田大江)가 규슈 양이파의 지원을 받아 친막부 보수파를 숙청하였으나 다음 해(1865년) 자신도 반역의 혐의로 체포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¹⁹ 습기(習氣): 습관으로 형성된 기질.

지 총 4, 5명을, 도쿄에 체재 중인 부·현府縣의 인재들 가운데서 신중하게 인선해서 내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현 내의 사졸농상士卒農商도 조정의 뜻의 진면목을 체인體認할 것이며, 조선 교제도 출장 나간 관원들과 서로 적나라하게 숙의를 다해서 교통交通에 관계하는 현사縣士들도 의구심을 버리고 간담肝膽을 토로 할 것이니, 외람되오나 조정에서도 안도하며 조선을 회유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현의 일반적인 제도를 개정하시는 중이나, 이즈하라현은 조선과 관계된 곳이니 대·소참사 등을 급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지사직知事職에 있어선 미천한 신 등이 감히 엿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一. 5월 하순에 제출한 전망서見込み書의 내용은 옛 외무경 님께서 이미 아뢰셔서, 이즈하라의 옛 지사 님에게 급히 소환 명령이 내려져 며칠 전 상경上京하셨습니다. 이번에 일대一大 좋은 제도良制를 수립하는 때를 맞이하여 조선사무에 관해서도 아뢰실 것으로 외람되오나 생각합니다. 부디 숙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는 제가 조선 출장 중에 여쭙 내용이 있습니다.【이는 5월 21일 옛 외무경 님께 올린 가키토리(書取)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5월 18일²⁰ 상경하였는데, 28일 모두 여쭙았으므로 다시 도한渡韓하라는 지령서를 받고 6월 2일 출발해서 같은 달 15일에 이즈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옛 지사 님께 조선사무를 상의하던 중 한국에 체재하는 관원 요시오카 고키 및 모리야마 시게루와의 숙의熟議를 거쳐 같은 달 23일에 시게루는 이즈하라까지 귀향歸港하고, 히로노부는 지사 님과 상경하여 장래의 절차 등을 여쭙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두 사람이 제출한 서장書狀을 통해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6월 28일 이즈하라현에서 출범出帆해서 이번 달 12일에 귀경歸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폐번치현廢藩置縣으로 인해 소 씨宗氏의 지사직도 면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조금 어리석은 생각을 아웁니다.

²⁰ 원문에 ‘十八日’을 ‘十九日’로 정정한 표시가 있다.

7월 16일

히로쓰 히로노부

이 문제는 며칠 전 생각난 대로 아뢰고자 했으나 바람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서술하여 한번 살펴보시도록 바칩니다.

22일

히로노부

11 이즈하라현嚴源縣에 대·소참사太少參事를 선임한 후 조선과 담판해야 한다는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의견서

5월에 제출한 의견서[見込伺書]에서 아뢰 바와 같이 이즈하라현을 어루만지는 처분을 내리신 후 성의誠意를 오직 한 길로 한인에게 편다면, 우리나라에 결코 다른 음모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서양 각국과 내외강유內外剛柔가 상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의심이 영원히 풀려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일개 완고하고 누추한[頑陋] 습벽習癖이 있어서, 설령 내심으로는 받아들여더라도 외면으로는 한층 더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이즈하라의 통역이 여러 차례 그 교활함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속히 승복하지 않고 일단 절교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우리는 저들의 완고하고 누추함에 관계치 말고 성심誠心으로 관후하게 설유說諭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치의 왜곡된 이름[曲名]도 취하지 않고 공직평명公直平明한 조리와 명분을 주장해서 한때의 이익과 손해[利害]와 비방과 칭찬[毀譽]에 굴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머지않아 받아들이지 않을 구실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만일 서양 각국과 개화開和(원문)를 논의하는 때에 이른다면 반드시 우선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 정도의 정중함과 신의信誼를 다한다면 훗날 한국과 서양 간에 화친과 양이, 개국과 쇄국[和攘開鎖]의 논의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더라도 충분한

명의名義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만일의 우려지만,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확고하여 동요하지 않는 결의決議를 정해두지 않고 진퇴를 우려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출장 나간 관원들과 현사縣士가 협동진력協同盡力하는 사이에 진실眞實이 일치되지 않아서 성공도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깊이 양찰하시고, 앞으로의 지휘를 거듭 바랍니다. 이상.

미(신미, 1871년) 7월

히로쓰 히로노부

추신. 장래 한인에게 포고하는 절차 등은, 지휘를 받은 뒤에 이즈하라 현사縣士들과 신중히 상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 7월 20일 소 시게마사宗重正 및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도쿄 도착과 폐번廢藩의 제도개혁 등을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알리는 왕신往信

성상께서 더욱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어 매우 기쁩니다. 각위各位께서도 군세에 복무하시는 것을 진중珍重²¹하게 생각합니다. 본성本省(외무성)의 경·보를 비롯해 일동이 이상 없이 편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一. 쓰시마對馬 지사를 비롯해 히로쓰 히로노부는 지난 12일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마침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분부하는 시기라서, 아직 한국에 대한 조치는 아무런 지시도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다단多端한 중에 재촉할 상황은 아니지만, 벌써 일반一般 군현郡縣으로 제도를 세운다면 한국과의 외교 문제도 물론 외무성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전에 전망하신 대로 처분하시리라고

²¹ 진귀하고 소중함.

기망企望하고 있습니다. 제도개혁과 (관리의) 출척黜陟²² 등은 선편先便으로 보낸 후에 별지 사본을 회람하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외 특별히 변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자애自愛하시길 오로지 생각합니다. 편리한 배편이 있어 이같이 보냅니다. 돈수頓首.

신미(1871년) 7월 20일

오쿠 요시노리
고바야시 다다시
곤도 마스키
사다 나오히로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추신追伸.

요시오카 님·모리야마 님께

히로쓰로부터 일봉

요시오카 님·모리야마 님께

고바야시 다다시로부터 일봉

요시오카 님께

오쿠 요시노리로부터 일봉

『태정일지太政日誌』

24호부터 31호, 무호無號 1권

『신문잡지新聞雜紙』

5호부터 7호

²² 원문은 출섭(黜陟)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출척(黜陟)의 오키로 보임.

7월 3일

와카마쓰현²³ 지사 시조 다카토시

월에 따라 본관本官을 면함.

오키 종4위從四位²⁴

7월 4일

민부대보에 임함.

요시이 민부대승²⁵

궁내대승 임함.

오쿠보 대장경²⁶

고토 공부대보²⁷

오쿠마 대장대보²⁸

데라시마寺島 외무대보²⁹

후쿠바 신기소보神祇少輔³⁰

이노우에 민부소보³¹

야마가타 병부소보³²

²³ 예전에 존재한 현으로, 주된 관할 영역은 현재 후쿠시마현의 아이즈(會津) 지방과 니가타현의 히가시칸바라군(東蒲原郡)이었다.

²⁴ 오키 다카토(太木喬任).

²⁵ 요시이 도모자네(吉井友實).

²⁶ 오쿠보 도시미치(太久保利通).

²⁷ 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

²⁸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²⁹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

³⁰ 후쿠바 비세이(福羽美靜).

³¹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³²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위는, 이번에 제도 조사를 분부하셨는 바, 매우 급한 일이므로 당분간 전무專務로 명령하니, 이를 명심하도록 시달示達함.

신미(1871년) 7월 4일

변관

7월 9일

이번에 병부성兵部省 안에 군의료軍醫寮³³를 설치함.

첨부2 변관辨官 및 탄정대彈正臺를 폐지하는 명령서

지금부터 형부성刑部省 탄정대³⁴를 폐지하고 사법성司法省을 설치함.

종4위 사사키 다카유키

사법대보에 임명함.

종5위 시시도 다마키

사법소보에 임명함.

종5위 이타미 시게카타

종5위 마쓰모토 조

사법 중판사³⁵에 임명함.

위를 선하宣下³⁶하므로 이 뜻을 시달함.

³³ 『태정류전太政類典』(JACAR Ref.A15070838800)에 따르면 군의료의 설치는 7월 9일이 아니라 7월 5일이다.

³⁴ 단조다이. 감찰·치안유지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관청으로 1869년 7월 1일 형부성 안에 설치되었다가 사법성의 신설로 폐지되었다.

³⁵ 1869년 형부성에 설치된 판사의 하나로, 대판사의 아래, 소판사의 위에 자리한 주임관(奏任官).

³⁶ 임금이 조서(詔書)를 내림.

7월 12일

사법성의 경은 집행³⁷·신률³⁷·절옥³⁷·단송³⁷·포망³⁷ 등의 총판³⁷을 관장함.

사법성의 대·소보³⁷는 경과 같은 업무를 관장함.

옛 형부성 자리에 당성³⁷을 설치하므로, 이를 통지함.

사법성

사와³⁸ 외무경³⁸

본관³⁸을 면함.

이와쿠라³⁹ 대납언³⁹

외무경에 임명함.

위를 선하³⁹하므로 이 뜻을 시달함.

신미(1871년) 7월 14일

변관

외무성 귀중⁴⁰

야마구치⁴⁰ 중변⁴⁰

변관⁴¹이 폐지되어 새로 외무성 출사⁴¹로 명함. 근무는 지금과 같이 하도록 명함. 명심하도록 이렇게 시달함.

신미(1871년) 7월 14일

태정관

외무성

³⁷ 집행(執法)과 신률(申律)은 법률의 집행, 절옥(折獄)은 판결, 단송(斷訟)은 재판, 포망(捕亡)은 도망한 사람이나 죄인을 잡는 것을 의미함.

³⁸ 사와 노부요시(澤宣嘉).

³⁹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⁴⁰ 야마구치 나오토(山口尚芳).

⁴¹ 변관(辨官, 벤칸)은 조정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좌우 대변(大辨)·좌우 중변(中辨)·좌우 소변(少辨)의 총칭.

7월 13일

이번에 변관이 폐지됨에 따라 여러 원願·사伺·계屆⁴² 등은 모두 그 관계 관·성에 직접 제출할 것.

이번에 탄정대가 폐지됨에 따라 탄정대에서 조사하고 있던 여러 사건은 모두 사법성에 문의할 것.

7월 14일

변관을 폐지함.

7월 14일

대납언 도쿠다이지 사네쓰네德大寺實則

대납언 사가 사네히루嵯峨實愛

원에 따라 본관을 면함.

병부소보 야마가타 아리토모

병부대보에 임명함.

호조坊城 종3위⁴³

다나카田中 종5위⁴⁴

히지카타土方 종5위⁴⁵

에토江藤 종5위⁴⁶

⁴² 원(願)은 청원, 사(伺)는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올리는 품의로 상급 관청은 이 품의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 계(届)는 신고를 말한다.

⁴³ 호조 도시타다(坊城俊政).

⁴⁴ 다나카 후지마로(田中不二麿).

⁴⁵ 히지카타 히사모토(土方久元).

⁴⁶ 에토 신페이(江藤新平).

태정관 출사太政官出仕로 명함.

다쿠多久 종5위⁴⁷

나가마쓰長松 종5위⁴⁸

하야시林 종5위⁴⁹

우치다内田 종5위⁵⁰

나카무라中村 종5위⁵¹

공무가 있어 도쿄 체재를 명함.

고치번高知藩 대참사 이타가키 마사타카板垣正形⁵²

참의에 임명하고 종4위를 수여함.

대장대보 오쿠마 시게노부

참의에 임명함.

민부대보 오키 다카토

민부경에 임명함.

민부소보 이노우에 가오루

민부대보에 임명함.

위를 선하宣下하므로, 이 뜻을 시달함.

신미(1871년) 7월 14일

태정관

외무성

⁴⁷ 다쿠 시게쓰구(多久茂族).

⁴⁸ 나가마쓰 쓰카사(長松幹).

⁴⁹ 하야시 아쓰노리(林厚德).

⁵⁰ 우치다 마사카제(内田政風).

⁵¹ 나카무라 고키(中村弘毅).

⁵²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첨부3 폐번 칙서

짐朕이 생각하니, 고쳐 다시 시작하는 때에 즈음하여 안으로 억조億兆⁵³를 보안
保安⁵⁴하고, 밖으로 만국과 대치對峙하려 한다면, 마땅히 명실상부名實相符⁵⁵하고
정령政令이 하나로 귀결되도록 해야 한다. 짐이 저번에 여러 번의 관적봉환版籍奉還
논의를 청납聽納하고 새로 지번사知藩事를 명하여 각각 그 직책을 받들도록 했다.
그런데 수백 년의 인습因襲이 오래되어, 혹은 그 이름은 있어도 그 실實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있다. 무엇으로써 억조를 보안하고 만국과 대치할 수 있으랴. 짐은
심히 이를 개탄한다. 이에 지금 다시 번을 폐하여 현으로 한다. 이것은 힘써 용元⁵⁶을
버리고 간簡⁵⁷을 취하여, 유명무실의 폐단을 제거하고 정령이 여러 갈래로 나오
는 우려를 없애도록 하려 한다. 너희 군신群臣은 짐의 그 뜻을 명심하고 지켜라.

메이지 4년 신미(1871년) 7월 14일

7월 15일

후쿠오카현福岡縣⁵⁸ 지사 다루히토 친왕熾仁親王⁵⁹

본관을 면함.

2품二品 다루히토 친왕

후쿠오카현 지사에 임명함.

가와무라河村 병부대승兵部大丞⁶⁰

병부소보에 임명함.

⁵³ 수많은 인민을 의미함.

⁵⁴ 신체나 재산 등을 위협에서 지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⁵⁵ 원문은 명실상부(名實相副)로 되어 있다.

⁵⁶ 쓸데없는 것.

⁵⁷ 간편함.

⁵⁸ 다음 기사에 후쿠오카현 지사로 임명하는 걸 보면, 이 기사의 후쿠오카현은 후쿠오카번의 오키로 보인다.

⁵⁹ 아리스가와노미야(有栖川宮) 다루히토 친왕.

⁶⁰ 가와무라 스미요시(川村純義).

지난 14일 모든 번이 폐지되고 지사는 모두 면직되었습니다. 단, 대참사 이하는 추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전대로 준수하도록 통지하니, 이것을 명심하도록 시달함.

신미(1871년) 7월 17일

태정관 전달소傳達所

7월 15일

변관 및 제번諸藩이 폐지되었는데, 추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인감을 지장 없이 사용하도록 개항장·제현諸縣 그 외 각각에 통지해두니, 이것을 명심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신미(1871년) 7월 17일

7월 18일

대학大學

대학을 폐지함.

전 대학 관원官員

이번에 대학을 폐지하고 문부성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동一同 추후의 명령까지 지금처럼 사무를 취급할 것.

종5위 에토 신페이

문부대보文部大輔에 임명함.

문부대보 에토 신페이

제도 조사 겸근兼勤을 명령함.

신미(1871년) 7월 18일

13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도한渡韓을 진정하는 글

5월 이래 품의稟議를 올려둔 건은 차차 지휘를 받겠습니다. 또 저번부터 구 외무경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즈하라嚴原 현사縣士 중에서 3, 4명을 외무관원外務官員으로 임명하고, 도리어 이즈하라현에는 대·소참사大少參事를 차하差下⁶¹하시면, 확실히 정실情實이 조색阻塞⁶²하는 우려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번에 작성해둔 별지를 일동께서 고람高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1871년) 7월 22일

히로쓰 히로노부

소宗 종4위 님의 도한渡韓을 명령해주길 바라는 논의

어제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가 찾아와서, “소 종4위가 지사직에서 면직된 이후도 숙고하시어, 현재의 제도에서는 지난겨울에 청원해둔 (조선과의 교제를) 가역家役으로 한다는 명기도 이제 칭하기 어렵고, 또 조선과 교제를 다시 찾는 것은 자신이 도항하더라도, 반드시 빨리 성공하도록 분발 진력하지 않으면 이 이상은 너무 좌송스럽다고 깊게 개탄하므로, 종4위의 성의誠意를 관철하여 성공을 이룰 방도 등을 내밀히 간담懇談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므로, 히로노부가 “그렇다면 종4위 님을 당분간 외무대승外務大丞으로 임명한다는 것으로써 선문사先問使⁶³를 보내고, 그 기회를 타서 (소 종4위가) 도한渡韓하여 저들의 예조 참의禮曹參議에게 회의會議할 것을 알리고, 공공연히 (천황이) 모든 것을 유신하여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고, 번을 폐하고 현을 세우고, 외국과의 교제는 모두 외무성이 관할管轄하는 바가 되어 외무성이 구교舊交·인의隣誼를 찾지 않을 수 없는 이치를 깨우쳐주어 저들이 승복한 후에는, 예조·동래·부산 등의 관원이 해마다 벼슬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우리 외무

⁶¹ 벼슬을 시킨.

⁶² 가로막아서 못 하게 함.

⁶³ 본 사절이 가기 전에 예비교섭을 위해 보내는 사절.

성 관원도 역시 영구히 세습하는 직이 아님을 깨우쳐주면 매우 설득하기 쉬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시험 삼아 얘기했는데, 오시마도 매우 찬성한다고 하면서 “종4위가 외무관원에 임명되어 친히 도한渡韓할 각오를 세운다면 현사縣士도 한층 노력을 더 할 것이고, 또 한인韓人은 (소 씨를) 숭신崇信하는 뜻이 있어 필경 관직이 예전과 다르더라도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여 승복도 역시 빠를 것이고, 심교尋交⁶⁴에 이 이상의 첩경捷徑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건을 충분히 평의評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신미, 1871년) 7월 24일

히로쓰 히로노부

14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소 시게마사宗重를 외무성 대승大丞으로 임명할 것을 청하는 의론

지난 24일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7일 이즈하라현 전 지사님을 매우 급히 (도쿄로) 부르므로, 조선과의 공무에 관한 일일 것으로 생각하고, 상하가 분발하여 신속히 상경했다고 하는데, 폐번치현廢藩置縣⁶⁵으로 지사직에서 면직된 것은 (이즈하라)현의 모두가 삼가 받들 것임은 물론이지만, (쓰시마는) 벽원僻遠의 고도孤島라서 모든 면에서 인심이 위미委靡⁶⁶한 중에 조선과의 공무를 보통의 공무와 같다는 생각으로 취급하면,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 지사님을 외무대승으로 임명하고 도한渡韓을 명하면 (쓰시마) 일동의 기력이 떨쳐 일어나 충분히 진력하여 노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즈하라현 구 사족 오시마 도모노조에게도 내밀히 협의해보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니, 적절

⁶⁴ 이전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

⁶⁵ 원문은 ‘번현어개제(藩縣御改制)’로 되어 있으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폐번치현으로 번역했다.

⁶⁶ 시들고 느른해짐. 위미(萎靡).

히 평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한 수순^{手順}이나 기타의 건은 명을 받들어 이즈하라현과 협의하여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이상.

미(신미, 1871년) 7월 28일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이 문서는 당일에 제출했는데, 경·보^{卿輔}가 협의하여 글의 앞뒤를 약간 고치고, 경·보의 건언^{建言}으로 작성하도록 명하여, 즉각 별지와 같이 고쳐 제출함. 별지는 다음에 게재하는 바와 같이 경·보의 품의서^{稟議書}이다.」

15 외무성 경·보^{卿輔}가 소 시게마사^{宗重正}를 대승으로 임명할 것을 청하는 품의^{稟議}

지난 5월 27일⁶⁷ 이즈하라현 전 지사 소 시게마사^{宗重正}를 매우 급히 (도쿄로) 부르므로, 조선과의 공무라고 생각하여 상하가 분발하여 급히 상경했다고 하는데,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명하여 시게마사가 지사직에서 면직된 것은 (이즈하라)현의 모두가 삼가 받들 것임은 물론이지만, (쓰시마는) 벽원^{僻遠}의 고도^{孤島}라서 모든 면에서 인심이 위미^{委靡}한 중에 조선과의 공무를 보통의 공무와 같다는 생각으로 취급하면,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게마사를 외무 대승으로 임명하여 도한^{渡韓}하도록 한다면 (쓰시마) 일동의 기력이 떨쳐 일어나 충분히 진력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을 적절히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신미, 1871년) 7월

외무경

외무대보

⁶⁷ 원본에는 25일로 되어 있으나, 이 문서의 원문에 해당하는 「[宗從四位等本省官員へ御登庸并渡韓御下命ノ儀同上(広津弘信外一人再渡韓ノ儀同省申立)]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A01100125500]과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朝鮮事務書』에는 27일로 되어 있어 수정했다.

「이 문서는 7월 28일 대보大輔님이 제출했는데, 같은 날 소 종4위를 부르는 명이 있어 다음날 참조參朝했는데, 소 종4위는 외무대승으로 임명됨.」

16 소 시게마사宗重正를 도한시키는 원유原由의 개략

경오(1870년) 겨울 요시오카 고키·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가 도한했는데, 저 나라의 훈도는 취관就館하지 않았다. 마침내 신미(1871년) 정월이 되어 3명의 관원이 서로 의논해서, 만약 정월이 끝나더라도 저들이 취관하지 않아 사절의 일을 진술할 방법이 없을 때는 바로 동래부로 가서 면담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정월 25일 히로노부가 하나의 의안議案을 보이면서 말한 개략概略은 (다음과 같다).

지난겨울 이래 훈도는 병을 핑계로 지연시켜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고, 우리가 밤낮으로 고심해도 훈도를 면담할 수 없어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때에, 후도後圖를 논의함에 함께 동래에 가는 것을 상책上策으로 했다. 히로노부도 역시 동의했다. 이후 숙고하니, 유신 이래 저들에게 통보한 것은 모두 쓰시마對州 소 씨의 사람으로 했고, 아직 외무관원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금계禁界를 넘어 동래로 감에 저들이 이에 응하지 않음은 필연이다. 이때 우리는 무슨 명의名義와 구실로 능히 피아彼我的 곡직曲直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랴. 우리는 지금 우리 묘당廟堂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다. 망령되이 나아가는 것만을 바라더라도, 마침내 그 퇴로를 잃고 진퇴유곡進退維谷에 이르러 국치國恥를 쌓더라도, 무슨 권력으로 이를 씻을 수 있으랴. 이에 내 생각으로는, 세 명 중 한 명이 이즈하라로 돌아가, 소 씨에게 친히 도한하여 위로는 조정의 성의盛意를 이루고 아래로는 조선祖先의 공업功業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설득하여 소 씨가 이것에 동의하면, 바로 귀경하여 그 일을 사와·데라시마 양공兩公에게 건언하여 조정의 명령을 얻는 것을 상책으로 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3, 4개월이 걸리지 않을 수 없다. 그사이 저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소 씨로 하여금 급히 별한(別翰)과 별사(別使)⁶⁸를 (조선에) 건너가게 해서 동래·부산 양사(兩使)에게 외무관원과 면접할 것을 청하면, 그 응수(應酬)하는 사이에 소 씨 도한의 논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논의가 만약 양군(兩君)⁶⁹의 뜻에 부합(符合)하면 앞으로 4, 5개월 동안은 소 씨의 별한(別翰) 응수의 일에 맡기고 우리는 바보처럼 천치처럼 오로지 소 씨 도한의 날을 기다리면 된다. 만약 양군이 이것을 불가라 하여 결국 동래에 가는 것을 양책(良策)이라 하면, 히로노부는 단정한 퇴의 쌀과 3근의 고기를 먹으면서 반드시 선도(先導)의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감히 공론(公論)에 힘쓰기를 청합니다.

이에 요시오카·모리야마·고바야시 등이 협의하여 마침내 결정하였다. 요시오카·모리야마 이 씨(二氏)가 말하기를 “동래에 가는 논의는 사절의 임무를 다하려는 충정에서 나왔지만, 기실은 성공의 전망이 충분하지 않다. 히로쓰 씨는 소 씨와 특별히 간절한 정유(情由)가 있고, 또 이 논의를 제의했으니 마땅히 스스로 담당하여 숙고하라”라고 하였다.

2월 12일 히로노부는 부산을 출발하여 2월 15일 이즈하라에 도착했다. 즉시 지사 소 씨를 만나 스스로 도한하여 진력해야 하는 이의(理義)를 논의했다. 소 씨 이것에 동의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자가(自家)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번계(藩計)⁷⁰가 곤박(困迫)하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바라건대 조정에서 다시 도한의 명을 내려주시길 족하(足下)가 주선하라.”고 운운했다. 히로노부는 또 동래·부산 양사가 외무관원을 면접할 것을 청구하는 별한을 조선에 보내도록 하는 일을 얘기했다. 소 씨 또 승낙했다. 2월 24일 별한의 문장이 완성됨을 보고 상경했다.

3월 16일 히로노부는 귀경했다. 그사이 미국 군함이 조선국으로 진항(進航)하려

⁶⁸ 소 씨가 별도로 조선에 보내는 서계(書契)와 이를 가지고 가는 사절을 말함.

⁶⁹ 요시오카 고키와 모리야마 시게루.

⁷⁰ 번의 재정.

하므로, 본성本省(외무성)에서 안도 다로를 도한시키려 하는 그날 밤에 사와 외무경이 히로노부를 불러서 다시 바로 안도와 함께 도한할 것을 간절히 타일렀다. 히로노부는 바로 소 씨 도한의 의론을 헌책하기 위해 상경했음을 대략 진술하고 다음 17일에 출경出京, 4월에 도한했다. 10여 일 동안 있으면서 부산에 일이 없음을 살피고, 전의前議⁷¹를 마무리 짓기 위해 5월에 다시 상경하여 사와 공公에게 내밀히 증정한 바가 있다. 사와 공은 이것을 받아들여 정부에 건의하고 마침내 소 씨에게 상경을 명했다. 6월 2일 히로노부는 사와 공의 내명을 받고 출경하여 6월 15일 이즈하라에 도착하고, 소 씨에게 권유하여 속히 상경의 길에 오르도록 했다. 7월 12일 소 씨와 함께 상경했는데,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7월 14일 폐번치현의 명령이 나와 소 씨는 이즈하라 지사직을 면하고, 사와 공도 역시 외무경을 면하게 될 것을. 2월 이래 히로노부가 3회⁷² 왕복하여 소 씨 도한의 의론을 건의했지만, 물거품·그림의 떡이 되려 했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7월 17일, 이즈하라에 새로 인재를 선발하여 급히 참사參事 이하를 내려보낼 것과 소 씨를 외무대승으로 임명할 것을 헌책했다. 이와쿠라 외무경·데라시마 외무대보가 이것을 가可하다 하여 바로 소 씨를 대승으로 임명했다. 이에 잔불이 다시 타올라 소 씨에게 주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국왕 이하에 증진贈進하는 물품의 대가代價를 하사하여 소 씨 및 수행 관원이 도한의 명을 받들고 9월 중순 바야흐로 출발하려 할 때, 번계藩計 부채의 막대 등의 일 때문에 소 씨 도한은 마침내 중지했다.

위 대략은 그 기록을 잃지 않기 위해 게재한 것이다.

⁷¹ 앞에서 한 논의, 곧 소 씨 도한 논의를 말함.

⁷² 원문에는 ‘三四’로 되어 있지만,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의 『朝鮮事務書』에는 ‘三回’로 되어 있다. 문맥상 3회가 올바르다.

17 8월 3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성상께서 더욱 유쾌하게 주련駐輦⁷³하시어 매우 기쁩니다. 각위各位께서도 열심히 복무하여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본성本省 일동은 무사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一. 민부대승 와타나베 기요시渡邊清는 지난달 하순에 이즈하라현 지사 대리 하향下向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본성에 출두하여, 대보 공公을 면접하고 조선 사건을 협의했다는 취지입니다. 그 후 민부성이 폐지되어 지사 전임專任이 되었습니다. 또 저번의 예상대로 소 시게마사도 지난달 29일 외무대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체적인 처분은, 아직 묘산廟算이⁷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최근의 모습으로는 머지않아 하명下命도 있을 걸로 밤낮⁷⁵으로 기망企望하고 있습니다.
- 一. 제도개혁과 관리의 출적은, 선편先便으로 보낸 뒤의 부분은 별지 사본으로 보내니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 외 변한 일은 없습니다. 모쪼록 시하時下 자애自愛 하십시오.

신미(1871년) 8월 3일

고바야시 다다시

오쿠 요시노리

곤도 마스키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추신.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는 돌아오자마자 병으로 침거하여 아직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⁷³ 행행지(行幸地)에 머무.

⁷⁴ 조정의 계획.

⁷⁵ 원문은 은모(昕暮)인데, 아침과 저녁을 뜻하는 흔모(昕暮)의 오키로 보인다.

一. 나카노中野健明·구스모토楠本正隆 양 권대승權大乘은 이교도 오아즈케御預⁷⁶ 번
들의 순사巡使 공무를 마치고 지난달 하순에 귀경했습니다.

입기入記⁷⁷

一. 양공兩公에게

히로쓰·고바야시로부터 일봉壺封씩

첨부 관원 전면轉免 인명서人名書

가토加藤泰秋 종5위

마치다町田久成 종5위

문부대승文部大丞에 임명함.

미(신미, 1871년) 7월 19일

궁내대승 겸 제릉두諸陵頭⁷⁸ 도다 다다유키戶田忠至

원에 따라 본관本官을 면하고 쇼료노카미에 전임함.

정2위 도쿠다이지 사네쓰네

궁내성 출사出仕에 임명함.

단, 대보에 준하는 자리임.

7월 20일

도쿄부東京府 지사 미부 모토나가任生基修

⁷⁶ 죄인을 영주·절·친척 집 등에 맡겨서 감독하게 한 일.

⁷⁷ 별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

⁷⁸ 쇼료노카미. 제릉료(諸陵寮)의 장관.

본관을 면함.

종4위 유리 기미마사由利公正

도쿄부 지사에 임명함.

7월 23일

민부대승 겸 사원두寺院頭 아키즈키 다네타쓰秋月種樹

원에 따라 본관과 겸관兼官을 면함.

7월 25일

민부성을 폐지함.

대장성 중의 감독사監督司·용도사用度司·조세사租稅司를 폐지하고, 다시 아래와 같이 설치함.

조세료租稅寮·권업사勸業司·통계사統計司·지폐사紙幣司·호적사戶籍司·역체사驛遞司

공부성工部省 중 토목사土木司 폐지함.

7월 27일

종4위 소 시게마사

외무대승에 임명함.

위를 선하宣下함.

신미(1871년) 7월 29일

태정관

이번에 궁내·문부 양성兩省에 아래와 같이 관직을 두니, 유념을 위해 통지함.

신미(1871년) 7월

태정관

궁내성

시종장侍從長	상당相當 정4위
대감大監	상당 중6위
소감少監	상당 정8위
내장사內匠司	
조도사調度司	

문부성

대박사大博士	상당 중3위
중박사	상당 정4위
소박사	상당 중4위
대교수大教授	상당 정5위
중교수	상당 중5위
소교수	상당 정6위
대조교大助教	상당 중6위
권대조교	상당 정7위
중조교	상당 중7위
권중조교	상당 정8위
소조교	상당 중8위
권소조교	상당 정9위

지금부터 주임관奏任官을 선하宣下할 때, 정부에서 선지宣旨를 아래에 전하고, 그 관·성에서 (해당자에게) 전하게 함. 이를 유념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신미(1871년) 7월 27일

태정관 전달소

추신. 본인이 수취하면 바로 신고할 것.

18 8월 10일 소 시게마사(宗重正) 등이 도한하는 명령을 받았음을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알리는 서신

성상께서 더욱 유쾌하시어 매우 기쁩니다. 각위(各位)도 맑고 왕성하게 봉직(奉職)하시어 경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성의 경·보를 비롯해 일동은 무사하니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한국의 일도 차차 평결(評決)하시어 소 대승의 도한(渡韓)을 명했습니다. 오시마 도모노조는 본성의 주임(奏任) 출사(出仕)로 한 다음, 그 외 히로쓰 등도 모두 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결론을 지을 묘산(廟算)이 보여 확실히 성공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달 하순까지 각각 결말이 나서 출범할 상황이 될 터이므로 안심하고 분려(奮勵)⁷⁹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머지 일은 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적었습니다. 돈수(頓首).

신미(1871년) 8월 10일

한사무과(韓事務掛)

요시오카 고키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태정관일지』 2월 12월부터 8월 5일까지 11책

『가이가이신문(海外新聞)』⁸⁰ 51호 1책

고바야시 사생(史生)으로부터 일봉(壹封)

⁷⁹ 기운을 내어 힘쓰.

⁸⁰ 1870년 7월 20일부터 1871년 8월 1일(51호)까지 도쿄에서 발행된 신문으로,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 등이 외국 신문을 번역해서 발행한 것.

19 8월 11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이 저번에 소 시게마사^{宗重正}가 동래·부산 양사^{兩使}에게 증정한 글을 훈도가 받았다는 것 등을 진술한 내신^{來信}

신미(1871년) 9월 13일 (본성에) 도착.

요시오카 고키·모리야마 시게루

조선과 귀중

더욱 힘껏 노력하시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곳의 형세는 이전과 변함이 없고 예안^{義安}⁸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봄 이래, 이즈하라번 지사가 저들 동래·부산 양사에게 보낸 별한^{別韓}의 청납^{聽納}에 대해, 이래저래 의심하고 주저하면서 이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훈도가 왜관에 와서 또 담판하도록 했는데, 마침내 굴종하여 (별한을) 받아 갔습니다. 따라서 공무의 승낙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추후에 회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一. 삿슈^{薩州}⁸² 표민^{漂民} 모두 무사히 임소^{任所}⁸³라는 곳에서 접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도^{引渡}에 대해서 서울의 서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낙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一. 전염악역^{傳染惡疫}을 포령^{布令}하신 취지는 이즈하라번에서도 왜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미관^{微官}들도 얘기해서 피혁류 등의 수입은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모습을 계속 탐색하였지만, 아직 이곳 가까운 이상한 병의 유행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의 학질^{虐疾}은 성행한다고 합니다. 관내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행병은 엄밀하게 방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⁸¹ 세상이 잘 다스려져 평온한 상태.

⁸² 사쓰마의 이칭으로 현재의 가고시마현에 해당하는 지역.

⁸³ 훈도(訓導)의 집무처 겸 거주처인 성신당(誠信堂).

- 一. 히로쓰 히로노부가 상경한 후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밤낮으로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확고한 결론이 이루어져 동인(同人)이 다시 건너오는 날만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현(諸賢)이 적절하게 국가를 위해 분력(奮力)하시길 기망(祈望)합니다.
- 一. 청국(淸國)으로 간 분들이 벌써 임무를 달성하여 금의환향할 일합(日合)⁸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편(後便)에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 一. 내외의 동정은 어떠합니까. 정부에서도 크게 혁정(革正)⁸⁵하시어 모든 번을 폐지하고 다시 현청(縣廳)으로 고쳤다는 따위의 풍문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미(신미, 1871년) 8월 11일

20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훈도가 서한을 수취했으니 소 시게마사(宗重正)에 앞서 먼저 도한할 것을 청하는 글

지금(至急) 회람을 원합니다. 별서(別書)는 끝에 있습니다.

별지인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및 사가라 단조(相良丹藏)의 서장 사본 2통이 최근에 도달했다고 해서 오시마 마사토모(大島正朝)⁸⁶로부터 입수하여 즉시 제출합니다. 요시오카·모리야마도 필시 서장을 보냈을 걸로 생각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다. 이 별한(別翰)이라 하는 것은, 올봄 2월 히로노부가 귀조(歸朝)할 무렵에, 다시 (조선으로) 건너갈⁸⁷ 때까지 요시오카를 비롯해 (재한 외무관원들이) 저 나라와 협상

⁸⁴ 하루 중에 길한 시각.

⁸⁵ 빠르게 고침.

⁸⁶ 오시마 도모노조. 오시마의 초명은 아사노부(朝信)였는데, 후에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이름 한 글자인 '마사(正)'를 하사받아 마사토모(正朝)로 고쳤다.

⁸⁷ 원문의 재도(再度)는 의미가 통하지 않아 재도(再渡)의 오기로 추정하고 번역했다.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저들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정중하게 온갖 수단을 다했다는 증거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즈하라에서 소 시게마사 님이 동래·부산 양사에게 외무관원 면담을 촉구하는 규정 외의 별한을 별지別紙로 건네 달라고 부탁하여, 2월 24일 별한에 조인調印하고 한지韓紙로 전했습니다. 또 히로노부도 요시오카를 비롯해 (재한 외무관원들과) 협의해두고 히로노부는 귀경했습니다. 그런데 히로노부가 다시 건너오기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중평衆評이 있어, 4월 히로노부가 다시 건너올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5월 2일 히로노부가 다시 귀경을 위해 한지를 출발할 때, 순순諄諄히⁸⁸ 훈도에게 (별한을) 봉출捧出할 것을 엄달嚴達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시오카를 비롯해 재한 현사縣士에게도 간절히 논의해둔 끝에, 훈도는 병을 이유로 입관入館하지 않고 시일을 보내다가, 이번엔 별지와 같이 예의 고정苦情은 말하면서도 갑자기 봉출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입니다. 봉출한 다음 저들의 서울에서 어떤 지휘를 할지는 모르지만, 위의 별한 사본을 별차別差라는 관원에게 내밀히 보여주면서 훈도에게 말씀드리라고 내담內談한 것은 5월 상순의 일인데, 7월 28일 훈도가 오랜만에 입관한 날에 바로 봉출을 수용한 것은 5, 6, 7월 중에 서울에 내밀히 계문啓聞하여 내밀한 지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 사정은 지난겨울 이래 규정 외의 일을 듣고 규정 외의 사람을 만나는 등의 모든 논의는 서울에 말하기만 해도 담당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엄한 견책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전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강요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 것과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원의 접대를 승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장 외무성의 서계書契가 없으면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 직접 면접에 이를 때 요시오카·모리야마 두 명이 있으므로 빠뜨리는 일이 전혀 없을 것임은 물론이지만, (지금)은 몇 해 동안 (추구한) 심교尋交 성부成否의 단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난 8일 구스모토 외무소승님께 제출한, 폐번치현에 따라 재한在韓한 상하上下의 여러 사람이 조선

⁸⁸ 타이르는 태도가 아주 다정하고 친절하게.

인을 접할 때의 주의사항을 (외무성에서) 지시하실 일도 있어, 모쪼록 자세히 간유
懇諭⁸⁹하시는 것을 듣고, 히로노부는 일단 소 대승님 도항에 앞서 매우 급히 출발하
도록 명령해주실 것을 거듭 간원懇願합니다. 그리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명
료한 점들은 하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신미, 1871년) 8월 13일

히로쓰 히로노부

미야모토宮本 소승님

첨부 사가라 단조相良丹藏 및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가 훈도의 서한을 수취했다고 후루
카와 겐타古川源太 등에게 알리는 글(2통)

저번에 보내둔 동래·부산 양사兩使에의 별한을 봉출捧出하는 것에 관해 계속 협상
에 힘쓰고 있었는데, 지난달 28일에 28일 이외의 공무로 훈도가 취관하므로 봉출
할 것을 엄달嚴達했는데, 이런저런 고정苦情을 주장했지만 끝내 봉출하도록 했다
고 별지대로 말해왔습니다. 여러 달 동안 삼체齟齬한 공무가 우선 위와 같이 진척
되어 관원에 응대할 상황입니다. 이후엔 서울에서 보기 좋게 승낙에 이르도록 기망
企望하고 있습니다. 위의 봉출 사정은, 관원이 본성에 치보馳報하지 않을까 생각되므
로, 그대로 둘 수 없어 통보합니다. 근언謹言.

8월 5일

사가라 단조

후루카와 겐타古川源太 님

오시마 마사토모 님

모리카와 다마키森川玉城⁹⁰ 님

⁸⁹ 정성껏 깨우쳐주는 것.

이전에 보내둔 별한의 건을 협의할 것을 저번부터 계속 안내해두었는데, 그 후 훈도는 병을 이유로 전혀 내려오지 않으므로 수단을 써 매번 교섭하였지만, 아무튼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여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규정 외의 공무가 폭주하여 몇 달 동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작금^{昨今} 훈도가 차차 쾌차하였다고 하면서 뜻밖에 오늘 다른 불일로 취관하여 다행이므로, 반드시 오늘 중에 봉출하라고 엄달^{嚴達}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저런 고정^{苦情}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승낙하여 오늘 바로 봉출^{捧出}하겠다고 회답하므로, 바로 별한을 건넸습니다. 또 취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진력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위는 관원이 자주 내시^{內示}⁹¹하기도 한 것인데, 뜻밖에 승낙하고 봉출하기로 하였으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황송하게 삼가 말씀드립니다.

7월 28일

후카미 로쿠로

후루카와^{古川太織} 대참사 님

사가라 권대참사 님

21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기초^{起草}한, 외무경이 대승에게 주는 위임장 안^案

저번에 조정에서 너에게 명하여 조선국과 구교^{舊交}를 계승하는 일을 도모하고, 또 외무관원을 보내 본방^{本邦}의 성의^{誠意}가 있는 바를 진술하도록 했다. 저 나라는 이것을 관접^{款接}⁹²하지 않았다. 생각하니, 저 나라가 아직 본방 심교^{尋交}⁹³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기왕의 일은 다시 어찌 논하랴.

⁹⁰ 원문의 지(至)는 옥(玉)의 오기로 보인다.

⁹¹ 비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

⁹² 너그럽게 대접함.

⁹³ 옛 교제를 계승하는 것.

그런데 본방은 중세 이후로 정권을 무장의 가문에 맡겼는데, 지금은 세상의 운수가 일변하여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시고, 모든 제도를 유신하여 외국 교제와 같은 것도, 이를 모두 외무성이 관장토록 한 것 등의 일은 네가 상세히 아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종전에 조선과의 교제를 네가 가직家職으로 한 것을 면하고, 네가 매년 보내는 배⁹⁴를 폐지하고, 다시 너를 외무대승으로 임명하여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글을 가지고 저 나라에 건너가서 예조참판을 면담하고, 자세히 본방이 일신한 유래를 고지하여 피아⁹⁵彼我的 인의隣誼가 깊고, 경계가 가까우니 모름지기 구교를 이어 신맹新盟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를 진술해야 한다. 또 지금 해외의 모든 나라는 별처럼 많이 펼쳐져 있고 바둑돌처럼 점점이 흩어져 있으며, 문문을 닫고 무예를 강습하는 것은 실로 옛날과 비교할 수 없다. 진실로 국토·인민을 (지킬) 책임이 있는 자는 심모원려深謀遠慮하지 않을 수 없는 때이라는 것임과 피아 양국은 원래부터 순치脣齒의 관계라서 존망이 서로 상관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국이 동맹하여 더욱 견고한 마음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좋은 계책을 상량商量⁹⁵할 것을 명한다. 너는 마땅히 조정이 심교하는 성의를 체인體認하여 이것을 신중하게 여기고 이것에 힘써라.

메이지

외무경

위는 창졸倉卒히 (작성한) 초안입니다. 첨삭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히로쓰 히로노부

⁹⁴ 세견선(歲遣船)을 말함.

⁹⁵ 헤아려서 잘 생각함.

22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인의를 구하는 의견서

구스모토 공·미야모토 공·다나베 공·하나부사 공 대하臺下⁹⁶

히로쓰 히로노부

일전에 제출한 수순^{手順} 품의서⁹⁷에 관한 중의^{衆議} 중에, (품의서의) ‘요시오카·모리야마·히구치樋口⁹⁸는 함께 일단 쓰시마[對州]까지 철수시킨다’는 조항의 아래에 (이 조항은) 후에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⁹⁹는 경승^{敬承}¹⁰⁰하지만, 여전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아래에 진술합니다.

종전에 심교의 취지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저들이 처음에 하나의 의^疑아^疑訝^訝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신^{一新}을 통지하는 서계 중에 문자와 관련하여 의론을 일으켜 서로 규각^{圭角}¹⁰¹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건너간 관원이 아직 면담에 이르지 못한 것은, 역시 대수사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게다가 5월 이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단^{疑團}¹⁰²을 빙해^{氷解}¹⁰³할, 두 나라의 교제와 관계된 직을 맡은 자는 양쪽 모두 어쩔 수 없는 사정^{私情}이 있습니다(세건선·공무역에서 사적 이익이 서로 있다).

그 때문에 진실로 면려^{勉勵}하여 그 의심을 풀기 위해 진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차 관리들 사이에 억류^{抑留}¹⁰⁴시켜야 할 정^情상^情狀^狀이 있어 저 나라 국^國도^都

⁹⁶ 귀인에 대한 높임말.

⁹⁷ 히로쓰가 제출한 (소 대승의) 「도한 수순 품의서(渡韓手順伺書)」를 말한다. 이 문건은 이 책의 29번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순으로 봤을 때 이 22번 문건은 29번 문건 뒤에 배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⁹⁸ 대수 대차사 정관 히구치 데쓰시로(樋口鑓四郎).

⁹⁹ 이 책의 30번 문건에 따르면 묘의(廟議)를 청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¹⁰⁰ 남의 말을 삼가 받아들임.

¹⁰¹ 말이나 뜻, 행동이 서로 맞지 아니함.

¹⁰² 마음속에 늘 풀리지 않고 있는 의심.

¹⁰³ 얼음이 녹듯이 의심이나 의혹 따위가 풀림.

¹⁰⁴ 숨긴다는 의미.

에 전달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 그치고 있으니, 반드시 종전의 종적蹤迹은 일단 바람으로 쓸어버리듯이 국면을 바꾸어 소 씨가 도한하여 우선 그 사정私情의 근원을 절단해야 합니다(즉 가역家役을 그만두게 해서 세견선을 폐지하고 공무역을 없애고 사무역을 여는 등의 포고). 오직 성의誠意 일편一片을 간유懇諭하여 저들이 의구疑懼하는 마음이라도 빙해하면 점점 구맹舊盟을 강구할 기회를 열 전망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장한 관원과 대수사도 일단 쓰시마[對州]로 철수하도록 하는 사이에, 쓰시마로 철수하는 취지를 관사館司가 훈도¹⁰⁵에게 통지하고, 아무런 성가신 일도 하지 않고¹⁰⁶ 허기평심虛氣平心¹⁰⁷ 모습으로 철수시키고자 합니다. 만약 응수應酬가 번거롭게 되어, 한때의 휘예毀譽¹⁰⁸에 구애되면 오히려 진퇴가 곤란하게 됩니다. 아직 의아를 풀지 않고, 아직 성의를 관철하기 전에 다시 규각圭角이 생기면, 아무튼 후도後圖에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들의 의단疑團도 풀어주고 우리의 심교 취지도 명료하게 한 다음에도 여전히 별도로 한 가지 국론이 있어 결국 우리를 거절하기로 확정할 때는, 본성本省에서도 그때의 각오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겨울 이래 충분히 잠심潛心¹⁰⁹하여 조사하고 탐구했는데, 전혀 거절의 뜻이 없습니다. 다만 의구疑懼하는 마음이 깊고, 또 이것을 유시諭示할 방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승이 도한하는 건은 저들의 의단을 풀고 우리의 성신을 관철하여 심교

105 원문의 부도(副導)는 훈도의 오기로 보인다.

106 대수사의 귀환에 따르는 의례를 거행하지 않는다는 의미.

107 기(氣)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짐.

108 비방과 칭찬을 아울러 이르는 말.

109 마음을 두어 깊이 생각함.

의 공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각오하고 있으므로, 쟁단^{爭端}을 여는 것 같은 일은
힘껏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저들에게 확고한 거절
의 정론^{定論}이 있을 때는, 곡직^{曲直}이 분명하고 명의^{名義}¹¹⁰를 우리에게 세울 수 있는
책략은 그때 외무성의 논의도 있을 것이고, 또 (조정)의 사신을 파견할 각오도 있
을 것입니다.

지금 논의해서 결정할 것은, 거듭 적심^{赤心}¹¹¹을 펼쳐 저들을 감오^{感悟}¹¹²시킬
생각이므로, 그 부분을 신중히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행^{先行}의 사절과
관원은 모두 한번 물러나, 쓰시마에서 협의하여 다시 (조선으로) 건너가고자 합
니다. 적절히 평결하시도록 매우 급히 품의를 올립니다. 이상.

8월 17일

히로쓰 히로노부

원래 불문^{不文}¹¹³의 히로노부가 창졸히 건의한 것이라서, 혹시 불심^{不審}¹¹⁴한 점
이 있으면 하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10 명분과 의리.

111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112 느껴 깨달음.

113 글에 대한 지식이 없음.

114 아는 것이 자세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움.

23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인의를 구하는 의견서 조목

<목록>

제1: 메이지 원년 진(무진, 1868년) 겨울에 일신을 통지하고 심교尋交를 구하는 서계를 대수사大修使가 지니고 도한渡韓하도록 한 일.

제2: 메이지 3년 오午(경오)(1870) 봄에 외무성 탐색사探索使가 도한한 일.

제3: 메이지 3년 5월 독일선[獨乙船]이 부산에 닿을 내린 후, 우라세 사이스케가 도한한 일.

제4: 메이지 3년 7월 하순 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가 다시 탐색을 위해 도한하라는 내의內意를 받은 일.

제5: 메이지 3년 10월 구 외무경 공 및 마루야마丸山 씨¹¹⁵ 서계를 가지고 요시오카 고키·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가 도한의 명을 배명하고 출발한 일.

제6: 메이지 4년 미未(신미)(1871) 2월 요시오카를 비롯해 (관원들과) 협의하고, 히로노부가 도중에 귀조歸朝하여 후도後圖의 목적을 건의한 일.

제7: 한인韓人이 우리를 거절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8: 저들이 의단疑團을 빙해氷解하고, 우리의 교정交情을 받아들여지게 하는 목적.

제9: 소 씨가 이미 지사직에서 면직되어, 금일 심교의 일을 그만둘 때는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되는 일.

제10: 우리가 거절하는 것과 저들이 거절하는 것의 곡직曲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교시敎示를 청한 일.

위 10개 조의 대요大要는 부록附錄에 구신具申함.

¹¹⁵ 외무경 사와 노부요시(澤宣嘉)와 외무대승 마루야마 사쿠라(丸山作樂).

24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인의를 구하는 의견서 개요

대요 부록大要附錄

제1조

그 기원¹¹⁶은 메이지 원년 진辰(무진)(1868) 3월에 외국사무보外國事務輔 대리로서 조선과의 공무에 종사하도록 소 씨에게 명한 일.

3월 소 씨에게 막부를 폐지했으니, 조선을 취급하는 일은 조정에서 명한다고, 조선에 통지하라고 지시한 일.

6월 조선국에 새로 대정일신大政一新의 통지를 분부한 일.

12월 대수사에게 조정에서 초안을 잡은 서계를 가지고 도한하게 한 일.

대수사 도한 후 저 나라 주의主意의 대략

서계의 문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그 내의內意는, 지금 일본이 간파쿠關白¹¹⁷를 폐하고 일신했다고 하지만, 이것에¹¹⁸ 대신 상당의 관을 임명하여 교제의 직을 두면 어찌 그렇게 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지금 일본과 화和를 잃는 것은 장책長策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황토를 칭하는 것은, 반드시 점차 우리를 신하로 삼으려는 간모奸謀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작을 허락할 수 없다.

제2조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모리야마 시게루·사이토 사카에齋藤榮가 쓰시마 인[對州人]

¹¹⁶ 원문은 기원(起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원(起源)의 오기로 보인다.

¹¹⁷ 정확히는 막부의 쇼군(將軍)을 의미한다.

¹¹⁸ 폐지된 쇼군 대신이라는 의미.

이름을 모칭^{冒稱}하고 도한, 저들이 대수사가 가지고 간 서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동래부백^{東萊府伯}의 단간^{單簡}¹¹⁹을 받기로 의논하고, 또 소 씨가 이것을 조정에 아뢰는 것을 약속하고, 체한^{滯韓} 20일 만에 귀국.

제3조

독일^[獨逸] 측량선 안에 마와타리^{馬渡八郎} 외무소승과 쓰시마^[對州] 통역 나카노 고타로^{中野許太郎}가 타고 있어, 저들이 자주 의아^{疑訝}해 하는 생각을 더 채우게 되었다. 그 후 우라세 사이스케가 오시마 마사토모^{大島正朝}(오시마 도모노조)의 내의^{內意}를 얻고 도한하여 독일 선의 일을 해명하고, 또 훈도와 친밀하게 응접한 끝에 정부 등대교제론^{等對交際論}¹²⁰의 내담^{內談}을 하고 귀향(다른 글에 맡김).

제4조

쓰시마^[對州]가 조선국에 수송할 물품 중에 지체된 것과 부채를 건네주면서, 소 씨에게 스스로 도한하여 심교를 알선하라는 명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모리야마 시게루·히로쓰 히로노부가 주장한 일.

제5조

4조 건의 중에 우라세 사이스케가 상경하여 제3조의 응접에 기초하여 전망을 주장한 취지를 외무성에서 논의하고, 외무성과 저들 예조와 등대교제의 일을 의론하고 시험 삼아 요시오카 이하가 도한(11월 상순 도착), 우선 서계는 저들에게 보이지 않고 다만 외무관원 면담의 일을 전하게 했다.

그런데 저들은 첫째로는, (외무관원들이) 대수사가 동래의 단간을 얻은 후에

¹¹⁹ 단간(短簡)과 같은 의미로 짧게 쓴 편지를 말함.

¹²⁰ 대등하게 교제한다는 의미. 등대는 같은 자격으로 마주 대함을 뜻함.

이유 없이 헛되이 체재하기 때문에, 관원을 면담하면 반드시 前 前 서계를 전달하지 않은 일을 거론하려고 도모할 것이다.

둘째로는, 쓰시마對馬라는 하나의 작은 섬의 교제조차 이것에 급여가 허다한데, 하물며 (일본 조정과) 그 친교를 받아들이는 날에 이르면, 원래 빼앗음에 만족을 모르는 나라라서 비용이 실로 지탱할 수 없음을 의심한다.

셋째로는, 구 막부 말기의 때부터 쓰시마[對州] 인이 아닌 일본인이 이양선을 타고 부산에 오고(이것은 러시아인(魯人)이 쓰시마에 왔을 때 사가(佐嘉) 화륜선으로 막부 관리를 쓰시마에 보내 상륙시켰는데, 그 틈을 타서 조선을 일견하려 했던 것이다), 또 제주에 항해하여 무역을 꾀한 일이 몇 번 있다. 또 메이지 원년(1868) 겨울 및 다음 해 봄에 남해 바닷가에 닻을 내리고 육지에 물품을 두고 간 일 등(이들 배는 어느 번에서 보냈는지 전혀 그 종적을 찾을 수 없다)을 비추어보면, 우리가 혹시 유럽[歐州]과 공모하고 안팎으로 강유剛柔에 따라 저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한다. 이것을 의구疑懼하는 마음이 짙은 새끼줄을 뱀으로 오인하고, 물새를 군인으로 인식하는 종류의 견문이 모두 걱정을 증가시킨다(이 때문에 외무관원도 일대 난제를 일으키려 온 것이 아닌지, 의구하는 것이 심하다).

그리고 양국 사이를 알선하는 소리小吏는 일종의 사정私情으로 서로 진위眞僞를 밀고하는 모습이라서, 저들이 의아를 깨고 우리의 성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을 펼쳐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저들이 관원을 접대하지 않는 사유의 대략이다.

제6조

체한滯韓 중에 곰곰이 피아 양간兩間의 공의公誼와 사정私情을 탐토探討하고, 이것을 이즈하라 전 지사님께 상담하고, 지참사知參事들이 지난겨울에 가역家役 사표를 건의한 정실情實도 일견 부절符節을 합한 것 같았다. 히로노부는 이에 한지韓地の 관원에게 이첩하고 이것을 구 외무경 공에게 구신具申하고(5월 건의가 이것이다), 또 7월 이래 건의하게 된 뜻이다.

제7조

저들의 내정(內情)이 우리와 거절할 뜻이 없다는 표시는, 예와 신을 동서에서 잃지 말라는 태조의 유훈에 있다. 그러므로 풍공(豊公)¹²¹ 대거(大舉)의 후에도 마침내 도쿠가와씨(德川氏)의 약조를 받아들인 이것이 첫 번째다.

저번에 대수사를 파견했을 때, 다만 황·칙의 문자를 받들면 후래(後來)에 신하로 예측하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모략임을 의심하고, 구규(舊規)·고격(古格)을 주장하더라도 추호도 교제를 잊지 않겠다는 말투는 없었다. 이것이 두 번째다.

훈도의 기밀(機密) 내화(內話)에 상당 대신으로 교제의 직을 두자고 운운한 것, 이것이 세 번째다.

요시오카·모리야마·고바야시 3명이 훈도와 비밀리에 면담했을 때(히로노부가 도중에 귀국했을 때의 일)도, 오직 쓰시마(對州) 인으로 공무를 전하라고 했을 뿐(공공연히 관원을 면접해서, 만약 대수사에 이어 논란을 일으키는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후래의 신속(臣屬)이 의심스럽고, 이것을 거절할 때는 결말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음을 두려워한다), 감히 심교를 거절하는 뜻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이 네 번째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앞에서 진술한 것처럼 지금 크게 의구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 의구를 이해시키는 술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8조

제5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대수사 서계를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과 출장 관원을 관접(款接)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서(대수사 및 관원을 일단 철수하는 일), 조정이 심교(尋交)하려는 성의가 지엽적인 일에 구애되지 않는 굉장(宏大)한 규모임을 보이고, 또 대정일신(大政一新)으로 구폐(舊弊)를 모두 깨끗이 없애고, 쓰시마(對州) 무역과 세견선 등도 역시 공평한 조리(條里)에 반하는 바가 있

¹²¹ 호코.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 이것을 폐지하여 빼앗음에 만족을 모른다는 의심을 제거하고(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실로 양국 유무교통(有無交通)의 편리와 불편을 강정하는 등), 막부 말기 때부터 이양선이 자주 남해에 왕래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조정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정체政體가 복고하여 나라 안이 일가一家가 되었다. 앞으로는 변해와 벽지에 이르기까지 일개 경거망동하는 무리가 있을 수 없음을 깨우쳐주어 안심시키고, 소 씨는 이미 쓰시마[對州] 지사직을 면했지만, 조정의 인의가 돈독하고 더구나 수백 년의 교정交情을 생각하여 소 씨를 외무대승으로 임명하고 스스로 도한할 것을 명했다. 종전에 중도에서 웅색壅塞하는 정실情實을 잘 통하게 해서 저들이 의구하는 마음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우의友誼의 정情이 점차 진면목眞面目을 드러낼 것임은 필연이라 생각함.

제9조

종전에 일본국 대마주 태수太守 다이라平 아무개 운운의 문면文面으로 서계를 건네 왔는데, 이번에 번을 폐하고 지사를 면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교제의 조약을 강구하지 않으면, 왕래하는 명의名義도 없게 된다. 만약 헛되이 배를 보내도 교제의 명의名義·직주職主가 없으면 저들이 받지 않음은 물론이다. 또 오늘날 만국과 정대한 화친조약을 체결하는데, 지극히 가깝고 인접한 조선만 애매하게 왕복해서는 앞으로 국위의 확장 여부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대로 왕래하지 않을 때는 300년의 구의舊誼를 우리가 끊는 모습이 되어, 후년에 아무리 부강의 실공實功을 보이는 때가 되어도 착수할 명분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들 일대 사건에 관해 고루한 의론에 이른 것은 매우 공구恐懼하지만, 우직愚直에 맡겨 구신具申함.

제10조

제7조와 같이 저들에게 거절의 뜻이 없다고 찰지^{察知}¹²²하고, 제8조의 순서로 성신을 펴면 심교의 숙성은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별도로 거절의 확론^{確論}이 있어 저들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에 따라 이대로 버려두고 우리로부터 절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아울러 논할 때, 지금 곡직^{曲直}의 명분이 귀결되는 바와, 앞으로 관맹^{寬猛}의 실시를 거행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득이 되고 어느 것이 실이 될지는 미천한 제가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명백히 깨우쳐 주시길 청합니다.

미(신미, 1871년) 8월 21일 쓰다.

히로쓰 히로노부

25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인의를 구하는 의견서 제7조 부전^{附箋}

○ 부전 : 제7조

1871년 5월 히로노부가 다시 귀국하여 3월에 건의¹²³한 조목들을 구 외무경 공에게 바치고, 이즈하라에 다소 급여^{給與}하는 처분 및 소 지사님 스스로 도한하는 건 등을 품의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6월 1일 출발하여 다시 도한^{渡韓}하라는 명을 받음.

¹²² 살피서 앎.

¹²³ 원문은 연의(連議)로 되어 있으나 건의(建議)의 오기로 보인다.

△부전

요전 품의서稟議書의 중의衆議에 관해 다시 품의한 글¹²⁴ 중에, 여전히 별도로 한 가지 정론定論이 있어 우리를 거절하는 뜻이 현연顯然한 그때는 본성本省에서도 그때의 각오도 있을 것이고, 출사出仕한 관원도 그때의 각오가 있을 것이라고 운운한 것은, 요시오카를 비롯해 대수사를 철수시키는 문제에 중의衆議가 있어, 규각圭角을 드러내고 철수하는 것이 마땅한지, 혹은 철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지 (중평의) 고론高論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규각을 드러내지 않는 주의主意를 논하여, 만약 거절의 뜻이 있으면 요시오카·대수사의 철수에 규각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 시기時機에 응해서는 어떠한 큰 규각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직 이번의 성공은 성의誠意 일편一片”이라는 것에서 논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졸필이라서 미치지 못한 바가 많으므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26 소宗 대승 도한 여비 의안議案

의판議判¹²⁵

지난날에 제출한 (외무성) 내부 품의서 중에 (소) 대승님의 종자從者 수와 잡비 부분은 종래 해 온 것처럼, 이번까지는 공·사무역 이윤 중에서 처리해두고 추후에 정산서를 제출하는 일건一件을 승낙해주신다면, 지금 대장성에서 수취할 여비의 공금 부분은 별지와 같이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적절히 평의하시어 지급至急으로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신미, 1871년) 8월

히로쓰 히로노부

¹²⁴ 히로쓰 히로노부가 8월 17일 건의한 것으로, 본서의 22번 문건을 말한다.

¹²⁵ 1870년 6월 10일 외무성이 직무를 분과(分課)하면서 각 과의 책임자급 4~5명으로 두어 각 과의 사소한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했다.

추신. 만일 무역이윤으로 처리하는 것을 승낙하기 어려우시다면, 별지 여비 조사서 대로는 실제 운영이 불가능함은 필연이라고 생각하므로, 모쪼록 두 가지 모두 지급至急으로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一. 금 6,185냥¹²⁶

一. 양은洋銀 490원元

이것의 내역內譯

본인은 1일 금 3냥씩

소宗 대승

종자는 1일 금 1냥 1푼씩

종자 2명

본인은 1일 금 3냥씩

오시마 마사토모

종자는 1일 금 1냥 1푼씩

종자 1명

이상은 칙·주임관¹²⁷ 기준.

히로쓰 히로노부

고바야시 다다시

이 두 사람 모두 1일 금 3냥씩, 그 범위 안에서 종자 혹은 소자小者를 데리고 갈 것.

일수日數 180일分

총계 금 2,835냥

¹²⁶ 냥(兩)은 엔(円)으로, 당시 1엔은 순금 1.5g 정도였다.

¹²⁷ 칙임관은 칙명에 따라 임명되는 관리이고, 주임관은 태정관이나 내각의 상주에 따라 임명되는 관리.

이 중 조선 도착까지의 일수 및 귀로에 쓰시마[對州]에 도착한 후의 일수 모두 (외국이 아니라) 내국 기준의 정액 숙박료를 하사한 분은 귀경한 다음 정산하여 신고할 것임.

금 1,500냥

이것은 나가사키에서 조선까지 증기선 차입 비용의 대체적 견적.

금 1,500냥

이 부분은 장기간의 공무에 따른 행장^{行裝} 등의 해륙 운송비 및 조선국에서 저들 관원과 서로 접대·향응하는 등의 준비금의 견적.

양은 400원

이것은 요코하마에서 나가사키까지 왕복하는 증기 우편선 상등석 4명의 뱃값으로 1명이 50원씩.

양은 90원

위와 같이 왕복하는 하등석 3명의 왕복 뱃값.

이상.

이 중에서 나가사키에서 조선까지의 도항 건은 여러 현의 증기선 혹은 범전선^{帆前船}¹²⁸ 등을 나가사키현에 정박하는 동안에 조사하고, 나가사키 현청에 용선^{傭船} 주선을 의뢰하는 외무성의 문서를 받아 지참하고자 함.

미(신미, 1871년) 8월

¹²⁸ 서양형 범선.

27 소종 대승 도한 여비 의안議案을 정원正院에 올리는 상신서

이번에 소 외무대승이 공무가 있어 조선 출장을 명받았으므로, 대승 상당의 여비를 하사하는 외에, 조선과 소 씨의 교제는 대대로 친화親和하는 중에 특별히 격식을 중시해 서로 정중한 의장儀裝을 뵈내왔는데, 이것들은 이번에 통렬히 제거하고 모두 바꿀 시기이지만, 담판에 착수하기까지라도 그곳에 친히 임하는 동안은 노부鹵簿¹²⁹나 기타의 의장을 다소 구관舊慣을 따르지 않으면 불편한 정실情實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전서前書와 같이 대승 상당의 수당만으로는 10분의 1, 2도 보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수당을 요청해야 하나 방금 출비出費가 많은 시기이므로, 이것을 요청하는 대신 쓰시마[對州]에서 종전에 매년 조선과 무역한 것은 원래 소 씨가 자금을 내고 (사절을) 보내 무역한 것이므로, 그 이윤은 조금이지만 위의 도한渡韓 공무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소 씨에 위임하여 다소라도 위의 공무에 지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¹³⁰ 그러므로 위의 것으로써 한국에 건너가는 제반 비용을 지불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공무가 끝난 다음에는 전서와 같이 지불 내역을 정산하여 조정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매우 급히 평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미(1871년) 8월

28 판임관判任官이 조선에 종자從者를 인솔하고 가는 건을 대장성大藏省에 조회하는 글

대장성 귀중貴中

외무성

¹²⁹ 노(鹵)는 방패를 뜻하고, 부(簿)는 행렬 순서를 기록한 장부라는 의미로, 임금이 나들이할 때 갖추던 의장(儀仗) 제도. 또는 의장을 갖춘 거동 행렬을 의미한다.

¹³⁰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의 『朝鮮事務書』(JACAR Ref.B03030166600) 357면에서는, 이 문단 위에 “하사하지 않는다(下賜/ルニ非ス)” ㉠라는 두주(頭註)가 기재되어 있다.

외국행外國行의 경우 판임判任¹³¹이하는 종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규칙인데, 조선은 유럽歐羅巴洲과 풍습이 다른 나라라서 판임 이하의 관원이라 해도 종복을 데려가지 않으면 심히 체재體裁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되고, 도리어 의아疑訝를 일으켜 일이 진척되지 않으니 반드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소 외무대승 수행을 배명한 히로쓰 히로노부·고바야시 다다시가 조선 체재 중에는 외국행에 준하는 여비를 건네주어야 합니다. 그 여비로 종자를 데려가고자 하니, 이를 허용해주십사 해서 상담합니다.

신미(1871년) 8월

추신. 이달 20일 전후에 출발할 예정이므로 본 공문에 대해 매우 급히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대승의 도한 순서 평의

도한渡韓 수순手順 품의서稟議書

—(제1조)¹³². 대승에게 위임장委任狀을 줄 것.

조루粗漏¹³³한 초안을 첨부합니다. 삼가 첨삭을 청합니다.

—(제2조). 대승이 도한하여 예조참판과 면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지연되어 시간을 소비하는 형세라면 동래·부산 양사兩使를 만나 의논할 생각임.

¹³¹ 천황의 위임을 받은 대신이나 행정관청의 장에 의해 임명되는 관리로 칙임관·주임관 아래의 하급 관리이다.

¹³² 다음의 30번 문건에서는 이 문건에 번호를 매겼기 때문에, 독자의 편의를 위해 옮긴이가 (제1조)~(제9조)를 부가했다.

¹³³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꼼꼼하지 않고 거칠다.

- (제3조). 쓰시마[對州]는 순로順路일 경우 그곳에서 날씨를 보고 정하지 않으면
도한할 수 없으므로 나가사키에서 일단 쓰시마에 도착할 것.
- (제4조). 쓰시마에 도착하고 나서 선문사先問使를 보내 대승이 도해하는 전말과
위임장의 대체적인 취지를 간추려 일단 알릴 것.
- (제5조). 선문사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기회를 엿보아 대승이 도한할 것.
- (제6조). 체한滯韓 관원 요시오카 고키에 대승과 동행하라는 문서, 모리야마 시게
루에게 수행하라는 문서를 내리든가, 본성(외무성)에서 2명이 유의할 새로운 명령
을 내리든가, 또 2명이 일단 쓰시마까지 철수하도록 해서 대승이 새로운 명령
을 전하고, 나아가 대승이 도한할 때 동행시킬 것.
- (제7조). 진辰(戊辰)(1868년) 겨울에 파견한 대수사 히구치 데쓰시로는 선문사 파견
전에 철수하도록 명령할 것.
- (제8조). 세견선 폐지의 일은 대승이 도한해서 심교尋交를 상량商量¹³⁴하는 중에
그 자세한 사정을 알릴 것.
공무역도 마찬가지임.
- (제9조). 종전의 사무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양국이 공평하게 무역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상선이 왕래하는 일의 답판에 진력할 것.

미(신미, 1871년) 8월

¹³⁴ 헤아려서 잘 생각함을 뜻하나 여기서는 상담의 의미.

30 대승의 도한 순서에 관한 품의안^{稟議案}

첨부 동건^{同件} 하나부사 검인

띠지 제3 ^{第三}	
띠지 도한 수순 그 외 품의서	

㉮

(소 대승의 도한) 수순 품의서에 대한 중의 부찰안^[手順伺書衆議付札案]¹³⁵

제2조 아래 : “동래·부산 양사^{兩使}를 만나 의논” 운운은 이번에 성공하기 위한 임기응변의 일로 후래^{後來}의 예^例가 되지 않도록 한다고 답판한 다음에는 무방하다. ㉮

㉮ 부전

저들과 답판함에 반드시 예조와 대면해서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굳게 그 설을 주장함은 당연하다. 동래·부산 양사의 면회는 참으로 부득이할 때의 책략이라고 생각함.

제4조 아래 : ‘선문사’는 오시마 마사토모를 쓰시마^[對州] 인 이름으로 도향하든가, 별도로 쓰시마 인을 선발하는 것도 시의^{時宜}에 따라 무방하다. ㉮

¹³⁵ 히로쓰 히로노부의 품의서(29번 문건)를 외무성의 중진들이 평의한 것에 대해, 하나부사와 히로쓰가 부찰을 달아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부찰은 의견을 적어서 덧붙이는 쪽지를 말한다.

부전

이 선문사는 매우 큰 일을 담당하므로, 역시 협의한 다음 관원 중 1명이, (신분을) 드러낼지 숨길지는 임기응변해서 동행하고자 함. 히로노부

제6조 : 요시오카·모리야마에게는 공문을 내려야 한다.㉔

제6조 아래 : 요시오카 등은 일단 이즈하라에 귀항歸航하고, 국면을 전환하여 대승과 함께 수행하는 것과 제7조 아래 대수사 히구치를 철수시키는 두 조목은 묘의廟議를 청해야 한다.

31 대승의 도한 순서에 관한 내부 품의안

첨부 동건同件 하나부사 검인

(외무성) 내부 품의[內伺]

대승 종자從者 건

이것은 조선국이 쓰시마[對州]와 종전에 왕래·접대한 상황도 있어, 이번 대승의 도한渡韓까지는, 간이簡易·경편輕便¹³⁶을 추구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종전의 ‘대마주 태수 종 對馬州太守宗某’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은 필정必定이라 생각합니다. 지난겨울 요시오카를 비롯해 3명이 도한渡韓한 후에 외무성 관원이라 칭하였음에도, 일본국에 내란이 시작되어 평정

¹³⁶ 경편: 가볍고 편하거나 손쉽고 편리함.

할 때라서 부랑의 사족^{士族}이나 혹은 제번^{諸藩}의 사족 등이 쓰시마와 공모하여 조정의 관리라고 속이고 뭔가를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초반에는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대승이 도한하는 날에 규칙에 정한 종자만 데리고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이즈하라현에 도착하여 도한할 때는 인원을 적절히 데려가고자 합니다.

이것의 잡비는 다음 조목 아래에 모두 적겠습니다.

세견선·공무역 폐지에 따르는 종전 부채의 변제 방법에 관한 건

몇 해 전부터 (조선에) 건넬 물품이 적체된 부분은 지난겨울까지 일단 결산했다고 했는데, 봄 이래의 교역 중에서 저들이 받을 것을 이쪽에서 아직 건네지 않은 물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당년분^{當年分} 중에서 부족한 물품을 명년^{明年}에 건네는 것으로, 숙의하고 해결해온 습관인데, 이번에 폐지해서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있다면 출입(의 차이가) 없도록 결산하고자 생각함.

위의 2개조는 지금 당장 여기까지라고 정하기 어려우므로 모쪼록 올해 공·사 무역 이윤 중에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외국행 규칙에도 저촉되지 않고, 현지에서 임기응변의 실용^{實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사를 실질·간략에 기초함은 확실히 명심하고 있지만, 조선에 대하여 성공한 다음 조약의 강명^{講明}까지는, 어쨌든 완전히 구습을 탈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양찰^{諒察}하시어 평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승 종자의 입비^{入費} 및 부채 결산분을 무역이윤 중에서 보충한 부분은 결국 정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것임.

경공 인장 건

이것은 구 외무경 공 서계에 성명 아래에 실인^{實印}을 찍고, 서계 첫머리의 오른

쪽 위에 외무성인을 찍었지만, 오른쪽 위에 찍는 것은, 저 나라의 포령문布令文에 사용하는 예가 있어 틀림없이 이를 거부할 것이므로, 외무성인을 사용하지 않고 성명에도 (서계를) 말은 표면에

卿外
印務

이란 것을 찍고자 합니다. 저들의 예조참판도 관명인官名印만 사용하고 실명을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일본의 휘·기御國諱忌

이번에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먼저 이것을 알려야 하므로, 이것 역시 지시를 받고자 합니다.

어일신御一新¹³⁷ 후의 칙조勅詔 및 제도 등은 상세히 공포했으므로, 저들 스스로 (일본) 국내의 형편을 알고 심교尋交와 관계된 의심을 푸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단, 이것은 (조선에) 보여줄 부분을 가려 모은 것을 지참하여, 전어관傳語官 등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내시內示할 계획이지만, 새로 개정하신 제도는 확정된 것인지, 이 또한 품의를 올림.

미(신미, 1871년) 8월 14일

히로쓰 히로노부

내부 품의서에 대한 중의[內伺書衆議]

대승이 데리고 가는 인원의 입비入費 및 부채의 변제 방법도, 지금까지 이즈하라현에서 도한渡韓·체한滯韓하는 입비는 무역이윤에서 지급하고, 부채는 원래 무역

¹³⁷ 고잇신. 이른바 메이지유신을 표현하는 당대의 용어 중의 하나.

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적체이므로, 이번의 입비 및 변제 방법도 옛 방식을 따라야 한다. 최우선으로 대장성과 협의할 것. ㉔

서계 압인 건은 각국과 체재體裁를 같게 해서 불경에 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㉕

32 외무경이 조선 예조에 보내는 서한 초안

대일본국 외무경이 조선국 예조판서 모 공某公 합하閣下께 글을 올립니다.

우리 국가는 중세 이래로 병마지권兵馬之權을 무가武家 가문에 위임하고 강역疆域의 정치 또한 관장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조정이 막부를 폐지하여 봉건을 중지하고 군현을 두었습니다. 폐해弊害를 혁제革除하고 정권을 복고하여 모든 제도를 유신維新했습니다. 저 외국 교제 같은 것도 외무성이 총관總管합니다.

그래서 소 요시아키라宗義達를 외무대승으로 특별히 임명하고, 귀국으로 달려가서 합하를 배오拜晤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알리도록 명했습니다. 아울러 본방本邦의 성의 있는 바를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본방과 귀국이 인의隣誼가 깊음은 이미 300여 년이나 됩니다. 또 경계가 가까움은 겨우 하나의 조각배로 건널 정도입니다. 마땅히 다시 구의舊誼를 이어 양국의 맹약을 더욱 돈독히 하고 더욱 굳건히 해서 영원히 변치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합하께서는 고명高明하시어 필시 소견이 있을 것입니다. 성신誠信이 있는 곳에 말이 따르고 속마음이 나옵니다. 합하께서 모某가 진술한 바를 친히 받아들여 옛 교제를 되살리려는 성의를 깊이 살피고, 더불어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한 좋은 방법을 헤아려 밝게 회답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33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가 일본 표민漂民을 조선에서 받아들인 것을 히로쓰 히로노부
廣津弘信에게 알린 내한來翰

어제 21일 조선 출장 관원의 서장이 도래했습니다. 마침 조선사무 건을 평결
중이시니 지급至急 회람하시라고 지면 그대로 제출합니다.

미(신미, 1871년) 8월 22일

히로쓰 히로노부

표민漂民 문제에 대해 부사·훈도가 자못 후회하는 기색이 보이므로 답판을 위해
안성맞춤입니다.

요즈음 늦더위가 남아 있는 때 노형老兄께서 더욱 안상安祥¹³⁸하게 진력하심을
멀리서 축하합니다. 이곳의 2명은 무사히 지내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이곳의
형세는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의 사쓰마[薩州] 표민은 선례라면 다대포多太浦 및 우암포牛巖浦에서
문정問情을 하고 수취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은 관변館邊으로 보내와서 수취
하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구실로 “종래 표민을 관외館外에서 취급한
것은 타주인他州人을 관내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선약이 있기 때문인데, 근래 관내
에 타주인이 건너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표민도 관중館中에서 인수하기 바란다”
라고 전하므로, 모든 관원이 그 비례非禮에 분노하고 당당한 의론으로 그 비례를
책망했는데, 저들이 의외로 굴복하여 애걸하므로, 마침내 훈도로부터 의뢰서依賴書
를 받았습니다. 근래 백성이 곤폐困弊하니, 이것을 가련히 여겨 이번만 권의權宜¹³⁹
의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작성해서 제출하므로, 인서仁恕¹⁴⁰로써 임소任所에서

¹³⁸ 안상(安祥)과 같은 의미로 성질이 찬찬하고 자세함을 이룸.

¹³⁹ 임시적인 편의.

문정하고 수취하였습니다. 위의 문정 의뢰를 허용한 것은, 크게 후일의 답판에 편리할 것입니다. 이를 조선사무과에 고지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一. 이즈하라 지사와 함께 상경하셨다는데, 이번에 비로소 마음에 드는 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노형이 진력하신 소치所致라서 감패感佩¹⁴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천하의 일은 이루기 어렵고 실패하기 쉬우니 앞으로 더욱 분려奮勵¹⁴²하시어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맹추孟秋(음력 7월) 23일

요시오카

히로쓰 히로노부 시사侍史¹⁴³

一. 한국은 고래로 무성한 여러 성姓의 시조를 존봉尊奉해서 신과 같은 반열에 올리고 제사를 지내왔는데(이른바 여러 성이란 우리의 겐·페이·토·키쓰·키源平藤橘¹⁴⁴ 등의 부류이다), 대원군[大殷君]의 설에 “우리나라에서 제사할 것은, 이 씨뿐이다. 기타 성과 동렬에 놓고 존봉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여러 성과 그 시조를 배척한다고 한다. 그 때문에 구가舊家¹⁴⁵ 호족豪族의 무리가 말하기를, “여러 성의 선조[鼻祖]를 제사하는 것은, 그 시조가 각기 나라의 이익을 넓히고, 나라의 해를 막은 그 공로를 장려하는 것인데, 어찌 이 씨만을 존경하고 다른 조상을 배척하면 이익이 있겠느냐”고 자신들의 조상을 욕보인 것에 분노했다. 이 일을 (대원군이) 국왕에게 아뢴 취지를 심문審問하고자 몇몇 무리가 당을 이루어 서울[京城]에 들어가 쟁송爭訟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 진위가 과연 어떤지는 모르지만, 살피건대 이것

140 가엾게 여겨 다른 죄나 허물은 묻지 아니함.

141 감사하여 잊지 않음.

142 기운을 내어 힘씀.

143 편지 겹봉에 공경하는 뜻으로, 받는 사람의 이름 아래 쓰는 말.

144 헤이안(平安)시대 이후 권세를 누린 대표적인 씨족으로 미나모토(源), 다이라(平), 후지와라(藤原), 다치바나(橘) 4씨(氏, 우지)와 기우지(紀氏)를 말한다. 원문에는 ‘橘’이 두 번 나오는데 뒤의 것은 연문(衍文)으로 보인다.

145 여러 대를 이어 온 집안.

이 사실이라면 국란으로 무너질 것임에 의심이 없다. 대원군[大元君]의 멸몰¹⁴⁶도 또한 멀지 않을 것이다.

34 7월 23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의 내신來信

각위各位께서 더욱 여정勵精¹⁴⁷하시어 혼모欣慕¹⁴⁸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히로쓰 히로노부가 이즈하라에서 돌아와서 다시 상경했는데, 지금쯤 도쿄에 도착하여 각위와 힘을 합쳐 주선周旋 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적절히 도움을 주시어 속히 조정의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진력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본 표민漂民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의론議論이 어지러이 나왔는데, 일전에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전해 들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만, 더 자세한 것은 이번에 히로노부에게 전합니다. 히로노부에게 보낸 편지 중에 기록해 두었으니, 대략이나마 봐주십시오. 또 표민 문정서와 한인韓人이 탐문한 일기 등도 보냅니다.

- 一. 전염병 건도 작금은 이즈하라로부터도 재관在館 사람들에게 엄령嚴令이 왔다고 하니, 힘껏 방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편리한 배편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7월 23일
조선과 귀중

모리야마 시게루·요시오카 고키

¹⁴⁶ 망하여 없어짐.

¹⁴⁷ 마음을 가다듬고 성의껏 힘씀.

¹⁴⁸ 원문의 혼모(欣慕)는 흠모와 같은 의미인 혼모(欣慕)의 오기로 보인다.

추신. 시계루는 일전에 이즈하라까지 건너갔는데, 바로 그때 병이 나고 7월 5일에 이르러 점차 회복, 8일 출범하여 사스나¹⁴⁹로 돌아왔습니다. 10일간 그곳에 체류¹⁵⁰하면서 겨우 순풍을 얻어 21일 아침에 출범, 22일 아침 왜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도 이참에 말씀드려둡니다.

첨부1 한인^{韓人}이 얘기한 탐색서

한인 아무개의 탐색서 사본

신미(1871년) 5월 24일 출발하여 범어사^{梵魚寺}에서 숙박. 25일 양산을 지나 밀양에서 숙박. 26일 청도를 지나 대구에서 숙박. 27일 칠곡^{漆谷}¹⁵¹을 지나 인동^{仁洞}에서 숙박. 28일 선산을 지나 함창^{咸昌}에서 숙박. 29일 문경을 지나 충청도 연풍^{延豐}¹⁵²에서 숙박. 30일 충주를 지나 음죽^{陰竹}에서 숙박. 6월 초일일 경기도 죽산에서 숙박하고, 초이일에 양지^{陽智}¹⁵³를 지나 용인에서 숙박. 초삼일 용산^{龍山}을 지나 광주^{廣州}에서 숙박. 초사일 한강을 지나 경성에서 숙박. 초5일 강화^{江華}¹⁵⁴에 들어가니 이양선이 출발하고 군병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강화읍은 앞으로 서해와 통하고 좌우의 강물¹⁵⁵ 두 강물이 돈 후에 합류하는 근처가 손돌^{孫突}¹⁵⁶이다. 오른쪽에 문수산성이 있고 왼쪽으로 큰 산을 끼고 있다.

주민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니, 이양선 5척이 4월 초사일에 서해에서 여덟 모퉁

149 원문의 左須奈는 佐須奈의 옌기.

150 원문의 滯京은 滯留의 옌기로 보인다.

151 원문의 양곡(梁谷)은 칠곡(漆谷)의 옌기로 보인다.

152 원문의 연풍(連豐)은 연풍(延豐)의 옌기.

153 원문의 양기(陽岐)는 양지(陽智)의 옌기로 보인다.

154 원문의 강하(江夏)는 강화(江華)의 옌기.

155 한강과 임진강물.

156 손돌목(孫突項).

이로 들어왔는데 여덟 모퉁이는 곧, 강화 해중海中이다. 3척은 강화성 포구에 정박하고, 2척은 강화 바다에 떠 있었다. 서울 안이 소동騷動하기에 급히 경기도 음죽의 어魚 병사兵使¹⁵⁷ 형제를 불렀다. 어 병사 형제는 용기와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강화 순무중군巡撫中軍¹⁵⁸이 되어 서울을 출발하였다. 포수炮手 300명이 내려가 강화 백사장에 주둔하였는데, 앞에는 서해가 있고 뒤에는 산골짜기가 있어 나갈 곳을 묻지 않았다. 20여 일을 서로 버티어서 양인洋人 역시 하륙下陸하지 않고 함께 배를 지킬 뿐이었다. 하루는 서양인 3명이 물을 길기 위해 하륙했는데, 도감都監의 포수가 장수의 명령 없이 발포하여 서양인 3명을 살해했으므로¹⁵⁹ 서양인은 매우 놀라고 분을 품었다. 4월 그믐날에¹⁶⁰ 기함旗艦¹⁶¹ 주변에 서양인이 더욱 불어나자 순무중군이 제군諸軍에 호령하여 서양선을 향해 가도록 했지만, 뒤쪽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 뒤쪽이 허술했다. 그믐날 밤 삼경三更에 몰래 소선小船에 타서 대포 4, 5좌를 싣고 산골짜기를 몰래 돌아온 서양인 수백 명이 허를 찔러 대포 3, 4발을 발포했다. 순무중군은 뜻밖의 포화로 사상死傷하고 포화로 죽은 이가 100여 명이 되자 군사가 사방으로 달아났다. 어 병사의 아우¹⁶²가 함께 군중軍中에 있었는데, 형의 죽음을 보고 분기충천憤氣衝天하여 칼을 빼 서양인 10여 명을 격살했다. 끝내 칼과 칼집이 부러져 군중에서 자결했다. 서양인이 어 병사 형제가 죽은 것을 보고 진중陣中으로 들어가 조선인 15명을 사로잡아 모두 이양선 안에 실었다. 또 더욱 단속하여 돛의 위쪽에 화경火鏡¹⁶³을 설치해 강변이 완전히 빨강

¹⁵⁷ 어재연(魚在淵, 1823~1871)을 말하고, 어재연은 1866년에 공충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적이 있다. 1871년 2월 14일 금위영 중군에 임명된 어재연은 3월 14일 신병으로 사임하고 귀향한 상태였다.

¹⁵⁸ 순무중군이 아니라 진무중군(鎭撫中軍)이다.

¹⁵⁹ 4월 14일 미군 정찰대가 수로 탐측차 손돌목을 통과하자 덕포진에서 대포를 발사한 손돌목 전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덕포진의 포군 1명이 전사하고 미 군함이 손상을 입었을 뿐, 미군의 전사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¹⁶⁰ 이후의 기록은 초지진·덕진진·광성진 전투에 관한 기사로 보이는데, 이 전투들은 4월 23일~25일에 치러졌다. 광성진 전투에서의 미군 전사자 3명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¹⁶¹ 원문의 좌선(坐船)은 배에 탄다는 의미인데, 의미가 통하지 않아 좌선(座船)의 오기로 보고 번역했다. 좌선(座船)은 선단의 우두머리가 타는 배를 말한다.

¹⁶² 어재순(魚在淳, 1826~1871)을 가리킨다.

¹⁶³ 햇빛을 비추면 불을 일으키는 거울이라는 뜻으로, '볼록 렌즈'를 이르는 말.

게 달아오른 화로 같아서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는 매우 놀라 각 읍에서 더 많은 병사를 동원하고, 어장(禦將)을 강화 순무중군으로 삼았다.¹⁶⁴ 또 어영군병(禦營軍兵)¹⁶⁵을 동원하여 강화에 주둔시키고 (미군의) 하륙을 기다려 공격 하도록 했으나 수전(水戰)은 하지 말도록 했다. 또 서로 버틴 지 20일 만인 5월 21일 뜻을 3개 단 이양선 1척이 서해에서 중류(中流)로 들어오고, 이날 밤중에 5척 모두를 끌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백사장 부근에 글을 남겼는데 “서양선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모두 교역했으나, 오직 조선은 강성하여 교역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몽고국(蒙國)¹⁶⁶이 서양을 침벌(侵伐)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글도 있었다. 각설하고, 사로잡힌 조선인 15명 중 2명은 병이 들어 죽자 문수산 아래에 매장하고, 5명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육지에 방송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싣고 갔다.¹⁶⁷ 순무중군은 저들의 계략을 알지 못해 10여 일 동안 군대를 주둔시킨 다음 경성으로 돌아왔다. 김해 장사 4명, 청도 장사 2명이 상경했는데, 서양선이 이미 달아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각 읍의 군병은 후한 상을 받고 30일 동안에 고향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했다.

신미(1871년) 6월 18일 쓰다.¹⁶⁸

¹⁶⁴ 진무중군 양주대(梁柱臺)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¹⁶⁵ 어영(禦營)은 어영(御營)의 오키로 보인다.

¹⁶⁶ 몽골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불분명하다.

¹⁶⁷ 『고종실록』 1871년 4월 27일조에 따르면, 9명이 방송되고 1명은 부평 경계에 묻고 5명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¹⁶⁸ 원문은 필(畢)로 되어 있는데, '일서(日書)'의 탈초 오류로 보인다.

사쓰마 표류선 문정서[薩漂船問情書]

가고시마번 지사 성 아래(에 거주하는) 사코 젠지로酒匂善次郎가 소유한 배 오토와마루音羽丸의 선장 나오에몬直右衛門과 선원 10명이 우리 소류큐小琉球¹⁶⁹ 시치토七島 내內 게라쿠永良라고 하는 곳에 주된 용무인 사탕砂糖을 적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가고시마 출범, 10월 22일 게라쿠에 도착하여 사탕을 적재하고 올해 미未(신미년) 3월 11일 그곳을 출범했는데, 이튿날 12일에 폭풍이 불어 바람에 맡기고 표류하는 중에, 3월 26일 조선국 전라도 제주도 내 명월포明月浦라는 곳에 표착漂着하여 정박 중, 3월 28일 큰 폭풍으로 본선이 침몰하여 거룻배로 양륙揚陸, 인명人命은 별 탈이 없었으며 거룻배는 얼마 되지 않아 파선破船.

一. 5월 28일 명월포를 출범, 이런저런 통선通船¹⁷⁰으로 지난달 22일 이곳에 도착.

7월 10일

35 8월 29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낸 서신

성상께서 더욱 유쾌하게 지내시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도 다상多祥¹⁷¹하게 봉직하시어 진중珍重하다¹⁷²는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 저희들은 청·한淸韓 파견원 사무의 (문서) 왕복 및 외국인

¹⁶⁹ 대만 본도의 서쪽 약 14킬로미터에 위치한 섬.

¹⁷⁰ 왕래하는 배.

¹⁷¹ 기쁜 일이 많음.

¹⁷² 진귀하고 소중하다.

고용인 면허장 검열 전담을 명받았으니, 변치 않은 간정懇情을 희망합니다.

- 一. 본성의 직무 및 분과分課, 면관免官 등은 별책으로 올립니다. 이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一. 이달 17일 요시오카 님을 비롯해 한국 업무와 관련된 인사들의 전관轉官은 별지에 기록했으니, 이 또한 이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지宣旨 및 성(외무성)의 명령은 소 대승 이하가 도한渡韓할 때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 一. 소 대승 이하 도한의 기한과 이곳의 현재 사정은 히로쓰·고바야시 2명이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신미(1871년) 8월 29일

오자도尾里政道 외무소록外務少錄

소에다副田節 외무권중록外務權中錄

요시오카 소기少記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첨부1 전관轉官 지령서

요시오카 고키

외무소기 임명을 선하宣下함.

모리야마 시게루

외무 9등 출사出仕 임명을 명령함.

히로쓰 히로노부

외무 9등 출사出仕 임명을 명령함.

고바야시 다다시

13등 출사로 명령함.

첨부2 **외무성 직무분과** 職務分課

외무성 관원 및 직무분과

이와쿠라 외무경

테라시마 대보

야마구치 소보

직무제도관성과 職務制度官省課

구스모토 소승

오하라 시게미 大原重實

엔도 遠藤和幹 권대록 權大錄

우에다 上田駿 중록

가토 加藤直純 소록

니하시 二橋元長 소록

오쿠 권소록

각항과 各港課

하나부사 대기 大記

오하라 시게미

11등 출사 가토 시게노부 加藤繁信

11등 출사 고스기 나오키치 小牧直吉

11등 출사 미즈노 요시토모水野良知

시오쓰보鹽坪 소록

호리에堀江弘貞 권소록

13등 출사 기요타 나가아키清田長秋

공서과公書課(단, 외국 왕복 공문서와 대화 필기 및 유럽과 미국[歐米] 파견원의 왕복 공문서 취급 전담)

다나베田邊太一 소승

곤도 중록

미와三輪元隆 중록

히로사와廣澤忠利 중록

고바야시小林正路 소록

사카타阪田諸遠 소록

가야마嘉山 권소록

나이토內藤忠順 권소록

공서과(단, 청·한 파견원 왕복 공문서 및 외국인 고용 면허장 검열 취급 전담)

소에다 권중록

오자토 소록

편집과編輯課(단, 기록 편집·사관(史官) 편진(編進)의 사무 취급 전담)

사카타坂田季篤 중록

오누마大沼讓 권소록

다카시마高島俊章 권소록

출사 게이노 신桂野進

출사 고야마 스스무小山進

출사 다케우치 모토사다竹內元貞

출사 시라이시 마미치白石眞道

편집과(단, 현재의 서류 편집 및 일지 출판의 사무 취급 전담)

히로사와 중록

미야모토宮本好風 권소록

고마高麗環 권소록

요코타橫田盛直 권소록

이토伊東祐繼

편집과(단, 제도(製圖)·회화(繪畫) 사무 취급 전담)

고노河野廣暢 권소록

번역법서과翻譯法書課

이시바시石橋政方 대기

시바타柴田 대기

고야스子安峻 소기

히라이平井希昌 대록

요시카와芳川俊雄 중록

오자키尾崎逸足 권중록

오타太田昇平 권소록

출사 무라세 아와村瀬安房

출사 진다이 시노부神代信乃

한어학과漢語學課

히라이 대록

사이蔡祐良 권중록

슈周道隆 소록

사카키彭城中平 소록

이시자키石嵯肅之 권소록

서무과庶務課

기요카와清河 권소록

미야모토宮本小一 소승

와키야脇屋義一 중록

우에야나기上柳久徵 소록

구로야나기黒柳邦武 권소록

니시무라西村孝章 권소록

니시카와西河定則 권소록

출사 이와타 나오유키岩田直行

출사 엔도 다다미치遠藤直道

양어학과洋語學課

와타나베渡邊洪基 소기

안도安藤忠經 대록

야마우치 가쓰아키山内勝明

모로오카諸岡通義 권중록

시가志賀親朋 권중록

야마자키山崎輝光 권소록

무로타室田義文 권소록

본관을 면하고 다시 양어학과에 고용.

야나기다柳田邦孝 소우少祐

쓰치토리土取 권소우權少祐

이시노石野則彌 태영사太令史

본관을 면하고 다시 양어학과에 고용.

오다 신조小田深藏

도조 이치로東條一郎

히라타 노리테루平田範輝

입기入記

- 一. 어용장御用狀 1통
- 一. 어포령御布令 인쇄물[摺物] 1통
- 一. 성중직원분과록省中職員分課錄 1통
- 一. 히로쓰 히로노부 서장 1통

위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8월 29일

왕복공서괘往復公書掛

조선 출장 귀중貴中





국역

조선사무서
(3)

제10권

10

『조선사무서』 제10권

메이지明治 4년(1871) 9월부터 12월까지

01 나가사키현長崎縣에서 공신公信을 보내는 등의 건을 외무성 출사出使에게 회답하는 글

여러분이 더욱 씩씩하게 근무하여 매우 기쁩니다. 계속 의뢰하신 서장은 편리한 대로 도쿄에 발송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거再擧나 기타 조선 관계 새 소식은 근래에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회답합니다.

신미(1871년) 9월 3일

나가사키현

외무출사外務出使¹ 귀중貴中

02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소宗 대승이 도한渡韓하여 폐번廢藩 및 지사知事에서 면직된 것을 먼저 전파하고 저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의 응답을 품의하는 글을 첨부하여 담당 과에 보낸 서신

¹ 출사는 사절로 외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외국에 간 사절을 의미한다.

별지는 대·소승님들께 올리는 품의서稟議書입니다. 제가(히로노부) 외무성에 출두하여 말씀드려야 하나, 며칠 전부터 청원한 것처럼 병고病苦로 양생養生 중이므로, 글로 써서 품의합니다. 그리고 용무가 있으면 언제든지 억지로라도 출근하겠습니다. 이를 적절히 (대·소승님들께) 구신具申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신미, 1871년) 9월

히로쓰 히로노부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 변리辦理 귀중

조선과 심교尋交²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소 대승님이 도한渡韓을 봉명奉命하고, 나아가 조정의 계책에 대해 품의한 것과 관련하여, 삼가 다시 한번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쓰시마[對州]에서 파견하는 세견선이 종전대로 왕복하고 있으므로, 번·현藩縣의 제도개혁³과 소 씨의 지사직 면직 건이 자연히 누설되어, 만일 저들이 제도개혁의 사정을 묻거나 혹은 세견선의 명실名實이 어긋나는 것 등을 비난하는 일이 있어, 재한在韓 현사縣士⁴가 출장한 (외무성) 관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응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품의할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제도개혁 후 벌써 2개월이나 되었으므로 출장 관원은 물론 재관在館 현사부터 통변官通辦官 및 말단 영세민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주지 않으면, 저 나라의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은 때에 우리가 애매·호도糊塗의 응수應酬를 하게 되어 더욱 의단을 굳히게 됩니다. 만일 부적절한 의론이 일어나면 사소한 일로 종전의 성의盛意를 관철하지 못하고, 뒷날의 계획에 지장이 될 수 있어 매우 걱정입니다. 따라서, 지시하시면 곧바로 자세한 사정을 급편急便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이를 적절히 품의해

² 구교(舊交)를 계승하는 것.

³ 폐번치현을 가리킴.

⁴ 현의 사족. 이즈하라번은 폐번치현으로 이즈하라현이 되고, 곧이어 1871년 9월 3일 이마리현(伊万里縣)에 합병되었다.

주시길 청원합니다.

미(신미, 1871년) 9월 8일

히로쓰 히로노부

03 소宗 대승이 예조참판 및 동래·부산 양사兩使에게 보내는 서한 안을 첨부하여 정원正院에 상신하는 글

조선국에 제도개혁을 통지하는 수순서手順書 및 서계안書契案을 지난달 중에 품의한 것에 관해 아직 아무런 분부도 없습니다. 위는 계속 재촉하신 대로 날이 갈수록 엄한嚴寒으로 달려가면 바다를 건너가기 곤란합니다. 특히 내국의 제도개혁 내용이 이미 저 나라에 전파되었다고도 하므로, 이 이상 애매하게 지연하여 만일 저들이 단념하게 되면 더욱 위신을 세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유예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히 평결하시어 분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외무성

정원正院⁵ 귀중

04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폐번의 제도개혁 등을 알리기 위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서한

일본국 좌근위소장左近衛少壯 쓰시마노카미 다이라노 요시아키라平義達가 조선국 예조참판 모공某公 합하閣下께 글을 올립니다.

⁵ 폐번치현 이후 1871년 7월 29일 태정관제가 개혁되어, 태정관에 정원, 좌원, 우원의 삼원(三院)이 설치되었다. 정원은 입법·행정·사법 3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져 태정관 3원 중 최고기관이었다.

지금부터 4년 전 무진戊辰(1868년) 봄에 우리나라는 막부를 폐하고 태정관을 두어 병마兵馬⁶의 권한과 강역의 정치를 모두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무성을 분치分置하여 해외 교제의 일을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정체政體가 바뀌고 서정庶政이 일신했습니다. 지금 또 봉건제도를 없애고 부현府縣 제도로 돌아와 세습 번주藩主는 모두 면직되었습니다. 백관百官 또한 그 제도를 바꾸어 저 요시아키라도 쓰시마노카미 및 좌근위소장에서 해임되고 다시 외무대승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외무경으로 하여금 (저에게 다음과 같이) 전지傳旨하였습니다. 저번에 조정에서 조선국과 구맹舊盟을 잇고자 하여 너에게 명하여 그 일을 말도록 했다. 또 외무성의 아무개 등을 보내 동래·부산 양사兩使를 만나 우리나라의 성의가 있는 바를 진술하게 했으나 저들이 아직 승낙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저 나라를 되돌아보니 인의隣誼를 잃지 않은 것이 지금 300여 년이 되었다. 두 나라를 중개하는 직임이 일찍부터 너희 가문의 세습직이었으나 지금 이미 너의 세습직을 해임하고 너의 가문이 담당한 세전선을 폐하였으니, 너의 가문은 양국 교제의 일을 다시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 무릇 국가의 정체政體가 옛날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정에서 너의 가문이 조선과 교제를 오래 맡았고 저 나라 사람들과 우의가 매우 돈독한 것을 생각하여 너를 외무대승에 임명하여 다시 양국의 구교를 잇는 임무를 말도록 했다. 너는 모름지기 조정의 성지盛旨를 충분히 체인하고 속히 사절을 보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아울러 피차가 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사이이니 마땅히 구교舊交를 닦고 신맹新盟을 강정講定해야 하는 이치를 정성껏 설득해서 국가 선린의 성의를 이루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좋은 계책으로 삼아야 한다. 요시아키라 삼가 그 명을 받들고 이미 그 일을 좇아서 가신家臣 아무개를 시켜 보고합니다. 이 일은 합하閣下께서 밝게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요시아키라는 지금 이후부터 귀국과 글을 주고받을 때 외무대승이라는 관함官銜을 적을 것이며, 또 요시아키라는 사정이 있어 시게마사重正로 개명했음을 함께 아뢰니다. 이만 줄입니다.

메이지

⁶ 군대, 무기, 군비(軍備) 따위의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05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폐번의 제도개혁 등을 알리기 위해 동래·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서한

일본국 외무대승 다이라노 시게마사平重正가 조선국 동래·부산 양 영공令公 합하閣下께 글을 올립니다.

아방我邦의 정체가 새로 바뀐 상황 및 시게마사가 양국 교제 장명將命⁷의 직임을 맡을 수 없게 된 사정은 일찍이 가신家臣 아무개를 시켜 알렸습니다. 양공兩公 합하閣下께서는 이미 밝게 살피셨을 것입니다.

대저 본방本邦과 귀국이 교류한 깊은 정이 이미 300여 년이고, 시게마사가 두루 알선하였습니다. 지금은 조정이 시게마사의 관직을 면직하고 오히려 수백 년 구 교류의 정을 생각하여 특별히 외무대승에 임명하고 양국 심교尋交⁸의 일을 맡도록 했습니다.

본 성(외무성)은 다시 이전에 파견한 관원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명하여 양공兩公 합하를 만나 뵙고 그 자세한 사정을 알리고 또 심교하는 성의盛意의 소재所在를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양공 합하께서는 양국의 좋은 방도는 오로지 선품을 따르는 것을 중하게 여기니 요시오카 고키 등을 관접款接⁹하여 그 진술하는 바를 받아들이시고 절대로 본 성의 간곡한 정의情誼를 내치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성신誠信이 있어야 말이 진심에서 나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양공 합하께서는 그것을 살피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메이지

⁷ 군왕을 대신하여 사명(使命)을 수행하는 일.

⁸ 옛 교제를 계승하는 것.

⁹ 너그럽게 대접함.

06 소종 대승이 외무성 관원을 면접할 것을 청하기 위해 동래·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글

일본국 좌근위소장 쓰시마노카미 다이라노 요시아키라가 조선국朝鮮國 동래東萊·부산釜山 두 영공令公 합하閣下께 글을 올립니다.

봄이 한창인 때 여러분께서 평안하심을 멀리서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세 이후로 군국軍國의 정사를 모두 무문武門에 위임하면서 외교의 사무 역시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의 운이 크게 변하여 조정에서 친히 만기萬機를 결정하면서 서정庶政을 유신維新하였습니다. 사방의 만국에서 예로써 오는 자들은 역시 예로써 대우하고 있으며 예전禮典이나 조약條約과 같은 일은 모두 외무성外務省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귀국과 인의隣誼가 두터운은 이미 수백 년이나 쌓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외무대승이 특별히 두 공公께 문서를 보내 양국의 심맹尋盟¹⁰을 모색하고자 하여, 요시오카 고키, 모리 야마 시게루, 히로쓰 히로노부 등에게 위임하여 두 공을 찾아뵙고 조정의 성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뢰도록 명하였습니다.

근자에 들건대 귀국에서는 종전에 외무성에서 관원을 사자로 보낸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하여 준엄하게 거절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접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무릇 예례는 일로 인해 생깁니다. 예로부터 이 일이 없는데 먼저 이 예가 있는 적은 아직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외무성을 설치하여 외교를 관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방貴邦이 외무성에서 관원을 사자로 보낸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정체政體가 이미 개혁이 되어 외교의 사무를 외무성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으니, 그런즉 귀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성의와 신의를 표하는 것도 이치와 형세상 당연합니다. 어찌 그렇게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공께서도 또한 그 사원使員을 관대

¹⁰ 구맹(舊盟)을 다시 확인하는 것.

하게 맞이해주시고 그들이 진술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사례事例가 있고 없음을 끌어다가 거절하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무릇 인의隣誼를 굳게 하고 친호親好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양국의 복입니다. 만약에 구니拘泥¹¹되어 사례의 지엽枝葉을 논함으로써 그 복을 잃게 된다면 어찌 좋은 계책이라 하겠습니까. 구구한 우려를 이길 길이 없어 감히 마음속에 담아둔 말씀을 올리니, 오직 밝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메이지 4년 신미(1871년) 2월 일

좌근위소장 쓰시마노카미 다이라노 요시아키라

07 동래부사가 외무성 관원을 접하는 것은 규정 밖이라고 거절하는 내한來翰

조선국 동래부사 정현덕鄭顯德이 일본국 좌근위소장 쓰시마노카미 다이라平 공公 합하게 회답합니다.

좋은 소식이 멀리서 이르렀습니다. 편안히 기거하심을 삼가 살피니 매우 기쁩니다.

근자에 듣건대 귀방貴邦이 여러 가지 일을 유신하여 다시 외무성을 설치하고 교린의 일을 맡게 했다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것을 바꾸는 일이어서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무성 사원使員¹²이 이 일과 관련하여 왜관에 온 것은, 진실로 이것은 전에 없던 일인데 하물며 면접할 리가 있겠습니까? 무릇 교린交隣을 시작한 수백 년 이래 제도와 규칙이 분명한 것이 일월과 같고, 성신誠信은 금석金石보다 무겁습니다. 진실로 잠깐이라도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준수할 것을 생각하지 않

¹¹ 어떤 일에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쓰거나 얽매임.

¹² 사자로 온 관원.

는다면 일이 정해진 규칙이 없게 되고, 장차 폐해가 잇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귀국을 위한 좋은 방책이겠습니까? 정성으로 대대로 이웃 간의 우호를 닦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면, 영구히 전례를 준수하여 위반하지 않고 잊지 않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역관에게 맡기오니 만 번 밝게 헤아려 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신미(1871년) 9월 일

동래부사 정현덕

08 부산첨사가 외무성 관원을 접하는 것은 규정 밖이라고 거절하는 내한^{來翰}

조선국 부산첨사 김철균^{金澈均}이 일본국 좌근위소장 쓰시마노카미 다이라^平 공^公합하게 회답합니다.

아름다운 글이 멀리서 이르렀습니다. 온화하고 평안히 기거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니 매우 위로가 되고 흐뭇합니다.

귀방^{貴邦}의 외무성 사원^{使員}이 와서 면접을 간청하는데, 진실로 이것은 규정 외의 일입니다.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옛 규정을 준수하여 영원히 이웃 간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역관에게 맡기오니 오직 밝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신미(1871년) 9월 일

부산첨사 김철균

09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외무성 官員을 접하는 것은 규정 外이라고 거절하는 來翰來翰

각覺

一. 별서계別書契¹³에서 요청한 공무의 일은 이미 동래부와 부산의 회답 서계에서 충분히 진술했으니 마땅히 밝게 살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무릇 교린을 시작한 이래 두 나라의 사무는 각각 그 직임이 있고, 서계의 왕복 역시 변치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옛것을 준수하여 조금도 위반하지 않는 것이 곧 금석과 같은 약조입니다. 단지 대수사大修使 서계에서 말한 글자의 뜻이 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열어보고 봉출捧出하지 않았는데, 외무성이 공무를 처리한다고 자주 면접을 청하고, 심지어 별도의 서계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약조가 있는 것입니까? 300년간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귀방貴邦이 통실洞悉¹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방弊邦이 마땅히 면종勉從¹⁵할 수 없음을 귀방貴邦 역시 마땅히 밝게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단事端을 만들어 내려는 것은, 곧 인국을 능멸하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또께서 크게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한 조목은 천 마디 만 마디 말을 하더라도 결코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또의) 교의敎意로써 대략을 이렇게 전합니다. 불비不備.

신미(1871년) 9월 일

훈도 준경 안첨지安僉知

별차 산여 이주부李主簿

관사館司 존공尊公

¹³ 대마도주가 외무성 官員의 면접을 요청하면서 보낸 별도의 서계로 이 책의 (6)번 문서를 말함.

¹⁴ 모든 형편이나 사정을 자세히 앎.

¹⁵ 마지못하여 복종함.

10 동래부사 내한來韓의 번역

이 서계는, 전 이즈하라번 지사가 동래·부산 양사兩使에게 외무 관원을 면의面議할 것을 요청하자 올 9월에 양사가 회답서를 보낸 것입니다. 모리야마 시게루가 지참하였기에 일본문으로 번역해서 보여드립니다.

미(신미, 1871년) 10월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

조선국 동래부사 정현덕이 일본국 좌근위소장 쓰시마노카미 다이라^平 공公 합하께 회답합니다.

좋은 소식이 멀리서 이르렀습니다. 편안히 기거하심을 삼가 살피니 매우 기쁩니다.

근자에 들건대 귀방貴邦이 여러 가지 일을 유신하여 다시 외무성을 설치하고 교린의 일을 맡게 했다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것을 바꾸는 일이어서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무성 사원使員이 이 일과 관련하여 왜관에 온 것은, 진실로 이것은 전에 없던 일인데 하물며 면접할 리가 있겠습니까? 무릇 교린交隣을 시작한 수백 년 이래 제도와 규칙이 분명한 것이 일월과 같고, 성신誠信은 금석金石보다 무겁습니다. 진실로 잠깐이라도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준수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이 정해진 규칙이 없게 되고, 장차 폐해가 잇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귀국을 위한 좋은 방책이겠습니까? 정성으로 대대로 이웃 간의 우호를 닦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면, 영구히 전례를 준수하여 위반하지 않고 잊지 않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역관에게 맡기오니 만 번 밝게 헤아려 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신미(1871년) 9월 일

동래부사 정현덕

11 부산첨사 내한來翰의 번역

조선국 부산첨사 김철균이 일본국 좌근위소장 쓰시마노카미 다이라^平 공^公 합하
께 회답합니다.

아름다운 글이 멀리서 이르렀습니다. 온화하고 평안히 기거하시는 모습을 살펴
보니 매우 위로가 되고 흐뭇합니다.

귀방^{貴邦}의 외무성 사원^{使員}이 와서 면접을 간청하는데, 진실로 이것은 규정 외의
일입니다.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옛 규정을 준수하여 영원히 이웃 간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역관에게 맡기오니
오직 밝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신미(1871년) 9월 일

부산첨사 김철균

12 훈도와 별차 내한來翰의 번역

각^覺

一. 별서계^{別書契}¹⁶에서 요청한 공무의 일은 이미 동래부와 부산의 회답 서계에서
충분히 진술했으니 마땅히 밝게 살폈을 길로 생각합니다. 무릇 교린을 시작한
이래 두 나라의 사무는 각각 그 직임이 있고, 서계의 왕복 역시 변치 않는 규칙
이 있습니다. 옛것을 준수하여 조금도 위반하지 않는 것이 곧 금석과 같은 약조
입니다. 단지 대수사^{大修使} 서계에서 말한 글자의 뜻이 격식에서 벗어나 처음

¹⁶ 대마도주가 외무성 관원의 면접을 요청하면서 보낸 별도의 서계.

부터 열어보고 봉출^{捧出}하지 않았는데, 외무성이 공무를 처리한다고 자주 면접을 청하고, 심지어 별도의 서계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약조가 있는 것입니까? 300년간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귀방^{貴邦}이 통싯^{洞悉}¹⁷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방^{弊邦}이 마땅히 면종^{勉從}¹⁸할 수 없음을 귀방^{貴邦} 역시 마땅히 밝게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단^{事端}을 만들어 내려는 것은, 곧 인국을 능멸하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또께서 크게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한 조목은 천 마디 만 마디 말을 하더라도 결코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또의) 교의^{敎意}로써 대략을 이렇게 전합니다. 불비^{不備}.

신미(1871년) 9월 일

훈도 준경 안첨지

별차 산여 이주부

관사 존공

13 소종 대승이 도한 순서를 품의하는 글

이번에 폐번치현의 변혁으로 (소) 시게마사가 지사직을 그만두게 되어 조선국과 교제를 담당한 가역도 원하는 대로 면직된 이상, 그 전말을 저희 가문에서 조선국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지난 7월 시게마사가 외무대승^{外務大丞}으로 임명되고 이어서 조선으로 건너갈 것을 명받았으므로 면직한 사정을 바다를 건너가서 직접 진술할 생각으로 알리는 것이 유예^{猶豫}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도한^{渡韓}하는 것이 잠시 지연되었는지 히로쓰 히로노부 혼자 일단 도한한다는 내명^{內命}을 받았다고 합니다.

¹⁷ 모든 형편이나 사정을 자세히 앎.

¹⁸ 마지못하여 복종함.

그것과 관련하여, 종전 한국의 교제는 성신으로서 서로 속이지 않을 것을 요체로 했습니다. 지난번 이래 신정新政 통보의 답판은, 이웃과 사귀는 도리는 사실에 따라 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성의를 내세워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날의 변혁과 시게마사 면직의 사실을 숨겨두고 자연히 그 이야기가 저 나라에 전파되어 그들이 먼저 캐묻든가, 또는 다른 날 그 증거가 드러나 힐문을 받게 되어서는 종래의 신의가 서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 있어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구실을 얻을 수 있어 피아의 곡직曲直·득실의 경계를 가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교활한 풍속이므로 더욱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여 장래의 공무에 해가 되는 것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각국이 대치하고 모든 일이 공명한 시절에 안팎의 명실名實이 어긋나고 체재體裁가 서지 않게 되어서는 황위皇威에도 관계하여 시게마사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변혁의 대요와 시게마사 면직의 경위에 이르기까지 급히 통보하고자 하여 아래에 진술합니다. 이상.

9월

소 대승

- 一. 전건前件의 취지를 통보하기 위해 이번에 보낼 사절은 종전의 관계도 있어 구이즈하라현嚴原縣 사족에서 고용하고, 도한 중에는 이즈하라현 참사參事 등의 명칭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는 저희 가문의 사절이므로 시게마사 사가私家 중에서 파견하고, 가장 최근에 중신重臣인 자가 사절로 도한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¹⁹

단, 오시마 마사토모大島正朝는 본 성 출사出仕²⁰로 이미 도한 명령을 받고 있으므로 지장이 없다면 오시마를 줄가拙家 사절의 형태로 해서 보내고, 요시오카·

¹⁹ 대수대차사 파견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²⁰ 1871년 8월 4일 오시마 마사토모(오시마 도모노조)는 소 시게마사의 도한에 동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외무성 7등 출사(숫시)가 되었다. 출사(숫시)는 임시로 둔 정원 외의 관리.

모리아마·히로쓰 등과 협의하여 여러 일을 알리고, 또 시게마사가 도한할 수 있는 바탕을 성숙시키고자 함.

- 一. 어일신(御一新(고잇신) 고지를 위해 파견해둔 대수사(大修使)는 원래 줄가 가신을 뽑아 보낸 것이므로, 이번에 면직을 통보한 다음 대수사 일행을 빨리 철수시키지 않으면 저 나라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므로 철수를 지시할 생각임.
- 一. 양국이 감합(勘合²¹)을 위해 저 나라에서 주조한 도서(圖書(인장)는 시게마사의 실명을 사용해 모든 도해선의 증명서와 또 서계의 왕복에 이르기까지 위의 인기(印記)를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면직을 알린 이상 도서를 반납할 생각임.
- 一. 초량 왜관에서 양국의 교제 사무 및 교역 방면의 처리를 위해 파견해둔 관리들이 저 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줄가 가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면직을 알린 이상 일단 갱단(更端²²)을 하지 않으면 안 됨.
- 一. 세전선 공무역 건은 종래에 오로지 줄가만 관계한 일이므로 개혁에 관한 답판을 하고자 함.
- 一. 한국 표류민 취급은 모두 줄가가 맡아서 동국(同國)에 보낼 때 사자(使者)를 딸려 호송해 왔으므로 장래의 규정을 세우고자 함.

위의 조목들 중 양국 감합인(勘合印) 이하의 건은 부디 지금부터 외무성에서 관할하는 규칙을 강명(講明)하고, (이를 조선 측에서) 승낙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모두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멀리 떨어진 곳이라 지시한 대로 두루 미치지 못하면 정실이 관철되기 어려우므로, 시게마사가 도한하는 일은 지연되더라도 일단 쓰시마(對州)까지 내려가서 여러 건을 (조선에) 통지하는 협상을 직접 지시하고, 바다를 건너기 전에 조정의 뜻을 미리 알고 마음껏 주선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매우 급히 평결해주시기 바랍니다.

²¹ 조선 시대에, 외교 및 무역의 목적으로 내왕하던 왜인(倭人)들의 입국 확인서. 또는 그것을 확인하던 일.

²² 말을 다시 일으키는 시초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

14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견한사**遣韓使에게 명령하는 글 및 일본 외무성 관원을 관접
款接하지 않는 것의 의안議案을 첨부하여 결재를 바라는 글

별지는 창졸히 작성한 우안愚案²³으로 정서할 겨를이 없어 초고 그대로 올립니다. 만일 저들에게 보여줄 때는 조선의 언문으로 고쳐 말할 생각입니다. 글 중에서 알려야 마땅한 것과 마땅하지 않은 것을 첨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월 20일

히로쓰 히로노부

추신. 품의할 조목이 있지만, 오늘 적어서 드릴 겨를이 없어 모두 23일에 말씀드릴 각오입니다. 이상.

첨부1 견한사에게 명령하는 글

외무출사外務出使 아무개 등에게 명령하는 글의 초안

외무출사 아무개 등에게 명령한다.

저번에 너희들을 조선국에 가게 해서 동래·부산 두 사또를 면담하고 양국 심교尋交의 일을 상량商量하도록 했다. 근자에 듣건대 저들이 아직 너희들을 관접款接하지 않았다 한다. 생각건대 저들이 아직 우리의 취지를 요해了解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이에 소 시게마사를 외무대승에 임명하여 다시 조선에 건너가서 예조판서·참판을 만나 조정의 성의盛意가 있는 바를 시유示諭²⁴토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생각건대 인교隣交는 본래 대사로서 관계가 가볍지 않다. 너희들은 저들의 땅에

²³ 자기의 생각이나 안건을 낮추어 이르는 말.

²⁴ 이치를 보이고 깨우쳐 설득하는 것.

있으면서 마땅히 저들의 정실을 참작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라. 이에 명령한다.

첨부2 조선에서 외무성 관원을 관접하지 않는 것의 의안

조선이 소 씨의 서계를 받지 않고 외무 관원을 관접款接하지 않는 일의 의안議案

아방我邦이 중세 이후로 병마의 권을 무장 가문에 맡기고, 그리고 강역의 정치도 역시 관장하도록 했다. 도쿠가와德川 씨가 막부를 도쿄에 연 지가 이미 300년이 되고 나라가 태평한 것이 오래되어 유폐流弊가 없을 수 없었다. 더구나 해외의 여러 나라가 별이나 바둑돌처럼 펼쳐져 있고, 글을 닦고 무예를 강습하여 부강한 형세가 옛날에 비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황상皇上께서 국체의 변함없음과 시세의 변화를 살피시어[聖察] 병정兵政의 권한을 염연恬然히²⁵ 막부에 위임할 때가 아니라서 막부를 폐지하고 봉건을 그만두고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고 모든 것을 유신하는 시초에, 조선은 우리와 순치唇齒의 관계이고 구의舊誼의 나라라서 소 씨宗氏에게 명하여 일신한 것을 알리게 했는데 저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외무 관원을 파견하여 동래·부산 두 사또를 면담하고 조정의 성의誠意가 있는 바를 진술하도록 했는데 저들이 역시 관접款接하지 않았다.

혹자는 건의하여 말하기를, 소 씨가 우리의 일신을 통지했는데 수용하지 않고, 또 외무 관원을 파견하여 성의盛意를 유시諭示하도록 했는데 저들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저들이 우리를 끊은 것이다.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반론하여) 말하기를, 최근에 소 씨가 복명하기를, 시게마사의 서계 중에 황·칙의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일본이 조선을) 후래에 신하로 예측시키려는

²⁵ 욕심이 없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모략임을 의구疑懼하여 시험 삼아 서계를 개찬改撰하도록 해서 뒷날의 계획을 막으려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오직 구규舊規·고격古格²⁶을 주장하고 감히 거절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겨울에 외무 관원이 도항하자 저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대차사大差使를 축종逐蹤²⁷하여 일신을 알리는 서계를 받지 않은 것을 문난問難²⁸하고, 마침내 죄를 저들에게 돌려 크게 도모할 바탕을 만들려 한다고. 그래서 소 씨의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를 전하라고 요청하고 감히 직접 관원을 만나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고 (복명했다). 지금 소 씨宗氏가 아뢰는 바로써 이것을 보면, 저들의 진정이 우리를 의구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를 거절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제 조정이 공명정대한 묘모廟謨²⁹를 세우는 날에 즈음하여 갑자기 한두 가지 완루頑陋한³⁰ 응수應酬를 가지고 죄를 묻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크게 조정의 관대한 성의盛意에 반한다. 다시 거론하지 말라.

혹자는 말하기를, 규슈九州 제군諸郡의 호걸이 때때로 저들의 해안을 갑자기 들이닥쳐 신출귀몰로 저들을 분주하게 해서 피폐하면 저들이 반드시 빠르게 화친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필연이라고 한다.

(반론하여) 말하기를, 오히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무릇 우리와 저들은 땅이 서로 맞닿은 것이 겨우 조각배로 건널 수 있을 정도이다. 강화講和한 것을 말하자면 수백 년을 거듭했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히 우리나라가 금일의 정체政體를 알려 구교舊交를 더욱 돈독히 하고 더욱 공고하게 해야 하는 공의公誼³¹이다. 네가 말하는 것 같은 것은 전국戰國 사술詐術의 시대에서조차 적어도 인의仁義가 존재함을 아는 자는 이들 술책을 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하물며 황조皇朝를 일신한 큰 계획과 큰 도량이 피아 선린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오히려 양국의 생령生靈을 장해戕害³²

²⁶ 전부터 있어 온 규칙과 옛 격식.

²⁷ 남의 뒤를 따라서 좇음.

²⁸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함.

²⁹ 조정에서 세우는 국가 대사에 관한 계획.

³⁰ 낡은 사상이나 풍속에 젖은 채로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다.

³¹ 공적인 우호 관계.

하는 것을 하겠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3천 년 동안 대일본 천황의 존호가 있음은, 고유한 칭호로 해외 만국과 존비의 차등을 다투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국, 러시아[魯西亞] 및 서양 여러 나라의 제왕도 모두 우리를 대일본 천황폐하로 칭한다. 지금 조선 혼자 이를 받들지 않는다. 이것이 그 죄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반론하여) 말하기를, 아니다. 무릇 우리 대일본 천황의 칭호는 원근의 만국이 본래 우리 고유의 존호임을 안다. 하물며 지극히 근접한 조선국에 있어서랴.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중세 이후에 병권과 정권을 무장 가문에 맡긴 사이에, 조선은 누차 그 왕을 바꾸었다. 지금 왕 이 씨의 선조는 우리 아시카가 씨足利氏가 무장이었던 때에 즈음하여 기업基業을 세워 아시카가 씨와 통교하고, 이래로 도요토미·도쿠가와 양 씨兩氏의 때에 이르기까지 쿠보公方·칸파쿠關白·타이쿤大君 등의 칭호로 응수하고 교통했다. 저들이 본래 우리 대일본 천황이 있음을 알았지만, 교통·왕복에서 그 지존의 칭호를 게재한 것을 보지 못했다. 저번에 황상이 만기친재萬機親裁의 시초에 소 씨宗氏가 갑자기 존칭을 보였다. 이것이 저들이 명분상 이미 자신을 한 등급 낮추는 예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혹을 일으킨 까닭이다. 그리고 조정의 성의盛意가 있는 바는 우리의 존칭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덕德에 더욱 의지하여 국체가 더욱 공고해짐을 기함에 있다. 저들이 일단 우리의 성의가 있는 바를 깨닫고 서로 이웃과의 덕으로 국체를 강명講明하면 참으로 양국의 대행大幸이 아니겠는가. 저 청국에도 우리가 대일본 천황폐하를 칭하고 만국 역시 우리를 대일본 천황폐하로 칭하게 되면 후년後年에 저들 스스로 통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강제로 사용케 하겠는가.

혹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저번에 막부를 폐하고 지금 또 완전히 봉건을 중지하여 쓰시마[對馬州] 같은 것 또한 세습의 태수太守를 혁파했다. 무릇 인의隣誼는 성신

32 참혹하게 상처를 내어 해치다.

誠信일 뿐이다. 이들 일을 공공연히 조선에 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저들의 의구심은 우리의 정중과 친절을 오히려 뒤집어서 속이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론하여) 말하기를, 그렇다. 성신은 반드시 통하게 해야 하고, 의구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이제 천하의 모든 군현이 옛 제도로 복구되고 소 씨도 또한 쓰시마 태수를 면했다. 그렇지만 소 씨가 양국 교통을 증개함은 오래되었고, 저들 또한 이를 존신尊信한다. 조정에서 인의隣誼를 후하게 여기고 또 피차 교정交情이 있는 바를 미루어 생각하여 소 씨를 외무 관원에 임명하였다. 스스로 도항하여 저들의 예조참판과 면의面議하고, 상세히 조정의 성의盛意를 알려 분명히 각국의 교제는 모두 외무성에서 관할하는 규칙임을 깨닫게 해서, 저들의 의단疑團이 일단 빙해氷解하면 반드시 양국이 구의舊誼를 계승할 수 있다.

혹자가 또 말하기를, 저 나라는 침심沈深³³·교영狡獪³⁴하여 의혹이 매우 심하다. 지금 소 씨가 스스로 도항하여 저들을 시유示諭하면 조정 심교尋交의 성의誠意를 관철하지 못할 리가 없지만, 그렇지만 저들이 만약 다시 이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론하여) 말하길, 저번에 소 씨로 하여금 일신을 알리도록 했다. 저들이 문자와 관련하여 이를 거부했다. 지금은 우리가 저들이 기탄忌憚하는 문구상의 논변論辨을 버리고, 우리가 청국 및 여러 나라의 교제를 관할하는 규칙을 보이고 외무성과 예조가 서로 통교하는 예를 들고, 또 소 씨를 외무관원에 임명하여 양국 심교尋交의 일을 상량商量케 하면 우리가 저들을 친애하는 정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들이 여전히 그 성의盛意를 받지 않을 때는, 이것은 저들이 별달리 우리 심교의 성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더구나 수백 년 구의舊誼를 단절하는 뜻이다. 이것은 저들이 천리天理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것은 저들이 생민生民을 죽이는 것이다.

³³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하여 있음.

³⁴ 교활하고 흉악함.

이것은 저들이 공의公誼를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저들이 부정한 이름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덕의德誼에 있어 조금도 손실되는 바가 없다. 저들이 가령 완루頑陋하다 해도 어찌 스스로 천리와 생민을 어지럽히고 죽이는 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혹자는 말한다, 소 씨를 외무관원에 임명하고 스스로 도한하여 심교에 성의가 있는 바를 유시諭示하도록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감통感通³⁵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저번에 도향한 외무관원이 현재 그곳에 있고, 아직 한인을 만나지 못했지만, 반드시 그 근황과 정실을 잘 알 것이다. 마땅히 그 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 이후에 다시 소 씨를 바다를 건너도록 한다면 실로 만전萬全의 의론議論이 아니겠는가.

15 조선과 답판하는 순서에 관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의안

매우 급한 품의서[至急伺書]

- 一. 소 씨의 별한別翰을 봉출捧出한 후 만일 관원을 면접하게 될 때 서계가 없어서는 부적절할 것이므로, 만약 그럴 때는 구 외무경 님 서계의 의미를 보이고, 또한 신 외무경³⁶ 님의 서계를 받아 왕복 중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까?
- 一. 소 씨가 지사직知事職 및 조선과 교류하는 가역에서 면직된 것을 시의時宜에 따라 통보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조만간 (외무) 대승大丞님이 도한渡韓한 다음 공공연히 통보할 것이라는 내밀한 뜻으로 대답하게 해도 됩니까?
- 一. 위의 면직 및 번·현이 옛 제도를 회복한 건이 저절로 누설되어 저들이 자세한 사정을 추궁하고 세건선의 이름과 실상이 어긋나는 것을 힐난할 때 어떻게 응수해야 합니까?

³⁵ 느낌이나 생각이 상대에게 통함.

³⁶ 1871년 7월 14일 외무경이 사와 노부요시(澤宣嘉)에서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로 바뀌었다.

一. 종전의 세건선은 이번에 폐번치현의 개혁에 상관없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파견할 것은 파견하고, 그 문인^{文引}³⁷을 고쳐 장래 공평한 무역을 왕성하게 해야 하는 사정은 5월 이래 말씀드린 대로이지만, 이번에 대승 님의 도한^{渡韓}이 지체되었으므로 역시 소 씨의 문인^{文引}이 없으면 배 한 척의 정박조차도 금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번지사^{藩知事}는 면직되어도 쓰시마^{對馬州} 태수^{太守}는 당분간 아직 면직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면 도리어 바다를 건너는 것에도 지장이 있게 되고 애매한 상태로 중도에서 단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거짓을 전하는 것은 장래의 계획에 편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큰 계획과 큰 도량을 펼치시는 지금의 체재^{體裁}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충분히 평의하신 다음 자세히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一. 7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쓰시마^{對馬州}는 멀리 떨어진 고도이므로 본국의 상황이 쉽게 소통되지 않고 폐번치현에서 뜻하신 것도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기운이 시들해졌을 때 소 씨가 (외무) 대승에 임명되고 도한^{渡韓} 명령을 받았기에 약간 기력이 떨쳐 일어나지 않았나 했는데, 도한이 지연되고 또 지금 이마리현^{今里縣}³⁸에 합병되는 등의 일이 있었으므로, 조선과 구교^{舊交}를 계승하는 일은 보통의 공무로 (하찮게) 여기고 단지 소 씨 및 (쓰시마 사람들) 각각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만 근심하고 망연히 방향을 잃은 듯한 모습은 벽지^{僻地}의 상정^{常情}³⁹입니다. 그러므로 소 대승님 도한의 건은 다음 해 봄까지 저 나라의 자세한 실정을 보고한 후로 정하고, 일단 잠시만이라도 이즈하라^{嚴原}까지 내려와서 조선과 교제에 관계된 자들에게 자세히 지휘하지 않으면 힘써 노력할 기력도 없게 됨은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도 잘 살피시어 오시마는

³⁷ 조선에서 하사한 도서(인장)를 가지고 쓰시마 도주(島主)가 왜인에게 발행하던 도항(渡航) 허가 증명서.

³⁸ ‘今里’는 이마리의 음차로 이마리현(伊万里縣)을 말한다. 1871년 9월에 이즈하라현은 사가현과 합병되어 이마리현이 되고, 1872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되었다.

³⁹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보통의 인정.

그렇다 하더라도 대승님께서 잠시 내려와 주셨으면 하고 거듭 원합니다.

위의 조목들은 현지에서 깊이 고심하고 걱정한 것이므로 충분히 평의하신 다음 지휘해주시기를 거듭 탄원합니다. 이상.

미(신미, 1871년) 9월 23일

히로쓰 히로노부

16 9월 30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보내는 서한

우편으로 편지를 적어 말씀드립니다. 점점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성상께서 더욱 건강하게 지내고 계셔 매우 기쁩니다. 다음으로 각위各位께서도 더욱 용장勇壯하게 재한在韓하시어 진중珍重하게 생각합니다. 성중省中の 경·보卿輔 3공三公⁴⁰을 비롯해 여러 관원 일동은 무사히 봉직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一. 이달(9월) 12일 본성本省(외무성)에 주상께서 임어臨御했습니다. 처음에 응접실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본성 휴게실로 옥좌를 옮기시어 판임관까지 일동이 용안을 배알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성에도 거동했습니다.
- 一. 이달 22일 천장절天長節⁴¹ 축하를 위해 칙임관·주임관 일동은 참조參朝하고 판임관은 본성本省에서 외무경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엔료칸延遼館⁴²에서 각국 공사에게 술과 안주를 하사했습니다.
- 一. 엔도遠藤和幹 권대록權大錄은 전번 이후 줄곧 미국 공사가 하코다테箱館에 건너

⁴⁰ 이와쿠라 외무경, 데라시마 외무대보, 야마구치 외무소보를 말함.

⁴¹ 천황의 탄생일로 9월 22일은 메이지 천황의 탄생일이다. 1873년 양력 채용에 따라 11월 3일로 바뀌었다.

⁴² 근대일본 최초의 영빈 시설.

가서 육로로 돌아오므로 단속하기 위해 출장했는데 어제 22일에 귀경했습니다.

一. 올 7월 하순에 청국 텐진天津에서 양국 전권대신이 상의商議하여 조약서 조인이 완료되었다고 다테伊達宗城 대장경大藏卿님·야나기하라柳原前光 대승님으로부터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조회할 조항이 있어 하나부사花房義實 대기大記님이 상하이上海까지 출장하고, 그곳에서 만나 이달 19일에 파견 나간 제원諸員 일동이 귀조歸朝하였습니다.

一. 상하이 출장의 사이토齊藤麗正 권중록權中錄이 병환으로 귀조歸朝했습니다.

一. 이달 23일 아래와 같이 배명拜命.

12등출사	히로세 기리에廣瀬桐江
외무권소록權少錄에 임명함.	이시카와 고에쓰石川幸悅
외무권소록에 임명함.	아사히 요시마스朝日義升
13등출사	미즈노 세이이치水野誠一
13등출사	후지카와 다로藤川太郎

一. 이달 27일 아래와 같이 배명.

외무권대록에 임명함.	에이센穎川重寬 대우大佑
외무중록에 임명함.	사이토齊藤麗正 권대록
외무중록에 임명함.	에이센穎川雅文 권대우
외무권중록에 임명함.	쓰쿠이津久井遠 소우少祐
외무소록에 임명함.	쓰치코土子風憲 권소록

一. 고스기小牧直吉 소록, 미즈노水野良知 소록은 본성 11등출사 배명 후 사법성 9등출사로 전임했습니다.

一. 시오쓰보鹽坪 소록은 사법성 11등출사로, 가야마嘉山昆篤 권소록은 사법성 12등출사로 전임했습니다.

단, 지금까지 각항괘各港掛에서 취급한 외국인 소송사건은 지금부터 사법성에서 취급하게 되었음.

一. 이달 29일 배명.

외무 소기에 임명함.

히라이平井希昌 대록

15등출사

마쓰오 기요토모松尾清友

一. 관록官祿⁴³은 을 9월부터 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뀜. 아래와 같음.

액수	관등
500냥	제성諸省의 경卿
400냥	제성의 대보大輔
350냥	제성의 소보少輔
250냥	대승
200냥	소승
150냥	대기
100냥	소기
70냥	대록
50냥	권대록
40냥	중록
30냥	권중록
25냥	소록
20냥	권소록
15냥	14등출사
12냥	15등출사
10냥	등외 1등
8냥	등외 2등
7냥	등외 3등
6냥	등외 4등

⁴³ 관원에게 주던 봉급.

위는 1개월씩 지급함.

이 밖에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미(1871년) 9월 30일

오자토尾里政道 외무소록外務少錄

소에다副田節 외무권중록外務權中錄

요시오카 외무소기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추신. 별지는 입기入記 대로 보내니 받으시길 바랍니다.

17 한인과의 담판에 관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의안

품의서[伺書]

- 一. 제도개혁(폐번치현)과 소 씨 지사직 및 조선과의 교제를 담당한 가역家役을 함께 면한 것의 통지는 소 씨의 사절을 파견하는 것으로 소 씨에게 매우 급히 명할 것.
- 一. 세건선과 공·사무역은 소 씨가 면직된 이상 어떻게 교섭하도록 해야 합니까?
- 一. 소 씨가 내년 봄에 도한渡韓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려면, 내년 봄의 소 씨 도한 건은 지금 중에 확정해 두시길 바라는 일.
- 一. 이마리현伊万里縣이 관할하는 이즈하라嚴原 출장 관원에게 히로노부弘信가 도한渡韓할 사선使船을 주선하라는 문서를 지참하고자 하는 일.
- 一. 재한在韓 현사縣士에게 다시 요시오카·모리야마·히로노부 등과 협동하여 한인韓人을 설유說諭할 수 있도록 주선에 한층 더 힘쓰라는 소 외무대승의 지시서를 지참하고자 하는 일.

위의 사항들에 대해 매우 급히 지시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

10월 3일

또한 위의 사항들 외에도 지난달에 제출해둔 품의서 중의 건들도 모두 평결하시길 바랍니다.

18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속히 발도發途하여 한지韓地에 갈 것을 청하는 글

지난달 중에 히로노부 혼자만 출장하여 내명^{內命}을 받든 이래 계속 의견서를 제출해두었습니다. 그 후 점점 겨울로 달려가 도한^{渡韓}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곳^(조선)에서는 요시오카를 비롯해 재관^{在館}의 현사^{縣士}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응수에 대해 밤낮으로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히 피아 간에 의혹과 어려운 일이 일어나 종전의 성의^{盛意}가 물거품이 되거나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지 실로 공축^{恐縮}⁴⁴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 대승님이 이즈하라^{嚴原}까지 내려오는 것도 허용하시기 어렵다면 품의해둔 사항들을 통지하는 수순에 관한 지시를 받아 매우 급히 출발하도록 명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적절히 상신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10월 3일

⁴⁴ 두려워서 몸을 움츠림.

19 야나기하라柳原 대승 이하가 연서連署하여 조선과 담판하는 순서를 의론하는 글

히로쓰 히로노부가 별지로 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했는데, 대체로 황국과 조선이 교제하는 요즈음의 모습은 소홀하여 의아疑訝를 거듭하고, 더구나 모만侮慢⁴⁵의 모습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단연 제도개혁을 알리게 된다면 오히려 한층 의아함을 더해 예의 철향철시撤響撤市⁴⁶라는 것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럴 때 이전처럼 고식적姑息的⁴⁷ 처분으로 지나가면 오히려 모만侮慢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병력으로 그 무례함을 힐문하기에 이를 수도 없는 일, 만약 여기에 이른다면 우선 양국의 교제는 잠시 단절하는 것으로 하여 조선에 있는 사족과 상인들이 일단 철수하여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처리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一. 소 씨는 폐번치현의 일을 알리고 그 교제를 사사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 아울러 자신이 외무 관원이 되었다는 것과 그 취지를 알리는 글을 가지고 간다. 그것을 구 가신에게 맡기지 않고, 가령家令이 도한하게 해야 한다. 히로쓰廣津는 이 사자와 함께 건너가야 한다.
- 一. 따로 외무경이 예조에 글을 보내 종래의 형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심교尋交의 일을 서술해야 한다.
이 글은 히로쓰가 가지고 가야 한다.
단, 이 글을 보내기에 이르면 전 외무경이 보낸 서한은 폐기해야 한다.
- 一. 전문前文의 제도개혁을 알리는 서한을 수취한 다음 심교의 일을 진술한 문서도 수취할 단계에 이르려면 더욱 진력해야 할 터이므로, 지금부터 그럴 계획

⁴⁵ 남을 업신여기고 저만 ভাল 척함.

⁴⁶ 사절을 접대하는 연향(宴饗)을 중지하고, 왜관에서 공사무역을 중지하는 것.

⁴⁷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임시변통으로 하는 것.

으로 조선에 있는 여러 사족들에게 소宗 대승大丞이 특단의 설유說諭를 하여 반드시 담당·진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一. 위의 일을 착수했는데 저들이 과연 의아함을 더하고 만일 예의 철향철시에 이르는 일이 있다면 조선에 있는 사족과 상인 전부를 철수·귀국시킬 것.
- 一. 이미 철수·귀국하게 되면 황국과 조선의 교제는 여기에서 단절될 것이다. 그 시기에 동요가 없도록 조정의 계책을 분명히 하여 움직이지 않으시도록 하기 바람. 그런데 저들의 내정을 살피니 (일본과) 친하게 지내기에는 의심이 있고, 단절하기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같이 한다면 아마 저들로부터 화친을 여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급하게는 되지 않더라도 거리낌 없이 완전히 단절하는 일이 없음은 필연이다. 그런 다음 때를 기다려 교제를 잇는 단서로써 상인과 품팔이꾼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또 쌀·땔나무·채소·장醬 등도 살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것이 철향철시를 폐지하고 시장을 일으키는 단서로, 저들의 잘못된 사례를 고치고 마땅한 법칙을 세울 토대라도 되는 일이 되므로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지중持重⁴⁸함이 마땅하다.

신미(1871년) 10월 5일

야나기하라柳原 대승大丞

구스모토楠本 소승少丞

다나베田邊 소승少丞

하나부사花房 대기大記

와타나베渡邊 소기少記

또한 이 글의 취지를 히로쓰 히로노부에게도 얘기했는데 이의가 없었음.

⁴⁸ 몸가짐을 점잖고 무게 있게 함.

20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일본의 제도 개정을 조선에 알림에 단지 소宗 씨만의 사절로 해서는 정실情實을 관철할 수 없다는 등을 의론하는 글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소 씨 사절만으로 히로노부 일동이 조선에 건너갈 때 공공연히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심교尋交가 아직 무르익기 전에 곧바로 명백하게 알릴 때는, 소 씨의 의견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세견선과 그 밖에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5월 이래 히로노부가 건의한 목적은, 소 씨 스스로 도한渡韓하여 외무성이 관할하는 바의 교제를 승낙하게 하는 담판 중에 차차 그 잘못된 사례를 시유示諭⁴⁹해서 양국 감합인勘合印을 비롯해 세견선·무역 등의 조약을 강명講明⁵⁰하고 납득시킨다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400년 이래 미증유의 대변혁을 사절만 보내어 알릴 때 저들이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정실이 명백해질 때까지 일단 예의 철향철시撤嚮撤市【철향철시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매일 들여보내는 쌀·땀나무·채소·장 등의 물건을 정지하고, 또한 매일 들어오는 상인과 품팔이꾼까지 1명도 입관시키지 않고 관문을 굳게 잠그는 것을 말한다.】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는 300여 명 재관在館의 사민士民은 굶주리고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번 철향철시가 있었지만 이즈하라에서 그동안에 식량과 땀나무 등을 어찌어찌 보내고, 그사이에 담판이 끝나면 다시 이전처럼 (물품을) 들여보낸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미 일신一新(메이지유신)을 알리고 담론할 때도 일단 철향철시를 한 끝에, 반 고라이조伴高麗藏⁵¹의 책략으로 다시 구 도서圖書(인장)을 사용하기로 해서 다시 (조선 측에서 물품을) 들여보내고 세견선도 받게 된 것입니다. 소 씨가 옛 직책을 지니고 있을 때 소 씨가 파견해둔 사민士民이라고 해도 똑같이 모두 황민皇民이니,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이마리현의 새로운 관원이 직접 미곡·채소·장을 보내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10월 후에는 쉽게 일본

49 이치를 보여 깨우치고 설득하는 것.

50 충분히 조사해서 불비한 점과 의문점을 분명히 하는 것.

51 당시의 왜관 관수 반 누이노스케(番縫殿介)를 말한다.

배가 바다를 건너기 어려운 곳이라서 그 실정을 일본 국내에 알리는 것도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이 철항철시는 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규정을 정지시키기 위해 쓰시마對州를 곤궁케 하기 위한 간교한 계책일 뿐】. 그런데 오늘 아침 하나부사花房 대기大記님으로부터, 소 씨가 이즈하라에 내려가서 친히 지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장이 있어 (소 씨의) 사절만으로 히로노부와 함께 파견한다는 내결內決을 내밀히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공명정대한 통지를 하게 할 때는 그만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히로노부가 도한한 후 요시오카吉岡·모리야마森山에게 외무성 의견의 취지를 전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애매하게 통지해서는 장래 위신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지난날의 품의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히로노부는 요사이 고뇌가 매우 깊고 요즘은 정신이 피로하여 거의 혼미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방향을 잃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망연할 뿐입니다. 이 부분을 부디 너그러이 살려주십시오. 내일 오전 제공諸公을 모시고 히로노부가 아뢰고, (이것을) 들으신 다음 각 공公들의 의정議定을 거쳐 각 공公이 외무경과 외무대보에게 자세하게 건의해 주시도록 울며 탄원합니다. 이상.

10월 4일 밤

히로쓰 히로노부 재배

야나기하라柳原 대승大丞님【건의하신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내일 외무성 동료들과 평의할 것입니다】

구스모토楠本 소승少丞님【위와 같습니다】

미야모토宮本 소승少丞님

다나베田邊 소승少丞님

하나부사花房 대기大記님

추신. 공무가 번잡하여 피곤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내일 아침까지 회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 와타나베 기요시渡邊清가 외무성 관원으로 이마리현伊万里縣을 겸하게 하여 교제의
일로一路는 외무성에서 관할하고 무역은 모두 이마리현伊万里縣에 맡기자는 건의

이마리현 대참사大參事 하야시林가 회람시킨 조선 사무 건언서

조선과의 무역은 수백 년 이래 소 씨가 오로지 한 바이다. 이제 나라 안을 일신하여 만기를 친제하니 조선과의 무역사무를 외무성에 속하게 하는 일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조정의 뜻이 있는 바를 알지 못하지만, 위의 무역을 혹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고 혹은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어 도무지 일정하지 않다. 무릇 쓰시마와 한국의 공·사무역 방법은 만국 공통의 방법이 아니어서 이것을 폐지하자거나 개정하자는 주장 역시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은 민정民情이 다르기에 무역조약도 역시 일정하지 않다. 지금의 쓰시마와 한국 양국의 무역도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상하지만, 옛날에 양국이 서로 그 바람에 따라서 조약을 만들고 지금에 이르러 저들은 그 조약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도 크게 이익이 있으니 지금 굳이 이것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단지 그 사무를 취급하는 방법을 고쳐 이상하지 않도록 하면 어떠한가.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처리할 대체적 목적은 아래와 같다.

- 一. 구래舊來의 재한在韓 관원을 없애고, 새로 외무성 관원 1명을 이마리현 관직을 겸하면서 영사領事로 출장해서 조선과 담판을 수행하고 장래 무역의 규칙을 세울 것.
- 一. 공무역 물품 등의 취급은 모두 이마리현에 위임할 것.
- 一. 종래의 공·사무역은 공·사의 이름과 실상이 분명하지 않다. 지금 이것을 나누어 사무역은 전부 인민의 무역으로 해서 국내 인민의 바람에 따라 하도록 하고, 물품 수출입의 세칙稅則을 세울 것.
- 一. 전 이즈하라현에서 조선에 건네는 물품이 정제되고 계속 거듭되어 저들이 자주

우리의 불신을 책망한다. 재한 관원도 변명할 방법이 없어 응접이 반드시 곤박
困迫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앞의 조항에 대한 가부의 상황에 따라 처분할 것.
위를 매우 급히 지시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신미(1871년) 10월 이즈하라현 권지사權知事 종5위 와타나베 기요시渡邊清
사관史官 귀중貴中

**22 와타나베 기요시渡邊清의 건백은 한국 관련 일이 두 갈래로 나와 불가하다는 취지를
정원正院에 상신하는 글**

정원正院 귀중貴中

외무성

조선국 심교尋交에 대한 견해를 이마리현에서 건언했다고 하여 이마리현 관원
에게 충분히 토론했도록 했는데, 쓰시마와 한국 사이에 구의舊誼의 정실情實이
관철되지 못해 제의한 것으로, 사실 견해대로 될 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품의해둔 ‘제도개혁 통지 수순 조사서’의 취지도 있으니 이마리현에서 경솔하게
착수해서 사무가 두 갈래로 나오면 지금보다 더 저들의 의아심을 더할 뿐만 아니
라, 도리어 모만侮慢을 받아 애매한 상태로 중간에서 단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외무성과 협의하라고 속히 명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드립
니다.

신미(1871년) 10월 29일

상신上申한 대로 이마리현에 하달할 것.



23 조선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소 대승이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여 정원에 상신하는 글

조선국에 제도개혁을 통지하는 일은 서계안書契案으로써 지난달 27일에 품의했는데, 또 소宗 대승大丞도 별지대로 의견을 제시했으니 매우 급히 평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별지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합니다.

신미(1871년) 11월 3일

외무성

정원正院 귀중貴中

첨부 소宗 대승의 품의

미(신미, 1871년) 11월 3일 정원에 제출함.

조선국과의 교제는 계속 진술한 것처럼 성신誠信으로 서로 속이지 않음을 요체로 합니다. 그러므로 7월에 시게마사重正의 지사직知事職 및 조선교제 가역家役 모두가 면직되었을 때, 시게마사가 옛 번에 있는 때라면⁵² 곧바로 사가私家만이라도 면직 사유를 등을 통지해야 하는 것이 격식입니다. 그런데 동월同月에 제가 외무대승으로 임명되고 이어서 도한渡韓의 명을 받았습니다. 모자란 제가 중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동국同國과 심맹尋盟하는 일은 제가 반드시 성공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발하여 면직 사유도 바다를 건너가서 친히 진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묘의廟議를 여쭙어야 한다는 취지로 그대로 지연되고 시간이 그에 따라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데라시마寺島宗則 대보大輔

⁵² 「在宗從四位ヨリ維新報知書契案同上(尋交ノ見込伊万里県建言二付外務省伺)」, 『公文録-明治八年 第三百六卷-朝鮮講信録(二)』(JACAR Ref.A01100125900, 8/20)에 따르면, 『조선사무서』 원문의 ‘重正東旧藩’은 ‘重正在旧藩’의 오사(誤寫)이다.

님께 제출한 의견서에서 진술한 대로, 진년辰年(1868년) 신정을 통보한 이래 인의隣誼의 도道는 사실에 따라 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성의誠意를 내세워 힘껏 교섭하고 있는 가운데, 금일의 변혁과 제가 면직된 사실을 우리가 숨기는 것처럼 저 나라에서 캐묻게 된다면⁵³ 종래의 신의信義⁵⁴가 서지 않아 잘못된 이름이 우리에게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선국에서 모리아마 시계루와 이전에 건너간 구 현사縣士들이 상경했는데, 정체를 개혁한 대략은 대부분 이미 동국에 전파한 것처럼 들을 수 있었다고 하니, 더더욱 하루라도 통지를 유예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제 일신상의 신의에 의하더라도 바로 통지해야 함은 물론인데, 심교尋交의 성의盛意에도 반하고 장래의 공무에 해가 무한이라 생각되어 실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위의 의견서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양국 감합인勘合印 및 세건선, 공·사무역, 표류민 송환, 초량관草梁館에 머물러 있는 사민士民의 진퇴 등에 대한 조치는 그 후에 아무런 지휘도 없어 매우 통심痛心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급히 성쑤(외무성)에서 논의하신 다음 묘의廟議를 여쭙어 지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신미, 1871년) 11월

소 대승

본성本省 귀중貴中

⁵³ 「在宗從四位ヨリ維新報知書契案同上(尋交ノ見込伊万里県建言ニ付外務省伺)」, 『公文録 明治八年 第三百六卷 朝鮮講信録(二)』(JACAR Ref.A01100125900, 9/20)에 따르면, 『조선사무서』 원문의 ‘彼國ヨリ相秘シ候様’는 앞의 글귀를 중복해서 잘못 베끼긴 연문(衍文)이다.

⁵⁴ 원문의 ‘信義’는 오사이다.

24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제도개혁을 알리는 수순에 관하여
품의하는 글

황한^{皇韓} 교제의 근래 모습은 다만 의아^{疑訝}를 거듭할 뿐만 아니라 모만^{侮慢}의 상태로 되어 온 원유^{原由} 및 소^宗 씨 스스로 도한^{渡韓}하여 심교^{尋交}를 강명^{講明}한다면 성공에 이를 전망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바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도개혁 통보 건은, 아직 저들이 의아를 풀지 않고 우리의 성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에 단연 일개 사절로 이것을 알리더라도, 역시 한층 의구^{疑懼}를 더해 예례의 철향철시^{撤饗撤市} 등의 일에 이르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종전처럼 고식적 처분에 불과하면 오히려 모만을 부를 것이고, 만약 이에 이르면 일단 양국 교제는 잠시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한^{在韓} 사상^{士商}을 우선 철수·귀국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도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취급 방법과 순서를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하지 않겠냐고 품의합니다.

- 一. 소 씨로부터 옛 가신^{家臣} 혹은 가령^{家令}을 사자로 해서 폐번입현^{廢藩立縣}의 일 및 양국 교제를 사사로이 할 수 없음을 알리고, 또 외무대승에 임명되어 양국 심맹^{尋盟}의 일을 상량^{商量}하라는 명을 받들었음을 고하는 일.

단, 이것은 관함^{官銜}과 문언^{文言} 등은 모두 구례^{舊例}를 따를 것.
서계안 첨부.

- 一. 별도로 외무대승 관함을 사용하는 소 씨 서계 중에 외무관원 아무개 등을 면담·상량^{商量}할 것을 동래·부산 양사^{兩使}에게 전할 것.

단, 이것은 미관^{微官}들이 지참하여 도한할 것.
서계안 첨부.

- 一. 위를 착수한 다음 저들이 과연 의구를 더해 우리의 허실을 탐색하기 위해 예의 철향철시 등의 일에 이르면 수백 년의 인의隣誼와 저들이 심교의 성의盛意를 거절하는 옳고 그름과 명분을 확실히 따져 묻고 재한在韓 사상士商 전부가 일단 철수·귀국한다는 각오를 정해두고자 함.
- 一. 이미 철수·귀국에 이른다면 양국의 교제는 일단 여기서 단절해야 하고, 그 시기에 임하여 묘의廟議를 확고하게 하여 경동驚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들의 내정內情을 살피니 친하게 지내려 하니 의심이 있고, 단절하려 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직 종전의 관례와 습속으로써 쓰시마인對馬人을 괴롭고 괴곤하게 해서 자신들이 의구疑懼하는 바를 면하려고 하니, 우리는 종전의 고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뚜렷하게 곡직曲直과 조리를 추구推究해서 귀국하는 모습을 보기에 이르면 저들은 아마 진면목을 노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급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순순循循⁵⁵하게 완전히 단절하는 일이 없음은 필연입니다. 그런 다음에 때를 기다려 교제를 잇는 단서를 얻어 다시 저들의 상민商民과 품팔이꾼을 입관入館시켜 서서히 유무교통有無交通의 길을 열기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향嚮을 폐하고 시市를 일으키는 사다리로 해서 종전의 잘못된 사례를 바꾸고 지당한 법칙을 세울 기초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 기회를 꺾으면서 함부로 귀국할 까닭은 없지만, 금일 출장 전에 위와 관련된 부분의 확정을 받아 놓지 않으면, 결국 보통의 왕복은 모두 헛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마땅히 평결하시어 지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미(1871년) 10월

모리야마 시게루

히로쓰 히로노부

⁵⁵ 정연(整然)한 모양.

25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에서 소宗 대승이 제출한 대수사大修使 부사 난바 아사카難波安積의 진퇴 처분 서면을 첨부하여 품의

의관議判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

소 대승께서 제출하신 별지 서면의 난바 아사카難波安積는 지난겨울 미관微官들이 도한渡韓할 때 수행隨行으로서 소 씨로부터 파견되었습니다. 그 후 대수사大修使 부관 고모다 다키薦田多記라는 자가 사망했을 때 임시로 동인同人을 부관으로 충당한 자로, 당시 대수사조차 쓸모없이 체한滯韓하고 있을 정도라서 서면대로 이곳에서 부관을 소 씨가 면직하고 귀현歸縣을 명해도 지장이 없을 겐로 생각합니다.

만일 저 땅[조선]에서 부관이 필요할 때는 근무하고 있는 현사縣士 중에서 1명을 뽑아서 충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승님 서면에 덧붙이실 부지附紙 문안을 아래에 적어 올립니다.

난바 아사카의 면직·귀현歸縣 건은 본 성本省(외무성)에서 지장 없음.

월 일

첨부 소宗 대승의 품의

옛 이즈하라번 대속大屬 난바 아사카는 조선국 대수사 부관으로 도해하는 중에, 이전에 교섭해둔 외무성 관리의 한인韓人 면접에 관한 동국 동래·부산의 회답 서한을 지참하고 지금 상경해 있습니다. 위 회답 서한의 일과 관련하여 더 이상 용무가 없다면 현縣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다만 동인은 재한在韓 시절 중에서 올라와 있으므로 용무가 끝난 이상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물론이지만, 대수사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품의해둔 사정도 있어 지휘하시는 대로 즉시 되거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바 아사카는 이번에 이 건과 관련하여 대수사 부사副使를

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대수사 철수까지의 동안에 자연히 부사의 결원이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재한在韓 근무자 중에서 당분간 보충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품의하오니 속히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미(1871년) 11월

소 대승

본성 귀중

26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의 내신^{來信}을 회람시키는 글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

일람^{一覽}

요시오카 고키가 별지를 보내왔으므로 회람하시라고 제공합니다. 이것은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가 한지^{韓地}를 출범하기 10여 일 전에 제출한 서면이라 하는데, 가이즈에게는 모두 구두로 지령했다고 합니다. 문중^{文中}에서 진술한 의미는 지금까지 보고한 바와 달라진 것도 없지만, 역시 자세히 살펴시길 바랍니다.

미(신미, 1871년) 11월

히로쓰 히로노부

모리야마 시게루

승기^{丞記}⁵⁶ 귀중

⁵⁶ 외무성의 대승 소승과 대가 소기를 합쳐서 부른 것.

첨부 10월 13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로부터 소^宗 대승의 제도개혁 통지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내신^{來信}

요즈음 추위가 시작되는 때 여러분께서 더욱 여정^{勵精}⁵⁷으로 봉직하심을 멀리서 축하합니다. 그런데 8월 29일 외무성 서신이 어제 12일 밤중에 도착했는데, 조선 교제에 대한 조치는 아직 평의중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역시 우견^{愚見}을 기탄없이 진술합니다.

이번에 소 씨 사교^{私交}를 중지하고 교제 사무는 모두 외무성으로 돌렸다는 것을 소 대승으로 보고하게 하는 일 건이 성숙^{成熟}될 이유가 여섯 가지입니다.

작년 천관^{賤官}들이^[저희가] 외무출사^{外務出使} 이름으로 도해했을 때 저들이 한 번도 면접하지 않은 것은, 소 씨의 교제가 의연히 존재하니 저들이 만사를 소 씨로 하여금 전하도록 주장하면서 어쨌든 옛 교제의 예격^{例格}에 의거하여 외무성을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 씨의 가역^{家役}을 면하고 종4위는 외무관원으로 임명된 이상, 저들이 소 씨를 중간에 세워 좌우를 추위^{推諉}⁵⁸할 술책을 잃어 형세가 외무성과 통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소 씨의 사교를 중지하고 교제 사무를 모두 외무성으로 돌린 일은 정체^{政體}와 시세에 있어 당연한 조치로, 그 취지를 자세히 저들에게 깨우쳐주면 저들이 이것을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이것을 거절하면 그 잘못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저들이 어찌 즐겨 잘못된 명분으로 우리를 거절하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들은 태조^[이성계]가 ‘동[일본]으로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한 유훈을 굳게 지킵니다. 또 본방^{本邦}과 병력으로 대적할 수 없음을 알아서 전혀 절교할 뜻이 없습니다.

⁵⁷ 마음을 가다듬고 성의껏 힘씀.

⁵⁸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미룸.

위는 종전 소 씨 교제 때, 세건선으로 우리가 보내는 물품이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고 기타 때때로 억압하는 듯한 행동이 있었지만, 저들은 이것을 다투지 않고 이전처럼 물품을 급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조리를 알더라도 환심을 잃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훈도와 저희가 사사로이 만났을 때 저들의 말투에서도 우리와 절교의 뜻이 없음은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우리와의 절교를 원하지 않는 때에 이번의 조치와 같이 조리가 명백한 것을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위의 기회에 세건선 등 잘못된 사례를 깨끗이 씻어내고, 또 저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도창刀槍 등을 뜻에 따라 무역·급여하면 저들이 (일본) 조정의 성신誠信에 감사하고 점차 우리에게 친간懇親⁵⁹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저들이 서양 여러 나라와 교제를 맺는 문제로 밤낮으로 마음을 태우는 때에 오랫동안의 구의舊誼가 있는 우리와 기꺼이 절교할 리가 없다.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일신一新을 알릴 때는 서한에 황·칙皇勅 문자가 있어 자국을 속국처럼 대우하려는 것을 우려하여 단호히 거절했지만, 이번은 외무성과 저들의 예조와 서로 접하는 것이므로 등대等對라서 저들이 좋아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또 근년에 세계의 기운이 날로 열려 종전에 폐쇄한 나라도 모두 개화開化로 나아가는 때에 유독 저 나라만 도저히 시운과 달리 오랫동안 폐색閉塞할 리가 없다. 각각의 정세情勢를 충분히 고려하니 이번의 일거一擧가 성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물며 금일 우내宇內 각국이 안으로는 부강을 꾀하고 밖으로는 원략遠略에 힘써 웅비·분치雄飛奮馳⁶⁰하는 때에 즈음하여 황국만 편안히 수구守舊하면서 진취에 힘쓰지 않고 경계를 접한 조선도 이대로 버려둔다면 반드시 미국·러시아[米魯] 사람들에게 선수를 빼앗겨 이 땅은 그 손안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황국을 위한 이해利害가 어찌할지 실로 천재千載의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⁵⁹ 다정하고 친근하게 지냄.

⁶⁰ 수컷 새가 하늘을 비상하듯이 큰 뜻을 품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분치는 드날리면서 달려가는 것.

또한 천하 일반이 군현제로 돌아가 소宗 씨도 지사를 면하고 교제의 가역家役도 면하여 도쿄 주거를 명한 이상, 이후에 새로운 교제[新交]의 답판을 다하지 않고 버려두신다면 이것은 우리로부터 절교하는 것이 되어 심히 그럴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령 외무성이 직접 교제[直交]하는 답판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10의 8, 9이고 성공할 이유가 10의 1, 2라고 하더라도, 일단 충분히 수단을 다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견선 등 잘못된 사례를 깨끗이 씻는 것과 소 대승의 도해 등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부분을 결정하셨다면 대승이 도해[渡海]하기 전에 먼저 현사縣士 1명을 외무관으로 임명하고 대승의 서간을 가지고 보고報告 사절로 도해 시켜, 이번 교제가 일변한 취지와 대승이 도해 명령을 받은 것을 알리고, 또 본방이 정체를 변경한 정상情狀 및 (조정의) 성의誠意가 대단하다는 것 등을 충분히 설유說諭하도록 하십시오. 위 사절의 설유로 저들이 조정의 뜻을 복응服膺⁶¹하고 외무성과 통교를 승낙한다면 대승이 도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사절에 대한 저들의 응접 모습으로 그 정세情勢도 알 수 있으므로 그런 다음에 대승이 기회를 봐서 정정당당히 도해하여 직접 답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위 보고하는 글의 내용은 저번에 모리야마와 상의해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동인同人(모리야마)이 휴대해서, 전번에 대승 등이 (이즈하라로) 하향下向하기를 준비 하고 기다리면서, (대승과) 상의하기 위해 이즈하라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쿄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어서 (모리야마가) 도쿄로 갔으므로 동인이 제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서간은, 처음부터 외무대승 소 시게마사라고 적고, 또 신인新印을 사용하면 대수사 도해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어지러운 논의가 일어날 것이므로, 처음에는 소 요시아키라라고 적고 또 구인舊印을 사용하고, 문중에 외무대승을 배명拜名한 것 등을 자세히 제시하면 만서萬緒⁶²가 일신一新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단계에

⁶¹ 마음속에 간직함.

이르면 교의交誼가 결국 성속하겠지만, 예의 시의猜疑가 심한 국속國俗이고 또 신구의 일은 그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일부러 지연·지체해서 우리의 예기銳氣를 꺾고 서서히 그 의중意中에 떨어지게 하는 술책을 쓰는 한인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저런 완고한 주장을 펼치고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끝내 우리를 거절할 조리條理는 없습니다. 만약 그럴 때는 반복 설유하고 임기응변으로 책략을 내면 결국 수복綏服⁶³할 것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의론이 일어나더라도 묘의廟議를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만 성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위國威를 더럽히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정의 계책은 본本이고 출사出使의 답판은 말末이니, 묘당의 계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사의 자가 아무리 분발하더라도 충분한 거동擧動은 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히로쓰廣津 등의 의견을 들으시어 전도前途의 조치에 마땅한 평의를 하시고, 원모심려遠謀深慮의 조의朝議를 확정할 수 있도록 진력하시어 마땅한 지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노둔驚鈍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주선하고자 합니다.

신미(1871년) 맹동孟冬(10월) 13일

요시오카 고키

외무 대·소승大少丞 귀중貴中

⁶² 여러 가지 얼크러진 일의 실마리.

⁶³ 중국 고대에 경기를 중심으로 주위를 500리씩 나눈 지역의 하나. 가까운 순으로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이라 했다. 여기서는 쉽게 복종한다는 의미.

27 난바 아사카^{難波安積}의 진퇴에 관한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의안

의관^{議判}·변리^{辨理}⁶⁴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

옛 이즈하라번 난바 아사카라고 하는 자는 지난겨울 미관^{微官}들이 도한^{渡韓}할 때 옛 지사^{知事}가 수행을 명하여 같이 도향해서 재관^{在館}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수사^{大修使} 히구치 데쓰시로^{樋口鉄四郎}의 부관^{副官}【도선주^{都船主}라고 부르며 부사^{副使}에 해당하는 자】으로 다시 옛 지사로부터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도중에 귀국하므로 동인^{同人}도 저들 동래·부산 양사^{兩使}의 회답 서한을 가지고 시게루^茂와 함께 상경했습니다.

그런데 동인은 이곳에서는 아무런 불일도 없고, 저 땅^[조선]에서는 즉 부관으로서 대수사 진퇴까지는 한지^{韓地}에 (대수사에) 딸려 두고자 합니다. 또 현재 공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미관들 중에서 (누군가가) 도한^{渡韓}하여 요시오카 고키에게도 내외 형세를 충분히 얘기하고자 숙야^{夙夜}⁶⁵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도한할 수도 없어 역시 소 대승과도 협의했더니 완전히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아사카를 도한시켜 두 가지 용무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별지 구달안^{口達案}⁶⁶을 첨부하여 품의합니다. 매우 급히 회람하고 평의^{評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신미, 1871년) 11월 12일

히로쓰 히로노부

모리야마 시게루

⁶⁴ 1870년 6월 10일 외무성이 직무를 분과(分課)하면서 각 과의 책임자급 4~5명으로 두어 각 과의 사소한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했다. 의판 아래 각 과의 구성원은 변리(辨理)라고 했다.

⁶⁵ 이른 아침과 깊은 밤.

⁶⁶ 직접 말로 전달할 내용을 적은 문서의 초안.

부지附紙

성省(외무성) 이름으로 하달하면 말할 것도 없이 관비官費로 하는 것이다. 누가 하달하더라도 자비로 왕래하는 것은 불가능할 터이다. 그러나 일찍이 재한在韓 중에는 수당을 쓰시마[對州] 재한청在韓廳⁶⁷에서 수취했으니 여기서 자변自辨할 수 있으면 무방하다.

28 난바 아사카難波安積 진퇴에 관한 구달안口達案

구달안口達案

난바 아사카

그대는 저번에 모리야마 시게루와 함께 상경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착수할 일도 있어 이전처럼 대수사大修使 히구치데쓰시로의 진퇴가 결정되기까지는 동인同人을 부종附從하여 재한在韓하도록 할 것. 이를 하달함.

○부지附紙

이 자의 왕복 여비는 정부에서 관계없다고 한다면 지장이 없는가?

△부전

본문의 취지는 다시 당성當省(외무성)에서 하달하지 않고 조선에 출장한 관원이 지금처럼 명심하도록 하달해야 함. 卿

⁶⁷ 왜관을 이름.

29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이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가 제출한 조선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회람시키는 글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

지급^{至急} 회람함.

별지를 가이즈 시게타로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지^{附紙}로써 회람하시라고
제공합니다. 단, 8월 이래 계속 말씀드렸는데 과연 재한^{在韓} 여러 사람의 체재도
어려워 절박한 형세에 이르렀다는 취지를 동인^{同人}이 구두로 자세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저번에 전망을 토대로 제출한 수순서^{手順書}의 사항들을 매우 급히 평결하
시어 지휘하지 않으시면, 그 사이 저들로부터 공연히 힐난을 일으켜 단연히 철공
철시^{撤供撤市}⁶⁸ 등의 일에 이를 때 곡직^{曲直}·명분·조리가 명백한 응접을 할 기회를
모두 잃고, 저들의 완루^{頑陋}⁶⁹에 압도당하는 실체^{失體}에 이를 것으로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극히 지급^{至急}으로 회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미, 1871년) 11월

히로쓰 히로노부

모리야마 시게루

⁶⁸ 철공은 왜관에 지급하는 생필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고, 철시는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왜관의 개시(開市)를 열지 않
아 공·사무역을 정지하는 왜관 통제 방법이다.

⁶⁹ 낡은 사상이나 풍속에 젖은 채로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음.

첨부1 이즈하라嚴原 현청縣廳에서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에게 상경하여 한지韓地의
상황을 소송 대승에게 면진面陳할 것을 명령하는 글

그대는 별일대관別一代官⁷⁰으로 조선에 파견해두었는데, 외향外向⁷¹의 실정을 탐색한 상황, 또 일본 국내 대변혁에 따라 당장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이번에 쓰시마로 돌아와서 말한 조항들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런데 그 일은 이곳에서 결의하기 어려워 바로 도쿄에 파견하니 대승大丞님께 얘기하고 모든 일은 외무성의 지휘를 요청할 것.

一. 외향을 탐색한 취지는, 이번 폐번치현의 변혁과 소 씨의 지사 및 교린交隣의 가역을 면한 상세한 실정은 저 나라가 이미 숙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전말顛末을 금일까지 소 가문[宗家]이 알리지 않고, 자연히 저 나라에서 공공연히 찾아 물을 때 재관在館 근무자들이 대답하기 곤란하다는데 지극히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대승님이 도한渡韓을 배명拜命하고 있어 속히 현縣에 내려올 것이므로, 모든 일은 도착한 다음 지시할 것으로 기망企望하고 있는데, 그 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전혀 도쿄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변혁을 알리는 일은 중대한 일로 이곳에서 뭔가 지휘하기 어려우니 상경하여 외향의 난처한 위곡委曲⁷²을 대승님께 얘기하고, 매우 급히 통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랄 뿐이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철공철시撤供撤市에도 이를 수 있는 형세이고, 외향의 상황이 곤란한 시기임을 체험해서 아는 대로 자세히 설명할 것.

⁷⁰ 대관은 조일 무역의 교섭과 결제 등 경제적인 면을 담당한 왜관의 쓰시마 관리로 무역의 유형에 따라 일대관(一代官)·이대관(二代官)·정대관(町代官) 등의 구분이 있었다. 당시 가이즈는 일대관으로 파견되었는데, 쓰시마의 부채 해결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별일대관이라고도 불렸다.

⁷¹ 쓰시마에서 바깥쪽이라는 것으로 조선을 의미함.

⁷² 자세한 사정이나 곡절.

갑甲 부전[下ヶ紙]73

폐번치현의 일이 없었을 때조차 소宗 씨가 매우 급히 도한渡韓하여 진력하고자 한다는 의견은 5월에 품의하여 결제決濟를 받은 대로인데, 7월 제도개혁을 한 이상 바로 내려가서 통지 사절을 파견하여 심교尋交를 상량商量해야 함은 당연한 조리이다. 그런데 금일까지 인순因循·지연하여 날로 저들의 의아심과 경모輕侮를 더하고, 마침내 우리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철향철시 등의 일이 생기면, 종전에 성신을 펼친 것도 모두 물거품과 그림의 떡이 되어 앞으로 우리가 착수할 명분을 세울 수 없다고 이전에 품의해 두었는데, 재한在韓의 여러 사람이 본문과 같이 전한 이상은 더 이상 절박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확정하시어 지휘해주시기 바랍.

- 一. 조선국과 왕복하는 쓰시마슈노카미對馬州守의 명호名號 및 저 나라에서 보낸 교제감합勘合 도서圖書(인장)는 폐번치현의 금일에 즈음하여 여전히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체재體裁가 편치 않아 조정에 대해 몹시 두려운 일이지만, 이들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의 문제.

을乙 부전[下ヶ紙]

전번에 품의한 수순서手順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개혁) 통지 서계에 한해서 대호對號⁷⁴ 및 저 나라에서 받은 바의 감합인은 폐하는 것이 물론임.

- 一. 연조송사年條送使의 일은 조정에서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것 역시 금일의 체재에 이르러 그대로 답습할 이유가 없다. 소 씨의 면직을 알린 다음 순서에 따라 폐지해야 할 것도 있다. 특히 내년조來年條 (송사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

⁷³ 사게가미(下ヶ紙)는 부전지의 일종으로, 주로 관공서에서 상사가 의견 등을 써서 문서의 아래에 덧붙이는 쪽지.

⁷⁴ 쓰시마슈노카미(對馬州守)라는 칭호.

라 속히 가부의 명령이 없으면 정말로 난처하기 그지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세전선과 송사로 인하여 초량草梁 땅에 관館을 설치하고 양식은 물론 어·채·신·탄魚菜薪炭의 작은 물품에 이르기까지 구약舊約대로 들여보내 관중館中の 생계를 세우고 있으므로, 첫 번째 단계부터 폐지하면 필요하신 응대부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들의 협상을 어떻게 분부하시는지의 문제.

- 一. 대수사大修使 히구치 데쓰시로樋口鑊四郎 철수 문제는 이전에 품의했는데, 그 건은 아직 아무런 분부도 없다. 이번에 데쓰시로鑊四郎의 면관을 명했다고 구현舊縣에도 지시가 있었다. 때마침 외무소기外務少記 요시오카 고키 님이 재관在館하고 있으니 협의한 다음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합니다. 단, 저 나라와의 교섭은 요시오카 소기님이 그 사실을 관官에 말씀드리도록 협의할 것을 전함.

병丙 부전[下ケ紙]

대수사 진퇴 건은 봄 이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헛되이 체한滯韓하게 해서는 오히려 심교尋交에 지장이 되므로 철수하는 것이 마땅함.

정丁 부전[下ケ紙]

데쓰시로鑊四郎가 본관本官을 면했다는 것은 (대수사가 아니라) 전 이즈하라번 권대참사權大參事を 면한 것임.

- 一. 대승님이 외무 관함으로 도한하면 반드시 조선에서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실情實은 그대가 체인體認하고 있는 대로이다. 아무튼 초반의 방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대승의) 도해 전에 미리 심도 있는 교섭을 하고자 한다. 이들은 도쿄에서 숙고하여 평의하고 있음은 물론이겠지만 다짐하기 위해 다시 지령함.

위의 취지를 대승님 및 오시마 마사토모大島正朝(오시마 도모노조)에게 자세히 말할 것.

11월

전 이즈하라현청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 님

첨부2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 구진서口陳書

설대舌代⁷⁵

- 一. 재관在館의 소민小民과 장사하러 들어오는 한민韓民의 언쟁 등은 때때로 있는 일인데, 이번에 사소한 언쟁으로 10여 일을 철시하고 한 명의 한민도 입관을 허용하지 않아 신탄薪炭과 채소 공급이 매우 곤란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언제 철향철시에 이를지도 모를 형세라서 재관 일동이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 一. 조선 소통사小通事가 재관 통사通詞에게 자주 폐번입현廢藩立縣 및 소宗 씨의 지사 직과 가역家役 모두 면직된 것을, 비밀리에 말을 한다고 하면서 따져 묻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통사가) 품의하였지만 뭐라고 지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매하게 미봉하는 중에 훈도가 (왜관으로) 내려오면 공공연히 물을 터인데, 이것 또한 밤낮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미(1871년) 11월

가이즈 시게타로

⁷⁵ 말의 대신이라는 뜻으로, 편지나 쪽지 따위를 쓸 때 첫머리에 쓰던 말.

외향 탐색外向探索

일본이 정체를 변혁한 경위는 청국의 고지로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조선의 정치는 먼저 시행하기 전에 깊이 논의를 수렴하여 발령하고 그 후엔 이것을 쉽게 개정改正하지 않는 것을 좋은 법이라 한다. 들은 바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 날로 새롭게 개화開化의 풍조가 유행하여 걸핏하면 어제 옳은 것이 오늘 그른 것이 되는 폐단이 없지 않다고 한다. 위와 같이 착목着目⁷⁶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의 일에 있어서도 의미의 어긋남이 많고 의아심 또한 적지 않아 고민입니다.

- 一. 중국[支那]과 조선을 비롯해 해외 각국 어디라도 군현제를 시행한다. 단지 일본만 홀로 봉건의 정치를 함은 시세에 맞지 않으므로 정체의 큰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이전부터 우리의 서울에서도 통찰했다.
- 一. 외무관원이 헛되이 체관滯館함은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헤아리기 어렵다. 혹은 서양인과 협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없지 않다.
- 一. 지금 일을 맡고 있는 동래부사는 조선에서 굳세고 용감한 강력한 사람이라서 마침내 과격한 조치 등이 서울에 알려졌지만, 여전히 동래에 그대로 둬온 깊은 뜻이 있습니다.
- 一. 양이론攘夷論은 마침내 확정되어 방어 기계 등의 준비에 오로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위의 취지는 각 도·부·현에 비석을 세워 보이고 있음. 그 비문은 다음과 같음.

⁷⁶ 어떤 일을 주의하여 봄.

부산 홍문紅門에 세운 비석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을 하자는 것이고 화친을 하자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니 자손만대에 경계한다. 병인년에 지어 신미년에 세움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戒萬年子孫 丙寅作辛未立”⁷⁷

- 一. 소 씨라면 수백 년의 오랜 친교가 있어 인호隣好가 변치 않음은 물론이고 기망企望하는 바이다. 가령 이후에 다른 성씨의 인물이 새로 쓰시마[對州]에 들어와서 전맹前盟을 잇고자 해도 수궁하지 않을 것이다.
- 一. 훈도 준경俊卿⁷⁸이 관문關文에 따라 갑자기 상경한 것은 대원군이 총우寵遇⁷⁹하는 깊은 뜻에서 나왔다. 경기도에 가까운 중요한 곳의 사또로 승직昇職할 것이라 한다. 후임은 덕민德民⁸⁰이라는 사람이 곧 하래한다고 합니다.

30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조선에 제도개혁 통지의 건을 속히 평결할 것을 청하는 글

소 가문[宗家]에서 제도개혁과 면직 등을 사절로써 (조선의) 예조에 알리는 서계안書契案과 대승大丞 관함官銜으로 동래·부산 양사兩使에게 보내는 서계안 및 결국結局의 전망을 운운하는 글을 정서하여 조정에서 논의하도록 품의하였습니다. 마침 서양 여러 나라로 사절이⁸¹ 출발하는 시기에 접어들어 특별히 공무가 다단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조선으로의 사절 파견을)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서양의

⁷⁷ 현재 남아 있는 첩화비와 비교하면 ‘萬年子孫’ 앞에 ‘我’ 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⁷⁸ 준경은 안동준(安東駿)의 자(字)이다.

⁷⁹ 귀여워하고 사랑하여 특별히 대우함.

⁸⁰ 1874년에 훈도로 부임하는 현석운(玄昔運)의 자(字)이다.

⁸¹ 1871년 11월 12일부터 1873년 9월 13일까지 미국과 유럽에 파견된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을 말한다.

로) 사절을 파견하시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도 애매한 상태에서 천연遷延해서는 더욱 위신도 세우기 어렵고 저 나라에서 경멸하는 모습을 거듭 보일 뿐만 아니라, 심교尋交의 기회를 전부 잃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 각하閣下로부터 경·보 전하殿下께 충분히 건의해 주시길 매우 간원懇願합니다. 이상.

미(신미, 1871년) 11월 13일

히로쓰 히로노부

모리야마 시게루

야나기하라 대승

구스모토 소승

전하

미야모토 소승

하나부사 대기

매우 급히 차례차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31 정원正院에서 조선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서한 안을 산정刪定함에 따라 신칙申飭하는 글

조선국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서한안書翰案을 패지掛紙⁸² 주서朱書대로 산정刪正⁸³ 하면 문제가 없는지, 매우 급히 조사하자마자 보고할 것.

⁸² 가케가미(掛紙). 수정이나 정정을 표시하는 부전지.

⁸³ 산정(刪定). 글 자구(字句) 따위를 깎고 다듬고 하여 잘 정리함.

신미(1871년) 11월 27일

정원(正院)

소에지마(副島種臣) 외무경 님

데라시마(寺島宗則) 외무대보 님

[편자 주] 본문에서 언급한 서한안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32 동건(同件)에 관한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의견서

소 대승님 서계안(書契案)에 패지(掛紙) 주서(朱書)로 산정(山正)하신 문면(文面)에 대한 우견(愚見)을 아래에 말씀드립니다.

一. 제도개혁을 알리는 서계에 단연코 관함(官銜)을 고치고 인장(印章)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갑자기 새로운 관칭(官稱)을 적어 보낼 때, 저들이 개봉하지 않고 돌려보냄은 필연입니다. 개봉하지 않으면 의미가 통달(通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리기까지의 서계는 옛 방식을 따르고, 이어서 새로 명한 관함과 인장으로 동래·부산에 심교(尋交)의 서계를 보내면 저들이 굳이 거부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 처음부터 산정(刪正)하신 대로 적어서 보내면 받지 않을 것임을 각오하고, 받지 않음에 따라 논란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나아가지 않고, 성패(成敗)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관철하기까지 산정(算定)이 없으시면 무년(戊年(무진년))(1868년)에 일신(一新)을 알린 결말처럼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뿐 아니라, 뒷날의 계획이 딱 막힐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실(情實)을 밝게 살피시어 평결(平決)해주시기 바랍니다.

一. 천자(天子) 친정(親政) 운운. 무년에 일신을 알리는 서계에 황·칙(勅) 문자가 있어 의론(議論)이 일어나고, 그런 끝에 본성(本省)과 예조(禮曹)⁸⁴가 등대(等對)로 심교(尋交)한

다는 설說로 귀결되어 금일의 수순手順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다시 천자 문자를 사용할 때 자구字句의 논란이 일어남은 필연이므로, 이것 또한 철저한 응접應接을 확정하신 후가 아니면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11월 28일

히로쓰 히로노부

모리야마 시게루

33 모리야마 시게루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제도개혁을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내유서內諭書를 내릴 것 등을 청하는 의견서

- 一. 이번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일은 무진戊辰(1868년) 이래 조선심교사무朝鮮尋交事務 성부成否의 일단락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경우라서 그 사사건건 수순手順·전망 등은 미관微官들이 친히 품의를 거쳐 정할 일이지만, 지난겨울 이래 우두머리 관리로서 체한滯韓하고 있는 요시오카 고키에게는 올해 여름 미국 군함이 한국을 습격했을 때와 같이 경·보 각하가 대의를 내유서內諭書로 내려주시길 바람.
 - 一. 조선국이 소 씨에게 대대로 감합勘合의 도서圖書(인장)를 주었습니다. 이 도서를 소지하지 않은 배는 모두 해적선 혹은 표류선으로 취급한다는 조약이므로, 이번부터 서계書契에는 새 인장을 사용하더라도 심교尋交가 성숙하여 새 조약·새 감합인 등의 논의에 이르기까지는 왕복하는 배에 옛 감합 도서를 사용하겠다고 저 나라에 제의해두고, 결국 성부成否가 정해져 화해나 절교를 결정할 때 돌려주기로 상담하도록 할 각오임.
- 위를 품의합니다.

84 원문의 記書는 예조의 오기이다.

미(신미, 1871년) 12월 5일

모리야마 시게루

히로쓰 히로노부

- 34**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제도개혁 통지를 저들이 수용하지 않을 때는 쓰시마^[對州] 사민^{士民}을 거느리고 한지^{韓地}를 퇴거할 것 등을 품의하는 글
지급^{至急} 회람함.

이번에 소 씨가 통지를 위해 건네는 서계가 옛 방식을 탈피하고 현재의 관함과 새로운 도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상은, 지난날 전망을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그 서계를 받지 않음은 필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임기응변으로 설파하여 곡직과 조리를 강명^{講明}해야 함은 물론인데, 저들이 더욱 완우^{頑愚}를 보일 때는 쓰시마^[對州] 사민^{士民}을 정리하여 결국은 일단 한토^{韓土}를 철수할 각오임.

×지느러미 모양의 부지^[鰭附紙]⁸⁵

첫 조항은 저들이 더욱 완우^{頑愚}를 보일 때는 관원 및 이즈하라^{嚴原} 옛 현사^{縣士}만 철수하는 것이 마땅함. 쓰시마^[對州] 인민은 철수하지 않는 것으로 함. 표류민은 될 수 있으면 절차를 만들어 보내야 함. 대체로 양국 정부의 논의가 합의되지 않았을 뿐으로 국민은 서로 원한을 품지 않도록 조치하여 앞으로 양국 인민이 서로 왕래한다는 뜻을 배태시켜 두어야 함.

나머지는 품의한 대로 할 것. ㉠⁸⁶

⁸⁵ 히레츠케가미(鰭附紙)는 지느러미 모양의 부전으로 대체로 문서의 우하단에 첨부하여 내용을 승인할 때 사용한다.

⁸⁶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의 서명으로 보임. 개명 전 그의 이름이 지료마(次良鷹)였다.

- 一. 설령 철수한다고 해도 현재의 초량草梁 왜관의 땅은 확실히 정해두어 훗날을 도모함에 편리함으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10인에서 20인을 선발하여 남겨 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식료품 등은 공금 내에서 조달해둘 예정임.

○부전지[下ヶ紙]

첨가할 글.

인원을 남겨두는 일은 그 시기時機에 따르더라도 양국 상인의 사정도 있으므로 내정內情을 살피고 남겨두는 자는 모두 상인의 모습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함.

- 一. 마침내 거절의 상황에 이를 때는 철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화친이나 절교에 상관없이 종전에 건너갔던 사람 수 중에서 쓸모없는 무리부터 차차 철수시켜 사람들의 숫자를 감소하고자 함.
 - 一. 성부成否가 결정이 나지 않은 동안에는 소위 사사로운 것 중에서 가장 사사로운 무역은 양국 민정民情에 따르고 상인들의 견해대로 허락해서 시험하고자 함.
 - 一. 성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동안이나 결정된 후에 표류민이 있을 때 유치留置 시키거나 혹은 송환하는 것은 시기時機에 따라 지시하려고 함.
 - 一. 도서圖書(인장)를 바꾸면 세건선·송사 등의 일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폐지되게 되는 것이므로, 미신微臣들이 (쓰시마로) 내려가는 도중에 나가사키長崎에서 쌀과 소금 등 불가결한 물품은 대략 2, 3개월분을 준비해서 신고 건너가고자 함. 단, 이 부분은 각각 조선 경비經費 중에서 준비할 예정임.
- 위의 조항들에 대한 조처 방법을 지휘해주시길 품의합니다.

미(신미, 1871년) 극월極月[12월]

모리야마 시게루

히로쓰 히로노부

△부지附紙

이 별지는 위임장과 같은 것으로, 그곳[조선]에서 보여줄지 말지의 판단도 어려우니 우선 당성當省(외무성)에서 변경하지 않고 잠시 요시오카吉岡 일행의 처분에 맡겨두는 것이 마땅함. 하달하지 않고 조선에 출장한 관원이 지금처럼 명심하도록 하달함이 마땅함.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음.

寺島宗則

35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도한할 기선을 빌릴 것 등을 청하는 글

- 一. 출장하는 각자에게 태정관으로부터 새로 문서를 받고자 합니다.
- 一. 겨울철 도한渡韓의 경우 해상이 험난한 실정은 저번에 진술해둔 대로인데, 제도 개혁의 통지가 매우 지연된 상태이므로 저 나라에서 힐문詰問하는 것과 우리가 알리는 것의 전후前後는 털끝만큼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곡직과 명분이 서느냐 서지 않느냐와도 관계하므로 나가사키에서 여러 현 소유의 증기선을 빌려 도해하고자 합니다. 이를 승낙해주시기 바랍니다.
- 一. 이마리현今里縣, 伊万里縣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가 있어 당성當省 관원 아무개 등을 조선국에 파견하니 만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협의합니다.

월 일

위를 매우 급히 지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신미, 1871년) 12월

히로쓰 히로노부

모리야마 시게루

36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제도개혁을 알리는 사신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 외 2명에게 관등을 하사할 것을 청하는 글

- 一. 이번에 소 씨가 파견하는 사절은 이즈하라의 옛 현사 사가라 단조相良丹藏⁸⁷로 하고자 함. 그런데 (소) 대승님 집안의 사절이라는 형태이지만, 결국에는 외무성 명령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의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외무성 관임출사判任出仕로 명하여 10등의 관록官祿 및 정액 여비와 일당 등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신微臣들이 이즈하라현에 도착하자마자 (사가라 단조의) 출장을 알려 공무가 지체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함.
- 一. 가와모토 구자에몬川本九左衛門이라는 자는 한지韓地에서 교섭할 때 문장이 매우 뛰어나므로 이번에 하나의 작은 국면을 이루는 경우엔 반드시 동행시키고자 함. 아울러 우라세 사이스케라는 간전관幹傳官은 협상에 꼭 필요한 인물이므로 함께 출사에 임명하여 가와카미川上⁸⁸는 12등, 우라세는 13등의 관록 및 정액의 여비 등을 내려주길 바랍.
- 위를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신미, 1871년) 12월

히로쓰 히로노부

모리야마 시게루

⁸⁷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 1836~1909). 그는 1890년 제1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나가사키 6구(쓰시마)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⁸⁸ 가와카미(川上)는 가와모토(川本)의 오기로 보인다.

37 내사^{內史}에서 조선에 제도개혁을 알리는 서한을 재정^{裁定}한 내서^{來書}

3071호

소 외무대승이 조선국에 보내는 문서의 초안 2통은 품의를 마쳤으므로 돌려줍니다.

신미(1871년) 12월 4일

내사^{內史}[나이시]⁸⁹

외무경·보외^{務卿輔}⁹⁰ 님

첨부1 소^宗 대승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글

일본국⁹¹ 외무대승 종4위 다이라노 요시아키라가 조선국 예조참판 모^某 공^公 합하게 글을 바칩니다.

조선국 예조참판 모공 합하.

아방^{我邦}은 무진년^{戊辰年}(1868)에 나라의 제도가 일신한 이래 천자가 친정하여 막부를 폐하고 태정관을 두었으며 봉건을 바꾸어 군현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세습의 관리는 모두 그 관직을 파하여 저 요시아키라^{義達} 또한 쓰시마노카미^{對馬守} 직임과 좌근위소장^{左近衛少將} 직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방과 귀국의 교제를 담당하는 세직^{世職}⁹²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요시아키라를 외무대승으로 임명하여 외무경이 조정의 뜻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번에 조정에서 조선

⁸⁹ 내기(內記, 나이키)라고도 하며 조정의 기록을 담당하는 서기.

⁹⁰ 외무경은 소에지마(副島種臣), 외무대보는 데라시마(寺島宗則).

⁹¹ 뒤의 한역본에는 '대일본국'으로 되어 있다.

⁹² 대대로 물려받는 관직이나 직업.

국과 구 맹약을 계승하고자 너에게 명하여 그 일을 책임지고 말도록 했다. 그런데 외국과 교제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외무성을 두고 이를 관장하게 했다. 그러므로 작년 10월에 또 외무관원 모 등을 파견하여, 가서 동래와 부산의 양사兩使를 만나서 본국의 성의가 있는 바를 진술하게 했다. 그러나 저들이 아직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네가 비록 세직에서 해직되었어도 그 구교舊交는 본디부터 있었으니 너를 직책이 있는 관리로 임명하여 다시 양국의 구교를 잇는 일을 고하게 했다. 너는 모름지기 조정의 성지盛旨를 잘 체인體認하고 속히 사절을 보내 그 사유를 밝히고, 아울러 피차가 이와 입술 사이이니 마땅히 구교를 닦고 신맹新盟을 강구해야 할 이치를 설명하여 국가 선린의 성의를 통하게 함으로써 영원히 변하지 않는 좋은 계책을 이루어야 한다.

요시아키라義達 삼가 그 명을 받들어서 이미 그 일에 따라 바로 가신 아무개⁹³로 하여금 이 일을 알리게 합니다. 합하閣下께서 이를 밝게 살펴 주십시오. 요시아키라義達는 사정이 있어 이름을 시게마사로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같이 아뢰니다. 이만 줄입니다. 불선不宣.

메이지 4년⁹⁴

첨부2 소宗 대승이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글의 한역漢譯

大日本國從四位外務大丞平義達呈書

朝鮮國禮曹參判某公閣下

我

⁹³ 뒤의 한역본에는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가 표기되어 있다.

⁹⁴ 뒤의 한역본에는 메이지 4년 신미 8월로 되어 있다.

邦自戊辰之歲國制一新以來
天子親政廢幕府置
太政官革封建爲郡縣於是世襲之官皆罷其職如義達亦解對馬守任及左近衛少將
官竝止我
邦與
貴國交際將命之職更以義達任外務大丞矣今又蒙令
外務卿傳
旨曰嚮
朝廷欲與
朝鮮國尋舊盟而命汝幹其事但至外國交際之事則旣置
外務省管之故昨年十月特遣外務官員某等往晤東萊釜山兩使以令陳述
本邦誠意之所在而於彼國尙未領悉之今雖解汝世職以其舊交有素任汝現官更令
汝告尋
兩國舊交之事汝須克體認
朝廷之盛旨速差使以語其狀由并說彼此脣齒之間宜修舊交講新盟之理以達
國家善隣之誠意以成永遠不渝之良圖義達敬奉其
命旣從其事乃使家人相良正樹以報此事
閣下其明諒焉義達有故改名重正合併拜告肅此不宣
明治四年辛未八月

첨부3 소宗 대승이 동래·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글

대일본국 종사위 외무대승 다이라노 시게마사가 조선국 동래·부산 양 영공^{令公}

합하閣下께 글을 바칩니다.

아방我邦의 정체가 일신한 모습 및 시게마사重正 본인은 양국 교제를 중개하는 직임을 맡을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곧바로 일찍이 가인 아무개를 시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생각건대 양공兩公 합하께서는 이미 굽어살피셨을 겁니다.

대저 본방本邦이 귀국과 교류한 깊은 정이 이미 300여 년이고, 시게마사가 대대로 그 알선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정이 시게마사의 관직을 면직하고 오히려 수백 년 구 교류의 정을 생각하여 특별히 시게마사를 외무대승에 임명하여 양국 심교尋交의 일을 고하도록 명했습니다.

본 성(외무성)은 다시 파견해둔 관원 요시오카 고키 등으로 하여금 양공兩公 합하를 만나 뵙고 그 자세한 사정을 말하고 또 심교하는 성의盛意가 있는 바를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양공 합하께서는 양국의 좋은 방도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좋은 것에 따라서 요시오카 고키 등을 관접款接하고, 그 진술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절대로 본 성의 간곡한 정의情誼에 반하여 물리치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성신이 있는 곳에 말이 충심에서 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양공 합하께서는 그것을 살피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불선不宣.

메이지 4년

첨부4 소宗 대승이 동래·부산 양사에게 보내는 글의 한역漢譯

大日本國從四位外務大丞平重正呈書

朝鮮國東萊釜山兩令公閣下

我

邦政體一新之狀及重正不能自司

兩國交際將命之職等情乃曾使家人某報知之諒

兩公閣下已賜垂鑒焉蓋

本邦與

貴國隣誼之深業既三百有餘歲重正歷經爲之斡旋今也

朝廷免重正之職猶念數百年舊交之情好特任重正外務大丞命告

兩國尋交之事

本省更令原差官員吉岡弘毅等拜晤

兩公閣下備語其委曲又陳述尋交盛意之所在其惟

兩公閣下以

兩國良圖以爲重從善款接吉岡弘毅等聽納其所陳述萬勿反拂

本省懇篤之情誼爲幸誠信所在言繇衷出伏冀

兩公閣下其諒之矣肅此不宣

明治四年辛未十月

38 사가라 단조^{相良丹藏}와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의 외무성 등용 건을 이마리현^{伊万里縣}에 명령할 것을 상신하는 글

별지에서 신청한 취지는 그 성省에서 바로 하달하기 바람.

미(신미, 1871년) 12월 8일

사관^{史官}

외무성 귀중⁹⁵

⁹⁵ 이 부분은 아래 외무성 상신서에 대한 회답으로, 아래 문서가 별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선사무서』 편자가 이 부분을 무시하고 제목을 단 것인데, 일단 여기서는 제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10등출사 옛 이즈하라현 사족 사가라 단조

12등출사 옛 이즈하라현 사족 우라세 사이스케

위와 같이 명령을 내려고 하오니, 매우 급히 이마리현^{今里縣, 伊万里縣}에 하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미(신미, 1871년) 12월 7일

데라시마 외무대보

소에지마 외무경

정원^{正院} 귀중

39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도한^{渡韓}을 청원하는 글

히로쓰 히로노부가 오는 17일 편으로 한지^{韓地}로 출발하고 싶다는 원서^{願書}

이마리현^{今里縣, 伊万里縣}이 주장한 취지를 들어주시어 이마리현 관원도 차차 출장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당지^{當地}에서는 진퇴의 수순도 세우지 않아 아무튼 두 명[%]이 헛되이 히로노부^{弘信}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달 17일 우편선으로 히로노부의 출장을 명하시어 묘의^{廟議}가 지연되는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또 한지^{韓地}의 근황과 이마리현 관리가 의견을 제기한 목적은 그곳에서 깊이 생각하여, 요시오카와 모리야마와 숙의^{熟議}한 다음 다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평의하시길 매우 급히 원합니다.

96 요시오카 고키와 모리야마 시게루.

10월 12일

히로쓰 히로노부

야나기와라 대승님

구스모토 소승님 서면의 취지에 대해 이론 없음.

미야모토 소승님 동(同)

하나부사 대기님 서면에서 원한대로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함.

40 사관史官에서 조선행 공금 관련 서면을 받았다는 증거서류

기記

조선행 공금 건에 대해 서면 한 통을 정히 영수함.

미(신미, 1871년) 12월 13일

사관史官

외무성 귀중

41 대장성大藏省에 조선행 여비 및 공금 수취 건을 조회하는 글

13일 정원正院에 전달함.

14일 대장성에 서무庶務가 전달함.

당 성當省(외무성) 모리야마 권대록·히로쓰 권대록·10등출사 사가라 단조相良丹藏·12등출사 우라세 사이스케 등이 이번에 공무로 조선국에 출장 가니, 공금 및 월급 가불假拂, 여비, 준비금 모두 모레 15일에 수취할 부분을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별지 대로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미(신미, 1871년) 12월 13일

외무성

대장성 귀중

추신. 히로쓰 권대록 건은 올 8월 중 소_宗 외무대승 수행을 명받았을 때 준비금
및 6개월분 일당 모두를 수취 완료했습니다.

첨부1 모리야마 권대록_{權大錄} 등의 여비 조사서

각覺

一. 금_金 180냥

이것은 모리야마 권대록 외 3명의 정액 숙박료. 내지_{內地} 왕복은 대체로 2개월
을 예상함.

一. 양은_{洋銀} 1,350원_元

이것은 출장 관원 요시오카 외무소기_{外務少記}(현재 재한在韓) 및 그 외 4명의 조선국
체재 90일을 예상하여 올 8월 중에 협의를 끝낸 것처럼, 하루에 1인당 양은 3원
씩을 어림잡음.

一. 양은 260원

이것은 모리야마 권대록·히로쓰 권대록이 요코하마_{橫濱}에서 나가사키_{長崎}까지
왕복하는 파발의 배삐.

단, 상등석 2명. 종자는 하등석 2명분.

합

금 180냥

양은 1,610원

첨부2 모리야마 권대록^{權大錄} 등의 월급 조사서

월급 가불분

각覺

一. 금 250냥

이것은 모리야마 권대록의 올 12월부터 앞으로 5개월분 월급의 가불.

一. 금 250냥

이것은 히로쓰 권대록의 것으로 앞과 동일.

一. 금 200냥

이것은 10등출사 사가라 단조의 것으로 앞과 동일.

一. 금 125냥

이것은 12등출사 우라세 사이스케의 것으로 앞과 동일.

이상.

첨부3 모리야마 권대록^{權大錄} 등의 수당 조사서

준비금만

모리야마 권대록

준비금과 일당 모두

10등출사 사가라 단조

동同

12등출사 우라세 사이스케

위의 준비금 및 5개월분 일당을 정액대로 건네주길 바랍니다. 단, 모리야마 권대록 건은 8월 중에 9월부터 이후 6개월분 일당을 수취했으므로 건네지 않아도 됨.

첨부4 공금 조사서

각覺

공금

一. 금 2,300냥

이것의 내역.

一. 금 1,500냥

이것은 나가사키현 혹은 이마리현에서 조선국까지 증기선을 빌리는 대금의 대략을 어림잡음.

一. 금 500냥

이것은 조선국에서 저 나라 관원과 응수하는 여러 비용 수당의 대략을 어림잡음.

一. 금 300냥

이것은 조선국에서 나가사키까지 돌아올 때 일본 전통 선박을 대절貸切하는 요금의 대략을 어림잡음.

이상.

○부전[下ケ札]⁹⁷

이 공금 부분은 금명일 중 정원에서 하달할 것이므로 유념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⁹⁷ 사게후다(下ケ札)는 부전지의 일종으로 대체로 문서의 아래에 첨부하여 본문을 보충하거나 평의할 때 사용한다.

42 고바야시 다다시 小林匡의 도한을 면하는 사령서 辭令書

권소록 고바야시 다다시

공무가 있어 조선국에 파견하겠다고 하달해두었는데 취소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의 하달서는 반려함.

신미(1871년) 12월 15일

외무성

43 소종 대승의 도한을 면하는 사령서 辭令書

외무대승 소 시게마사

조선국에 파견하기로 명령해두었는데 면함.

신미(1871년) 12월 18일

태정관

44 대·소승 太少丞이 사가라 相良 외 1명에게 등용 사령서를 첨부하여 신칙하는 글

사가라 마사키 님

외무대·소승

우라세 사이스케 님

별지대로 당 성當舖(외무성) 출사 명령 및 태정관의 하달서 등 각각 수취하여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조선국 사무는 모리야마 권대록·히로쓰 권대록에게 문의하여 힘써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외무경·보외務卿輔의 명에 따라 전합니다.

신미(1871년) 12월

추신. 하달서를 각각 충분히 이해한 다음 수령서를 제출할 것.

45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이 사가라 외 1명이 문제가 있는 경우 쓰시마(對州)에서 임시로 대신할 사람을 뽑을 것을 품의하는 글

쓰시마(對州)에 있는 사가라 마사키와 우라세 사이스케 두 명에게 구달서(口達書)⁹⁸가 건네지고 미신(微臣)들이 휴대하여 그곳에서 두 사람에게 전달하더라도, 만약 두 사람 중에 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장애 등으로 명을 받들기 어려울 때는, 매우 급한 공무라서 본성에 품의할 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가려 뽑은 다음 두 사람을 대신할 인물에게 공무를 변리(辨理)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출사(로임명하는) 서면 및 도한(渡韓)하라는 본성의 하달서도 직접 미신(微臣)들이 작성하여 하달하고, 그 후에 자세히 (본성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품의합니다.

신미(1871년) 12월

모리야마 권대록

히로쓰 권대록

⁹⁸ 구두로 전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46 경·보(卿輔)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등에게 사가라 외 1명이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대신할 사람을 뽑을 것을 명령하는 글

외무소기 요시오카 고키
외무권대륙 모리야마 시게루
외무권대륙 히로쓰 히로노부

이번에 사가라 마사키와 우라세 사이스케를 본 성本(외무성) 출사로 명하여 조선
 국에 파견하므로, 위의 본인들에게 하달할 때 만일 병이나 장애 등으로 명을 받들
 수 없으면, 매우 급한 공무이므로 본 성에 품의를 기다리지 않고 위의 두 사람을
 대신할 인물을 신중히 선택하여 고용을 언도하고 아울러 도한渡韓 하달서는 그대
 들이 함께 작성하여 본인들에게 임시로 건네고 본 성에 지급至急 보고할 것.
 단, 인물 선택 건은 이마리伊万里 현청縣廳과 협의할 것.

신미(1871년) 12월

47 12월 일 한국 문세(韓事)를 결의한 다음 모리야마(森山)와 히로쓰(廣津)의 도한을 명할
것이므로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에게 협의할 것을 전하는 서신

한 자 적어 아웁니다. 혹한의 계절이지만 성상께서는 더욱 기분 좋게 계시어 같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도 장건壯健하게 한국에서 잘 지내시는 것을 진중珍重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곳의 경·보 양 각하를 비롯해 일동이 별일 없이 봉직하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계신 것도 점점 오래 늘어나 만사 신경 쓸 일이 많을 것으로 멀리서 살핍니다. 이번에 조선국과 관련된 사무

를 결의하시어 모리야마 권대록·히로쓰 권대록 외 2명을 파견하게 되어 경·보 양 각하로부터 별책과 같이 내유內諭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기초하여 만사 주의하시어 진력하시길 기망企望합니다. 위를 알리고자 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근언謹言.

신미(1871년) 12월

외무대·소승

요시오카 외무소기 님

추신. 시하時下 부디 (몸을) 소중히 여겨 양생養生하시길 빕니다. 이곳의 사정은 모리야마 등으로부터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48 경·보卿輔가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에게 진퇴 처분에 관해 내유內諭하는 글

제5호 ㄹ인印

외무소기 요시오카 고키

조선국과 심교尋交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난겨울 이래 도한渡韓하여 진력하는 중에 저들의 풍속이 완고 불변해서 사명使命을 이루지 못하고 지체되어 금일에 이르렀다. 따라서, 다행히 외무대승 소 시게마사가 구호舊好의 인연이 있어 이번 에 다시 예조 및 동래·부산 양사兩使에 서한을 중개해서 전하여 본방本邦의 성의誠意를 보이고 심교尋交 허부許否의 저의底意를 물으려 하니, 진퇴의 처분이 마땅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처리의 유의사항 등과 같은 것은 별책대로이니, 이를 내유內諭함.

신미(1871년) 12월

외무경·보

49 경·보 卿輔가 모리야마 시게루 森山茂·히로쓰 히로노부 廣津弘信에게 요시오카 고키 吉岡弘毅와 신중하게 참작하여 판단하라고 지령하는 글

외무권대록 外務權大錄 모리야마 시게루 森山茂

외무권대록 히로쓰 히로노부 廣津弘信

조선과 심교 尋交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기 少記 요시오카 고키에게 내유 內諭해 둔 것도 있으니, 사절의 일[使事]은 신중하게 참작하고 판단해서 진력할 것.

신미(1871년) 12월

외무경·보

50 나가사키현 長崎縣에 모리야마 森山·히로쓰 廣津의 도한에 따른 편선 便船 등을 준비할 것을 의뢰하는 글

나가사키현

외무성

이번에 모리야마 外務權大錄·히로쓰 外務權大錄 외 2명이 공무가 있어 조선국에 파견됨에 따라 그곳[나가사키]에서 항해하니 본인들이 요청하면 바로 증기선 등 기타 제반 사항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십시오. 다만 뱃삿은 당사자가 지불하겠지만, 부족한 것이 생기면 이것 역시 환어음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의뢰합니다.

신미(1871년) 12월

51 이마리현伊万里縣에 모리야마森山·히로쓰廣津의 도한에 따른 편선便船 등을 준비할 것을 의뢰하는 글

이마리현伊万里縣

외무성

이번에 모리야마 외무권대록·히로쓰 외무권대록 외 2명이 공무가 있어 조선 국에 파견되는데, 상황에 따라 그 관내管内 사가佐賀에서 항해하니, 그때는 본인들이 요청하면 바로 증기선을 비롯해 기타 제반 사항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십시오. 단, 뱃삿은 당사자가 지불할 것입니다. 이를 의뢰합니다.

신미(1871년) 12월

52 모리야마森山 권대록 등 도한 관련 공금을 전용轉用하여 수취하는 의안議案

고高 3,506냥 3부步 2슈朱⁹⁹ 중에서

금 506냥 3부분 2슈朱

양은洋銀 1,610원元

위는 모리야마 권대록 외 3명이 조선국에 지급至急 출장 명령을 받고 내일 19일 이곳을 출발하는데, 공금과 기타를 별지대로 대장성大藏省에서 수취하는 것은 짬이 없으므로, 이 중 3,000냥은 조선행 공금 예치금으로 전용하고, 나머지 서면에 기재한 분은 정액금 중에서 전용해두고 금명일 중 대장성으로부터 틀림없이 수취하여 그대로 채워 넣으려 합니다. 이를 품의합니다.

신미(1871년) 12월 18일

⁹⁹ 부(步)는 부(分)의 음차. 1분는 1/4냥, 1朱는 1/4分.

53 소宗 대승이 초량관草梁館에 근무하는 자에게 유시諭示하는 글

메이지 4 신미년 12월 소宗 종4위가 재한在韓 근무자들에게 유시하는 글

이번 폐번치현廢藩置縣의 변혁으로 지사知事와 가역家役 모두 면직되었다. 지금부터 한국 교제는 오로지 외무성에서 관장하는 체재體裁와 그 사유를 갖추어 이번에 자가自家의 사절 이름으로 동국同國에 통지하기에 이르렀다. 교제상 자가와 관계된 모든 절목節目은 별지 사본대로 우리가 참작 판단하여 품의하고 승낙을 받은 취지에 기초하여 조치함은 물론이다. 단, 대한對韓 수백 년의 교정交情과 구의舊誼를 인정하여 나를 외무대승에 임명하고 이후에도 한국과의 교제에 관여하도록 했다. 이 기회에 양국이 심맹尋盟하여 더욱 구교舊交를 닦고 이와 입술이 되어 만세토록 서로 보호하자는 성의誠意¹⁰⁰를 본 성本省(외무성)에서 저 나라에 고유告諭하는 바, 나의 현직 관함으로 작성한 서계를 후대해서 다시 외무 관원이 바다를 건너가서 동래·부산 양관兩官을 면담하고, 황조皇朝의 위신을 저 나라 정부에 관철하도록 끝까지 분려奮勵한다는 결의決議이다.

따라서 재현在縣·재한在韓 근무자들은 각각 그 취지를 체인하여 대소경중大小輕重과 관계없이 매사(외무) 관원의 처분에 응하여 조정의 뜻을 관철하고 공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협력해야 한다. 원래 이번의 일은 신정新政을 통보하는 일과 달리, 미증유의 정체政體 변혁에 따라 한토韓土 교제의 체재와 방식도 같이 바뀌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저들이 완고하더라도 그 조리條理와 정실情實에 있어 지금 다시 이의와 난제를 내세울 말은 없을 터이다. 그렇지만 만일 누습陋習에 젖어 전철前轍을 밟고 이후에도 더한층 강함에 의지해서 불손한 거동으로 나올 때,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 내가 전하는 서계안은 이미 조정에서 평의한 다음 전문全文 초고를 내려주신 것이다. 이것에 따라 모든 대책을 묘당廟堂

¹⁰⁰ 원문은 ‘成意’로 되어 있으나 ‘誠意’의 오키로 보인다.

에서 깊이 전의諍議를 다해두신 것으로 삼가 생각한다. 특히 동국同國 공무에 대해 관맹寬猛 두 길의 완전한 해결을 확정하는 것은 계속 건의해둔 사정도 있다. (조선과 심교하는) 이 공무에 있어 지금의 조치 외에 별도로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이 이후에 둘 사이의 형세가 어떠한 시기時機가 되더라도 조정이 지휘하시는 한 가지 길에 종사해서, 만약 저들이 확연히 거절의 기미를 드러낼 때 재관在館 근무자들의 진퇴와 거류去留는 모두 관원의 지시에 따르고, 그 시기에 임하여 종전의 옛정이나 사사로운 마음에서 털끝만큼도 고식적姑息的 행동을 해서 안 된다. 어디까지나 황국의 위령威靈을 더럽히지 않고, 천하의 대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맹세하고 분골쇄신해야 한다.

· 찾아보기

ㄱ

가고시마번 鹿兒島藩	41, 160, 223
가라쓰 唐津	61
가라후토 樺太	95, 132, 136
가이즈 시게타로 海津茂太郎	269, 276, 277, 280
가키토리	63, 71, 75, 82, 127, 135, 141, 168
간전관 幹傳官	62, 72, 73, 289
강화도 江華島	22, 23, 24, 78, 107, 109, 119, 122, 123, 124, 150, 151, 152, 153
경성 京城	85, 220, 222
고모다 다키 薦田多記	268
고바야시 다다시 小林匡	28, 83, 93, 99, 114, 125, 126, 134, 136, 156, 159, 171, 185, 207, 210, 225, 300
고베 神戸	56, 66, 67, 68, 131, 136, 141, 156
고조네 겐도 小曾根乾堂	41
곤도 마스키 近藤真鋤	43, 68, 99, 141, 156, 159, 171, 185
교토 京都	136
규슈 九州	42, 167, 248
김철균 金澈均	239, 242
김해 金海	222

ㄴ

나가사키 長岐	22, 23, 26, 33, 37, 44, 45, 55, 56, 60, 61, 66, 67, 69, 78, 85, 86, 93, 101, 112, 113, 114, 127, 128, 131, 147, 148, 153, 154, 155, 156, 157, 158, 208, 211, 232, 252, 287, 288, 289, 297, 299, 304
나카노 교타로 中野許太郎	53, 201
난바 아사카 難波安積	29, 63, 75, 96, 268, 274, 275

ㄷ

다대포 多大浦	217
다이랴노 요시아키라 平義達	234, 237, 238, 290
다카세 하치로 高瀬八郎	150
다케시마 竹島	149, 153, 154
대원군 大院君	72, 150, 151, 152, 218, 219, 282
데라지마 寺島	95, 132, 135, 138, 163
도쿄 東京	31, 42, 43, 53, 65, 67, 95, 99, 112, 123, 127, 131, 132, 135, 138, 141, 154, 155, 158, 166, 168, 170, 176, 180,

181, 186, 187, 189, 219, 232, 247, 272,
277, 279

도쿠다이지 사네쓰네|德大寺實則 175, 186

독일 41, 52, 53, 59, 156, 199, 201

동래 24, 31, 32, 33, 35, 36, 37, 38, 48,
49, 50, 52, 128, 148, 179, 182, 183, 190,
192, 193, 201, 210, 212, 234, 235, 236,
237, 241, 246, 247, 266, 268, 274, 281,
282, 284, 291, 292, 293, 303, 306

동래부 23, 25, 26, 77, 81, 124, 125,
182, 240, 242

동래부사 25, 26, 32, 52, 73, 79, 152,
165, 238, 239, 241, 281

ㄹ

러시아|米魯 43, 113, 132, 141, 249, 271

ㄱ

모노카시호 86, 87, 89, 91, 104, 118, 119, 121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 33, 36, 37, 43, 44,
47, 64, 65, 68, 69, 70, 78, 83, 93, 99, 111,
112, 114, 124, 130, 136, 137, 142, 143,
148, 149, 156, 158, 159, 164, 166, 168,
171, 182, 183, 185, 189, 190, 199, 200,
201, 211, 219, 224, 237, 241, 256, 265,
266, 267, 269, 274, 275, 276,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5, 301,
302, 304

몽고국|蒙高國 222

물치도|ホイシー 87, 88, 89, 120

미국 20, 21, 22, 23, 24, 25, 26, 27, 30,
40, 43, 45, 55, 56, 57, 58, 59, 60, 66, 67,
69, 70, 71, 72, 73, 76, 77, 78, 79, 80, 82,
83, 84, 85, 88, 89, 94, 97, 98, 100, 101,
105, 106, 107, 110,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3, 125, 127,
130, 131, 135, 136, 138, 139, 147, 148,
149, 159, 183, 226, 232, 253, 271, 282,
285

미부 모토나가|任生基修 186

미야가와|宮川 60, 131

미츠가와 신조|滿川新 41

미토번|水戸藩 67

밀레트호 88, 121

ㅂ

베이징|北京 71, 72, 78, 79, 147

부산 24, 31, 32, 33, 35, 36, 37, 38, 48,
49, 50, 52, 56, 65, 111, 112, 127, 128,
148, 179, 183, 184, 190, 192, 193, 199,
202, 210, 212, 234, 235, 236, 237, 240,
241, 242, 246, 247, 266, 268, 274, 282,
284, 291, 292, 293, 303, 306

부산첨사 32, 239, 242



사가라 단조相良丹藏 37, 191, 193, 289, 294, 295, 296, 298
 사가라 마사키相良正樹 37, 289, 291, 300, 301, 302
 사다 나오히로佐田直寛 42, 43, 63, 68, 96, 99, 141, 156, 171
 사와 노부요시澤宣嘉 97, 100, 174, 199, 251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200
 산둥山東 147
 상하이 23, 55, 85, 87, 88, 101, 107, 114, 121, 122, 131, 147, 157, 254
 소 시게마사宗重正 23, 26, 28, 31, 32, 34, 35, 38, 82, 97, 125, 126, 170, 179, 180, 181, 182, 185, 187, 189, 190, 191, 192, 244, 246, 272, 300, 303
 소 씨宗氏 28, 29, 34, 35, 48, 51, 59, 84, 126, 127, 128, 129, 168, 180, 182, 183, 184, 197, 199, 200, 201, 204, 209, 233, 247, 248, 249, 250, 251, 252, 256, 258, 260, 261, 262, 266, 268, 270, 271, 277, 278, 282, 285, 286, 289
 소 요시아키라宗義達 34, 216, 272
 수원 22, 23, 78, 79, 80, 133
 스미나가 게조住永啟三 125, 151, 152
 신미양요 19, 20, 23, 24, 26, 27, 110, 166
 쓰다 마미치津田眞道 95
 쓰시마對州 18, 19, 25, 26, 27, 28, 29, 31, 33, 34, 35, 36, 74, 77, 127, 128, 135, 170, 180, 181, 182, 196, 197, 198, 200, 201,

202, 203, 204, 208, 209, 211, 212, 213, 214, 233, 245, 249, 250, 252, 261, 262, 263, 275, 277, 282, 286, 287, 289, 301

쓰시마노카미對馬守 35, 234, 235, 236, 237, 238, 239, 241, 242, 290



안도 다로安藤太郎 26, 56, 57, 60, 61, 62, 69, 70, 77, 78, 82, 83, 93, 99, 114, 127, 132, 159, 184

알래(라)스카호 87, 88, 89, 103, 119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 65, 94, 96, 286

예조참판 32, 33, 35, 37, 152, 195, 210, 215, 234, 250, 290, 291

오사카 40, 136

오사카부 111, 112

오시마 도모노조大島友之允 29, 52, 55, 180, 189, 191, 201, 244, 280

오시마 마사토모大島正朝 191, 193, 201, 207, 212, 244, 280

오쿠 요시노리奥義制 43, 68, 69, 99, 141, 142, 156, 157, 171, 185

와카마쓰若松 163, 172

와타나베 기요시渡邊清 185, 262, 263

요시다 세고吉田誠吾 112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7, 40, 43, 46, 47, 64, 65, 66, 68, 69, 70, 76, 77, 78, 82, 83, 93, 94, 99, 110, 111, 112, 114, 122,

124, 127, 130, 131, 134, 136, 137, 140,
142, 143, 147, 148, 149, 155, 156, 157,
158, 159, 168, 170, 171, 182, 183, 185,
189, 190, 199, 211, 217, 219, 223, 224,
236, 237, 253, 269, 270, 273, 274, 279,
285, 293, 295, 302, 303, 304

요코하마 43, 61, 66, 89, 95, 127, 132,
134, 143, 208, 297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 26, 37, 46, 48, 64,
65, 70, 79, 84, 85, 124, 148, 199, 201,
289, 294, 295, 296, 298, 300, 301, 302

우암포牛巖浦 165, 217

워싱턴 22, 100, 104, 121

이마리伊万里 37, 233, 252, 256, 260,
262, 263, 288, 294, 295, 299, 302, 305

이양선異船 21, 23, 26, 78, 79, 124, 153,
202, 204, 220, 221, 222

이즈하라巖源 20, 26, 27, 28, 29, 30, 31,
34, 35, 37, 38, 45, 47, 54, 57, 61, 93, 94,
111, 113, 127, 139, 143, 157,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92, 202, 205, 213,
214, 215, 218, 219, 220, 233, 244, 252,
256, 257, 260, 261, 262, 263, 272, 277,
280, 286, 289, 295

이즈하라번巖源藩 29, 30, 31, 44, 45, 46,
52, 56, 57, 61, 62, 63, 64, 65, 66, 68, 75,
77, 82, 83, 96, 97, 98, 100, 112, 113, 125,
126, 127, 128, 129, 130, 135, 136, 137,
138, 139, 140, 142, 143, 147, 148, 166,
167, 190, 233, 241, 268, 274, 279

이즈하라번청巖源藩廳 76, 114

ㄸ

정현덕鄭顯德 165, 238, 239, 241

제주도 165, 223

조선사무변리朝鮮事務辦理 57, 62, 66

존 로저스ジョンローゼル 120

지나 43, 67, 81, 88, 90, 104, 114, 141,
147, 153, 157

ㄹ

청도 220, 222

초량관草梁館 21, 23, 25, 26, 38, 66, 69,
72, 73, 77, 78, 127, 265, 306

초량관사草梁館司 76

초량왜관 18, 20, 25, 26, 29, 32, 37

치푸芝罘 85, 88, 121, 147

ㅋ

콜로라도호 89, 101, 119, 120

ㅌ

타이슈對州 27, 46, 49, 50, 51, 59, 66, 69,
93, 94, 95, 96, 138, 139, 158, 164, 165,
166, 167

태정대신太政大臣 31, 138, 140

텐진天津 67, 157

ㄹ

프랑스 41, 67, 68, 101, 102, 103, 105

프러시아 41, 68

ㅎ

하코다테箱館 67, 96, 132, 253

한양 53, 72, 77, 79, 81, 105, 124, 150, 151

홍콩香港 121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191, 193, 194

후쿠이번福井藩 42

흠차대신欽差大臣 133

히고肥後 60

히고 쇼시치肥後莊七 41

히구치데쓰시로樋口鍊四郎 275

히로세 도요키치廣瀬豊吉 64, 65, 148

히로시마廣島 60, 61, 93, 113, 164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23, 26, 28, 30, 31,
32, 35, 36, 37, 40, 42, 43, 44, 45, 46, 47,
57, 62, 64, 65, 66, 67, 68, 69, 70, 71, 77,
78, 82, 83, 93, 97, 98, 99, 111, 112, 114,
122, 125, 126, 127, 129, 130, 132, 138,
141, 142, 143, 148, 156, 157, 158, 159,
167, 169, 170, 179, 180, 181, 182, 191,
193, 194, 195, 196, 198, 199, 200, 201,
205, 206, 207, 210, 212, 215, 217, 218,
219, 224, 229, 232, 233, 234, 237, 243,
246, 251, 253, 256, 257, 258, 259, 260,
261, 266, 267, 269, 274, 276,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5, 296,
302, 304